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1

군선교, 청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비리라”(렘 33: 3).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꿈이 담긴 비전2030 실천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되어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위하여
3. 10만 명의 기독교장병 (신규 6만 명, 기세레자 4만 명)을 파송하기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260여 군종목사, 650여 군선교사,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6.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7.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
어 주시며
8. 군선교 거점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장병을 양육하고 정착하여 군선교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9.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 훈련(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기독교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10.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 머리말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라는 질병과 싸우며, 비대면과 대면을 반복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 깨워 군선교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도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개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정치, 교육 등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젊은 MZ세대들이 군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2년의 시간 동안 군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시 사회로 파송이 되는데 세상을 보면서 틀린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들의 고집과 아집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곳이 군이라 생각합니다.

장병들이 군에서 이루어 내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관은 곧 사생관과 국가관으로 이어지고 우리 미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발판 위에 병영문화를 세워 가야 하는데 군에서 만나는 군종목사, 군선교사, MCF회원들, 바로 이분들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MZ세대 장병들에게 말씀의 나침반, 등대(시 119: 105)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2년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전시 군종목사의 활동과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전시에서의 군선교 중심축인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동역 사역은 무엇보다 중요

하며,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활동과 역할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그에 힘입어 군선교 현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일, 신학적 기반을 든든히 정립해 놓아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 사역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선교신학회 매년 군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외면하지 않고, 신학적 논증으로 준비하는 신학회 연구위원들의 탐과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논문집 21권이 발행됨에 따라 군선교의 올바른 방향이 더욱 선명해 지고 반듯하게 정진하여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군선교신학회 회장으로서는 물심양면 섬겨주시는 곽요셉 목사님, 군선교신학 개발과 정립을 위해 힘써주시는 연구위원님들과 군선교연합회 사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 기독교군종교구장
 김삼환 목사

● ● 발간사

“우리 군에도 성직자가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첩판으로 무장시켜 기도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옵소서.”

6·25전쟁 당시 한 카투사 병사의 편지 한 통이 대한민국 군종병과의 시작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군에서 신앙의 힘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서양의 격언이 말해주듯,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무형전력, 신앙을 통한 군종장교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전시 임무 수행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6·25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부터 군종장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군종 장교의 활동과 역할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잘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군종병과 모토인 ‘함께 하라’처럼 군종장교는 장병 중심, 현장 중심으로 활동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군종장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군종활동이 미흡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군종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지원하며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인지하여 간다면 전시군종활동은 긍정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군선교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 주제1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과 주제2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발제 논문들을 잘 보았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 한국군종목사단과 심도 있게 주제를 논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글에서 끝나는 논문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심점이 되고, 촉진할 수 있는 논문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 연구위원의 논문과 일반논문들, 그리고 그 논제들을 논문집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신학회의 큰 자산이자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현장의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승화시켜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군선교신학 논문집, 해를 거듭하면서 문제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와 폭은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논문집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귀한 옥고를 써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25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곽요셉 목사

● ● 차례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 기독교군종교구장) ... 4
- 발간사 | 광요셉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장) ... 6

심포지엄 논문

- 013 기조강연 이 천국 복음 (마 24: 14) | 광요셉
- 015 발제1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 이규철
- 066 논찬1 이규철의 논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 이석영
- 077 발제2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임정인
- 109 논찬2 임정인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 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찬 | 전요섭

연구위원 논문

- 117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섭

- 227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 전요섭

- 259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 이규철

- 321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일반 논문

- 343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 윤상철
- 371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 이용락
- 391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이은성

부록 1

- 423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429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 433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 441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2002년~2022년까지)

심포지엄 논문

기조강연

이 천국 복음 (마 24: 14)

| 광요셉 |

발제1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 이규철 |

논찬1

이규철의 논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 이석영 |

발제2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임정인 |

논찬2

임정인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 스트레스와 전투 수행

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찬

| 전요섭 |



이 천국 복음 (마 24: 14)

This Gospel of the Kingdom

» 곽요셉 D. Miss.*

* 한국군선교신학회장, 예수소망교회, 에덴낙원이사장

* 논문 기고자 Email: jesushope1@daum.net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Augustine's ministry in *Vita Augustini* 28-31 for the
Korean Army Wartime Chaplain Operation

» 이규철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이 429-430년에 북아프리카를 침공한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에 대응하여 펼친 사역이 한국 군종목사들의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신학적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비록 그가 노구의 몸이었지만 단호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로마군으로 하여금 의로운 전쟁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채근하였고 전쟁의 공포에 짓눌린 북아프리카 사회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역에 전념하는 특이점을 함유한다.

이런 점에서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모습은 한국군의 정신적 영적 리더로서 전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장병과 함께하며 군종활동 임무수행을 감당해야 하는 군목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롤 모델(role model)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평가된다.

중심단어

어거스틴, 반달족의 침공, 어거스틴의 생애, 어거스틴의 사역, 한국군 전시군종활동

• 논문 투고일: 2022년 8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8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5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1. 들어가는 말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전시(戰時) 한국군 군종장교들, 특히 군종목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기대응 군종활동 임무 수행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칼라마’(Calama)의 주교로서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의 생애 전기인 *Vita Augustini*를 저술한 ‘포시디우스’(Possidius)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침공한 반달족 연합군이 저지른 참상은 참혹했다.¹⁾ 어거스틴은 아프리카를 침공한 반달족 연합군에 의해 연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 4)에 처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한 목회 사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 포시디우스는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한 어거스틴의 사역을 이렇게 집약한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참상에 대해 “더 깊고 심오하게 성찰”하면서, 특별히 반달족의 침공으로 인해 수없는 영혼이 위협에 처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견했다. …그분께서는 밤낮으로 눈물의 빵을 드셨으며 그 누구보다도 슬프고 쓰디쓴 인생의 마지막을 연만하신 몸으로 겨우 지탱하고 참아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된 도시와 시골들을 보셨고, 더불어 잔인한 원수들에게 살해되거나 도망가고 흩어진 주민들, 그리고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은 교회들, 뿔뿔이 흩어진 거룩한 동정녀들과 수도승들을 보셨다. …그 당시 보니파티우스 방백의 방어 덕분에 고트족 연합군에게서 아직은 무사했던 히포 지역을 적들이 포

1) 포시디우스는 ‘반달족(Vandals), 알라니족(Alans), 고트족 일부(some of the Goths)’가 연합하여 북아프리카를 침략한 만행을 이렇게 폭로한다. “침략자들이 마우리티니아 지방을 두루 거쳐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온갖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약탈, 학살, 갖은 고문, 방화, 헤아릴 수 없이 극악한 만행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저지르며 약탈했다. 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교들이나 성직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장식물이나 책, 교회 건물마저도 모조리 휩쓸어 버렸다.”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28, 5, 이연학·최원호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8). 본고에서 *Vita Augustini*는 이연학, 최원호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Herbert T. Weiskotten tr., *The Life of Saint Augustine* (Merchantvil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19)를 함께 참고하여 연구에 임한다. 이하 각주에서 *Vita Augustini*는 *v. Aug.*로 표기한다.

위해 오자 그분의 눈물과 탄식은 더욱 커졌다. 어거스틴은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 1: 3)께 탄식하고 울며 기도드렸다. 또한 동료 주교 ‘호노라투스’(Honoratus)가 “적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는 ‘참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의 편지’를 통해 환난 날에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회사역자의 도리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했다.²⁾

전시 위기상황에서 군종활동 임무수행(perform)의 핵심은 ‘생존자에 대한 양육, 부상자에 대한 돌봄, 사망자에 대한 예우’³⁾에 있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Pastoral Care)⁴⁾은 비록 그가 로마군에 종군하지는 않았지만 반달족의 침공을 저지하는 로마군을 격려하고 전쟁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수고를 다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군종목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군종활동을 수행했다고 사료된다.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사역과 자세는 6·25한국전쟁 시 군종제도⁵⁾가 도입된 이래 월남전

2) *v. Aug.* 28-30.

3) US Army Chaplain Center and School, *The Unit Ministry Team Handbook*, Reference Book 16-100, 김태규 등 역, 『군종부 핸드북』 (군선교발전위원회, 2000), 1-2. 종합적인 종교 지원은 군종부가 수행하고 제공하는 목회활동, 의식(rites, ceremonies), 성례전(sacraments, ordinances), 종교행사 및 교육, 목회상담 및 방문을 포함한다. 또한 종합적인 종교지원은 전투피로증 선도, 도덕적 윤리적 상담, 사회적 관심 및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박기영’과 ‘송진영’에 의하면, ‘돌봄’(care)은 치료를 의미하는 ‘cura’에서 유래했다. cura는 보살핌(care)과 치유(cure)를 뜻한다. 이 점에서 돌봄은 사람이나 물건을 돌보는 과제 내지 그 돌봄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경험이 구체화된 ‘치료’의 뜻으로 사용된다. 라틴 교회에서는 목회 돌봄을 ‘영혼의 치료’(cura animarum)라고 불렀다. 여기서 영혼은 인간의 인격성의 본질적 측면인 ‘몸’과 연결된다. 영혼의 돌봄 개념은 1950년대 중엽까지 사용되다가 ‘목회적 돌봄’과 ‘목회상담’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목회 돌봄은 전통적인 영혼 돌봄이 포함된 광의적 돌봄과 비(非)구조화된 상담을 포함한다. 목회 상담은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만남이 수반된 전문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박기영, 송진영,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돌봄 패러다임 연구,” 『신학과 실천』 73 (2021), 510.

5) 백창현에 따르면, 1950년 12월 21일 군종 제도를 설치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제 29

과 무장공비소탕작전을 비롯한 해외파병 장병들과 늘 생사를 함께 하여 왔고 앞으로도 함께하여야 할 한국군 군종목사들의 전·평시 군종활동임무수행에 참으로 소중한 귀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반달족이 속한 게르만족의 이동과 관련한 연구⁶⁾에 비해 게르만족 일파인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성직자로서 사역에 대한 연구⁷⁾는 매우 미비하다. 특히 *Vita Augustini* 28-31에 투사된 어거스틴의 위기대응 사역과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을 연계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런 점에서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논자는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을 살핍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해명하고 규명하면서 귀결에 이르고자 한다. 첫째, *Vita Augustini* 28-31에 투사된 시대상은 어떤 형국인가? 둘째,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한 배경과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반달족의

호를 바탕으로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 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科)가 설치됨으로써 육군 군종제도가 창설되었다. 백창현 편,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서울: 한국군목회, 2015), 107.

6)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한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기문, “서로 마제국의 멸망,” 『西洋史研究』 25 (2000): 139-162; 이종호,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촉발시킨 훈족과 韓民族의 親緣性에 관한 연구,” 『백산학회』 66 (2003): 197-246; 손호은, “게르만족의 민족대이동기의 생활상 고찰,” 『인문학논총』 14(1) (2009): 41-61; Ban, Kee-Hyun, “Antonius Pius’ Frontier Revision in Britannia,” 『서양고대사연구』 33 (2012): 191-211; 김철민, “몬테네그로 민족 정체성 논쟁: 발칸반도 정착부터 12세기 초까지,” 『동유럽발칸연구』 36 (2013): 307-333;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7-184; 홍용진, “4세기 말 6세기 중반 게르만족의 대이동: 침입인가, 이주인가?” 『이주사학회』 8 (2013): 5-20; 김현일, “아틸라 사후 훈족의 동향,” 『세계환단학회지』 2(2) (2015): 30-48; 차전환, “팍스 로마나: 평화의 선전,” 『史叢』 88 (2016): 122-146.

7) 이규철,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군선교, 청년』 16 (2017): 243-275; 이규철,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돌봄 영성,” 『군선교, 청년』 20 (2021), 165-196.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 사역의 진면(眞面)과 특이점은 무엇인가? 넷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통전적 검토를 통해 *Vita Augustini* 28-31에 투사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의 정신적 영적 리더인 군종목사들이 전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 수행의 내용과 자세에 대한 신학적 시사점을 궁구해 보고자 한다.

2. *Vita Augustini* 28-31에 대한 전이해

1) 시대상

Vita Augustini 28-31은 429-430년 어간(於間)에 ‘겐세리크’(Genseric, 게이세리크)⁸⁾가 이끄는 반달족이 로마령 북아프리카를 침공한 것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수록한다. 그렇다면 *Vita Augustini* 28-31이 유발된 즈음의 대체적인 시대상은 어떤 형국인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의 안정성은 4세기 중엽부터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마시모 폰테실리’(Massimo Pontesilli)에 따

8) ‘장 카르팡티에’(Jean Carpentier)와 ‘프랑수아 르브룅’(François Lebrun)은 에스파냐 지역을 차지한 반달족이 429년 5월 서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질을 지휘해 온 ‘가이세리크’에 의해 재규합되었다고 지적했다. 가이세리크는 타리파(에스파냐 남단의 항구도시)에서 로마인들에게서 동원한 배를 이용하여 반달족과 토착민들로 구성된 8만 명을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탕헤르’ 항 근처에 상륙시킨다. 이들은 동쪽으로 진군하여 430년에는 ‘보네’를 점령하고, 439년에는 소맥 저장소인 카르타고를 점령한다. 455년에는 이들이 로마를 약탈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을 기습하고 서지중해 연안과 동로마제국간의 교류를 위협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하지만 지중해를 장악했던 반달족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재건한 강력한 해군에 의해 553년 궤멸된다. 장 카르팡티에, 프랑수아 르브룅, 『지중해의 역사』, 강민정·나선희 공역 (서울: 한길사, 2006), 167.

르면, 로마는 기원전 3세기 말에 이미 남쪽으로 향하는 게르만족과 접촉한 이래⁹⁾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긴장과 평화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4세기 중반 훈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훈족이 게르만족을 밀어붙이면서 소위 ‘게르만족의 대이동’¹⁰⁾이 시작된다. 마시모 폰테실리는 이를 이렇게 정리한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출발하여 흑해 북쪽 지역으로 침입한 투르크멘 유목민들은 우선 알라니족을 격퇴한 다음, 동고트족의 지배를 무효화한다. 동고트족의 일부는 항복했다. 다른 일부는 알라니족과 서고트족 등과 함께 모이시아 지역으로 도주하여 375년에 발렌스 황제에게 로마제국 영내로 받아 줄 것을 요청한다. 로마 제국은 야만족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정한 고트족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던 발렌스 황제의 시도는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혹독한 패배를 당하고, 발렌스 황제도 그곳에서 사망한다. 테오도시우스 황제(347-395년)가 서둘러 맺은 평화협정 덕분에 서고트족들의 정착은 더 우호적으로 급속히 진행된다. 서고트족은 ‘동맹’의 형태로 트라키아와 모이시아를 점령한다. 서고트족은 로마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발칸 반도를 습격한 뒤, 401년 알라리크 치하의 이탈리아에 도달한다. 한편 반달족 출신의 로마총사령관인 스틸리코(365-408년)에 패배한 알라리크는 로마에 도달하기 위해 408년 이탈리아를 공격하고, 410년 8월에는 그 유명한 로마의 약탈을 자행할 정도로 위협적이 된다. 이때부터 ‘아타울푸스’의 지배를 받던 고트족이 갈리아 지방으로 향하게 되고, 아퀴타니아를 점령한 다음(413년) 에스

9) 마시모 폰테실리, “야만족의 이주와 서로마 제국의 종말,” 움베르토 에코 편, 『중세 1-야만인,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도의 시대』 (서울: 시공사, 2015), 71.

10) ‘피터 히더’(Peter Heather)에 의하면, 게르만족 이동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세 방향에서 검토된다. 첫째, 게르만족 이동의 성격은 ‘침입’(invasion)인가 아니면 ‘이주’(migration)인가? 둘째, 게르만족은 문명과는 상관없는 야만족인가 아니면 나름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있는가? 셋째, 게르만족은 로마를 멸망시켰는가 아니면 로마문명을 변형 계승했는가? 피터 히더는 게르만족 이동에 대해 프랑스나 영국 학자들은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보는 반면, 독일학자들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민족이주’(Völkerwanderung)로 본다고 지적한다. Peter Heather, *Empires and Barbarians: The Fall of Rome and the Birth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2-13.

파냐 국경을 넘어간다. 에스파냐에서는 416-418년에 새로운 서고트 왕 ‘발리아’(Vallia)가 로마의 이름으로 반달족과 알라니족을 무찌른다. 아퀴타니아로 돌아온 서고트족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여 에우리크(Euric)왕국을 비롯하여 에스파냐의 많은 지역을 새롭게 지배하게 된다.

로마제국의 서쪽 지역(pars)의 종말이 시작된 날짜는 406년 12월 31일이다. 이때 알라니족, 반달족, 수에비족은 마인쯔 근처의 얼어붙은 라인강을 통과한 다음에 방해받지 않고 갈리아 지방으로 향한다. 리메스를 방어한 유일한 종족은 다른 부족에 속하는 동맹관계의 프랑크족이었는데, 스틸리코가 알라리크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군대를 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침략자들은 갈리아지방을 약탈 한 뒤, 409년에 에스파냐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영토를 분할하여 정착한다. 아스딩기 반달족(Vandali Asdingi)과 수에비족은 북서쪽을 점령하고, 실링기 반달족(Vandali Silingi)은 발리아 왕이 이끄는 서고트족에 의해 전멸된다. 반면 가이세리크(390-477년)가 이끄는 아스딩기 반달족은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로마 제국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면서 막강한 왕국을 건설했다. 함대를 갖춘 가이세리크는 지중해 권에서 성공적인 동맹정책과 확장정책을 펼치면서 새르테나와 코르시카를 전제했고, 시칠리아를 정복했으며, 로마제국을 무자비하게 약탈했다(455).¹¹⁾

로마제국의 총독령 아프리카 히포에서 시민이자 주교로서 살았던 어거스틴과 동시대 크리스천들이 이런 로마제국에 대해 가졌던 세계관은 어떠했을까? ‘최혜영’에 따르면,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무렵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로마를 보는 관점에는 서로 대립된 두 시각이 병존했다. 하나는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의 견해로서 로마를 바벨론적 로마 혹은 순교자들을 박해한 로마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의 제자 ‘오로시우스’의 관점으로서 예수 그

11) 마시모 폰테실리, *op. cit.*, 73-74.

리스도가 그 시민으로 태어난 로마, 그리고 순교자들로 영광을 차지한 로마로 보는 시각이다.¹²⁾

어거스틴이 히포에서 사제로 임명을 받고 그 곳에 수도원을 설립한 다음해인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 대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다. 이후 정국이 안정된듯하던 로마 제국은 395년 1월 테오도시우스 1세가 서거¹³⁾한 후 동·서 로마로 분할된다.¹⁴⁾ 동로마 제국은 ‘아르키디우스’(Arcadius), 서로마 제국은 ‘호노리우스’(Honorius)가 통치한다. 423년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 사후 ‘발렌티니아누스 3세’(423-455)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한다.

그런데 로마제국의 권력 변환 시기에 로마가 침탈당하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한다. ‘데이비드 프라이’(David Frye)는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Alaric)가 이끄는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침탈당한 사건을 이렇게 평한다.

12) 최혜영, “영원한 로마’ 이념과 유럽 공동체 혹은 ‘유로메나,’” 박단 편, 『역사 속의 유로메나·교류와 갈등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21), 22. 먼저 어거스틴의 경우, 어거스틴은 로마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로마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로마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 때 세계를 지배한 나라에 불과하며 특별한 사명이 있다거나 영원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오로시우스의 경우, 로마는 이전의 제국들과 크게 구별된다. 바로 그리스도교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로마 제국의 한 인구가 등록되기를 원하셨다. 이에 오로시우스는 로마 역사가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섭리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로마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오로시우스는 자신이 그리스도교인 동시에 로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돌연한 폭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는 한 로마인이며, 한 그리스도교도로 그리스도교도들과 로마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Ibid.*, 22-23.

13)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에 따르면,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은 두 아들을 통해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있어도 지상에 남은 두 아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병 여러분도, 시민 여러분도 돌아가신 황제한테 충성을 바쳤던 것처럼 젊은 두 후계자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5-로마 세계의 종언』, 김석희 역 (파주: 한길사, 2012), 24.

14) Susan Lynn Peterson, *Timeline Charts of the Wester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99), 395.

로마의 아우라는 그 도시에 그 어떤 특별한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강간당했고 시체들은 묻히지도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에 탄 건물 외관이 수십 년 동안이나 보수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로마를 탈출하는 난민들이 줄을 이었고 그들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같은 먼 도시로 향했다. ...히에로니무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이 꺼졌다. 하나의 도시와 함께 세계 전체가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했다.¹⁵⁾

영원한 제국으로 여겨진 로마의 쇠망(衰亡)¹⁶⁾은 이 ‘로마의 침탈’(The Sack of Rome) 이후 더욱 가속화된다. 415년 서고트족은 스페인에 왕국을 건설했다. 429년 봄 반달족 약 10만 명이 지브롤터 해협

15) 데이비드 프라이, 『장벽의 문명사』, 김지혜 역 (서울: 민음사, 2020), 180.

16) 사계 학자들은 로마의 쇠망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한다. ‘몽테스키외’는 그리스도교와 야만족들에 의해 로마가 쇠망했다고 본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로마제국이 쇠망하던 무렵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게르만 야만족들로 인해 로마제국이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야만족들은 로마제국 쇠퇴의 책임이 도리어 그리스도교에 있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박광순 역 (파주: 범우, 2007), 210; ‘헌팅턴’(E. Huntington)은 로마제국의 멸망원인을 기후변화와 농업의 피폐에 있다고 본다. E. Huntington, “Climatic Change and Agricultural Exhaustion as Elements in the Fall of Ro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31(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지동식,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는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 71에서 재인용; ‘웨스트만’(W. L. Westermann)은 ‘고대의 노예제, 인구의 감소, 고대의 세계, 귀금속의 계속적인 동방으로의 유출, 그리스도교, 야만족의 이동’ 등에 의해 로마가 쇠망했다고 집약한다. W. L. Westermann, “The Economic Basis of the Decline of Ancient Cul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XX(1915). 지동식, *Ibid.*, 115-116에서 재인용;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의 분석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융성과 쇠락은 단적으로 “비정상적인 팽창의 필연적 결과”였다.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강석승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411; 보크(Arthur E. R. Boak)는 로마 쇠망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의 감소를 지목한다. 곧 2세기 후반부터 흑사병, 전쟁, 기아, 강제추방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제국 내 큰 폭으로 인구감소가 심해졌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의 감소를 가속화했고 결국 로마제국을 멸망시켰다고 지적했다. Arthur E. R. Boak, *Manpower Shortag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in the Wes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5), 1-169; 존스(A. H. M. Jones)는 서로마제국의 결정적 붕괴원인이 게르만족의 침입에 있다고 보았다. 존스에 의하면, 동로마 제국은 페르시아의 위협이 직면했지만 그 위협의 강도는 서로마가 직면한 게르만족의 위협에 미치지 못하였고 사막이라는 천연의 방어물이 있어 방어에 용이하여 제국의 역사에 장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로마 제국은 3세기 중엽부터 강력한 게르만족의 압력에 직면하였고 그 반경 또한 매우 넓어 제국의 방어가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 H. M. Jones,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1026-1031.

을 건너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여 동진(東進)을 거듭하여 튀니지와 동부 알제리 등 로마의 아프리카 속주를 정복했다.

‘주경철’에 따르면, 지중해 전체가 ‘하나의 세계’(oicumene)로 되어 하나의 지배세력 하에 들어간 것은 3세기 중엽 로마의 전성기 때가 유일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Mare nostrum)로 여겼다.¹⁷⁾ 그러했던 로마는 반달족이 스페인으로부터 북아프리카로 상륙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로마의 해군력이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자크 르고프’(Jacques Le Goff)의 평가에 의하면, 429년 그 당시 반달족은 함대를 갖춘 유일한 게르만족이었다.¹⁸⁾

그토록 강성했던 로마군의 전력이 어찌하여 게르만족의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고 와해 될 정도로 몰락하게 되었을까? ‘김대식’의 분석에 따르면, 발렌 황제 말엽인 378년 8월 9일 서고트족과 대진한 ‘아드리아노폴 전투’(Battle of Hadrianopolis) 패전¹⁹⁾이 결정적이다. 발

17) 주경철, 『바다인류-인류의 위대한 여정, 글로벌 해양사』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2), 152. 주경철은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여 북아프리카가 이슬람권이 되었을 때 지중해는 문명의 ‘중심’에서 두 문명의 ‘경계’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Ibid.*, 153.

18)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11), 60.

19) 김대식,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파주: 21세기북스, 2019), 184. 김대식에 따르면, 발렌스가 재위하던 4세기 로마의 가장 큰 문제는 훈족의 침입이었다. 동아시아 유목민족인 훈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고트족(Goths)을 압박했다. 서고트족 족장은 발렌스에게 서신으로 트라키아(Thracia)로 이주해 줄 것을 청원한다. 이 때 로마에 서는 고트족 이주를 두고 군사력 증강이나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과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고트족 이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쟁이 불붙었다. 오늘날의 난민 문제와 다를 바 없다. 발렌스는 국경선을 열고 고트족을 받기로 결정한다. 군인신분이었던 고트족들의 무기는 모두 압수하고 아들들은 포로로 삼는 대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 주기로 발렌스는 약조했다. 허나 중간 관리들이 수십만 명이 먹을 식료품을 모두 갈취했다. 결국 난민들은 로마 국경 안에 들어와 굶어죽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관리들은 등가가 아닌 것들의 거래를 했다. 개 한 마리와 젊은 여자 세 명이 등가로 취급되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이에 고트족의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 초기만 하더라도 발렌스는 상당수의 고트족을 물리치고 진군한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때와는 달리, 당시의 로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혼란 속에 있었다. 또한 당시의 반란을 바로 진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에 군대를 모아 대응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발렌티아누스의 아들로서 발렌스의 조카이자 서로마 황제인 ‘그라티아누스’(Gratianus, 재위 375-383)

렌스가 이끌던 로마군인들의 2/3가 궤멸되었기에 더 이상 로마는 수십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꾸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 그리스도교는 다방면에 걸쳐 전진을 거듭했다.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신약성서 27권의 정경을 이루었다. 411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도나투스파를 단죄하는 결정문을 공포했고,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펠라기우스파를 단죄했다. 428년 『신국론』(De Civitate Dei)을 완성한 어거스틴은 신학적 영적 목회사역에 절정을 구가했다.

Vita Augustini 28-31에 응축된 시대상은 복합적이다. 로마제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위상과 권위가 쇠잔해가고 있었다. 그에 반해 북아프리카의 공교회회는 신학적으로 견고하게 정립되어가며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강화되고 있었다.

2) 반달족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침공 배경과 양상²⁰⁾

Vita Augustini 28-31의 직접적 배경인 반달족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침공 배경과 양상은 어떠했을까?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사람들은 이집트를 제외한 오늘날의 모로코와 알제리를 ‘마우리타니아’(또는 마우레타니아), 튀니지와 리비아 서부를 ‘아프리카’라고 불렀다.²¹⁾ 로

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대규모 전투를 감행하지 말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콘스탄티노플 북부 ‘아드리아노폴’(Adrianople)에서 로마군 3분의 2가 전멸한다. 더구나 발렌스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준다고 군인보다 많은 로마 귀족과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그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결국 군인보다 구경꾼이 더 많은 비효율적인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로마군대는 몰락하게 된다. 이후 테오도시우스 왕조 때의 호노리우스(Honorius, 재위 393-423) 황제는 고트족의 침입과 약탈로 로마가 쇠락의 기운을 깊게 머금은 때도 로마가 아닌 라벤나에 피신하며 숨어서 비둘기를 키웠다. 이런 로마제국은 결국 476년에 멸망한다. *Ibid.*, 185-186.

20) 이 장은 논자의 줄고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176-182를 보강하여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21) 시오노 나나미, *op. cit.*, 226.

마가 강성할 무렵 북아프리카의 이 광활한 지역을 지키는 데는 로마 병사 6천 명으로 구성된 1개 군단과 거의 동일한 수의 보조병력 만으로도 충분했다.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로마군단은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제3 아우구스타 군단’으로 불렸고 200년이 넘는 기간 북아프리카의 안전을 지켜왔다고 시오노 나나미는 밝힌다.²²⁾

5세기 접어들어 북아프리카와 로마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당시 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8살 나이에 황제에 올랐기에 모후(母后) ‘갈라 플라키디아’(Galla Placidia)가 섭정(攝政)을 펼쳤다. 그런데 갈라 플라키디아는 ‘아프리카방면 군사령관’(magister militum per Africae)인 ‘보니파티우스’(Bonifatius)가 분리 독립을 꾀한다는 소문을 듣고 황제가 머물고 있는 ‘리벤나’로 보니파티우스를 소환했다. 하지만 보니파티우스는 황제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격분한 갈라 플라키디아는 2개 부대 토벌군을 보냈지만 이들은 여지없이 보니파티우스에게 격퇴를 당한다. 하지만 갈라 플라키디아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고트족 장수가 이끄는 두 번째 토벌군을 보냈다. 이때 보니파티우스는 두 번째 토벌군을 격퇴시키기보다 회유(懷柔)하는 전략을 폈다. 여기에 더하여 갈라 플라키디아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보니파티우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에스파냐의 반달족에게 병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윌리엄 캐논’(William Canon)에 따르면, 오늘날 독일에 자리했던 반달족은 아리우스주의자들로서 서고트족과 같은 시기에 이동하여

22) 시오노 나나미, *Ibid.*, 227.

갈리아를 거쳐 에스파냐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하였다.²³⁾ 에스파냐에 거주하던 반달족은 겐세리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반달족 족장 겐세리크는 그들이 여타 게르만족들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리는 형세에 처하자 1개 부대가 아니라 거족적(擧族的)으로 보니파티우스의 요청에 응했다.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그때 에스파냐에서 형세가 불리해진 반달족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버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정착지를 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²⁴⁾ 이렇게 해서 반달족 연합군 약 10만 명이 429년 봄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깨달은 보니파티우스는 자신이 회유한 고트족 출신 장수와 게르만족 병사들과 함께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반달족 요격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에 봉착한다.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차별받고 배척을 당한 도나투스파 기독교도들이 겐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에게 가세했기 때문이다. 당시 반달족은 아리우스파였지만, 이단으로 같이 취급받는 도나투스파는 반달족과 힘을 합쳐 정통교회에 대하여 대적했다. 여기에 더하여 기독교도가 아니기에 이등시민 취급을 받아온 ‘마우리타니아’(Mauritanie, 무어인) 사람들과 사막의 베르베르 족속까지 반달족의 공세에 가세했다.²⁵⁾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보니파티우스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23) 윌리엄 캐논,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4.

24) *Ibid.*, 231-232. 이에 대해 ‘에이드리언 골즈워디’(Adrian Goldsworthy)는 “보니파티우스가 반달족과 공모하여 아들을 아프리카로 끌어들이었다는 주장은 그저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본다. 에이드리언 골즈워디에 따르면, 이민족 집단과 동맹을 맺는 경우는 흔했지만 반달족이 그를 지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드리언 골즈워디, 『로마 멸망사』, 하현희 역 (서울: 루비박스, 2012), 422.

25) 시오노 나나미, *Ibid.*, 233-234.

1만 정도였다. 이 정도의 군력으로 반달족 연합 군세를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따라서 보니파티우스와 북아프리카 로마군은 히포레기우스를 방패로 1년 2개월 동안 반달족 연합군을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²⁶⁾ 포시디우스는 *Vita Augustini* 28에서 반달족 연합군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을 즈음의 참상을 이렇게 적시한다.

얼마 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에 속달된 대규모 군대가 몰려왔다. 잔인한 원수인 반달족과 알라니족²⁷⁾이 다른 혈통의 고트족과 연합한 그 군대는 배를 타고 에스파냐 바다 건너편에서 아프리카로 침입했다. 침략자들은 마우리타니아 지방을 두루 거쳐 우리 지방과 지역을 지나면서 온갖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약탈, 학살, 갖은 고문, 방화, 헤아릴 수 없이 극악한 만행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저지르며 약탈했다. 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교들이나 성직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장식물이나 제구, 교회 건물마저도 모조리 휩쓸어 버렸다.²⁸⁾

데이비드 프라이에 따르면,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북아프리카의 피해는 치명적이었다.

반달족은 도시 성벽 밖에 엄청난 시체더미를 남겼고, 그들의 공격을 견뎌낸 사람들은 시체 썩는 냄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반달족은 아프리카를 근거지로 삼아 매년 봄에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공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곳곳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도시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주교들은 “내가 한 곳에서 박해를 받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라”(마 10: 23)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회중을 버릴 것을 허락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곡과 마곡에 대한 관한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

26) *Ibid.*, 235.

27) 알라니족은 북카프카스에 있는 이란계 기마민족이다. 4세기 후반 알라니족은 훈족에 패한 뒤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해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건국에 참여했다. 몽테스키외, *op. cit.*, 200.

28) *v. Aug.*, 28, 4-5

은 계속되지 못했다. 로마의 속주 카르타고에서 도시민들은 그들 주변에서 함락되는 도시들의 참상을 외면했고 여전히 경주와 서커스에 몰두했다. 439년 반달족이 카르타고를 함락한 날에도 무심히 서커스를 보러간 카르타고 주민들이 있었다.²⁹⁾

어거스틴과 포시디우스는 반달족 연합군에 의해 당한 북아프리카의 상흔을 직접 돌아보고 이런 고회(苦懷)를 남겼다.

하나님의 사람(어거스틴)은 파괴된 도시들을 보셨고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괴된 건물과 더불어 잔인한 원수들에게 살해되거나 도망가고 흩어진 주민들 그리고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은 교회들 뿔뿔이 흩어진 거룩한 동정녀들과 수도승들을 보셨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고문을 이겨 내지 못했고, 더러는 칼에 맞아 죽었으며 더러는 노예로 전락하여 영혼과 육신의 온전함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악랄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원수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는 교회에서 사라졌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 건물은 불타버렸으며 합당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장엄한 희생제는 그쳤고 더 이상 거룩한 성사를 청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설령 청한다 할지라도 성사를 집전할 사람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다. 야산이나 암벽굴이나 동굴 또는 다른 요새에 피신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잡혀 죽었고 더러는 헐벗고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다.³⁰⁾

‘반달리즘’(Vandalism)이라는 용어는 이런 배경으로 생성된 것이다. 윌리엄 캐넌에 따르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인 반달족은 정통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간헐적으로 잔인하게 핍박했다. 반달족을 이끌었던 겐세리크는 마지못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지만, 겐세리크의 후계자 ‘후네릭’(Huneric, 477-484)은 더욱 가혹한 박해를 계속적으로

29) 데이비드 프라이, *op. cit.*, 184.

30) *v. Aug.*, 28, 7-9.

가하였다.³¹⁾

‘브라이언 타이어니’(Brian Tierney)와 ‘시드니 페인터’(Sidney Painter)는 반달족의 침공이 로마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식량 공급은 아프리카로부터의 곡물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겐세리크는 동부 게르만족의 통치자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 정부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했다. 455년 겐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이 로마에 쳐들어갔을 때는 410년의 서고트족보다 더 철저하게 로마를 약탈하고 유린했다.³²⁾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히포를 방어하던 보니파티우스와 휘하 군사들이 탄 전선이 항구를 떠나자 히포의 운명 또한 결정되었다. 어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반달족에 의해 도시를 에워싼 성벽이 파괴되는 굉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향년 7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³³⁾

3.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여 어거스틴이 보인 사역의 진면(眞面)과 특이점은 무엇인가? Vita Augustini는 반달족에 의해 북아프리카가

31) 윌리엄 케논, *op. cit.*, 14. 반달족은 아리우스주의 이외의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짓고 신도들과 정통교회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카르타고(Carthage)에 자리 잡은 총대주교의 권위 아래 아리우스주의는 북아프리카 반달왕국의 공식적 국교로서 채용되었다. 그렇지만 아리우스주의자들은 534년 동방제국 황제 ‘벨리사리우스’(Belisarius)의 원정에 의한 왕국의 멸망과 함께 탄압을 면치 못하였다. 반달족의 역사란 겨우 1세기 내에 국한된 것으로서 후세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

32) 브라이언 타이어니, 시드니 페인터, 『서양 중세사』 이연규 역 (파주: 집문당, 2012), 63-64.

33) 어거스틴 사후, 도나투스파의 보복 행위를 두려워한 히포의 성도들은 어거스틴의 유해를 은밀히 사르데냐(Sardinia) 섬으로 보냈다. 훗날 사르데냐 섬을 습격한 사라센 해적들은 어거스틴의 유골을 탈취한 후 교회에 망자(亡者)의 몸값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거스틴의 유골은 북이탈리아 파비아(Pavia) 교회에 성물로 보관되어 있다. 시오노 나나미, *op. cit.*, 241-242.

침탈을 당할 때 어거스틴이 행한 사역을 소상히 소개한다.

1) 냉철한 상황파악과 성찰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탈에 직면하여 우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깊이 살피는 데 주력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들의 이처럼 잔인한 폭력과 파괴가 왜 일어났고 또 왜 일어나 있는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느끼고 생각하였다. 그분은 이 일들을 더 깊고 심오하게 성찰하시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영혼의 위협이나 죽음을 특별히 예견하셨다.³⁴⁾

동시에 어거스틴은 반달족들의 침공으로 당한 참상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분께서는 어느 때와는 달리 밤낮으로 눈물의 빵을 드셨으며,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을 연만하신 몸으로 겨우 지탱하고 참아내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된 도시들을 보셨고(videbat),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괴된 건물과 더불어 잔인한 원수들에게 살해되거나 도망가고 흩어진 주민들, 그리고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은 교회들, 뿔뿔이 흩어진 거룩한 동정녀들과 수도승들을 보셨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고문을 이겨 내지 못했고, 더러는 칼에 맞아 죽었으며, 더러는 노예로 전락하여, 영혼과 육신의 온전함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악랄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원수들을 섬기고 있었다.³⁵⁾

특히 어거스틴은 재난의 참혹함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를 거부하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담대한 마음을 다잡아 평정심을 유지

34) v. Aug., 28. 6.

35) v. Aug. 28. 6-7.

하면서, “나무와 돌이 떨어지고, 죽을 존재가 죽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He is not to be thought great who thinks is strange that wood and stones should fall and mortals die)는 현자의 어록으로 위로를 삼았다.³⁶⁾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은 어거스틴에게 위로를 준 현자의 어록이 ‘플로티누스’(Plotinus)의 『엔네아드』(THE ENNEADS)의 다음 소절이라고 밝힌다.

“나무 막대기와 돌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죽기 마련인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³⁷⁾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진중한 모습은 “우리는 비록 악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심을 믿어야 한다”³⁸⁾는 어거스틴의 신앙적 지론이 표방된 것이다. 반달족의 침탈로 인한 재난의 현장과 고통을 직접 목도하고 성찰하며 의연한 믿음을 견지하는 어거스틴의 자세는 믿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는 영적 지도자의 의연한 리더십을 표명한다고 평가된다.

36) v. Aug., 28, 11.

37) Plotinus, THE ENNEADS, I, iv, 7. 피터 브라운,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627에서 재인용.

38) Aurelius Augustinus, THE ENCHIRIDION, ADDRESSED TO LAURENTIUS; BEING A TREATISE ON FAITH, HOPE AND LOVE, 96,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3).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E로 표기함.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한다. “갓가지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오직 의로운 판단을 통해서만 이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의로운 것은 모두 다 선하다. 비록 악한 일이 악한 일인 한에 있어서 선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뿐 아니라 악한 것도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하다.”

2) 뜨거운 눈물의 중보기도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만행으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참혹한 시련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도록 뜨거운 눈물의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대단히 지혜로우셨던 그분께서는 이 모든 재앙에 날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당시 보니파티우스 방백의 방어 덕분에 고트족 연합군에게서 아직은 무사했던 히포 지역을 적들이 포위해 오자 그분의 눈물과 탄식은 더욱 커졌다. 이 도시는 거의 열 년 달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 바다로 가는 길도 막혀 버렸다. 우리도 다른 동료 주교들과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여 포위 기간 내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규는 바릅니다”(시편 119: 137)라고 아뢰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관해 자주 대화하고 성찰 했다.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1: 3)께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곤 했다.³⁹⁾

한번은, 우리가 어거스틴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다르다면, 당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당신 곁에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우리 모든 신자와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바쳤다.⁴⁰⁾

특히 어거스틴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청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기꺼이 기도해주었다.

39) v. Aug., 28, 12-13.

40) v. Aug., 29, 1-2.

또한 그분은 사제로 계실 때나 주교로 계실 때나 악령이 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시면,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셨고, 결국 악령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앓아누워 계실 때에도 누군가 자신의 병든 친척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치유를 위한 안수를 청하였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졌더라면,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 환시를 보았는데, “어거스틴 주교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은 망설임 없이 (안수를) 해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즉시 그 환자를 낫게 해 주셨고, 환자는 그분을 떠나갔다.⁴¹⁾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영성은 철저히 초대 기독교의 영성⁴²⁾을 계승했다고 평가된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입으로 인한 황망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Your very desire is your prayer)⁴³⁾라고 확신하여 절박하고 갈급한 영혼들의 갈망을 기도로써 승화시키고 돕는 기도 영성을 강화한다.

3) 아프리카방면 군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의로운 전쟁’ 수행 촉구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할 당시 이를 저지할 공적 책무

41) *v. Aug.*, 29. 4-5.

42) ‘정용석’은 초대교회의 영성을 ‘종말론적 영성(eschatological spirituality), 예배 영성(liturgical spirituality), 공동체적 영성(Communal Spirituality), 순교 영성(Martyrdom Spirituality), 수덕적 영성(Ascetic Spirituality)’으로 집약한다. 정용석에 의하면, ‘존 크리 소스톱’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강조한 이래 초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강조하는 전통을 형성했다. 정용석, “초대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34-66.

43) Augustine, *Expositions on the Book of Psalms*, 38. 13. *NPNF*, Vol., VIII.

를 가진 북아프리카의 총독은 보니파티우스였다. ‘에드워드 기븐’(Edward Gibbon)에 따르면,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보니파티우스와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은 서로 교훈적 대화를 통해 군인으로서의 노고와 근심을 달랠 정도”⁴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어거스틴은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기 11년 전(418년), 군사적 소집의 도덕적 적합성을 찾고 있던 보니파티우스에게 의로운 전쟁⁴⁵⁾에 관한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어거스틴이 보니파티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한 의로운 전쟁의 핵심 요체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먼저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환기시켰다. 또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인이 군대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예수와 백부장과의 대화 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입증한다. 어거스틴은 물리적 힘으로 군사적 적과 싸우는 것은 기도로써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여겼다. 어거스틴은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더불어서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비록 전쟁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⁴⁶⁾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록 전쟁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이는 전쟁의 목적을 평화에 두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평화

44) 에드워드 기븐, 『로마제국 쇠망사(3)』 송은주, 윤수인 역 (서울: 민음사, 2009), 288.

45) ‘의로운 전쟁’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상을 좀 더 파악하고자 하면 논자의 다음 줄고를 참고 바람. 이규철,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군선교신학』 9 (2011), 98-134.

46) Augustine, *Letter 189*, I, 4-5, *NPNF*, Vol. I, 이규철에 따르면, AD. 418년 어거스틴은 조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규철,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126-127에서 재인용.

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전쟁의 목적이 평화에 있다는 어거스틴의 강조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마 5: 9)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막상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해 왔을 때 전황은 보니파티우스가 생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서 로마 제국 아프리카 방면 사령관인 보니파티우스에게 병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겐세리크는 1개 단위부대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반달족 연합군을 북아프리카에 상륙시켜 진격을 하게 했다. 게다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배척받은 도나투스파 기독교도들과 로마인으로부터 이등시민 취급을 받는 마우리타니아인(무어인)과 사막의 베르베르인까지 겐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에 가세하여 로마군을 요격하고 아프리카 곳곳에 분탕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케니스 라토레트’에 의하면,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찍힌 도나투스파 기독교들이 겐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 연합군에 가세한 것은 도나투스파 입장에서 반달족 연합군은 아리우스파 이단으로 분류되기에 같은 이단이라고 비판받는 집단들이 힘을 합하여 정통 가톨릭에 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⁴⁷⁾ 이렇게 해서 반달족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의 동쪽 방면으로 순식간에 진격하여 ‘히포’에 이르러 위해를 가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보기에 반달족 연합군에 맞서야 하는 보니파티우스가 보인 임무 수행 자세는 문제가 많았다. 이에 어거스틴은

47)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The First Five Centuries*,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1), 195.

보니파티우스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어 ‘의로운 전쟁’의 수행 차원에서 직무 수행을 다해 주기를 촉구했다.

보니파키우스,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아니 그보다는 내 입을 빌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시오! 그토록 많고도 심한 악이 그대에게서 유래하였는데 내 무슨 말을 하여야겠소? 그대는 그렇게 행동할만한 당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오. 나로서는 양편 이야기를 다 들어 볼 기회가 없었으니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소. 그런데 말이오. 보니파키우스, 왕년의 황제 친위대장, 지금은 아프리카 속주의 총독으로 그토록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신이 아프리카에 와 있는데 야만족들이 저렇게 초토화하면서 진군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누가 믿었겠소? 누가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두려워들 했겠소? 그토록 사람이 많이 살던 지방들을 민족들이 무인지경으로 만들면서 진군해오고 있으니 말이오... 민족들이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은 채로 아프리카에서 저지르는 저러한 파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소? 당신은 곤경에 처한 일신상의 입장만을 걱정하고, 이 같은 재앙을 물리치는 데는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말이오.⁴⁸⁾

어거스틴은 “물리적 힘을 가지고 군사적 침략자에 대항하는 것은 기도로써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⁴⁹⁾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이기에 보니파티우스로 하여금 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참된 목회사역자에 대한 조언

반달족의 공세가 강화되어 위기 지수가 높아지자 목양의 현장은 매우 위태로웠다.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그즈음 ‘티아베나’(Thiabensis)교회의 “동료 주교이며 거룩한 인물”로 평가받는 ‘호노라

48) Augustine, *Letter*, 220, 7.

49) Augustine, *Letter* 189, I, 5.

투스(Honoratus)가 어거스틴에게 “적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편지를 보내왔다.⁵⁰⁾

호노라투스가 어거스틴에게 제기한 질문 요지는 이렇다.

우리가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시다. 눈앞에서 남자들이 쓰러지고, 여인들은 겁탈당하며, 교회는 불타고, 우리 스스로도 고문으로 쓰러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지니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⁵¹⁾

호노라투스의 질의에 대해 어거스틴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명확하게 답신을 한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경우에 도망하여 그리스도의 양떼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샅군입니다. “그는 양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해 버립니다.” …지혜롭고 거룩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전혀 그 힘을 잃지 않고,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힘있게 대항하였습니다.⁵²⁾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교회와 성도가 매우 심각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취하여야 하는 적합한 처신에 대해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며 명확한 지침을 설정한다.

50) 안타깝게도 호노라투스가 어거스틴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은 채, 단지 이런 질문을 던진 호노라투스에게 어거스틴이 보낸 편지만이 포시디우스의 *Vita Augustini*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v. Aug.*, 30, 3-51.

51) *v. Aug.*, 30, 16.

52) Augustine, *Letter*, 228, 1.

첫째,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의 피난대책을 간구하되 교회의 성도들이 남아 있는 한 이들을 돌보고 지키는 목회자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철저히 당부한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요새로 피신하기를 원할 경우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엮어 만들어 주신 우리 직무의 사슬을 끊어 버려서도 안 되며, 우리가 섬겨야 하는 교회를 저버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⁵³⁾ 우리 성직자가 있는 곳에 남아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적다할지라도, 우리 직무가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보루가 되어 주소서!”(시 31: 3)⁵⁴⁾

둘째, 어거스틴은 환난에 직면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 10: 23)는 주님의 말씀을 모티프로 삼아 예수와 바울의 경우에 대비시켜 검토한다.

예수께서도 갓난아기 때 부모에게 안겨 이집트로 피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아직 교회들을 모아들이지 않으셨으니, 주님께서 교회를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원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창문으로 내려지셨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행 9: 25; 고후 11: 32-33). 그렇다고 거기 있던 교회에 필요한 직무가 없어졌습니까? 또 거기 남아 있던 다른 형제들이 필요한 일들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까? 사도께서는 형제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박해자가 특별히 찾고 있던 당신 자신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⁵⁵⁾

53) *v. Aug.*, 30, 4.

54) *v. Aug.*, 30, 5.

55) *v. Aug.*, 30, 7-9.

셋째, 어거스틴은 예수께서 박해를 받을 시 피난할 것을 말씀하
였지만 교회의 성직자들에게는 성도를 보호할 책임이 우선시 되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과 성사의 봉사자인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분께서 명하시거나 허락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누군가 박해
자들에게 특별히 지목되어 쫓기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 고을
저 고을로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기지 않는 다른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리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교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똑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직무를 지닌 사람들(주교와 성직
자)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나님 백성)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요새로 옮겨가십시오. 혹시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야 하는 성직자들은 그들을 그냥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함
께 살아남거나 공동체의 아버지(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덜 겪기
도 하며, 또는 모두가 똑같은 고통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
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신하여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음에
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남
아 있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께서 다음과 같
이 권고한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
숨을 내놓아야 합니다”(요일 3: 16).⁵⁶⁾

어떤 사람이 적들의 만행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직
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직무(에 봉사하는 이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들이

56) v. Aug., 30, 10-12

아니라 자신을 위해 피신했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
입니다.⁵⁷⁾

넷째, 어거스틴은 환난에 직면한 성직자가 피난을 갈 수 있는 경
우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박해가 밀어닥친다면, 그리스도의 성직자들
은 거기에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길 그리스도의 백성이 없을 때나,
또는 같은 이유로 피신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성직자들이 필요
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피신해야 합니다.⁵⁸⁾

특히 어거스틴은 바울과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경우에 비추
어 성직자가 피난에 오를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

내가 앞서 상기시켜 드린 대로, (바울)사도께서도 당신 자신이
박해자에게 지목되었을 때 광주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 피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피신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거기서 교회의 직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
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 성인께서도 이처럼 피신
하셨는데, 그것은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그분을 특별히 지목하
여 체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직자들은 알렉산
드리아에 남아 있던 가톨릭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⁵⁹⁾

다섯째, 어거스틴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아직 돌보아야 할 성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도피한다면 그는 샅군에 불
과한 ‘단죄 받을 도주자’라고 단호히 직언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남아 있는데도 성직자들이 피신하여 (교회) 직
무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샅꾼들의

57) v. Aug., 30, 15.

58) v. Aug., 30, 21.

59) v. Aug., 30, 22.

단죄 받을 도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늑대가 울 터인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그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집요하게 꼬드길 것입니다. 그 약한 형제는 그대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멸망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⁶⁰⁾

여섯째, 어거스틴은 극심한 환난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굴복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두려워 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자비로우신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지 못하고 무거운 악을 피하지 못합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고 세상에 탐욕이 연기를 뽑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도 분개하지 않겠습니까?”(고후 11: 29).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그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죽어야 할 육신이 칼에 맞아 살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악령의 칼에 그리스도의 양떼들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인들이 육체적으로 겁탈당하는 것보다, 내적 감각이 썩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결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기만 하다면, 정결은 이러한 폭력에 상처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탈당하는 사람의 의지가 자기 육신을 음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참아낸다면, 육신으로도 상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상 건물의 돌과 나무가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내버린 “살아 있는 돌”(벧전 2: 5)들의 불이 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가능할 경우에도 이러한(악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경스럽게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견디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 생활에 필요한 자신의 직무를 가장 필요한

60) v. Aug., 30, 23

순간에 저버리는 성직자가 불경스럽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⁶¹⁾

일곱째, 어거스틴은 비록 환난의 날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성직자 일부라도 생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적들의 침략이 임박했을 때,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보존할 목적으로 성직자들이 피신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피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성직자가 다 죽게 되리라고 예상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재앙이 오로지 교회의 성직자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맹위를 떨치게 된다면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비참하게 죽어 가는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아야 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잡혀 죽지 않는다면,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교들과 성직자들을 숨겨 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계신 그분께서 도와주시어,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⁶²⁾

여덟째, 어거스틴은 환난에 처한 성직자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서로 성도를 위해 남겠노라고 자원하여 선뜻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는 토론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제비뽑기를 하라고 권고한다.

오! 모든 성직자가 피신하거나 죽게 되어 교회가 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직자들 가운데 누가 남을 것이며, 모두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누가 피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토론이 벌어졌으면 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불타고, 서로가 사랑이신 분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그들 사이에 이러한 경쟁은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토론이 달리 결론에 이를 수 없다면,

61) v. Aug., 30, 24-28.

62) v. Aug., 30, 37-38

내 생각으로는 누가 남고 누가 피신할 것인지 제비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닥쳐오는 재앙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는 겁쟁이거나, 자기 자신이 교회에 더 필요한 인물이므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여기는 교만한 인물일 것입니다.⁶³⁾

호노라투스의 질의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변 요지는 명료하다. 교회의 목회 사역자는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속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성도를 버리거나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어거스틴은 호노라투스를 비롯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는 동화(同化)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진중하게 권고한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사실은 현명하고 거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바라고 실천해 왔으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씹힐지라도 그들의 굳은 뜻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⁶⁴⁾

5) 교회의 지적 자산 보존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을 전후로 한 어수선한 정황에서도 그의 저술 작품들을 손질하여 교회의 도서관에 비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교회의 지적 자산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어거스틴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신께서 받아쓰게 하시

63) v. Aug., 30, 42-43.

64) v. Aug., 30, 51.

고 폐내신 책들을 다시 손질하셨다. 그 책들은 당신께서 그리스도교에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평신도로서 저술한 것들도 있고, 사제와 주교로서 저술한 것들도 있다. 아직 교회 관행을 잘 알지 못해서 교회 규정에 어울리지 않게 저술했다고 여긴 것은 무엇이나 당신 스스로 고치고 바로잡아 두 권으로 된 『책들의 수정본』을 저술했다.⁶⁵⁾

교회의 도서관에 대한 어거스틴의 관심은 각별하다. 어거스틴은 A.D. 429년 ‘다리우스’(Darius)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리우스가 도서관을 위해 자금을 보내어줘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고 헌 책을 수선할 수 있게 하였다”(in regard to my library, that I am have the means to procure new books and repair the old)고 고마움을 표한다. 포시디우스는 어거스틴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는 아니하였지만, 교회 내 ‘당신의 모든 저술을 갖춘 교회 도서관을 후대의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보존하라고 늘 당부’⁶⁶⁾하였음을 기억한다. 이에 포시디우스는 어거스틴이 교회를 위해 남긴 큰 유산을 이렇게 추억하고 흠모한다.

그분은 교회에 넉넉한 성직자들과 남녀 수도원들을 남겨 주셨는데, 거기에는 장상(莊上)들과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곳 도서관들은 어거스틴과 다른 성인들의 책과 저술로 가득 찼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고, 신자들은 그분을 언제나 살아 계신 분으로 만나게 된다.⁶⁷⁾

65) v. Aug., 28, 1. 어거스틴이 저술한 책 사본에 붙은 대부분의 제목은 『재론고』(Retrattiones)이다. 『책들의 수정본』(De recensione librorum)은 포시디우스가 임의로 지어 붙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연학과 최원호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자기의 모든 저술을 다시 손질하고 싶어 했지만 책(libri)만을 수정할 수 있었다. 어거스틴의 『재론고』 작업은 반달족이 침공해오기 직전인 427-428년에 책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이연학, 최원호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각주 118, 120 재인용.

66) v. Aug., 31, 6.

67) v. Aug., 31, 8.

포시디우스는 주야로 힘쓴 어거스틴의 노작(勞作)에 대해 이런 평가를 더한다.

사실 진리의 빛 안에서 확인되듯이, 어거스틴의 저술은 그 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중한 주교였으며, 공교회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사셨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그분의 거룩한 작품을 읽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보물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박식한 율사요(마 13: 52),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 가진 것을 팔아 그것을 구입한 상인(마 13: 44-46)이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마 5: 19) 것이다.⁶⁸⁾

이처럼 반달족이 침공한 비상상황에서도, 어거스틴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도서관에 영혼의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보존하며 확장하는 지혜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본을 보였다.

6) 생의 최후까지 경건한 사역자로서 헌신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통이 가중되며 육신도 병환을 앓는 와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한다.

어거스틴은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병환 중에도 다윗의 참회 시편을 짧게 옮겨 적게 하시고 그 종이를 벽에 붙이게 하신 다음 침대에 앉아누워 계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곱곰이 되새기고 읽었으며,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셨다.⁶⁹⁾

특히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생의 최후 순간까지 기도

68) v. Aug., 31, 10.

69) v. Aug., 31, 2.

에 헌신했다. 동시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 설교의 사명을 다했다.

육신을 떠나기 열흘 전쯤부터, 어거스틴께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곁에 있던 우리에게 요청하시어 의사들이 왕진하는 시간과 음식을 가져오는 시간 외에는 아무도 당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지켜 행하였고, 그분께서는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 또한 어거스틴은 당신의 마지막 병환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힘차게 맑은 정신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설교했다.⁷⁰⁾

포시디우스는 생의 최후까지 경건한 사역자로 헌신한 어거스틴이 430년 8월 28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의 정황을 이렇게 집약한다.

그분은 육신의 모든 지체를 온전히 보존하셨고, 시력과 청력도 건강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쓰인 대로 행복한 만년을 보내시다가 당신 성조들과 함께 잠드셨다(왕상 2: 10). 우리가 참석한 가운데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성찬제를 하나님께 바친 후 묻히셨다.⁷¹⁾

실로 반달족 연합군의 치열한 공세 속에서 생의 최후를 맞은 어거스틴이지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목회 돌봄을 멈추지 않는 어거스틴의 경건은 만대의 귀감이 됨이 분명하다.

70) v. Aug., 31, 3-4.

71) v. Aug., 31, 5.

4.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을 평가해 보자.

1) ‘구민(救民) 애민(愛民) 보민(保民) 리더십’으로서의 전시군종활동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젖지 않도록 사태의 비극적 상황을 냉철히 살펴면서 재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으로 특화되었다.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어거스틴의 영적 리더십은 전투에 임하는 국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구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현역 군목들의 직무수행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미 육군 『군종부 핸드북』은 ‘군종장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한다.

〈헌신의 범위〉 장병들에게 봉사하는 군종장교의 헌신은 군종장교의 모범에 의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임무수행과 생활습관에 있어서 군종장교는 반드시 높은 수준의 품성과 미육군에서 발전되어지는 개인적 전문적 특성을 고도의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단위 부대 안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조인자로서의 군종장교의 신뢰도는 군종장교가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모범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된다.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것에 덧붙여서 군종장교는 부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헌신, 책임성, 충성, 극기, 인격적 통합, 도덕적 용기, 비이기적이며 도덕적 표준의 본보기로서 봉사한다.

〈종교지도자〉 군종장교의 우선적인 임무는 장병들에게 종교사역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다. 군종장교는 모든 장병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행사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장병들이 전장의 스트레스와 참혹성을 겪게 될 때 종교적 지원을 한다. 모든 종교의 전통에 대한 군종장교

의 무조건적 인내와 존중은 종교적 신념이 다양한 우리 육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전투피로증은 부도덕하고 잔인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군부대,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들에 대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대우를 포함한다. 즉 도덕법 위반, 불법적 행동, 거룩한 장소에 대한 모독 및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멸 등이다. 예배, 목회상담, 및 도덕적 가르침을 통하여 군종장교는 장병들로 하여금 조국을 위하여 장하게 봉사하도록 도전함으로써 인간생명, 정의, 존엄성, 및 진리라는 가치에 대해 확언한다.

〈참모장교〉 군종장교들은 개인참모들이다. 그들은 부대의 종교적 필요들, 윤리, 도덕 및 사기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조언하고 상의한다. 군종장교들은 지휘관에게 작전지역 내의 문화, 관습 및 지역주민의 종교들에 대하여 조언한다. 군종장교가 지휘관에게 주는 정보는 전투를 지휘하는 데, 즉 토착종교에 대한 존경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의 성소를 보존하도록 사용되어진다. 군종장교는 국가 이상에 대한 충성, 부대에 대한 충성, 개인의 책임 및 비이기적 봉사, 즉 육군의 윤리로 알려진 그러한 직업적 기초들을 지지해야 한다.⁷²⁾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탈로 인한 재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나뉘지는 영적 지도자의 의연한 신앙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어거스틴은 소위 『쿠르스크』(Kursk)⁷³⁾의 비극을 거부했다.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에 신음하는 북아프리카 교회와 사람들을 구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기

72) US Army Chaplain Center and School, *The Unit Ministry Team Handbook*, 2-3.

73) 로버트 무어, 『쿠르스크』, 이동훈 역 (서울: 울력, 2021), 339. 『쿠르스크』는 2000년 8월 12일 노르웨이 북쪽 바렌츠해에서 훈련 중이던 러시아 해군 소속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침몰하여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책이다. 로버트 무어는 쿠르스크호가 침몰했을 때 러시아 지도부의 제1임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자산은 잠수함의 비밀이나 국가지도자들의 체면이 아니라 젊은 승조원들의 생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다.”

도하여주고 보호하는 헌신적 사역에 온 힘을 쏟았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일반적 차원에서 ‘구민(救民), 애민(愛民), 보민(保民)의 리더십’으로 부대 장병들과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군종목사의 기본임무수행이 전시군중활동의 기본이 됨을 방증한다.

2)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의 당위성 보증

반달족 연합군의 공세 속에서도 *Vita Augustini* 28-31의 어거스틴이 보여준 목회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은 6·25전쟁 중 출발한 한국군 군중제도의 기본 취지와 임무 수행 방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국군 군중활동의 당위성을 보증한다.

한국군 군중활동은 군목제도가 실시된 그 시초부터 전시군중활동의 특성을 함유한다. 6·25전쟁 중 미군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카투스(KATUSA)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상신한 ‘탄원서’⁷⁴⁾가 계기가 되어 군목제도가 만들어졌다.⁷⁵⁾ 이로써 한국군 군목들은 1951년 2월 29일부터 야전 부대에 배치되어 한국군의 승리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했다. ‘윤은석’은 6·25 참전 군목들이 두 방향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진중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거행하면서 성례(聖禮)를 베풀었다. 다른 하나는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

74) “대통령 각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백창현 편,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 (서울: 한국군목회, 2015), 107

75) 1950년 12월 21일 군종 제도를 설치하라는 대통령 비서실 지시 제 29호에 의해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 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科)가 설치됨으로써 육군 군중제도가 창설되었다. 당시 목사로서 일반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대위 ‘김득삼’ 목사가 초대 군승과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장로교 목사 14명, 감리교 목사 10명, 성결교 목사 4명, 천주교 신부 11명이 각 교파에서 생활비를 받고 군에서는 무보수로 헌신 봉사 하는 ‘무보수축탁’의 군내 군중활동을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백창현 편, *Ibid.*, 108-109.

들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였고, 위문 및 위문품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켜 장병 사기진작을 도왔으며, 직업 교도소를 세워 상이군인들의 사회재활을 도왔다.⁷⁶⁾ 윤은석에 의하면, 당시 군목들은 기독교의 사생관에 기초한 정신전력 향상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군목 제도 초기의 지휘관들은 군목의 효과를 의심하였지만 점차 군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참모로 전선에 동행시키기도 했다.⁷⁷⁾ 이처럼 6·25전쟁 중 군목들의 직무수행은 그 초창기부터 전시군중활동에 초점을 맞춘 임무수행을 전개한다.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은 월남 파병장병들의 용진(勇進)과 함께 했다. 대한민국은 1964년 9월 11일 월남(남베트남)에 한국군 의무 요원과 태권도 교관을 필두로 1973년 3월 23일 철수하기까지 약 32만 명의 국군 용사들을 파병했다.⁷⁸⁾ 『기독교공보』에 따르면 월남파병부대에 최초로 보임된 군목은 1965년 2월 9일 월남군사원조단에 배속된 ‘이창식’ 군목이다. 이날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파원장병 환송국민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창식 군목에게 “자유수호를 위하여 우리의 벗 월남에 가서 공산세력을 부수는 데 큰 성과 있길 빌면

76) 윤은석에 따르면, 6·25전쟁 중 1년 7개월 만에 군인 신자율은 군목 초기 3%에서 10%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이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이 두드러졌다. 윤은석,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Journal of Military History* 107 (2018), 45.

77) *Ibid.*, 46.

78) 서규화,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수립과정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63. 서규화의 분석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가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이 베트남에 대규모의 병력을 집중 투입함에 따라 주한 미군 일부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저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미국이 6·25전쟁 때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동맹국가로서 도리이고, 베트남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곧 한국의 안보위협이라는 인식하에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참전 기간 약 32만 명이 참전하여 5,000여 명이 전사했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희생을 치렀지만, 파병으로 얻은 성과는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⁷⁹⁾는 격려를 하였다. 『聯合基督新報』에 따르면, 이창식 군목은 월남에 주둔한 한국군 최초의 군목일 뿐 아니라 월남의 고아원, 극빈자구호와 의료 사업 등 대민사업에 큰 공로가 인정되어 월남국에서 군인에 주는 최고상을 탔다.⁸⁰⁾

백창현은 한국군 최초의 원정군인 비둘기 부대의 군중활동을 이렇게 소개한다.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사생관을 확립하여 용기 있는 한국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군중활동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종교예식과 인격지도 교육을 통해 조국과 자유수호를 위한 군인으로서의 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함과 동시에 신앙의 힘으로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취하도록 인도하였다. 한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파병된 장병들에 대한 군중활동은 모든 것이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월남의 각 종교단체와 미군 군중 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하여 대민 종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평화의 십자군으로서의 군중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⁸¹⁾

『크리스찬 신문』은 “선전(善戰)하는 월남(越南)군목(軍牧)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전시군중활동을 이렇게 소개한다.

군목들의 종군활동은 후방에서뿐만 아니라 전투에 투입되어 작전 중에 있는 부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직접 무기를 가지고 적을 죽이며 피를 흘리는 전쟁터의 죽음과 삶의 긴박한 순간들이 전율과 공포와 불안 속에 젊음을 압박하는 전우들을 위해 ‘휴머니티’를 넣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속에 ‘휴머니티’는 없다고 하는가하면 선량한 민가 속에 베트남이

79) 기독교보 편집실, “월남에 군목도 파송” 『기독교보』 1965. 2. 13.

80) 聯合基督新報 편집실, “軍人教會 20棟新築” 『聯合基督新報』 1966. 5. 22.

81) 백창현 편, *op. cit.*, 248.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휴머니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밀림 속에 있는 장병이나 병원에 있는 병사들을 방문할 때면 그들은 “우리 군목님 오셨다”면서 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전투에 나가는 이곳에서의 예배는 사령부가 주일아침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전투부대인 각 연대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군목들은 십자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찬 채 밀림지대를 헬리콥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⁸²⁾

월남파병한국군은 한국군 주둔지에 장병들과 교민들을 위한 진중교회를 세워나갔다.⁸³⁾ 『教會聯合新報』는 진중교회가 장병들의 신앙의 안식처이자 한국과 미군, 그리고 월남의 우호선린친선관계의 장(場)이기도 한 십자성군인교회의 예를 이렇게 전한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전당이 없어 천막 속에서 예배를 보아오던 십자성부대장병에게 훌륭한 현대식 교회가 주어졌다. 지난 1968년 12월21일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한·미·월 종교단체 내외 귀빈과 전(全)지휘관 참모, 부대 신자 다수가 모인 가운데 사령관 은학성 장군이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준공식과 봉헌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2개월간에 걸쳐 2군수 지원단 11공병대대가 정글지대를 깎아 주야작업을 하여 준공을 본 십자성교회는 신·구 양교행사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성례실, 예배실 제단, 도서실 등이 다양하게 설비되어 있다. 이 준공식에서 사령관 은학성 장군은 축사를 통해 교회건립에 공이 많은 장병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장병들의 인격수양과 신앙심을 배양하여 참다운 마음의 안식처로 길이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불란서식 건축양식을 살린 아담한 건물은 지

82) 크리스찬신문 편집실, “선전(善戰)하는 월남(越南)군목(軍牧)들” 『크리스찬신문』 1967. 9. 16.

83) 일례로 『교회연합신보』에 따르면, 1967년 3월 5일 월남 중부 다낭지구에서 후방건설사업을 돕는 우리나라 기술자 2,000명을 이해 청룡부대(부대장 김연상 준장)는 월남 육군 뉴엔린 군목의 관사를 빌려서 창설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낭 한월 연합교회가 발족했다. 教會聯合新報 편집실, “다낭에 韓人교회,” 『教會聯合新報』 1967. 7. 9.

난 10월에 착공하여 이 날 준공을 보게 된 것으로 총공사비는 230만 원이 들었다. 앞으로 모든 종교행사는 이 교회에서 갖게 될 것이며 첫 종교행사로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는 한·미·월 종교인들을 초청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⁸⁴⁾

‘김을권’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 세워진 교회마다 한국에서 보낸 종들이 종탑위에 걸려있었다. 그 종들은 남부 베트남이 공산화 되자 땅 속에 감춰졌지만, 베트남 사회가 개방이 되면서 다시 지상으로 나와 옛 종탑에 다시 걸려 ‘수난(受難)의 종(鍾)’이라고 부른다.⁸⁵⁾ 이처럼 파월 군복들은 장병들과 함께 하는 군중활동을 하면서 월남사람들을 위한 대민구호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한국군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⁸⁶⁾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은 북한 무장공비들을 격퇴하는 대간첩적전에서 시행되었다. ‘오덕교’에 따르면,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1969년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의 만행적인 도발이 다발(多發)하여 국가안보와 군 정신 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군사령관 한신 장군은 장병들의 정신력 극대화와 멸공의 유일한 길은 신앙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한신 장군은 군중참모대령 한준섭 목사의 조언을 받아 ‘연말 사단급 군중참모회의’에서 장병 정신전력 증대를 위한 소위 ‘전군신자화 운동’을 지시했다.⁸⁷⁾ 전군

84) 教會聯合新報 편집실, “越南十字星部隊에 慶事” 『教會聯合新報』 1968. 1. 21

85) 김을권 등, 『베트남선교10년사』 (서울: 보이서사, 2000), 67-68.

86) 『크리스찬신문』 편집실, “창룡부대 군복과 함께 활동-월남주민에게 신뢰 두터워, 대민구호사업활발” 『크리스찬신문』 1966. 2. 26.

87)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 (2004), 135.

신자화 운동은 사회 일각의 비판⁸⁸⁾에 직면했지만 1974년 ‘육군 정책 사업’으로 제정되었다. 오덕교는 아래의 <표 1, 2>와 같이 “전군신자화 운동이 각종 사고를 줄이고 범죄율을 낮추며 보호사병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양산했다”고 역설했다.⁸⁹⁾

<표1 연도별 신자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현황(육군)>

종교별 연도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 사고자 수
1970년도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년도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년도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년도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1974년도	208,553	40,038	41,392	848	290,831	

<표2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구분 유형	발생자수	근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88)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의하면, 전군신자화 운동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 요지는 대략 4가지로 집약 된다. 첫째, 교계 내 일부에서 ‘학습과 세례, 주초문제, 십일조, 강요된 세례, 관리상태’를 이유로 신자화 운동의 부당성을 제기. 둘째, 신자화 운동의 과열과 경쟁으로 종파 간 불화 유발. 셋째, 군중장교를 파송하지 못한 군소종교단체에서의 신자화 운동 폐지론. 넷째, 1973년 5월 천도교 중앙총본부 교령 ‘최덕신, 대종교 총본사 총건교 ‘맹천주가 군중제도의 재검토 건의문을 대통령께 올림.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국방부 군종실장 대령 양영배 군목의 다음 조치로 원만히 해결된다. 첫째, 3군 군중장교에게 물의가 없도록 지시(1972. 1. 7). 둘째, 군 첩보기관 분석 보고 받고 국군종 P39(72.5)로 시정지시 공문하달. 셋째, 문공부→종무(1973. 7. 11)공문→국방부장관(하달) 회의석상(문공부 문화국장, 중앙정보2국 3과장, 보안사 종교 담당관, 문공부 종무과장-참석)에서 신자화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명하고 설득. 넷째, 1974년 육군 정책 사업으로 제정(신자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 백창현 편, *op. cit.*, 122.

89) 오덕교, *op. cit.*, 135-136.

이에 1975년 육군 14대 군종감으로 취임한 대령 '문은식' 목사는 신앙전력화를 군종병과의 사명으로 천명했다.⁹⁰⁾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信仰戰力化' 휘호를 육군 군종감에게 하사하였는데, 이로써 한국군 군종활동은 국가안위기제(機制)로서 깊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의 맥은 1993년 소말리아 '청해부대'를 시작으로 앙골라 P.K.O. 공병부대(1996년), 동티모르 상륙수부대(1999년), 이라크 자이툰부대(2004년), 아프카니스탄의 동의·다산·오쉬노 부대(2010), 아이티 단비부대(2010)등⁹¹⁾ 현재까지도 이어져오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번영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에 신음하는 북아프리카 교회와 사람들을 돌보는 어거스틴의 사역은 일반적 차원에서 한국군의 전시군종활동의 당위성을 보증하는 역사적 신학적 예증(例證)이 된다고 사려 된다.

90) 문은식, "신앙전력화 구현에 박차," 『韓國基督公報』 1977. 2. 14. 육군 군종감 문은식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하사받게 된 한 동기에 대한 에피소드 두 가지가 전해진다. 먼저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따르면, 1976년 문은식 목사가 육군 군종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복음화를 더 구체화하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독교 표어를 공모하여 '信仰戰力化'를 선정하였다. 문은식 군종감은 기독교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받기 위해 공문을 올렸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즈음 문은식 군종감은 여군 훈련소를 방문한 영애(舍愛) '박근혜' 님을 여군 훈련소 군목 '지기오'와 부단장 중령 '박영옥'과 함께 만나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휘호에 대해 부탁을 드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信仰戰力化'를 친필 휘호하여 하사했다. 백창현 편, *op. cit.*, 127. 다음으로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에 따르면, 평소 군내 좌익 침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가 군내 반공운동과 정신력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제안"한 김준곤 목사의 건의에 흔쾌히 동의하여 전군신자화 운동이 시작되어 신앙전력화로 연결되었다. 김준곤 목사 제자들 엮음,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 (서울: 순출판사, 2005), 581-582.

91) 서부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국군 의료지원단(1991)은 군종장교가 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기독교 장병들이 자체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였음. 백창현 편, *op. cit.*, 275-302.

3) 의로운 전쟁에 대한 인식강화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아프리카방면 군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반달족연합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격퇴하는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국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침공하는 불의한 세력을 응징하고 평화를 지키는 의로운 전쟁에 승리하도록 정신을 무장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전시군종활동의 적절한 예시가 된다.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3: 14에 의거하여 그리스도교인의 군복무를 긍정한다. 어거스틴은 "만약 성경이 군대의 개입을 반대할 의도가 있었다면 일단의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기를 버리고 군복무를 완전히 버리라'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도리어 군인들은 단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눅 3: 14)는 권고를 받았다.⁹²⁾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에서 군인이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여 지켜야 할 '질서의 체제 안에서의 평화'를 이렇게 논한다.

신체의 평화는 그 합당한 질서에 따라 각 구성 부분들이 배치됐을 때 이루어진다. '비이성적 영혼(irrational soul)의 평화는 그들 욕구(appetites)들의 질서에 따른 충족에 있다.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의 평화는 인지(cognition)와 행동의 질서 있는 일지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육체와 영혼의 평화는 살아있는 피조물의 질서 있는 삶과 건강에 의존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믿음 속에서의 질서 잡힌 복종, 영원한 법에의 예속

92) Letter 138, II, 15.

으로 이루어진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는 마음과 마음이 일치할 때 얻어진다. 가정의 평화는 함께 사는 사람들 간에, 즉 주관하는 자와 따르는 사람들 간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 ‘천상도시’(Heavenly City)의 평화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는 공동의 협력이다. 전우주의 평화는 질서의 평정함에 있다. 질서란 동등한 것과 동등하지 않은 것들을 그 받은바 몫에 따라 그 각각의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⁹³⁾

어거스틴의 『마니교도 파우스투스에 대한 대답』(*Contra Faustum Manichaeum*)은 “전쟁에서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악은 폭력에 대한 사랑(love of violence), 복수심이 가득한 잔인성(revengeful cruelty), 사납고 무서운 적개심(fierce and implacable enmity), 거친 저항과 권력에의 욕구(wild resistance, and the lust of power)”라고 지적한다.⁹⁴⁾ 이에 어거스틴은 어느 국가나 지배자가 탐욕적이고 공격적일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한 의로운 전쟁이라고 귀결 짓는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의로운 전쟁 수행을 결정하는 데 황제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이 보기에 “황제는 인류의 평화와 그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군인들로 하여금 군사적 의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쟁을 수행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⁹⁵⁾ 때문이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통찰과 혜견(慧

93) Augustine, *The City of God*, XIX, 13, *NPNE*, Vol. II.

94)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4, *NPNE*, Vol. IV.

95)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5. 어거스틴은 로마서 13:1에 의거하여 하나님 외에는 권세가 없다고 단언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의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 어거스틴이 보기에 각 군인에게 있어 그가 받은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어거스틴은 전쟁과 전쟁 중에 내려지는 그 명령들이 정당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군에서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임무 자세이다. 이는 비록 부정당한 전쟁 속에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따랐기에 결백하기 때문이다.

見)이 중요함을 방사한다.

결국 어거스틴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전쟁론에 기초하여 보니파티우스에게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을 적극적으로 격퇴하기를 촉구했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의로운 전쟁론은 오늘날의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의 교회사적 배경이 된다고 사료된다.

4) 강력한 위기대응 목회 돌봄

어거스틴이 호노라투스 주교에게 명한 ‘참된 목회사역자에 대한 조언은 침탈자에 의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적합한 행동준칙으로서, 전시군중활동에 임하는 군목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규철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핍박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어거스틴의 위기대응 목회 돌봄 핵심지침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피난책(避難策)을 간구하되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목회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

둘째, 환난에 직면한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 10: 23)는 말씀의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

셋째, 환난에 직면한 성직자가 피난에 오를 수 있는 경우는 “거기에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길 그리스도의 백성이 없을 때, 또는 같은 이유로 피신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성직자들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이다.

넷째, 돌보아야 할 성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돌보는 직무를 저버리고 도피하는 자는 샅군에 불과한 ‘단죄 받을 도주자’이다.

다섯째, 환난의 극심함을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 할 것을 두려워하라.

여섯째, 환난의 때 일부의 성직자라도 생존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주지하라.

일곱째, 환난에 처한 성직자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로 남겠노라고 자원하여 선뜻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는 토론을 하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제비뽑기를 하라.⁹⁶⁾

‘도날드 코코란’(Donald Corcoran)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강력한 위기 대응 목회 돌봄은 ‘성직자들의 영적 향상을 지향하는 영적 지도(指導)’이다.⁹⁷⁾ 결국 *Vita Augustini* 28-31의 어거스틴은 죽음보다 더한 환난에 처한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과 교회를 끝까지 돌볼 것을 촉구한다. 이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 15)는 바울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전시군중활동에 임하는 군목들은 끝까지 부대 장병과 함께 하는 ‘현존’⁹⁸⁾의 현신을 다해야 함을 시사한다.

5) 최후까지 교회를 위해 현신을 다하는 경건한 사역자로서의 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생의 끝 날까지 교회의 풍성한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심혈을 쏟은 경건한 사역자로서 전시군중활동에 임하는 군목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풍요롭게 하는 최선의 상황을 구축하도록 견인한다.

96) 이규철,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262-269에서 재인용.

97) 도날드 코코란, “영적 지도,” 『기독교 영성(1)』, 유해룡 등 역 (서울: 은성, 1997), 709.

98) 키타리(David Kitari)에 따르면, 현존이라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복판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존이란 우리 사회의 구체적 구조에 참여를 뜻한다. 그것은 우선 권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명확하게 보기 전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존은 증거에 앞선다. 바꾸어 말하면 현존 자체가 바로 증거이다. 결국 키타리에 의하면, 바울사도가 자신의 전도에 대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롬 15: 18) 성경의 전도자들은 사회의 구체적 상황 속에 참여하면서 전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군종목사와 신자장병들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 이들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마 13: 16; 뱀전 2: 12). David Kitari, “Theology of Presence, Dialogue, and Proclam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123.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회심한 이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금욕적 수도적 생활⁹⁹⁾을 하면서 수도생활의 지성화를 도모하는 깊은 경건을 실천했다. 특히 포시디우스가 밝힌 것처럼,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을 전후한 비상상황에서도 그의 필생의 저작들을 손질하여 교회의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교회의 풍성한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¹⁰⁰⁾ 피터 브라운은 어거스틴을 일컬어 “책을 통해 작은 도시를 크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다”고 평가한다.¹⁰¹⁾ 이처럼 끝까지 교회의 내일을 풍요롭게 하려는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외적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채 기도예 현신¹⁰²⁾하다가 430년 8월 2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반달족 침공으로 인한 엄혹한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서도 생의 최후까지 교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모습은 한국군의 정신적 영적 리더로서 전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장병과 함께 하며 군중활동

99) 어거스틴의 수도생활에 대한 대표작은 『수도자들의 노동』(*De opere monachorum*, 400년)이다. 이는 중세 수도생활의 표어인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Ora et labora)의 근간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401년 저술한 『거룩한 동정』(*De sancta virginitate*)을 통해 봉헌된 동정성과 절제에 관한 가르침을 ‘서간 243’에서 부연 설명한다. 410년경 어거스틴이 히포 주교좌 교회에서 행한 ‘시편 132(133)편에 관한 설교,’ 425-426년 사이에 선포된 ‘설교 355, 356’ 등은 후대교회의 수도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규철, “타가스테 공동체의 영성,”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故방성규 박사 추모논문 III집』 (서울: 기독교영성연구소, 2010), 160-163에서 재인용.

100) *v. Aug.*, 31. 8.

101) 피터 브라운, *op. cit.*, 630.

102) *v. Aug.*, 31. 3-5.

임무수행을 감당해야 하는 군목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롤 모델(role model)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평가된다.

6.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을 저지하는 로마군을 격려하고 전쟁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 전념한 교회의 사역자이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비록 그가 노구의 몸이었지만 단호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로마군으로 하여금 의로운 전쟁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채근하였고 전쟁의 공포에 짓눌린 북아프리카 사회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역에 전념하는 특이점을 함유한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오늘날의 전시 한국군 군종목사들의 위기대응 군종활동 임무수행에 시사해 주는 통찰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짓지 않도록 사태의 비극적 상황을 냉철히 살피면서 재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으로 특화되었다.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어거스틴의 영적 리더십은 전투에 임하는 국군장병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구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현역 군목들의 직무수행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일반적 차원에서 ‘구민(救民), 애민(愛民), 보민(保民)의 리더십’으로 부대 장병들과 국민들

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군종목사의 기본임무수행이 전시군종활동의 기본이 됨을 방증한다.

둘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은 6·25전쟁 중 출발한 한국군 군종제도의 기본 취지와 임무 수행 방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국군 군종활동의 당위성을 보증한다. 특히 *Vita Augustini* 28-31의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에 의해 환란에 처한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과 교회를 끝까지 돌볼 것을 촉구한다. 이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 15)는 바울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전시군종활동에 임하는 군목들은 끝까지 부대 장병과 함께 하는 ‘현존(現存)의 헌신을 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생의 끝 날까지 교회의 풍성한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심혈을 쏟은 경건한 사역자로서 위기대응 전시군종활동에 임하는 군목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풍요롭게 하는 최선의 상황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은 반달족 침공으로 인한 엄혹한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서도 생의 최후까지 교회가 속한 사회와 성도를 돌보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이런 점에서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모습은 한국군의 정신적 영적 리더로서 전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장병과 함께 하며 군종목사 본연의 임무수행을 감당해야 하는 정체성을 견지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롤-모델(role model)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평가된다.

Abstract

Implications of Augustine's ministry in *Vita Augustini* 28-31 for the Korean Army Wartime Chaplain Operation

Kyu Chul Lee

This study examines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ministry of Augustine in response to the invasion of the allied Vandals who invaded North Africa in 429-430, reflected in *Vita Augustini* 28-31, on the wartime military service of Korean chaplains.

Augustine's ministry reflected in *Vita Augustini* 28-31, although he was an old man, exerted resolute spiritual leadership to urge the Roman army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for a righteous war, and to transform the North African society and the church crushed by the horrors of war into the love of Christ. It contains a singularity dedicated to the ministry of caring for the heart.

In this respect, Augustine's image reflected in *Vita Augustini* 28-31 is a spiritual and spiritual leader of the Korean military, who,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wartime, maintains the identity of a chaplain who has to carry out military service missions with the soldiers, and carries out his mission. It is evaluated to be positioned as a role model.

Key Words

Augustine, Vandal's Invasion, *Vita Augustini*, Augustine's ministry, the Korean Army Wartime Chaplain Operation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이규철의 논문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Comment: Implications of Augustine's ministry in Vita Augustini 28-31 for the Korean Army Wartime Chaplain Operation

» 이석영 Th. D.(cand.)*

1. 들어가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로 조예가 깊은 이규철 박사님께서 흡속에 묻힌 진주를 발굴해 주심과 같은 옥고(玉稿) 통해 한국군의 전시군종활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6개월을 넘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強) 대(對) 강(強)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과 북미의 구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중임을 상기한다. 필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3주년인 지난해 11월 1일부로 신설된 한국(韓國)측 군종실 책임자로 첫 보직을 받아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해야(Fight Tonight) 하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귀한 논문에 대해 논찬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한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9월 14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14일

* 총신대학교 목회상담학 박사 수료, 연세대학교 목회상담학 석사, 연세대학교 종교교육 석사,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군종실 부실장

2. 연구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저자가 밝히듯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429~430년 북아프리카를 침공한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에 대응하여 로마군 안에서 사역했던 어거스틴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군종목사들에게 롤 모델이 된다는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은 비록 그가 로마군에 종군하지는 않았지만 반달족의 침공을 저지하는 로마군을 격려하고 전쟁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수고를 다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군종목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군종활동을 수행했다.

당시 시대상은 복합적이다. 로마제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위상과 권위가 쇠잔해가고 있었던 반면, 북아프리카 공교회는 신학적으로 견고하게 정립되어가며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강화되고 있었다.

1)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

(1) 냉철한 상황파악과 성찰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탈에 직면하여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깊이 살피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그는 참사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어거스틴은 재난의 참혹함을 비판하는 염세주의를 거부하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담대한 마음을 다잡아 평정심을 유지했다.

(2) 뜨거운 눈물의 증보기도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만행으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참혹한 시련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도록 뜨거운 눈물의 증보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청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기도해주었다.

(3) 아프리카방면 군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의로운 전쟁’ 수행 촉구

어거스틴은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기 11년 전(418년), 군사적 소집의 도덕적 적합성을 찾고 있던 보니파티우스에게 의로운 전쟁에 관한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록 전쟁 중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이는 전쟁의 목적이 평화에 있기 때문이며(마 5: 9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4) 참된 목회사역자에 대한 조언

티아베나(Thiabensis) 교회의 호노라투스(Honoratus)가 어거스틴에게 “적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 지 여부”를 질문하자, 어거스틴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명확하게 답신을 주었다. 교회의 목회 사역자는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속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성도를 버리거나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는 동화(同化)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진중하게 권고한다.

(5) 교회의 지적 자산 보존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을 전후로 한 어수선한 정황에서도 그의 저술 작품들을 손질하여 교회의 도서관에 비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교회의 지적자산을 구축하고 보존하며 확장하는 지혜의 조

치를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6) 생애 최후까지 경건한 사역자로서 헌신

어거스틴은 반달족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통이 가중되며 육신도 병환을 앓는 와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한다. 특히 어거스틴은 생애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예 행헌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 설교의 사명을 다했다.

2)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에 주는 시사점

(1) 구민(救民) 애민(愛民) 보민(保民) 리더십으로서의 전시군중활동

어거스틴이 고난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영적리더십은 전투에 임하는 국군장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구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현역 군목들의 직무수행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의 당위성 보증

어거스틴이 보여준 목회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은 6·25전쟁 중 출발한 한국군 군중제도의 기본 취지와 임무 수행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 한국군 군중활동의 당위성을 보증한다. 6·25 참전 군목들이 두 방향에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하나는 진중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거행하면서 성례를 베풀었다. 다른 하나는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였고, 위문 및 위문품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켜 장병 사기진작을 도왔으며, 직업교도소를 세워 상이군인들의 사회재활을 도왔다.

(3) 의로운 전쟁에 대한 인식 강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군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반달족연합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격퇴하는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국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침공하는 불의한 세력을 응징하고 평화를 지키는 의로운 전쟁에 승리하도록 정신을 무장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전시군중활동의 적절한 예시가 된다.

(4) 강력한 위기대응 목회 돌봄

어거스틴이 호노라투스 주교에게 명한 ‘참된 목회사역자에 대한 조언’은 침탈자에 의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적합한 행동준칙으로서, 전시군중활동에 임하는 군목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어거스틴은 죽음보다 더한 환난에 처한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과 교회를 끝까지 돌볼 것을 촉구한다. 이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 15)는 바울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전시군중활동에 임하는 군목들은 끝까지 부대 장병과 함께 하는 ‘현존(現存)’의 헌신을 다해야 함을 시사한다.

(5) 최후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경건한 사역자로서의 본

어거스틴은 생의 끝 날까지 교회의 풍성한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심혈을 쏟은 경건한 사역자로서 전시군중활동에 임하는 군목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풍요롭게 하는 최선의 상황을 구축하도록 견인한다.

3. 논평

어거스틴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 신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필자에게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군중활동에 시사점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다.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논문을 읽었고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위기상황에서 반달족의 침공을 저지하는 로마군을 격려하고 전쟁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수고를 다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군중목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군중활동을 수행했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군중제도와 활동에 있어 우리보다 먼저 임무 활동을 전개한 미육군은 『야전교범(FM 1-05)』에서 군중활동의 핵심 대상으로 ‘살아 있는 자, 전투 중인(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지목한다. 곧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양육한다’(Nurture the Living). 전투와 전쟁을 대비하여 영적인 저항력과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의식 지원활동을 개발한다. ‘전투 중인 장병에 대해서는 돌봄을 제공한다’(Care for the Wounded). 이로써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상처와 충격을 받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돌봄을 지원하며, 전장에서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장병에게는 종교적 지원, 영적 보살핌, 위로와 희망을 제공한다. 특히 군중활동의 핵심은 생명의 존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장병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죽음을 앞둔 장병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 그리고 ‘죽은 자의 죽음을 명예롭게 한다’(Honor the Fallen). 특히 장례식 및 추모의식/예배를 통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의 아들과 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군도 이와 유사하게 육군 군종교범에서 군종지원을 정의한다. 곧 군종지원은 ‘무형전력 강화, 전투력 보존과 회복, 인성함양과 인권신장을 위해 종교적 기능, 선도기능, 교육기능을 바탕으로 ‘종교 의식 집전, 심리안정 지원, 신앙전력화 교육, 전사자 명예고양 활동, 전상자 위로, 인성 및 전장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다.

둘째, 어거스틴이 참사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며 사람들이 공포에 젖지 않도록 사태의 비극적 상황을 냉철히 살피면서 재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리더십 또한 한국군 군종장교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특히 ‘적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변’이 웅변하듯, 중세시대에 문명사적 전환을 이룬 흑사병이 독일에 창궐했을 때 비텐베르크를 떠나라는 명령에도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 남았던 루터처럼, 군복을 입은 성직자인 군종장교는 끝까지 부대 장병과 함께 하는 현존의 헌신을 다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군도 ‘항재전장’(恒在戰場)을 강조한다. 이에 한국군 군종병과 또한 ‘임재의 사역’(미군에서는 Ministry of Presence, 영국군에서는 Ministry where they are로 표현함)을 강조한다. 장병들이 있는 곳에 군종장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 15)는 성경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군종장교로서 온전할 수 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흑사병이라는 재난의 한복판에서 나온 찬송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지휘관에게 의로운 전쟁 수행을 촉구했던 어거스틴의

모습과 헌신은 한국군 군종제도의 기본 취지와 임무 수행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 한국군 군종활동의 당위성을 보증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환기시켰으며 그리스도교인이 군대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물리적 힘으로써 군사적 적과 싸우는 것은 기도로써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여겼다. 특히 어거스틴은 전쟁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여기에서 여호와와의 증인을 비롯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집총 거부자에 대한 조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1969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의 만행적인 도발이 다발(多發)하여 국가안보와 군정신 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군사령관 ‘한신’ 장군에게 장병 정신전력 증대를 위한 소위 ‘전군 신자화 운동’을 건의한 군종참모 대령 한준섭 목사의 진중함은 현 한국군 군종장교들에게 좀 더 힘써 군종장교요 군종성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당위성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재차 각인케 한다. 각급부대 지휘관의 특별 참모인 군종장교가 지휘관에게 적절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참모 조언을 하는 역할(기능)은 우리 한국군의 승리를 위해 여전히 꼭 필요한 임무이자 사명이다. 최근 육군본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장 군종윤리 조언’에 역점을 두고 논제를 발전시키고 있기도 하다.

4. 나가면서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이규철 박사는 우리 군선교의 이론적 토대를 놓고 있는 분이다. 금번 저자의 논

문을 통해 429~430년의 역사적 정황에서의 어거스틴의 사역이 2022년의 한국 군종장교와 군선교의 현장에 큰 시사점을 준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럽다. 다시 한번 옥고(玉稿)에 심심(深心)한 감사를 드린다.

논찬을 마무리하면서 전시군종활동과 관련하여 간과된 부분에 사족(蛇足)을 붙인다. 우리나라 군종제도와 군종장교들의 강점은 외국군 군종관계자들도 인정하다시피 목양사역적인 측면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시군종활동과 관련하여 취약한 부분은 군종장교의 작전(作戰, operation)적 측면이다. 일부 군종장교의 경우,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논찬자가 지휘관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지휘관들이 이 같은 애로점을 토로하는 경우를 왕왕 접한다. 종교 활동에는 능숙하지만 장병과 함께하는 야전성이 결여된 군종장교를 원하는 지휘관(그 지휘관이 비록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없을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군의 경우, 군종장교는 대대부터 보직되어 여단을 거쳐 상급부대인 사단에 보임되어서는 ‘Command Chaplain’(지휘부 군종장교)과 ‘Garrison Chaplain’(주둔지 군종장교)으로 구분된다. 지휘부 군종장교의 경우 지휘관의 참모로서 군 작전과 관련한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지휘부 군종장교는 전투병과 장교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전투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주둔지 군종장교는 목양사역을 핵심으로 삼아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주둔지 군종장교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군무원들에 대한 종교기능을 제공한다. 이처럼 미 군종제도는 군종장교 소속 자체를 구분하

여 시행하고 있다.

미 군종병과의 구성과 편제에 비해 한국군 군종장교의 현실은 빈약하다. 한국군 군종장교는 구성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연고로 Command Chaplain(지휘부 군종장교)과 Garrison Chaplain(주둔지 군종장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개별 군종장교가 다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각 군종장교의 임무수행 영역의 호불호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원활하게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영역은 ‘주마가편’(走馬加鞭)하여 계속해서 더 잘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더 발전시키고 보강해야 할 군종활동의 임무수행 영역 또한 심혈을 다해 강화해 나가야 할 당위성과 책무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캐나다군 군종병과의 모토인 ‘*Vocatio ad servitium*’(A Call to Serve)가 이즈음의 우리 한국군 군종장교들에게 주는 울림이 도전이 크다고 사려 된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군 군종장교들이 사랑과 용기로써 한국군을 섬기는 군종성직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 23)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논찬 기고자 Email

chaplainleesy@yonsei.ac.kr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stant chaplain's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affect and job stress and combat performance of ROK Army

» 임정인 Ph. D.(Cand.)*

국문초록

군종목사가 군 장병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일은 군선교에 중요하지만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장병들이 지각하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화전투훈련에 군종목사와 함께 참여한 육군 병사 191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 정보를 포함하여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 전투준비자신감 및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 등의 항목들이 측 정되었다. 최종 15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는 전투준비자신감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 관계 들에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군종목사 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높을 때보다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가 지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중심단어

군종목사, 부정정서, 직무스트레스, 수행, 사회적 지지

• 논문 투고일: 2022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10월 1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및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심리학 과(산업 및 조직심리) 박사 수료, 현)육군 1군단 군종목사

I. 서론

군인에게 최고의 수행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는 군기와 사기, 단결 등을 강조하고, 교육훈련에 매진하며 전투에서의 승리를 준비한다.¹⁾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전투 수행을 낮추는 요인을 찾아 전투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군대는 전투준비안전단과 같은 조직을 활용하여 군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비전투손실 예방에 힘쓰고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군 장병의 전투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를 상정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로서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³⁾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심리욕구, 즉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충족될 때 만족을 경험하고 웰빙의 수준이 높아지며,⁴⁾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과 웰빙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군 장병은 비자발적으로 입대를 하고, 가족 및 친구 등 기존의 친밀한 관계들과 단절되는 등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만족과 웰빙 및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통제된 집단생활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입대 전 개인 중심의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청년들은 우울⁵⁾과 불안⁶⁾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한다.

직무스트레스도 군 장병의 전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군 장병은 입대 이전에는 거의 수행한 적이 없는 직무들, 예컨대 경계근무, 군사훈련, 각종 작업 등을 복무 기간 동안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육군 병사의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병사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복무염증 다음으로 직무부적합(job misfit)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⁷⁾

이 같은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는 군 장병이 전투상황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1) 대통령령 제3245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기본정신)
1.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3.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준비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2) 국방일보(2021. 8. 9.) [육군전투준비안전단] '내 손을 놓지 마', 김철환 기자

3) 법률 제18682호 병역법, 제1장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E. L. Deci, &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11(4) (2000), 227-268.

5) 한국일보(2020. 10. 26.) '정신과 진료 받은 군인 4년 새 30% 늘었다', 박진만 기자

6) 이승엽, 윤창교, 민정아, 이창욱, 박동연, 안종성, 이상돈, 백명재, 장준영, 양주연, 채정호, "한국 군 장병에서의 불안장애의 발생률," 『대한불안학회지』 10(1) (2014), 59-67.

7) 문호석, 이승호, 정봉룡, 권오정, 박입희, "육군 부대유형별 병사 계급별 스트레스 평가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1(3) (2015), 157-181.

있다. 하지만 아직 군 장병의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전투 수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군 장병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가 전투 수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상정했다. 군종장교는 종교활동, 선도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며⁸⁾ 군종병과의 모토인 ‘함께 하라!’는 구호 아래 장병들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⁹⁾ 군종장교가 장병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군종장교의 존재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심리학적 으로 장병들이 인식하는 군종장교의 사회적 지지로 표현될 수 있다.¹⁰⁾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동료, 상급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특정한 개인 혹은 직책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군 선교 분야에서는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군종목사의 존재 혹은 역할이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그마저도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군종목사의 목회상담적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¹¹⁾

8) 국방부훈령 제2690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장 군종업무 제4조(기본목표) 군종업무는 종교·교육·선도·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국방일보(2022. 2. 13.) [종교와 삶] '모바일 채플', 소령 박상용 목사

10)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1988), 30-41.

11) 성진화, "변화하는 군선교를 위한 군목의 리더십,"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윤경일, "군내 자살예방을 위한 군종목사의 목회상담적역할," *성결대학교 신학*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군 장병이 경험하는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전투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 전사와 평시에 종교지도자 역할은 물론 교육과 선도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군종목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먼저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전투 수행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더불어 육군 장병이 인식하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부적 관계를 약화시키는지 검증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

일반적으로 정서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구성되며, 두 정서는 서로 관계되지만 구별된 요인으로 이해된다.¹²⁾ 이 중 부정정서(negative affect)는 “경멸, 혐오감, 분노, 죄의식, 신경증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포함하는 주관적 불쾌감 및 고통(p. 593)”으로 정의되며¹³⁾ 정신건강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윤호, "군선교를 위한 군종목사의 리더십 연구,"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 박홍석, 이정미, "정적정서 부정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2016), 617-641.

13) 강민우, 홍영현, 서용원, "일과 삶의 갈등이 조직 몰입과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원 손실과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3) (2018), 583-609.

사용된다. 확장 및 구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에 따르면, 긍정정서는 개인의 사고-행동 레퍼토리(thought-action repertoires), 주의(attention), 관계(relationships), 그리고 생각(thinking) 등을 확장하는 반면 부정정서는 사고-행동 레퍼토리와 주의, 관계와 생각 등을 좁게 만든다.¹⁴⁾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은 긍정정서로 인해 확장된 개인의 자원(예: 지식, 기술 등)을 통해 목표성취 및 문제극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데 반해¹⁵⁾ 부정정서를 느끼는 개인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며 나아가 정서적 장애(emotional disorder)까지 경험할 수 있다.¹⁶⁾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특성과 직무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및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p. 127)”로 정의되며,¹⁷⁾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상태로 여겨진다.¹⁸⁾ Parker와 DeCotiis(1983)가 제시하고¹⁹⁾ 송대현 등(1988)이 정리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델을

14)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001), 218-226.

15) B. L. Fredrickson(2013). Positive emotions broaden and build.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7, pp. 1-53). Academic Press.

16) E. L. Garland, B. Fredrickson, A. M. Kring, D. P. Johnson, P. S. Meyer, & D. L. Penn, “Upward spirals of positive emotions counter downward spirals of negativity: Insights from the broaden-and-build theory and affective neuroscience on the treatment of emotion dysfunctions and deficits in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2010), 849-864.

17) 송경재, 정신영, 권소영, “해의 파병 장병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14 (2021), 121-147.

18) 송대현, 이종목, 박한기,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1) (1988), 123-146.

19) D. F. Parker, & T. A. DeCotiis,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1983), 160-177.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직무스트레스원(job stressor)은 작업 자체의 특성 및 조건, 조직의 특성, 조직에서의 역할, 대인관계, 경력 발달의 인지, 외부개입과 책임성 등이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는 낮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및 직무수행과 회피행동의 증가 등이다. Motowidlo 등(1986)이 제안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job performance)의 관계 모델에 따르면, 직무 조건(job conditions)과 개인의 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빈도와 강도가 결정되고, 개인이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할 때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를 경험하며, 결국 수행이 낮아진다.²¹⁾

본 연구에서는 Griffith(2002)의 제안을 따라 육군 장병의 전투 수행을 장병 개인이 전투를 준비하며 가지는 자신감을 뜻하는 전투준비자신감(combat readiness confidence)으로 정의하였다.²²⁾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이하 SCCT)의 수행 모델(performance model)에 따르면,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과 기술(skill),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및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등은 작업 수행(work performance)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며, 그림 1에 SCCT 수행 모델이 제시되었다.²³⁾ Brown과 동료들(2011)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에 대한 동기가 높아져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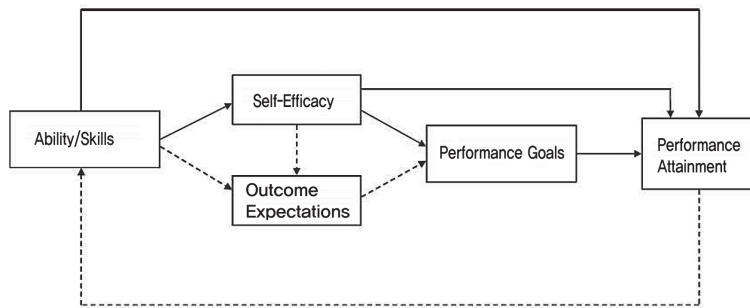
20) 송대현 등(1988), *op. cit.*

21) S. J. Motowidlo, J. S. Packard, & M. R. Manning, “Occupational stres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for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4) (1986), 618-629.

22) J. Griffith, “Multilevel analysis of cohesion’s relation to stress, well-being, identification, disintegration, and perceived combat readiness,” *Military Psychology* 14(3) (2002), 217-239.

23) S. D. Brown, R. W. Lent, K. Telander, & S. Tramayn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onscientiousness, and work performance: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2011), 81-90.

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결국 수행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전투준비자신감은 SCCT 모델의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전투 수행을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수행 모델(Brown 등, 2011)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수행과 적응, 심리적 안녕감 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먼저 부정정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정서는 대학생활 적응과 부적 관계를 보였고,²⁵⁾ 대학생의 인지적 유연성을 낮추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본 연구에서 관심

24) *Ibid.*

25) 박은민, “대학생의 부정적정서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2019), 383-401.

26) 조은영, 임정하, “대학생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2014), 185-210.

을 가지고 있는 결과변인인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정서는 자기보고식 과업수행 및 맥락수행(협력행동과 조직헌신)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r = -.232 \sim -.435$)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²⁷⁾ 스페인 사업가들이 느낀 부정적인 정서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업의 성공과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또한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 재활 중인 캐나다 운동선수들의 부정정서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정서가 수행뿐 아니라 자신감에도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육군 장병이 경험하는 부정정서가 전투 수행으로 정의되는 전투준비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였으며,³⁰⁾ 신체 건강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³¹⁾ 이종목 등(1991)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긴장을 높이고 직무만족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직

27) 박동건, 이은정, 최대정, “직장인의 정서경험과 과업수행 및 맥락수행의 관계에서 성별과 역제규범의 차별적 영향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2005), 413-436.

28) M. J. Gorgievski, J. A. Moriano, & A. B. Bakker, “Relating work engagement and workaholism to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9(2) (2014), 106-121.

29) D. A. Tripp, W. Stanish, A. Ebel-Lam, B. W. Brewer, & J. Birchard, “Fear of reinjury, negative affect, and catastrophizing predicting return to sport in recreational athletes with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at 1 year postsurgery,” *Rehabilitation Psychology* 52(1) (2007), 74-81.

30) 백승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이직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0(4) (2019), 1325-1340.

31) 우명이, 서경현,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와 직무스트레스와 강인성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008), 91-109.

무성과는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³²⁾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수치로 평가된 수행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³³⁾ 금융업에 종사하는 타이완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자기보고식 수행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³⁴⁾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부정정서는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사고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 자신감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및 직무와 관계된 요인들이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고,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물론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군 장병이 경험하는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는 군인의 전투 수행을 뜻하는 전투준비자신감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1: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은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은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2.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로부

32) 이종목, 송대현, 박한기, 송병일,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성과의 관계모델 검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4(1) (1991), 1-21.

33) M. Jamal, “Job stress and job performance controversy revisited: An empirical examination in two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4(2) (2007), 175-187.

34) Wu, Yu-Chi, “Job stress and job performance among employees in the Taiwanese finance sector: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1) (2011), 21-31.

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자원을 뜻하며,³⁵⁾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³⁶⁾ 박지원 (1985)은 사회적 지지를 상황 중심의 실제적 지지(사회적 지지망),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지지 형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지지 욕구)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고,³⁷⁾ 이중 실질적으로 제공된 지지를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³⁸⁾

이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지지 형태)는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돈 또는 물건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하고,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³⁹⁾

외상경험이나 스트레스 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충하는 변인으로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적 지지와 관계

35) 설정훈, 박수현,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2) (2015), 553-578.

36) 서미, 최보영, 조한익,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006), 271-288.

37)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38) 김하람, 강재원, 김나래, “Rasch 모형을 이용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 단축형(POS-8) 개발,” 『인간이해』 42(1) (2021), 51-70.

39) *Ibid.*

된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관되게 지지한다. 장재현과 이기학(2013)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는 외상을 경험한 생존장병들에게 동료와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회복의 자원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⁴⁰⁾ 해군 장병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강인성을 높여서 정신건강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또한 육군 병사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낮아졌으며,⁴²⁾ 육·해·공군·해병대 장병 6,3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병들의 자살 생각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⁴³⁾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군 장병이 부정적인 정서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질 때, 이 관계들을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이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할 때, 높을 때보다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전투준비자신감에 주는 부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 3과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3: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군 장병의 부정정서와 전투준

40) 장재현, 이기학, "외상경험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과 회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2013), 1145-1164.

41) 설정훈, "군 복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2018), 57-79.

42) 천세구, 채성기, 이재창, "병사들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7(2) (2016), 31-57.

43) C. G. Yoon, J. Jung, J. H. Yoon, D. Lee, H. Jeon, & S. Y. Lee, "How is the suicide ideation in the Korean Armed Forces affected by mental illness, traumatic event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6(15) (2021), 1-12.

비자신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군 장병의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질 것이다.

Ⅲ. 방법

1.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학화전투훈련을 경험한 육군 병사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약 2주간의 과학화전투훈련에 참여 후 부대로 복귀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 확인이기 때문에 과학화전투훈련에 참여한 부대원 중 군종목사와의 접촉이 보다 빈번한 직할부대 장병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변인 항목 전체에 응답하지 않거나 역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응답한 자료, 인구통계학 항목에 응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34명의 자료를 제거하고, 최종 1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징병제도 특성에 따라 참가자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20.68세($SD=1.26$)였으며, 19세부터 28세의 범위에 분포했다. 계급 분포를 살펴보면, 이병이 10명(6.4%)으로 가장 적었고, 일병

이 77명(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병이 58명(36.9%), 병장이 12명(7.6%)이었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 129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25명(15.9%), 대학 졸업 이상이 3명(1.9%)이었다. 종교 분포를 확인한 결과,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97명(61.8%)이었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60명 중에서는 기독교가 39명(2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11명, 7.0%)와 불교(6명, 38%), 기타(4명, 2.5%) 순이었다.

2. 측정도구

가. 부정정서(negative affect)

참가자들이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⁴⁴⁾이 개발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⁴⁵⁾가 타당화한 정적정서 부정정서 척도 중 부정정서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짜증스러웠다”, “괴로웠다”, “적대적이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나.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참가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eller(1984)⁴⁶⁾가 사용한 4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업무에서 긴장감을 경험한다”, “나의 일은 여러 면에서 나를 좌절시킨다”, “나의 일에서

44) D. Watson, L. A. Clark, & A. Telleg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988), 1063-1070.

45) 박홍석과 이정미(2016), *op. cit.*

46) R. T. Keller, “The role of performance and absenteeism in the prediction of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1) (1984), 176-183.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일에서 어떠한 부담도 느껴본 적이 없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2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채점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Keller(1984)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에서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Keller(198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9였다.

다. 전투준비자신감(combat readiness confidence)

참가자들의 전투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Griffith(2002)⁴⁷⁾가 사용한 지각된 전투준비(perceived combat readiness) 척도 3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투상황을 가정할 때, 귀하의 자신감은 어느 수준입니까?”, “무기와 장비들을 다루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귀하의 자신감은 어느 수준입니까?”, “전투상황을 가정할 때, 귀하의 전투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수준입니까?” 등 개인의 전투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원척도와 본 연구 모두에서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로 측정되었으며, Griffith(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하람, 강재원, 및 김나래(2021)⁴⁸⁾가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 단축형(PSO-8)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

47) Griffith(2002), *op. cit.*

48) 김하람 등(2021), *op. cit.*

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행위 요인으로 구성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25문항 원척도를 참가자들의 응답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8문항 단축형으로 개발되었다. “군종장교는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군종장교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군종장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김하람 등(202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김하람 등(20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8이었다.

마. 인구통계학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연구변인 고유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으로 투입될 인구통계학 특성들이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나이, 학력(1=고졸 이하, 2=대학 재학, 3=대학 졸업 이상), 계급(1=이병, 2=일병, 3=상병, 4=병장), 종교(1=없음, 2=기독교, 3=천주교, 4=불교, 5=기타) 등 항목에 응답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고,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의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와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7)⁴⁹⁾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1에서 부트스트래핑을 5,000번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전투준비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단순기울기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Cronbach's α 계수가 .7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계수는 .69로 기준점인 .70에 근접하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변인들 중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 전투준비자신감 사이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인구통계학 변인들을 제외한 모든 연구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는 부정정서($r=.19,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

4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2017).

관을 나타냈고, 전투준비자신감($r = .16,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r = .13, n.s.$). 둘째, 부정정서는 전투준비자신감($r = -.3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사회적 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r = -.01, n.s.$). 셋째, 전투준비자신감은 사회적 지지($r = .16, n.s.$)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추가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와 장병의 종교 유무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종교 유무는 사회적 지지($r = .23,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종교를 가진 장병일수록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및 상관(N=157)

	M	SD	1	2	3	4	5	6	7	8
1. 나이	20.68	1.26	-							
2. 계급	2.46	0.73	.21*	-						
3. 종교	0.38	0.49	.04	-.14	-					
4. 학력	1.86	0.40	-.10	.16	-.02	-				
5. 직무스트레스	3.38	0.86	-.11	-.19*	.08	.15	(.69)			
6. 부정정서	2.75	0.72	.09	-.04	.19*	.08	.19*	(.81)		
7. 전투준비자신감	3.51	1.08	.01	.21**	-.10	-.01	-.16*	-.30***	(.94)	
8. 사회적 지지	2.54	1.17	-.17*	-.25**	.23**	-.03	.13	-.01	.16	(.98)

주1. 계급(1=이병, 2=일병, 3=상병, 4=병장); 종교(0=없음, 1=있음); 학력(1=고등학교 졸업, 2=대학 재학, 3=대학졸업 이상); 괄호 안의 숫자는 Cronbach's α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2. 조절효과 분석

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

를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인으로 측정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셈항을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과변인(전투준비자신감)을 제외한 예측변인(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과 조절변인(사회적 지지)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셈항을 투입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형에서 결정계수 변화량(ΔR^2)의 유의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1단계에서 나이, 학력, 계급, 종교 등 인구통계학 특성들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으며, 종교와 계급, 학력 등은 범주형 변인이기 때문에 더미코딩(dummy coding) 후 투입되었다. 2단계에서 부정정서와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각각 투입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부정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곱셈항,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곱셈항이 각각 투입되었다.

첫 번째로 부정정서가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부정정서 모형을 검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모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더미코딩된 인구통계학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정정서와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평균중심화시킨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셈항(부정정서×사회적 지지)을 투입하여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으며,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결과변인 : 전투준비자신감						
		<i>b</i>	<i>SE</i>	β	<i>t</i>	<i>R</i> ²	ΔR ²	
1 단계	(상수)	3.43	1.51		2.28*	.07		
	나이	-.03	.07	-.04	-.42			
	종교	-.17	.18	-.08	-.95			
	계급더미1	.75	.36	.35	2.08*			
	계급더미2	1.05	.37	.47	2.84**			
	계급더미3	1.05	.47	.26	2.26*			
	학력더미1	-.07	.24	-.03	-.31			
	학력더미2	-.46	.67	-.06	-.70			
2 단계	(상수)	2.37	1.43		1.65	.19***	.12***	
	나이	.02	.07	.02	.31			
	종교	-.16	.17	-.07	-.91			
	계급더미1	.63	.34	.29	1.86			
	계급더미2	1.03	.35	.47	2.97**			
	계급더미3	1.06	.44	.26	2.40*			
	학력더미1	.01	.22	.01	.03			
	학력더미2	-.38	.63	-.05	-.61			
	부정정서	-.41	.12	-.28	-3.59***			
사회적 지지	.21	.07	.23	2.85**				
3 단계	(상수)	2.50	1.40		1.78	.23***	.04**	
	나이	.02	.07	.02	.25			
	종교	-.19	.17	-.09	-1.12			
	계급더미1	.61	.33	.29	1.86			
	계급더미2	.95	.34	.43	2.77**			
	계급더미3	.87	.44	.22	2.01*			
	학력더미1	.04	.22	.02	.20			
	학력더미2	-.39	.61	-.05	-.64			
	부정정서	-.35	.11	-.24	-3.09**			
	사회적 지지	.24	.07	.26	3.28**			
부정정서 x 사회적 지지	.27	.09	.22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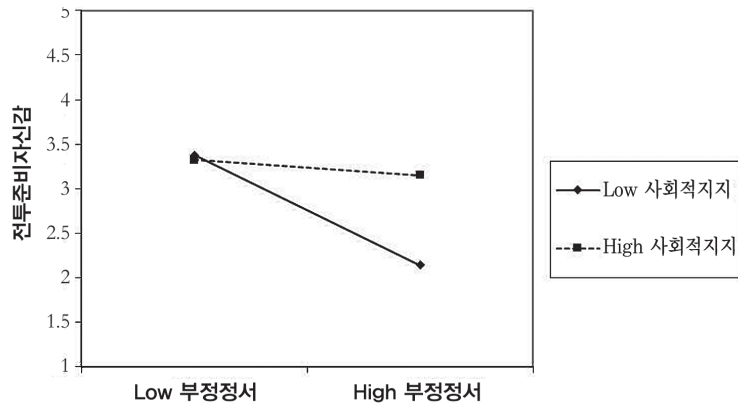
주2. 종교(0=없음, 1=있음); 계급더미1(0=이병, 1=일병), 계급더미2(0=이병, 2=상병), 계급더미3(0=이병, 3=병장); 학력더미1(0=고졸이하, 1=대학재학), 학력더미2(0=고졸이하, 2=대학졸업이상);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전투준비자신감에 대한 부정정서($\beta = -.28, p < .001$)와 사회적 지지($\beta = .23, p < .01$)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은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가 지지되었고,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군 장병의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22, p < .01$).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7)의 제안을 따라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가 표 3과 그림 2에 각각 제시되었다. 부정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높을 때보다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군 장병의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질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표 3〉 부정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기울기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	Boot <i>b</i>	Boot <i>SE</i>	95% CI	
				LLCI	ULCI
부정정서	-1SD	-.66	.14	-.9433	-.3820
	Mean	-.35	.11	-.5776	-.1281
	+1SD	-.04	.17	-.3796	.2933

주3. LLCI=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그림 2〉 부정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두 번째로 직무스트레스가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직무스트레스 모형을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나이와 더미코딩된 종교, 계급과 학력 등 인구통계학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 평균중심화시킨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셈항(직무스트레스×사회적 지지)을 투입하여 연구모형의 설명량인 R²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결과변인 : 전투준비자신감						
		b	SE	β	t	R ²	ΔR ²	
1 단계	(상수)	3.43	1.51		2.28*	.07		
	나이	-.03	.07	-.04	-.42			
	종교	-.17	.18	-.08	-.95			
	계급더미1	.75	.36	.35	2.08*			
	계급더미2	1.05	.37	.47	2.84**			
	계급더미3	1.05	.47	.26	2.26*			
	학력더미1	-.07	.24	-.03	-.31			
	학력더미2	-.46	.67	-.06	-.70			
2 단계	(상수)	2.91	1.45		2.01*	.16**	.10***	
	나이	-.01	.07	-.01	-.07			
	종교	-.25	.17	-.12	-1.47			
	계급더미1	.57	.35	.27	1.66			
	계급더미2	.93	.36	.42	2.60*			
	계급더미3	.91	.46	.23	2.00*			
	학력더미1	.04	.23	.01	.18			
	학력더미2	-.31	.64	-.04	-.49			
3 단계	직무스트레스	-.32	.11	-.23	-2.92**	.20***	.03*	
	사회적 지지	.22	.07	.24	2.96**			
	(상수)	3.17	1.43		2.22*			
	나이	-.02	.07	-.02	-.25			
	종교	-.27	.17	-.12	-1.57			
	계급더미1	.56	.34	.26	1.66			
	계급더미2	.89	.35	.40	2.51*			
	계급더미3	.73	.45	.18	1.61			
3 단계	학력더미1	.07	.23	.03	.32			
	학력더미2	-.34	.63	-.04	-.54			
	직무스트레스	-.30	.11	-.22	-2.79**			
	사회적 지지	.30	.08	.32	3.74***			
	직무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22	.09	.21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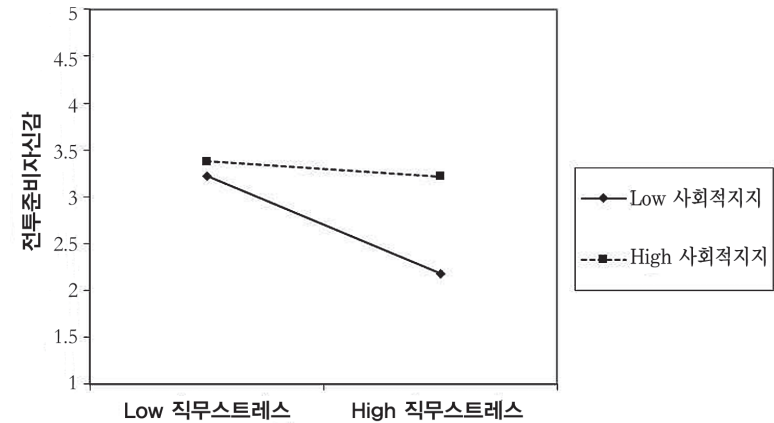
주4. 종교(0=없음, 1=있음); 계급더미1(0=이병, 1=일병), 계급더미2(0=이병, 2=상병), 계급더미3(0=이병, 3=병장); 학력더미1(0=고졸이하, 1=대학재학), 학력더미2(0=고졸이하, 2=대학졸업이상);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전투준비자신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beta = -.23, p < .01$)와 사회적 지지($\beta = .24, p < .01$)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은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가 지지되었고,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군 장병의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21, p < .05$).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Hayes, 2017), 그 결과가 표 5와 그림 3에 각각 제시되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높을 때보다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군 장병의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질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표 5〉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기울기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	Boot <i>b</i>	Boot <i>SE</i>	95% CI	
				LLCI	ULCI
직무스트레스	-1SD	-.56	.15	-.8451	-.2735
	Mean	-.30	.11	-.5168	-.0885
	+1SD	-.05	.16	-.3521	.2602

주5. LLCI =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그림 3〉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V. 논의

본 연구는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에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과학화전투훈련을 경험한 육군 병사 15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는 전투준비자신감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정서와 전투준비자신감, 직무스트레스와 전투준비자신감의 관계 모두에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인식하는 군 장병은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투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장병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는 전투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가 수행과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⁵⁰⁾ 확장 및 구축 이론에 따르면, 부정정서가 개인의 사고-행동 레퍼토리와 생각의 범위 등을 좁히고,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켜 자신감을 낮춘다.⁵¹⁾ Motowidlo 등(1986)과 Parker와 DeCotiis(1983)이 제안한 직무스트레스와 수행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직무와 조직, 개인의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수행이 낮아진다.⁵²⁾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이론적 틀을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군인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⁵³⁾ 군인의 전투 수행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 장병, 특히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전투 수행과 관계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⁴⁾ 본 연구는 비자발적으로 입대하여 위계적인 문화의 군 조직에서 통제된 집단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생소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

50) 박동건 등(2005); 백승영(2019); Tripp 등(2007); Wu(2011), *op. cit.*

51) Fredrickson(2001), *op. cit.*

52) Motowidlo 등(1986); Parker와 DeCotiis(1983), *op. cit.*

53) 대통령령 제3245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기본정신), *op. cit.*

54)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생활관구조와 분대장 과업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2016), 1-25. 국내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행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가 전투 수행으로 정의된 전투준비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 장병은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에 관계없이 전투준비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한 장병은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투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험과 군 생활 스트레스 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⁵⁵⁾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확장한 의의를 가진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장병의 군 생활 적응과 정신건강⁵⁶⁾, 군 생활 만족⁵⁷⁾ 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전투 수행에 대한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종목사의 역할이 육군 장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군종목사의 역할이 종교, 교육, 선도, 대민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병의 사기 진작과 정신무장의 강화 등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⁵⁸⁾ 군종목사는 여러 가지 측면

55) 장재현과 이기학(2013); 천세구 등(2016), *op. cit.*

56) 설정훈(2018); 천세구 등(2016), *op. cit.*

57) 이경수, 조민아, “병사의 불안 및 회피애타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2015), 161-190.

58) 국방부훈령 제2690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장 군종업무 제4조(기본목표) 군종업무는 종교·교육·선도·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서 군 장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목회상담적 역할과 리더십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이었다.⁵⁹⁾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 군 장병은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지지 않고 전투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적 함의들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군 조직은 군 장병이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군기와 사기, 단결 등 군인기본정신의 강화와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 기술을 익히더라도 부정정서와 직무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전투준비자신감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전투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관계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⁶⁰⁾

둘째, 군 장병들이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군중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군종목사에게 요구된다. 군중병과의 모토인 '함께하라!'는 군종장교가 현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현한다.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가 전투준비자신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

59) 성진화(2009); 윤경일(2009), *op. cit.*

60) 국방부훈령 제2556호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11조(정신건강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군 복무 간 심리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군 생활 부적응 등 장병 등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부대생활, 여가 생활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상담·관찰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군내 시행되는 온-오프라인(on-off line)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충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므로 군종목사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들을 고려하면서 장병들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해야 한다.

또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 조직은 장병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와 타종교, 무종교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독 장병들이 인식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타종교 장병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무종교 장병들과 비교할 때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가자 157명 중 97명이 무종교 장병이고 기독 장병은 39명이기 때문에 표집인원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종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들을 갖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들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⁶¹⁾ 또한 한 시점에 모든 변인들이 측정된 횡단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설계되어 본 연구의 결과로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험 혹은 준실험(quasi-experiment) 설계 혹은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 등의 방법들

61) P. M. Podsakoff, S. B. MacKenzie, Lee, J. Y. & N. P. Podsakoff,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2003), 879-903.

을 사용하여 측정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결과변인으로 장병 개인이 지각하는 전투준비자신감을 사용하였다. SCCT 모델에서 자신감이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지만⁶²⁾ 엄밀히 말하면 전투준비자신감이 전투 수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래연구에서는 훈련에서 달성한 성취수준, 자격점수, 심사위원의 평가 등의 점수로 육군 장병의 전투 수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는 일차원성을 가진 8문항의 단축형 척도로 측정되어 사회적 지지의 다면적인 측면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이 가지는 고유한 효과를 보여주었으므로⁶³⁾ 다음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을 측정함으로써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성급히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즉,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연구에서는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들이 지속 실시될 필요가 있다.

62) Brown 등(2011), *op. cit.*

63) 권혜현, 안동근, “유아교사의 다측면적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2021), 641-657.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stant chaplain's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affect and job stress and combat performance of ROK Army

- Jung In Im

It is important for military missions to confirm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testant chaplain's role on military personnel, but there is no research ye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rotestant chaplain's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ldiers' negative affect, job stress, and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191 Army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 with a Protestant chaplain. Including demographic information, items such as negative affect, job stress, combat readiness confidence, and social support of Protestant chaplain's were measured.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final 157 data, negative affect and job stres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ombat readiness confidence, and in these relationships, the social support of the Protestant chaplain showed a moderating effect.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negative affect and job stress, the lower the combat readiness confidence was when the social support of the military pastor was low and higher than when the social support was high.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ROK Army Protestant Chaplain, Negative Affect, Job Stress, Performance, Social Support

논문 기고자 Email

lji4019@naver.com

임정인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 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찬

Com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stant chaplain's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affect and job stress and combat performance of ROK Army

» 전요섭 Ph. D*

1. 요약

이 연구는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 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자는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과 통계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육군 장병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와 직무 스트레스는 전투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 것이며, 군종목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장병은 부정정서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전투준비자신감이 높게 나타나고, 전투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연구자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한 장병은 부정정서 및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투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연구자는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역할이 장병의 전투준비자신감 및 전투수행의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 논문 투고일: 2022년 10월 8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10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10월 8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교육학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예)군종목사

조절효과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2. 긍정적인 면

이 연구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주제의 연구로서 군종목사, 군종 활동, 군선교 등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했다는 면에서 괄목할만한 일이다. 연구자는 군종목사에 대한 장병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은 군선교신학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 연구의 절차와 통계처리 방법 등은 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 연구가 갖는 결정적인 장점은 군종목사의 역할정체성 확립과 그것을 견고하게 할 근거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장병이 지각한 군종목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훈련 및 병영생활은 물론, 전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전투준비자신감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군 전투력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그것을 넘어 장병이 인식한 군종목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군종목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개방적 태도가 형성되어 군선교에도 매우 긍정적인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장병이 지각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 개념은 군종목사는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등의

내용이다. 즉, 장병들이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찾게 되는 존재가 군종목사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결국, 군종목사가 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기초하면, 장병이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더 많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군종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장병의 지각을 높이기 위해 장병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의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연구자는 무종교 장병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무종교 장병이 군인교회에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군종목사의 다양한 군종활동(교육, 선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군종목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를 높임으로써 군선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종목사가 부대에서 장병의 시야에 항상 존재하여 마주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것을 사회적 지지 형성의 전초작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켈미트 존슨(Kermit D. Johnson)은 군종목사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one so often encounters in the military’ (부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군종목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¹⁾ 대대급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 장병의 인식에 따르면, 군종목사와 빈번하게 마주치

1) Kermit D. Johnson, “Compelled by Conscience-Ethics and Role Conflict in the Life of a Chaplain,” *The Military Chaplain* 90 (2017), 26-31.

고 있다고 반응한 인원이 67.6%로 나타났다.²⁾ 한국군 군종목사도 미군 장병의 비율보다 접촉빈도가 높아지면 장병이 군종목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도가 높아지면 연구자가 밝힌 전투준비자신감 및 전투의지 향상, 자살 및 사고예방, 직무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교적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쉬운 면

이 연구는 장병이 지각한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절 효과 분석이라는 괄목할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연구자는 초록에서 “군종목사가 군 장병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일은 군선교에 중요하지만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신학회가 설립되어 작금까지 해마다 심포지움과 다양한 학술연구를 통해 발표된 수많은 논문들은 바로 군종목사가 군 장병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연구자의 이런 표현이 그간 ‘군종목사가 군 장병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표현이 순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병이 군종목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높일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이 연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장병을 대하는 군종목사에게 더욱 실용적인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에 대해 통계 및 다양한 연구 설계방법, 접근들을 제안했지만, 영적 지지에 대한 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다. 이런 소소한 아쉬운 면이 이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단지 논찬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바라기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군종목사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현장감 있는 연구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기점으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들이 파생되기를 바란다.

이론적 기초, 통계 및 연구절차 등이 잘 다져진 귀한 옥고를 내놓음으로써 군선교신학연구를 진일보하게 한 연구자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며, 시의적절한 연구를 통해 군종목사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군종활동에 대하여 새로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연구자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군종목사의 활동 방향성에 대한 지침 또는 군종활동 정책 입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도 높은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논찬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2) Herman Keizer, Jr. “A Call to the Community of Faith,” *The Military Chaplain* 89/1 (2016), 12-15.

연구위원 논문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김진섭 |

전시 미군 군중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중목사의 역할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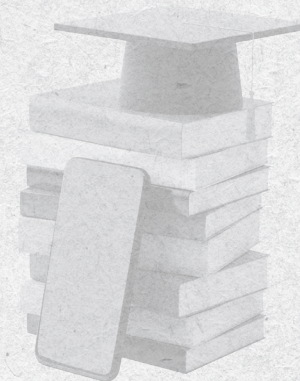
| 전요섭 |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 이규철 |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An Overview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Eschatolog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Church

» 김진섭 Ph. D.*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고찰로서, 각종 학설들의 평가와 올바른 해석학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스라엘'이란 용어는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둘째,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육신적/표면적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셋째, 구약이 제공하는 종말론적 회복의 예언, 즉 성전, 희생 제사 제도, 언약들에 관한 예언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 한다(실례: 히브리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시사해 준다. 첫째, 육체적 이스라엘/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 사역을 위해 구별되고 그 사명(롬 3:1-2; 9:4-5)을 수행할 '거룩한' 백성(롬 11:16)으로 존재한다. 둘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a)는 예언은 다양한 방식(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탈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된 복음 사역 등)으로 놀랍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값 주고 사신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심단어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국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

• 논문 투고일: 2022년 9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28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부회장, Annenberg Research Institute (Dropsie University 후신) Ph.D., 국제·미주·한국 이스라엘포럼 대표, 전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겸 신대원장

I. 서론

1. 종말의 표적과 분별력

주 예수님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2-3)고 오늘도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¹⁾에 대한 태도를 물으신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말세 중 최종 말세에 살고 있다. 성경의 연대기적 표현을 빌린다면,

1) 출발점: ① 주 예수님의 초림(주전 7년경), ② 공적사역 시작(27-28년경), ③ 십자가 죽음(29-30년경)으로 시작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스카토스 톤 해메론, 히 1:2).

2) 과정들: ① 오순절 성령강림(30년경)의 ‘말세들’(하이 에스카타이 해메라이, 행 2:17), ② 고린도전서(55년경)의 “말세, 세대들의 종결들”²⁾(타렐레 톤 아이오논, 고전 10:11), ③ 야고보서(50년 이전, 혹은 62년경)나 디모데후서(66-67년경)의 시대인 “말세들”(에스카타이 해메라이, 딤후 3:1; 약 5:3), ④ 베드로전서(64-65년경)의 “말세, 마지막 시점”(카이로스 에스카토스, 벵전 1:5), “말세, 연대들의 끝”(에스카토스 톤 크로논, 벵전 1:20), ⑤ 베드로후서(65년경)의 “말세, 날들의 끝”(에스카타이 해메라이, 벵후 3:3), ⑥ 유다서(65년 혹은 80년경)의 “마지막 때, 연대의 끝”(에스카토스 [투] 크로누, 유 1:18), ⑦ 요한일서(92년경)의 “마지막 때/시간”(에스카타에 호라, 요일 2:18).

1) 이 주제에 대한 필독서로서, 영국 왕실 주치의 중의 심장 전문의로서 신학교 문헌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로 칭송 받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채플의 담임목회자로서 스코틀랜드의 사업가가 개인 비행기를 타고 매 주일 참석하도록 만든 Martyn Lloyd Jones(1899-1981)의 *Knowing the Times* (Edinburgh: Banner of Truth and Trust, 1989), 서문 강 역, 『시대의 표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을 보라.

3) 21세기 시대정신(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화):²⁾ “때”(카이로스)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 신화들’(뽀쓰이)을 따르는”(딤후 4:3-4), 성경의 영감과 절대적 권위를 부인.

4) 종말의식: 요한계시록(95년경)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호 에스카토스)이요, 시작과 ‘마침’(토 텔로스)”(계 22:13)이신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마지막 날”(해 에스카타에 해메라, 요 6:39, 40, 44, 54; 11:24; 12:48).

5) 종말의 완성: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토 텔로스, 고전 15:24; 참조. 마 13:39-40, 49; 벵전 4:7)³⁾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말세에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란 질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종말론을 잘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자세히 후론하겠지만, 지난 100년 이상 그리스도인들과 서구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세대주의 전천년설’(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을 실례로 살펴보자. 영국의 존 다비(John Darby, 1800-1882)로부터 전개된 이 학설은 그가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와 스코필드(Cyrus I. Scofield, 1843-1921)와 체이퍼(Lewis Sperry Chafer, 1871-1952)에게 전수되었다. 스코필드는 군 출신 변호사

2) 실례: 탈구조주의/해체주의, 진화론과 결합된 우생학의 종족대량학살, 공산주의/인종차별, 페미니즘 젠더주의(포괄적 차별금지법, ‘나다움’의 조기 성교육)와 동성애·동성혼(LGBTQIA+)를 비롯한 성범죄(매춘, 일부다처, 계대결혼, 축첩, 여자를 재산목록으로 취급, 조혼, 근친상간, 강간, 간음, 아동성애, 수간, 동성애, 성경에 기초한 신적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가치와 규범, 도덕과 윤리, 체제와 질서의 파괴).

3) 마지막 날의 ‘이후’나 ‘동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최종적 마지막 날을 강조한다.

로 한 번도 정규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었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마침내 1909년 『스코필드관주성경』(*Scotfield Reference Bible*)을 KJV(1611년)의 연구를 위한 해설판 형식으로 발간해 보급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급속도로 세대주의가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체이퍼는 후에 댈러스 신학교(Dallas Seminary)를 설립하고 초대총장 겸 조직신학자로서 세대주의 신학에 기반을 둔 8권의 조직신학 책을 저술하여 댈러스 신학교를 명실상부한 세대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성장시켰다. 무디(D. L. Moody, 1837-1899), 미국의 시온주의자로서 이스라엘 국가 독립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한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E. Blackstone, 1841-1935)⁴⁾ 등도 크게 기여했다. 그 후 댈러스신학교 제자들인 존 월부르드(John Walvoord, 1910-2002), 드와이트 펜테코스트(J. Dwight Pentecost, 1915-2014), 찰스 라이리(Charles Ryrie, 1925-2016) 등을 통해 확장, 계승되었다. 교회사적으로 영국의 다비로부터 시작된 비교적 근대의 이론이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복음주의 대표 해석=이스라엘/유대인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시온주의”로 등식화되어,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신봉자

4) 블랙스톤이 1878년에 출간한 『예수님이 오십니다』(*Jesus is Coming*)는 50년 이상 수백만 권이 전 세계로 퍼졌고, 4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서막으로서 고토 이스라엘에 유대인 국가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것은 러시아의 유대인 종족살해(pogrom) 운동으로 인해 더욱 설득을 얻었다. 놀랍게도 1891년 3월, 23대 미 대통령 해리슨(Benjamin Harrison, 1833-1901)에게 이스라엘 독립국가 청원서(Memorial)를 제출했다. 이는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 1860-1904)이 『유대국가』라는 책을 저술한(1896) 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제1차 시온주의 회의(1897)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1897)하기 6년 전이었다. 독일한 장로교 신자인 28대 미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에게 1916년 또다시 사적 청원서를 제출했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국가 성립을 영국이 인정하는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1917.11.2.)을 적극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이스라엘 건국 13년 전에 별세했다. 평생을 이스라엘 국가 탄생과 유대인 영혼을 향한 복음 진도에 헌신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생애를 연구한 373쪽의 박사학위 논문인 Jonathan David Moorhead, *Jesus is Coming: The Life and Work of William E. Blackstone (1841—1935)* (Dallas Theological Seminary, 2008)을 보라.

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지난 100년 이상의 주도적 역사를 계속해 왔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핵심 주제들인 “(1) 그리스도인(교회)의 공중 휴거(살전 4:17); (2) 그 이후 지상의 7년 대환난(단 9:24-27); (3)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인 한 큰 붉은 용’(계 11:7; 12:3; 13:1)과 그 위에 올라탄(계 17:3) ‘큰 성 바벨론’(계 14:8; 17:5)이라 불리는 종교적 지도자인 ‘음녀’(계 17:1, 18)의 연합(‘넷째 짐승의 열 뿔 사이에 난 작은 뿔’(단 7:8), ECI유럽공동체 통합, New World Order, Illuminati, Deep State 등); (4) 적그리스도의 출현(살후 2:3-12); (5) 이스라엘의 대적자 마곡(야벳 족속의 연합된 로스, 메섹, 두발)의 왕 곡(겔 38:2; 39:6; 계 20:8); (6)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계 16:14) 집결지인 아마겟돈(하르 메깃돈, ‘므깃도의 산’),⁵⁾ (7)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치는(베리칩) 짐승의 표인 666과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의 극심한 박해와 순교; (8)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상의 천년왕국; (9) 유대인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 등을 흥미진진한 주제로 삼은 가공 소설이나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종말에 관한 성경 자체의 정확한 메시지를 탐구하기보다는 성경의 종말에 관한 예언을 현재의 세계 사건들, 특히 이스라엘과 연계된 중동의 동향과 연결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실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속화된 양 국가의 유대인 알리아 러시아의 종말론적 의미)을 드러내고 있다.

5) 참조. ① 사 5:19(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지); ② 주전 1468년, 애굽의 바로 투트모세 3세가 가나안 연합군 격파한 장소; ③ 왕하 23:29; 대하 35:22(주전 605년, 앗수르 마지막 왕 앗수르-우발딧 2세와 동맹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과 군대장관인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 동안, 아합과 동맹한 요시아가 동참하여 전투 중 전사한 곳); ④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의 영국군이 므깃도 맞은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터키군을 전멸시켜 터키 통치의 종말을 고함.

그 구체적인 실례를 세 가지(세계, 한국, 이스라엘)로 살펴보자. 첫째, 세계적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진원지와 같은 델러스신학대학원 출신인 할 린지(Hal Lindsey, 1929-)의 『대 유성 지구의 종말』(*The Late Great Planet Earth*, 1970)은 1999년까지 3천 5백만 권 이상의 판매와 5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⁶⁾ 1995~2007년에 팀 라헤이(Tim LaHaye)와 제리 켄킨스(Jerry Jenkins)가 공저로 17권의 시리즈가 출간되었고,⁷⁾ 영문판이 6천 3백만 부 이상 판매된 Left Behind Series(『레프트 비하인드』, 홍성사) 같은 대중적 “가공 소설”이나, 화려한 휴거와 이로 인해 지상에 ‘뒤로 남겨진’(left behind) 가족들을 다루는 1972년의 영화 “밤중의 도둑”(Thief in the Night)에 나오는 래리 노만(Larry Norman)의 발라드(ballad), “우리 모두 준비되었기를 내가 바라네”(I wish We’d All been Ready)의 후렴의 마지막 말, “당신은 뒤로 남겨졌네”(You’ve been left behind)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도 따라다니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은밀하게 공중으로 휴거 되었기 때문에(예: 비행기의 조종사와 탑승객 일부) 큰 혼란과 공포가 엄습하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이다.⁸⁾

6) 그 이후에 그는 7권의 책을 더 출간했다: *There’s a New World Coming* (Santa Ana, CA: Vision House, 1973); *The Liberation of Planet Earth* (Grand Rapids: Zondervan, 1974); *When Is Jesus Coming Again?* (Carol Stream, IL: Creation House, 1974); *The Terminal Generation* (Old Tappan, NJ: Revell, 1976); *The 1980’s: Countdown to Armageddon* (King of Prussia, PA: Westgate, 1980); *The Rapture: Truth or Consequences* (New York: Bantam, 1983); *The Road to Holocaust* (New York: Bantam, 1989).

7) 참조. 1995~2004년까지 12권의 시리즈가 출간되고, 그 전편(prequel)을 다룬 3부작인 *The Rising: Before They Were Left Behind the Antichrist is Born*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 2005); *The Regime: Evil Advances* (2006); *The Rapture: In the Twinkling of an Eye--Countdown to the Earth’s Last Days* (2007)과 전체 시리즈의 종결편인 *Kingdom Come: The Final Victory* (2007),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어린이용, 연구 안내서, DVD 등이 있다.

8) 성경적 입장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환난 전 휴거의 부정적인 평가를 위해, 참조. Gary DeMar, *End Times Fiction: A Biblical Consideration of the Left Behind*

둘째, 한국적으로, 이장림 목사(1948-)가 이끌던 다미(“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어)선교회의 시한부종말론이 제시한 1992년 10월 28일 자정의 휴거소동이다. 이 거짓 예언은 다국적 군인들의 이라크 침공 걸프전(1991.1.17.)과 맞물려 큰 설득력을 주었지만,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⁹⁾ 이 사건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교회사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박용규 교수(총신대)는 이장림의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계시관, 잘못된 종말신앙, 왜곡된 세대주의적 종말론 해석, 왜곡된 천국관”으로 규명하고, 이 시한부 재림론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들로서, “한국교회의 급격한 교세 감소; 심각한 사회적 폐해 유발; 반기독교 정서 확산; 교회의 부패 이미지 심화; 유사·이단·사이비(신천지, 신사도, 안상홍증인회, 천국·지옥 간증신드름 등)에 의한 동일 연장선에서 시한부 재림론 양산; 시한부 재림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의 혼돈; 비성경적인 열광적 과잉반응의 반작용으로서 종말신앙의 무장해제와 냉소주의”¹⁰⁾를 지적한다. 그러나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1); Michael L. Brown and Craig S. Keener, *Not Afraid of the Antichrist: Why We Don’t Believe in a Pre-tribulation Rapture* (Minneapolis, MN: Chosen, 2019); 6명의 기고자에 의한 Left Behind Series에 대한 평가를 위해, Bruce David Forbes and Jeanne Halgren Kilde eds., *Rapture, Revelation and the End Times: Exploring the Left Behind Ser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를 보라.

9) 10년 넘게 생명의말씀사의 번역부장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이장림은 Ernest Angley, *Raptured: A Novel on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Akro, OH: 1950)을 1978년 『휴거』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영어의 ‘rapture, 황홀경, 환희를 ‘휴거(携擧)라는 신조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를 출간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에 근거하여,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와 7년 대환난 후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9월 24일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에서 시한부 종말은 자신도 믿지 않았다고 고백했으며, 막상 휴거 당일에는 교도소에서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참조. <https://namu.wiki/w/%EB%8B%A4%EB%AF%B8%EC%84%A0%EA%B5%90%ED%9A%8C>(2022.8.15 접근).

10) 참조. 박용규, “1992년 10월28일 재림론 20년, 비판적 평가”, 『신학지남』 79:4 (2013.6): 206-261; 웹노고를 위해 참조. <http://www.1907reviv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3>(2022.8.15 접근);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III 1960-2010』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9), 864-874(“6. 이장림과 1972년 10월 28일 재림론”).

한국교회에 박형룡과 박윤선의 역사적 전천년설의 쇠퇴와 그 대안으로서 무천년설이 주류 종말론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셋째, 북이스라엘(주전 722년)과 남유다(주전 586년) 왕국의 멸망으로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이스라엘(국가, 영토)/유대인(민족)/히브리(언어)의 현대사에 연대순으로 발생한 사건들, 즉 현대히브리어 탄생(1922년), 600만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국가 탄생과 영토 회복(1948.5.14),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1967.6.7), 유대인의 알리아 귀환(1882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급증(1960년대~) 등은 모두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예언들의 청신호로서 작동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된, 마 23:39)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며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¹¹⁾ 통치하심과 관련된 올바른 종말론이 요청된다. 사도신경의 올바른 신앙고백과 구신약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명시한 ‘천년왕국’(계 20:1-10),¹²⁾ ‘휴거’(살전 4:17,

11) 참조. 삼하 7:12-13, 16; 시 122:5; 사 9:7; 렘 3:16-17; 23:5-6; 33:15, 20-22; 암 9:11-12의 행 15:16-17 인용; 히 12:2; 계 21:2-3. 여기 ‘새 예루살렘’이란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강림의 사건들을 통해 조상 다윗의 보좌로의 존귀한 영적 성취임을 드러낸다(행 2:29-26). 구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약의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눅 21:24),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Titus) 장군에 의해 멸망했다(마 24:15-25).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옛 예루살렘에 집착하지 말 것(히 13:14)을 경고하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계 21:22)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 즉 ‘새 예루살렘’(계 3:12; 21:2),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 ‘새 하늘과 새 땅’(계 21:3-4)을 사모할 것을 권면한다.

12) ‘천년왕국’의 전통적인 4 견해(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와 그 지류들에 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참조. John Fram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2013), 김진운 역,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1095-1105(51장.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20), 1236-1436(종말론의 4 주제인 ①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 어떻게?; ② 천년왕국; ③ 최

‘끌어올려’[하르파조]를 주후 4세기 후반의 라틴어 번역성경인 불가타(Vulgata)가 라피에무르[rapiemur < rapio, ‘납아채다, snatch’; 동사, 미래수동, 직설법 1인칭 복수라 번역하여 그 영어 파생어 rapture [휴거; 참조. 다미 선교회 이장림의 신 조어임을 밝힌 본 논고 각주 9로 고정됨],¹³⁾ 이 주제와 동시에 맞물려 있

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 ④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이 개정판 대신에 1994년 초판의 잠정적인 번역서인 노진준 역, 『웨인 그루데의 조직신학 하: 교회론, 종말론』(서울: 은성, 2009), 385-499; Michael J. Horton,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age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906-990, 이용중 역,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905-988(① 거할 곳; ②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③ 마지막 전투와 영원한 생명).

13) 전천년설론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3 견해(환난 전, 진노 전, 환난 후)와 그 지류들에 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참조. Alan Hultberg, Craig Blaising, and Douglas Moo, *Three Views on the Rapture: Pretribulation, Prewarth, or Posttribu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0), 김석근 역, 『휴거 세 가지 견해: 환난 전, 진노 전, 환난 후』(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9). 무천년설 입장에서 ‘휴거’(살전 4:17)의 원문적 의미를 “하늘로부터 나타나심(아포칼립시스; 살후 1:7; 벨전 1:7, 13; 4:13)”, “[강림하여] 나타나심(에피파네이아; 살후 2:8; 딤후 6:14; 딤후 4:1, 8; 딤후 2:13)”, “강림하심(파루시아; 마 24:3, 27, 37; 고전 15:23; 살전 2:19; 3:13; 4:15; 5:23; 살후 2:1-9; 약 5:7-8; 베후 1:16; 3:4, 12)”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Kim Riddlebarger, *A Case for Amillennialism: Understanding the End Tim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박승민 역, 『개혁주의 무천년설』(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213-240(11장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라. 1930년대까지 미국에서 장로교 언약신학과 남침례교 세대주의 사이에 갈등이나 차별이 없었다. 1936-43년 남장로교 임시위원회가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회원들에게 총회를 떠나거나 세대주의 신학 체계를 포기하는 양자택일의 압박 속에 시작된 분열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밀하게 추적한 필독서로서, 참조. R. Todd Mangum, *The Dispensational-Covenantal Rift: The Fissuring of American Evangelical Theology from 1936-1944* (Bletchley, UK: Authentic Media Limited, 2009), 김장복 역,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이해: 1936-1944년 사이에 일어난 복음주의 두 신학의 분열』(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언약신학 성경해석학 교수로서 직접 델러스신학교에 머물며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사이의 대화의 문을 열게 한 고전적 필독서로서, 참조. Vern S. Poythress, *Understanding Dispensationalist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권성수 역, 『세대주의 이해』(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0).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델러스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신봉자였으나, 1977년 신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36년 동안 ‘오직 성경’이란 자제로 연구하여 왜 전천년설(역사적과 세대주의적 모두)은 인위적인 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이며, 왜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탁월하게 논증한 종말론의 가장 균형잡힌 성경적 주해서로서, 참조. Sam Storms, *Kingdom Come: The Amillennial Alternative* (Fearn,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13), 윤석인 역,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의 필독을 권한다. 세대주의 해석학에 가장 기본 성경본문으로 삼고 있는 ‘일흔 이레’(단 9:24-27)에서, ① 7년 대환난 교리의 부재, ② 단 2장과 7장의 넷째 왕국은 헬라제국으로 해석, ③ 단 11:36-45의 ‘그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규명하면서, 특별히 ④ “5장 전천년설과 관련된 문제점”(175-231쪽)의 6대 난관(176-178쪽), ⑤ 잘못된 성경주해의 8개 실례(186-224쪽; 고전 15:22-28, 50-57; 롬 8:18-23; 베후 3:8-13; 마 25:31-46;

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¹⁴⁾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교회사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견으로 인해 서로를 절대로 정죄하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갈 5:15; 딤편 3:6; 딤편 후 2:25-25), 적극적으로 ‘복음의 기본진리’(히 6:1-2)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제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갈 6:1-2; 엡 4:31-32), 주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이방인)에게”(롬 1:16b)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차적 비전과 사명에 우리 모두 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마 24:36, 막 13:32), 우리 주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에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

살후 1:5-10; 요 5:28-29; 사 65:17-20)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의 4 견해와 다른 셋 기고자들의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언약신학(Robert L. Reymond; 39-132), 전통적 세대주의(Robert L. Thomas; 133-224), 점진적 세대주의(Robert L. Saucy; 225-326), 점진적 언약주의(Chad O. Brand & Tom Pratt Jr.; 327-423)와 그 지류들에 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참조. Chad Owen Brand, *Perspectives on Israel and the Church: 4 View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15), 정규영 역,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점: 네 가지 견해』(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롬 9-11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3가지 각 견해와 다른 2 논고자의 응답, 즉 (1) 비예표적 유대인의 장래 대량 개종 견해(Vlach; 21-96), (2) 예표적 유대인의 장래 대량 개종 견해(Zaspel and Hamilton, 97-160), (3) 예표적 유대인의 장래 대량 비 개종 견해(Merkle, 161-234)를 논하는 Jared Compton and Andrew David Naselli eds., *Three Views on Israel and Church: Perspectives on Romans 9-11* (Grand Rapids, MI: Kregel Academic, 2018); 각 학설의 기고자의 해설과 다른 두 기고자들의 논평으로 구성된 후천년왕국론(Kenneth L. Gentry Jr; 13-112), 무천년 왕국론(Robert Strimple; 113-222), 천천년 왕국론(Craig Blaising; 223-392), 요약 에세이(Darrell L. Bock; 393-437)로 구성된 Kenneth L. Gentry Jr., et al., *Three Views on the Millennium and Beyond*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9), 박승민 역,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관점』(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새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다룬 A. Blake White, *God’s Chosen People: Promise to Israel, Fulfilled in the Church* (Colorado Springs, CO: Cross to Crown Ministries, 2017)를 보라. ‘한 새사람’(엡 2:14),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 ‘하나님의 권속’(엡 2:19)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실체를 밝히는 매우 의미 있는 용어로 이해하는 필독서로서, 참조. O. Palmer Robertson, *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0), 오광만 역,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는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다. 그 중 역사적으로 우리 시대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 징조는 (1)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마 24:14), (2) 유대인의 집단적 회심이며(마 23:39; 롬 11:26a), 이 일은 놀랍게도 우리 목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때에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마 24:42); 준비하고 있으라(마 24:44); 주의하라(막 13:33);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눅 21:36);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스푸도, ‘재촉하라; 참조. speed!’(벧후 3:11b-12a)!” 주 예수님의 초림을 대망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한 것처럼”(벧전 1:10-11), 우리도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벧전 1:11b)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대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자들의 연합, 즉 동일한 실체의 다양한 표현인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 고후 5:17; 갈 6:15), ‘한 새사람’(One New Man; 엡 2:15), ‘하나님의 권속’(Household of God; 엡 2:19),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고전 1:2; 10:32; 11:22; 15:9; 고후 1:1; 갈 1:13; 살전 2:14; 딤편 3:5; 3:15), ‘하나님의 이스라엘’(Israel of God; 갈 6:16)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원수 마귀는 초림 때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막을 순 없다.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

를 알고 있는 자라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 논고를 통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살후 2:2)는 열광적 과잉반응에 대한 경고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4)는 냉소반응에 대한 경고의 양극단의 시대정신을 직면하면서,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 정립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2. 성경적 종말론: “이미/이제, 그러나 아직”(already/now, but not yet)

종말은 예수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행 2:17; 딤후 3:1; 히 1:2; 벧후 3:3).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앵기켄, 완료 능동태)”고 세례 요한(마 3:2), 예수님(막 1:15), 12제자(마 10:7) 모두 증언한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라고 기도하듯이, 이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음을 동시에 인정한다(고전 16:22; 계 11:17; 22:20). 종말론의 이러한 특성을 신학자들이 “이미/이제, 그러나 아직”(already/now, but not yet)이란 표현으로 요약한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 1902-1999)은 이 이중적 특성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결전의 날’(D-day; 십자가)과 ‘승리의 날’(V-day; 재림) 사이의 구별을 실례로 든다.¹⁵⁾ ‘이미’는 후천년설과 그 아류인 과거주의와 무천

15) Oscar Cullmann,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년설이 강조한다면, ‘그러나 아직’은 전천년설이 강조한다. 우리는 ‘이미/이제, 그러나 아직’의 균형 잡힌 종말론의 교리와 삶을 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종말론’이 있다: (1)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 중간상태, 영화”를 다룬다면, (2) 일반적/우주적 종말론은 5가지 주제, 즉 “① 주 예수님의 재림, ② 천년왕국, ③ 최후심판, ④ 영원 상벌, 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다룬다. 우리는 본 논고를 통하여 일반적/우주적 종말론의 “주 예수님의 재림”이란 주제를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 특별히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 11:26-27)이란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주 예수님의 재림/강림(파루시아, 약 5:8)

재림의 일자와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기치 않게 갑작스레,¹⁶⁾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늘에서 오심.¹⁷⁾

1) 주 예수님의 재림/강림을 항상 간절히 사모함/재촉함: ① 벧후 3:12(스푸도); ② 고전 16:22과 계 22:20(마라나 타, 주여, 오세요); ③ 프로스테코마이(기다림): 막 15:43과 눅 23:51(아리마대 요셉); 눅 2:25(의로운 시므온); 딤후 2:12-13(그리스도인); ④ 아페크테코마이(간절히 기다림): 롬 8:19, 23; 고전 1:7; 갈 5:5; 빌 3:20.

“고난, 핍박, 연로, 질병, 죽음 압박” 등에 인연하여 이 세상의 향

History (London: SCM Press, 1951, 19623), xix, 39, 84, 87, 141-142, 145, 212.

16) 성경 배열 순서대로 살핀다면, 마 24:36-39, 42-44; 25:13; 막 13:32-33, 34-37; 눅 12:40; 고전 16:22; 빌 3:20; 살전 5:2; 딤후 2:12-13; 히 10:25; 약 5:7-9; 벧전 4:7; 벧후 3:10; 계 13:22:7, 12, 20.

17) 요 14:3; 행 1:11; 살전 4:16; 히 9:28; 벧후 3:10; 요일 3:2; 계 1:7; 22:20.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관점에서, 제한되고 은밀한 재림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휴거 교리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참조, 본 논고 각주 76-77; 88).

락보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며(골 3:1-4; 딤후 5:6; 히 11:26),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며(벧후 3:10, 12; 요일 5:19; 세월 지나갈수록 세상은 안경 벗은 눈같이 '희미하게', 천국은 안경 쓴 눈같이 '뚜렷하게'[딤후 5:5]), 장기 계획을 세우지만(약 4:13-15) 일상적 하루살이를 살면서(지구상의 동일 시각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마 24:41[두 사람이 아침 식사용 뭇돌질; 40[두 사람이 낮에 밭에서 일함; 눅 17:34[두 사람이 밤에 함께 잠을 잠]), '구원, 천국, 영생'의 확신을 이미 받았고, "사명은 진실하며"(살전 2:5),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행 20: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계 2:10)이란 사생관으로 예수님 만날 '5분 대기조'(마 24:44; 눅 21:36)의 자세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벧전 1:15-17; 요일 3:2-3).

2) 주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그 세목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역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 ① 천년왕국의 성격; ②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관계; ③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에 임할 소위 7년 대환난의 순서; ④ 유대인의 구원; ⑤ 우리가 이 논고에서 집중하게 될 구원 받은 유대인과 교회의 관계.

3)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6대 징조들:¹⁸⁾ 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의 증언(마 24:14; 막 13:10); ② 대환난(막 13:7-8, 19-20; 참조. 마 24:15-22; 눅 21:20-24); ③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막 13:22; 참조. 마 24:23-24); ④ 하늘(해, 달, 별, 권능)의 징조(막 13:24-26; 참조. 마 24:29-30; 눅 21:25-27); ⑤ '불법의 사람'의 출현(살후 2:1-10; 요일 2:18[적그리스도]; 계 13

18) '해산의 고통의 시작'(마 24:8)인 "전쟁, 전쟁 소문, 기근, 지진"(마 24:6-7)은 어느 시대에나 있으므로 재림 직전의 즉각적인 징조가 아니기 때문에(마 25:5, '신랑이 더디 오므로'; 19, '오랜 후에') 항목에서 생략된다.

장짐승); ⑥ 본 논고 주제인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 11:12, 25-26).

4) 언제라도 '속히 오심'과, 6대 징조들 후에 '더디 오심'의 긴장 관계 해결점: ① "어떤 시간"에라도 재림하심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입장(왜냐하면 징조들의 기간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은 성경의 경고에 맞지 않다(눅 21:28; 막 13:5-6, 21); ② "어떤 시간"에라도 재림은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③ "성도를 위한" 휴거의 은밀한 재림(환난 전 휴거)과 그 후 7년 지상 대환난(징조들: 대환난,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 하늘의 징조, 적그리스도 출현, 온 이스라엘의 구원) 후 "성도와 함께" 가시적, 공개적, 승리적 재림으로 지상 통치를 주장한 존 다비(John Nelson Darby, 1800-82)에 의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2단계 재림과, ④ 모든 징조는 이미 일어났기에(초대교회, 심지어 1세기 교회) 예수님은 언제라도 재림이 가능하다는 무천년설의 1단계 재림과, ⑤ 징조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함"(unlikely but possible)¹⁹⁾ 때문에, 모든 징조가 성취되었는지 아닌지를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든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보편적 입장이 있다.

II. 종말의 6대 징조 성취에 대한 보편적 입장: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

1.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됨: 아직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으므로 "성취되었을 법하지 않지만", 대표적 의미에서 이미 1세기에

19) 이 용어와 그 해설은 웨인 그루뎀에게서 차용한 것이다.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20), 1355-1359; 1994년 초판의 노진준 역,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하: 교회론, 종말론』 (서울: 은성, 2009), 400-405를 비교하면, 글자는 동일하지만 영문 개정판은 새 항목으로 이 주제를 설정하고 보충 설명과 특별히 각주들이 제공된다.

초기 성취되었고,²⁰⁾ 그 이후 놀랍게 더 확대되고 성취되어왔다. 지금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없는 어떤 나라도 없다. 따라서 이 징조도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

1) 지난 2010년에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가 있었다. 10개의 성경 번역 기관²¹⁾이 “성경 빈곤”(Bible poverty)을 박멸시킬 방법으로서 2033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최소한 일정 부분만이라도 번역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Every Tribe, Every Nation, ETEN)”를 위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연맹이 탄생했다.²²⁾ 합쳐 50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이 단체들은 가히 빛의 속도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있다.

앞으로 겨우 10년 정도에 이 기념비적인 책무를 완성시킬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복된 프로젝트를 없애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데이터와 언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성경 번역의 사실상 모든 단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성경 번역이 한때는 25~30년이 걸렸지만, 기술 발전으로 그의 1/10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새로운 언어로 번역을

20) 골 1:6(“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23b(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마 24:14(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오이쿠메네, ‘거주 지역’, 유대인 공동체 바깥인 로마제국]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롬 15:19b(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1) American Bible Society, Biblica, Deaf Bible Society, Lutheran Bible Translators, Pioneer Bible Translators, SIL International, Seed Company, The Word for the World, United Bible Societies, and Wycliffe Bible Translators USA.

22) 출처 <https://eten.bible/what-we-do/> <https://outreachmagazine.com/features/global/42457-a-bible-for-every-language.html> (2022.8.15 접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디지털 성경 도서관을 통해 성경 기관들은 2,100가지의 성경 번역을 업로드했는데 60억 인구 모두가 무료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신속 정확히 전하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열어놓으셨다.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조차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시기 위한 여러 계획 중 하나는, 스페이스X의 CEO인 엘론 머스크(Elon Musk, 1971-)가 만든 지표면 위 1,100m 가량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최대의 브로드밴드 위성통화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어떤 기기든 성경을 더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전적인 책 형태의 성경도 종교개혁 이후로, 60억 권이 넘게 인쇄된 것으로 추산되며, 1억 권의 실물 성경이 매년 새로이 판매되고 있다. 2019년 12월 30일자 <뉴욕타임즈>는 종말론적 예언을 제시한다. “불과 60년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항상 문맹이었고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다. 앞으로 불과 20여 년 정도면 문맹률과 극빈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표적이 아닌가? “각 나라(260여 국)와 족속(24,000 종족)과 백성(79.6억 명)과 방언(6,909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서 있는”(계 7:9)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바로 그 현장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전 세계가 사상 최초로 모두 글을 읽게 되도록 정해두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땅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닿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

셨다. 그리고 성경을 세상의 모든 언어군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에 헌신하는 영웅적인 번역가들을 일으키셨다. 성경은 이 세대가 끝날 때, 복음은 모든 나라와 종족, 민족, 언어들에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제 그 목표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2) 라스베가스의 교포교회 목회자로 부름 받은 부친을 따라 1982년 고교 3학년에 도미한 빌 황 장로에 의해 2006년에 세운 비영리단체인 The Grace & Mercy Foundation²³⁾이 엄청난 물질을 쏟아 세계 각국어로 ‘드라마 바이블’(현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완성)을 제작해 오고 있는 것 역시 마태복음 24:14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실재이다.

3) 유대인 복음화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다(사 6:9-12). 이에 이사야는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라고 물었다. 이때 하나님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대답하셨다. 역으로 말한다면, 황폐한 곳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며,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환경의 ‘황폐’(사삼, 겔 36:3, 4, 33, 34, 35, 36, 38)가 ‘에덴동산’(간 에덴, 35절)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는 동일 장소들의 지난 100

23) 출처: <https://www.graceandmercy.org> (2022.8.15 접근).

년간 모습의 사진 대조에서 입증되었다.²⁴⁾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 회복의 약속(겔 36:26-28) 역시 앞서 밝힌 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110개 국가의 83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당시 그 땅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유대인의 숫자가 어린이 포함 고작 23명이었지만, 현재는 400여 교회와 4만여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으며, 쥘레프(Erez Soref) 총장의 이스라엘성서대학(Israel College of the Bible/One For Israel's Bible College)이 히브리어와 아랍어 간증 동영상들을 제공하는 웹사이트(www.oneforisrael.org)는 이미 1억 이상의 방문자를 돌파하여 21세기에 알맞은 전도의 문을 전 세계적으로 활짝 열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 신학교, 교회 개척, 개척교회 지원 등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역사에 유례없는 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8월 23개 교회 연합으로 설립된 서진세계선교회(대표 이윤삼, 이수은 목사; www.seojin.org)는 “2천(교회 건축) 1백만(성도 전도)”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8월 현재 130개 교회 및 단체가 협력하여 전 세계 1,940여 개 교회 개척과 20개의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201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현지 복음 사역에는 9개 성경학교, 140여 개 교회 개척(법적 서류가 있는 단체 및 교회)과 후원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예장백석 서울김포영광교회 박영민 목사가 대표로 섬기는 월드브릿지미션 및 코뿔소TV 역시 서진선교회와 동역하면서, 개

24)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황폐가 어떻게 오늘의 땅으로 회복되어 왔는가를 땅에 대한 구체적 예언(사 27:6; 35:1; 겔 36:8, 10-11, 26-27, 29, 35)의 성취로서 1880~1940년대까지의 175장의 희귀 사진들을 중심으로 25개 동일 장소의 대비를 통해 증명하는 Doug Hersey, *Israel Rising: Ancient Prophecy/Modern Lens* (New York: Citadel Press, 2018)를 보라.

척 31개, 후원 62개, 도합 93개 교회를 도우며, 2022년의 100개 목표를 향해 7개 교회가 개척되어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 신청에 들어가므로 곧 완료될 것이며, 내년에도 100개 교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필자가 설립하고 대표로 있는 이스라엘포럼 산하 메시아닉 유대인 디렉터로 동역하는 임도현 선교사 역시 2016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가정교회’ 개척을 시작하여, 2022년 8월 벌써 90개 교회, 약 3,000명 예배자라는 놀라운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500개 정도의 모든 마을(웨스트 बैं크, 가자 지구 포함)에 유대인과 아랍인 교회를 세우려는 20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삼겹줄(전 4:12) 동역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마태복음 23:39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위에서 밝힌 세 기관의 이스라엘 현지교회 개척과 후원에 대한 통계는 중복성이 가능하므로 더 자세한 상호점검이 요청된다).

2. 대환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대환난’은 일차적으로 유대인 전쟁(주후 66-70)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의 참상을 가리킨다(참조. Josephus, *Jewish War* 5.512-18). 그러나 주후 1세기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폭력적 박해가 계속 되어왔다. 우리 시대의 전 소비에트 유니언, 중국 공산당, 북한, 무슬림 국가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종말론적 대환난(속 12:2-3; 14:2; 마 24:15-22; 계 11:1-2)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 징조도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

오직 전천년설에서만 대환난(쓰립시스 메갈레, 마 24:21, ‘큰 환난’; 참조. 동일 용어가 사용된 마카비상 9:27; 행 7:11; 계 2:22; 7:14)이란 용어를 영

어로 “the Great Tribulation”이라 표기하여 휴거와 연결시킨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계 3:10)에서, ‘시험의 때를 면함’이 7년 대환난을 아예 겪지 않는다는 주장과 7년 대환난을 통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호 받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나뉘는 것이 그 실례이다.

대환난의 정확한 기간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70이레”(단 9:24-27)의 후반부 혹은 3년 반의 기간으로 이해한다.²⁵⁾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는 유(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무(환난 전 휴거)에 따라 나뉘며, 최근 ‘환란 중 휴거설’은 대체적 용어인 ‘진노 전 휴거설’로 불린다. 환난 전 휴거설은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으로서, 7년 대환난 전에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공중 재림”하시고(살전 4:16-17; 계 3:10에 근거), 이때 성도들은 휴거 되며(따라서 대환난 기간 중에는 교회가 이 땅에 부재한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참조.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의 환난, 재앙, 징계와 상충되는 해석), 7년 대환난은 남겨진 불신자들과 특히 이스라엘 민족(유대인)이 겪으며, 7년 동안

25) 세대주의 해석의 전체 시스템에 단 9:24-27은 핵심 기둥 중의 하나이다. 휴거의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국가와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이스라엘과 열방의 장래를 결정 짓는다는 7년 대환난 교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예언의 69주간과 70주간 사이의 공백을 ‘대 괄호’(great parenthesis)의 교회시대라고 가르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단 7:25,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함; 계 12:6,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되는 기간, “마흔두 달”(계 11:2,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기간; 13:5, 짐승이 권세를 받아 활동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기간, “1,260일”(30일x42달; 계 11:3, 두 증인의 예언 기간; 계 12:6, 그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양육되는 기간), 참조. ‘삼일 반’(계 11:11, 두 증인이 거리에 죽은 채 방치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세대 전체로 이해한다. 미확정된 기간인 ‘때’란 용어를 유의하라. ‘작은 뿔’의 세력이 ‘한 때’에서 ‘두 때’로 확대 강화되지만 갑자기 ‘반 때’로 급감한다. ‘3½’(엘리야 시대 기근[왕상 17:1; 18:1; 눅 4:25; 약 5:17;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주전 215-164]가 유대 백성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기간[주전 168년 6월-1965년 12월; 마카베오상 1:57; 4:52; 광야에 방황한 42년 [초반 2년 +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40년]; 광야의 42개 진영명 33:5이하)은 최후의 대승리 직전에 겪는 극심한 악의 시대에 대한 ‘이방인의 때’(눅 21:24)로 이해될 수 있다.

의 공중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 후에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다시 오시는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있다는 ‘두 단계 재림설’을 주장한다. 환난 후 휴거설은 7년 대환난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 모두 통과하며(동일한 본문인 살전 4:16-17; 계 3:10에 근거),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휴거 되어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곧바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주장한다. 환난 중 휴거설은 휴거가 환난 중 70번째 이레의 전반부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고 보며, 진노 전 휴거설은 환난 중 휴거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중대한 시기가 있는데, 먼저 다니엘이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적그리스도)이 세워지고, 70번째 이레의 후반부 어느 시점에 7번째 나팔 이후의 재앙(계 11:15-19), 즉 진노의 7대접 심판(계 16:17-21)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세상에 쏟아진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있다. 곧 여호와의 7대 절기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간표라는 시각에서,²⁶⁾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로서 고전적/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대니얼 저스터(Daniel C. Juster, 티쿰 인터내셔널 대표)와 아셰르 인트레이터(Asher Intrater, 리바이브 이스라엘 대표)에 따르면, 구약의 봄 절기(종교적 새해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 절기와 가을 절기의 연결고리인 오순절칠칠절)를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표(십자가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성령강림)로 본다면, 가을 절기(농사적/민간적 새해인 나팔절로쉬 하사나, 새해, 대속죄일욘 키푸리, 초막절수

26) 참조. 구약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상관성을 논한 김진섭, “구약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2 (2014가을), 127-192.

장절)는 예수님의 재림(나팔절과 계시록의 일곱 나팔; 대속죄일과 재림, 초막절과 어린양의 혼인잔치)과 연관 지을 수 있다.²⁷⁾

유월절은 계시록을 여는 열쇠라는 전제에서 7개의 주요 주제(하남 백성의 준비, 하나님의 재앙,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적그리스도-마지막 때의 바로, 출애굽 휴거, 어린양의 진노와 그의 군대, 홍해의 승리와 아마겟돈,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를 발견한다.²⁸⁾ 계시록은 시간적 관점에서, 일곱 인(6장; 8:1-5; 종말 사건들로 향하는 교회사 전반의 긴 준비단계), 일곱 나팔(8:6-9:21; 11:15-19; 7년 대환난과 관련된 매 7년마다 한 번 정복하는 왕, 주 예수님의 귀환을 알림), 일곱 대접(16장; 짧은 기간의 가장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때)이라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보여준다. 가을의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7년 대환난의 일곱 나팔로 해석한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양각나팔(쇼파르, 요뽐)을 불며 희년을 알리는 대속죄일까지의 열흘(야밈 노라임, ‘경외의 열흘’) 동안 성전의 문을 열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나팔절은 “잠자는 자여, 너의 선잠에서 깨어라! 너의 행실을 조사하고 회개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²⁹⁾는 재림 예비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나팔로 해석될 수 있다.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예수님 재림의 날로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고(수 12:10; 13:1), 멸망 받는 자에게는 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27) Daniel C. Juster, *Passover: The Key that Unlocks the Book of Revelation* (Clarksville, MD: Lederer Books, 20112), 고병현 역, 『유월절, 계시록을 여는 열쇠』 (경기도 용인: 와이크라 출판, 2016), 132-135.

28) Juster, 『유월절, 계시록을 여는 열쇠』, 29.

29) Mishneh Torah, *Laws of Repentance*, 34.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계 19:14-16) 아마겟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대속죄일이 다 끝나갈 때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열고 회개할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의미로 큰 나팔(테키아 게돌라)³⁰⁾을 분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고전 15:51)인 ‘하나님의 나팔’(살전 4:16)과 관련하여, “그날에…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사 27:12-13); “그날 환난 후에…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9-31).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성도들이 휴거 되는(이것은 고전적/역사적 전천년설의 의미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 한 날에 일어날 것이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메시아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린다. 마카비 시대(주전 165년경)에 기원을 둔 초막절 7일째 날(호쉬아나 라바, ‘큰 호산나’)은 밤새워 깨어 기도하면서 가족 단위의 전 회중이 회당 주변을 초막절 규례(레위기 23:40)를 따라 룰라브(lulav; 버드나무, 도금양/myrtle, 종려나무 가지 묶음)와 에트로그(etrog; 레몬 동일군의 시트론)를 손에 잡고 7바퀴 돌면서(여리고 작전에 승리를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 기념물) ‘호쉬아나’(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잎이 떨어지도록 버드나무를 두드린다(나의 죄를 떨치며 내년의 버드나무에 충분한 비를 기원하는 몸짓언어). 이날 랍비들은 “심판의 문들은 마침내 닫히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산포

하신 법령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언한다.

마지막 8일째 날(셰미니 아페레트[아짜르, ‘간직하다’, ‘성회 8일째’)은 성경에서 ‘가장 기쁜 날’(레 23:36-40; 랍비 전통에서 심하트 토라, 즉 새 한해의 농사력과 주간 토라읽기의 시작일로서 ‘토라의 기쁨’이라 부름)로서,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이 나고 새로운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새 창조로 이해한다.

봄 절기			초여름 (연결고리)	가을 절기			
유월절(혹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수장절) 신 16:16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셰미니 아페레트
예수님 죽으심 (어린양)	예수님 문히심 (무교병)	예수님 부활 (첫 열매)	성령 강림 (토라 받음, 신정국가/교회 탄생)	예수님 재림경고 (일곱 나팔)	예수님재림 용서·심판 (부활, 휴거, 전쟁)	예수님 천년왕국 (신부 동거)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회복)
니산월 14	니산월 15-21	니산월 16	시반월 6	티셔리월 1	티셔리월 10	티셔리월 15-21	티셔리월 22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7대 절기는 모두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 초림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봄 절기는 첫 추수인 보리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면, 성령님의 강림, 본격적인 이방인 복음 전파와 구원과 관련된 여름 절기는 밀 추수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과 관련된 가을 절기는 과일의 추수, 포도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역사이며(창 17:7-8; 계 21:3), 이는 모두 영혼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 알아 우리 역시 ‘추수하는 일꾼’(마 9:35-38)이 되기를 사

30) 나팔은 4가지 종류로 분다: ① 테키아(한 번 길게); ② 쉘바림(3번); ③ 테루아(짧게 9번 이상); ④ 테키아 게돌라(한 번 매우 길게).

모해야 할 것이다.

교회사적으로는 가장 늦은 19세기 중엽에 출현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휴거 교리를 대환난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살전 4:15, 파루시아 / 16절, 카타베세타이)과 관련된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하르파개소메싸 < 하르파조, 제2미래, 수동, 직설, 1인칭 복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에이스 아판테시스) 하시리니”(17절)의 용어들을 살펴보자. ‘영접’(아판테신)이란 본래의 문화적 의미는 한 도시 당국이 고위 방문객에게 베푸는 공적 환영, 즉 도시를 벗어나 마중 나갔다가 다시 도시로 되돌아옴을 묘사하는(행 28:15; 마 25:6도 같은 용례임) 신약의 전문용어이다. 이 본문은 부활한 자들과 함께 살아서 변화된 자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이 용어를 ‘휴거’로 번역한 이장림에 대한 본 논고 각주 9 참조; 자동차 정크장에 납작하게 압축된 폐차들을 막강한 자력의 빔 원판에 딸려 올라가는 현상에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의 사랑의 자력(고후 5:14; 엡 3:18-19)에 의해 공중으로 딸려 올라갈 수 있음을 이해한다; 참조. 예녹의 승천장 5:24 = 히 11:5, 히. 라카흐; 헬. 메타티씨미과 엘리야의 승천왕하 2:1, 히. 알라; 헬. 아나고; 11, 히. 알라. 헬. 아나람바노) 공적 환영이라는 기쁨의 만남을 가진 후, 그들은 주님과 함께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세대주의 휴거 교리가 의존하는 유일한 이 본문에서 대환난 이전에(참조. 계 7:14) 은밀하게 끌어올려진다는 어떤 암시도 없다. 오리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살전 4:16)로 “전 세계에 분명하게 들려질”³¹⁾ 3중 큰 소리들과 매우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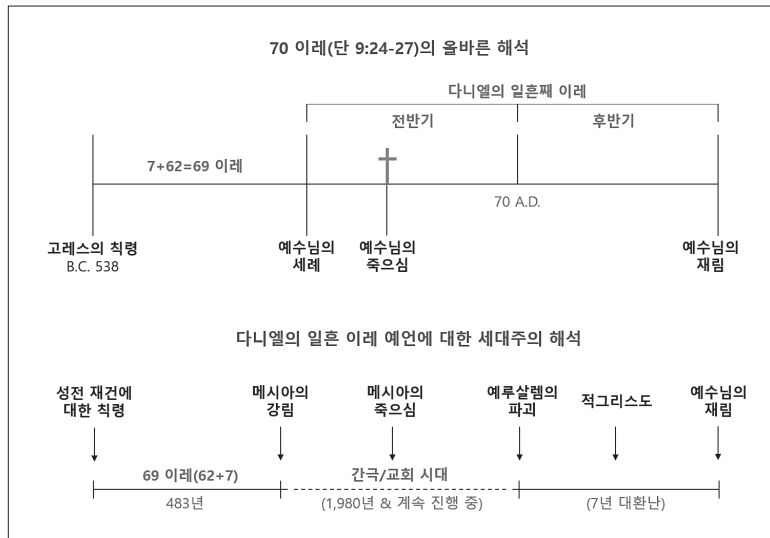
31) John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 J. W.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60), 343.

개적임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백성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은 공중이 아닌 새 땅이다.³²⁾

앨런 험트버그(Alan Hultberg)의 말처럼, 진노 전 휴거를 옹호하는 사람은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의 기본 논제를 통합하려고 한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교회가 휴거 된다는 환난 전 휴거설의 논제와 교회가 멸망의 가증한 것을 목격하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경험한다는 환난 후 휴거설의 논제를 통합하려는 것이다.³³⁾ 달리 말하면, 진노 전 휴거설은 교회가 다니엘의 칠십 번째 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함으로써 환난 전 휴거를 반대하며, 교회가 다니엘의 칠십 번째 주 끝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전에 휴거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환난 후 휴거를 반대한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가 환난 시기가 끝나기 전 어느 때,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바로 전에 휴거 되었다가, 연장된 진노 시기 끝에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돌아온다고 본다. 환난 전/중 휴거와 마찬가지로, 진노 전 휴거도 2단계 재림을 지지한다. 반면에 환난 후 휴거는 2단계 재림을 반대한다. 마지막 환난의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동안 성도는 땅에 있으며, 그 이후에 예수님이 1단계로 재림한다고 믿는다.

32)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9), 류호준 역, 『개혁신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43.

33) Alan Hultberg, Craig Blasing, and Douglas Moo, *Three Views on the Rapture: Pretribulation, Prewar, or Posttribu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0), 김석근 역, 『휴거 세 가지 견해: 환난 전, 진노 전, 환난 후』 (경기도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9), 30.



샘 스톱스,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 120.

3.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

선교지 현장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귀신들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출 7:11; 8:7; 행 8:9-11; 요 일 2:18).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종류의 활동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그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징조도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

4. 하늘(해, 달, 별, 권능)의 징조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유일한 예외이다. 일식, 월식, 혜성 현상은 있었지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 24:29)는 자연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본문이 바벨론의

몰락을 상징적 언어로 예언하는 이사야 13:10의 인용이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우주적 파괴가 일어날 전조이므로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세상 심판을 가리키는 사 13:11; 히 1:10-12; 12:27; 벧후 3:10-11).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뒤를 잇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가 더욱 문자적 해석을 뒷받침한다.

5. 적그리스도(불법의 사람)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연구는 방대한 문헌을 시위한다. 이 정체를 역사적 인물로 규명하려는 노력은 교부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다.³⁴⁾ 예를 들면, 교부시대(이레내우스, 히포리투스)의 배교한 유대인; 콘스탄틴 대제와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대적자들(5세기 게르만 반달족과 훈족, 무함마드 군대);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황들 중의 하나(카톨릭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인물므로 교황이 될 수가 없으며, 교회 권위와 거룩한 전통을 훼손하여 적그리스도

34) 지금까지의 사건과 인물들을 성경의 예언과 결부하려는 모든 시도가 100%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Bernard McGinn, *Antichrist: Two Thousand Years of the Human Fascination with Evil* (San Francisco: HarpersSanFrancisco, 1994); Philip C. Almond, *The Antichrist: A New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를 보라. 1994년 이후의 추가된 논의인 “새 천년의 적그리스도”(2000년 판, xi-xviii)에서 McGinn은 새천년에 이르러 ‘미래의 개인적 적그리스도’의 정체보다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신자의 심령 내면에 속삭이는 ‘속이는 자의 영’(요일 2:18-22; 4:3; 요이 1:7)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밝힌다(xv-xvi). 참조, McGinn의 박사 과정 제자로서 데살로니가후서의 라틴어 본문을 중심으로 주후 200~1160년까지의 ‘적그리스도’ 이해에 대한 주석 작업인 Kevin L. Hughes, *Constructing Antichrist: Paul, Biblical Commentary, and the Development of Doctrine in the Early Middle Ages* (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5); 미국 역사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이해를 다루는 Robert C. Fuller, *Naming the Antichrist: The History of an American Obsession*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의 출현의 길을 실제적으로 예비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문제라고 주장); 살후 2:4의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과거주의'(Preterism)는 고대 로마 황제 네로(Nero, 주후 37-68)나 칼리굴라(Caligula, 주후 12-41)로 지목;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조세프 스탈린(1878-1953); 사담 후세인(1937-2006) 같은 무슬림 지도자³⁵⁾ 등이다.

개혁주의신학의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리들바거(Kim Riddlebarger)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3겹의 적그리스도를 지적한다(4-6장):³⁶⁾ (1)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요일 2:18; 4:3); (2) 계시록에 나오는 1세기 로마제국이나, 종말 때까지 미래의 반기독교 정부들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특히 13, 17 장); 하나님의 성전(주후 70년의 사건을 가리키는가? 만일 교회를 가리키는 메타포라면 교황제도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종말의 적그리스도인가?)에 스스로 앉아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의 사람'(살후 2:1-12). 그리고 교회사가 규명하는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7장), 결론적으로(8장) 한 개인으로서의 적(Anti)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보장된 구속을 훔내내고, 자신의 주인인 용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최상급 '적(Pseudo)그리스도, 거짓 메시

35) 참조. 이슬람 시아파에 의하면, 무함마드의 후손으로 10세기에 이란의 잠카란(Jamkaran; 현 콤[Qom] 근처에 1003년에 건립된 잠카란 모스크는 순례 성지이다) 우물 에 은둔한 12번째 이맘(Imam)인 '마흐디'(Mahdi, '인도자')가 종말에 다시 나타나 7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주제를 다룬 James W. Parker, *The Twelfth Imam: Rise of the Antichrist*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13); 2001년 9·11 테러와 ISIL/ISIS와 Al-Qaeda의 출현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라는 가설을 통전적으로 반박하는 Christ White, *Islamic Antichrist Debunked: A Comprehensive Critique of the Muslim Antichrist Theory* (Ducktown, TN: CWM Publishing, 2014).

36) Kim Riddlebarger, *The Man of Sin: Uncovering the Truth about the Antichrist* (Grand Rapids: BakerBooks, 2006).

이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적'임을 규정한다. 이단과 국가숭배의 두 세력이 융합된 이 정체는 역사에 유례없는 고통과 박해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올 것이며,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파멸될 것이다. 이 징조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

6.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게 되리라"(눅 21:24);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5-26a);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 23:39=눅 13:35)는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에 뒤이어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이 회복됨에 의해 성취되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힌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을 가진 적도 없고, 유대국가의 수도였던 적도 없었다. 그러다가 1967년 기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다. 국방부 장관 모셰 다얀(Moshe Dayan, 1915-1981)은 그 당일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예루살렘을 밟던 이방인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³⁷⁾ 게다가 2017년 12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스라엘

37) Lance Lambert, *The Uniqueness of Israel* (Kingsway Publications Eastborne, 19952),

의 정식 수도라고 공식 선언되었으며,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이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둘째,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곳, 그 도시의 심장부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닫혀 있으며(이곳은 아직도 '유대인 출입금지'), 성전산을 이슬람 세계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방인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⁸⁾

“이미/이제, 그러나 아직”(already/now, but not yet)의 원리를 따라 종말은 초림과 재림으로, 절기도 봄 절기와 가을 절기, 희년의 토지 무르기 역시 개봉된 문서의 무효화와 봉인된 문서의 완전한 소각으로, 역사적 사건에서도 D-day와 V-day(실례: 2차 대전 시 1944. 6. 6.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히틀러의 죽음과 나치 패망)가 있듯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도 같은 맥락에서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왔음을 선언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방인의 때’는 언약의 땅과 관련한 역사의 어느 시점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스라엘 씨(언약 백성)과 관련하여 구원받은 이방인의 채워짐을 말할진대, 이스라엘이 그 땅과 연결되어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때 역시 연결되어 있다. ‘이방인의 숫자적 충만’의 의미는 “① 천국 시민(빌 3:20) 명부와 같은 ‘어린양의 생명책’(계 3:5; 13:8; 17:8; 20:12, 15; 21:27; 빌 4:3)에 기록된 이방인 숫자의 충만; ② “불경건과 불의한 이방인들

의 죄악의 잔이 가득 채워짐(창 15: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③ 이방인 교회의 성령 충만” 등의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로마서 9-11장은 유대인이 미래에 ‘온 이스라엘’(롬 11:26a)³⁹⁾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것을 내다본다. 특별히 1948년 이스라엘 독립, 1967년 예루살렘 회복, 196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 이후로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유대인의 알리아가 증대하고, 약속의 땅 안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의 확장 등의 사실을 통해 이 징조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3:39)라고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 이 상황은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할 다른 예언들과 연관하여 볼 때, 흠여졌던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고(렘 16:15; 겔 11:16-17; 36:8-15, 24-38),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고(사 66:7-8; 마 24:32-33),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아야 하는(눅 21:24) 무대장치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세니트, ‘두 번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롯과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유평에 역, 『이스라엘의 본질』 (서울: 램프레스, 2010), 208.

38) Willem J. J. Glashouwer, *Why Israel?* (Nijkerk, Netherlands: Christians for Israel International, 2012), 베다니사역본부, 『Why 이스라엘?』 (서울: 도서출판 하늘양식, 2016), 95-97.

39) 모든 유대인 개개인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국가·민족의 집단적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로마서 9-11장의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롬 9:27; 11:5, 7)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개인적으로 소원한 ‘얼마’(롬 11:13-14)를 가리킨다. 예레미야 역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렘 31:7)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권한다.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사 11:10-12; 참조. 렘 16:14-15; 23:7-8)라는 장면이 연출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오드; 렘 16:14; 23:8)⁴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미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여 완료형으로 사용하는 용법을 예언적 과거라 부른다) 여호와 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그날/때’, 즉 육적(약속의 땅 귀환), 영적(주 예수님을 영접함) 알리야 ‘작전’(operation; 최근의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화급한 알리야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의 즈비카 클라인의 최근 기사(2022.9.19)에 의하면,⁴¹⁾ 유대 월력 5782년(2021.9.7-2022.9.25) 한 해 동안 60,000명의 올림(이민자)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총 65,000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8,500명이 이주한 5781년(2020.9.19.-2021.9.6.)에 비해 128%가 증가된 것이다. 세계 유대인들이 거의 1억 달러를 투자한 “Olim Return Home” 작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지난 2월 이후 온 이민자가 러시아(47%, 11,191명), 우크라이나(25%, 7,513)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출애굽

40) 현대 유대인 육적·영적 알리야를 약속하는 가장 자세하고 놀라운 예언인 에스겔 36장에서 히브리어 오드는 ‘다시는’(again, 12, 14[2회], 15[3회], 30절)과 함께 ‘여전히’(still, 37절)란 용법도 있음을 보여준다.

41) Zvika Klein, <https://www.jpost.com/aliyah/article-717539> (2022.9.22. 접속)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되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적이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는 출애굽보다 더 큰 오늘날 ‘제3의 출애굽’이라 부르는 알리야 귀환이 있을 것을 예견한다. 머문 기간, 돌아온 규모/인원, 출발 지역, 귀환 방법 등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알리야 귀환을 비교해 보라.⁴²⁾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알리야를 알리고 돕는 이방인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방들(고임)이여, 너희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⁴³⁾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렘 31:10). 보안상 자세한 정보를 밝힐 수 없지만, 필자를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 이스라

42) 1990년 1월부터 러시아 거주 유대인의 알리야가 한 달에 평균 6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 헌신한 스티브 라이트(Steve Lightle)의 간증문인 *Exodus: Let My People Go* (Chepstow, Gwent, U.K.: Bridge Publishing, 1983), 모퉁이통신교회 이스라엘선교부 역, 『제2의 출애굽』 (서울: 한·이성경연구소, 1991); *Operation Exodus II: Answers You Need to Know about Explosive Events* (Tulsa, OK: Insight Publishing, 1998), 에스더 김 역, 『작전! 출애굽 II』 (서울: 싸이러스출판, 2008)을 보라.

43) “이방인의 극지점을 표현한 ‘먼 섬’을 실례로, 유대인의 알리야를 열방이 돕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계획은 성경 전반에 놓여 있지만(창 12:3; 시 87:4, 6), 특별히 이사야서 전반의 핵심 주제이다: ① 2:2-3(말일에…만방[를] 하고임, ‘모든 열방’)이 그리로 [시온산의 여호와와] 전 모여들[나하르, ‘강물같이 흘러올] 것이라. ‘맑은 백성[아밈 라빔] 이 가며 이르기를 ‘오르며…이르자’); ② 19:23-25(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내 백성 애굽…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나의 기업 이스라엘); ③ 60:3(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④ 9(섬들이 나를 앙망하고…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⑤ 11(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이 [자원하여] ‘앞장서질[네후김] < 나하고 기본형 수동분사 남성 복수 // 마 2:1-2, 11, 동방박사가 예물 드림 것이다); ⑥ 66:18-19(내가…때가 이르면 ‘뭇 나라[를] 하고임)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하레쇼노티]를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계 7:9)…내가…도피한 자들[멜레팀, ‘난민들]을 ‘여러 나라[하고] 임…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하이임 하레호킴]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하고임]에 전파하리라), ⑦ 20-21(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를] 하고임)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민하] / 롬 15:16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백하여[라카흐,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엘포럼과 동역하는 대한민국의 두 목회자와 각자의 단체를 통해서만 최근 알리야 전세 비행기를 10대 이상 띄우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무대 위에서 펼쳐질 중심 뮤지컬은 유대인들(교회사적 유대인 박해의 가공할 과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너무나도 힘든)의 '마음 문을 여시는'(행 16:14; 참조. 마 12:28; 눅 24:46; 고후 4:4-6)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대인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롬 9:1-3; 10:1; 11:1),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를 사모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그 메시아'⁴⁴⁾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기를,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함께 입 맞추며 안고 올랐던(창 45:1-2, 14-15)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벧후 3:12a) 이 일이 신속히, 그리고 신실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도와야 할 것이다(참조. 앞서 논한 II.5.(1).(c)).

이제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향해 먼저 유대인에게(롬 1:16b)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시 126:6). 오늘 여기를 '그날'로 삼아,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며(속 12:10),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을 바라며(속 13:1),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문자 그대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다른 동네로 가서(마 10:23; 눅 4:43) 또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복음 전도란 사탄의 결박 아래 살아온 한 영혼을 석방하여 예수님께서 데려오는 영적 전투를 통해 승리를 가져온 사도 바울처럼(행 14:4-7, 19-28) 능

44)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 18:15, 18; 34:10)구약시대에는 일어나지 못했음을 밝힘)가 바로 '오실 그이'(마 11:3=눅 3:5; 요 4:25), '제상에 오실 그 선지자'(요 6:14; 참조. 요 7:27, 31)임을 복음서는 확증한다.

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롬 1:16) 반드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기에 핍박과 고난을 계산해야 한다(행 20:24; 딤후 4:3-4).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고후 5:14)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히 11:38)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문이 닫히기 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요 10:16)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큰 나팔이 울리며(마 24:31; 살전 4:16)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마 24:31=막 13:27). 그때가 바로 '온 이스라엘', 즉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총만한 수가 채워진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부를 때 달려갈 한 나라가 바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비전과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형제 된 대한민국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창 10:30; 사 55:5; 56:1).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군사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기둥 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통해 세우시고, 전 세계에 193개 국가에 74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 신앙공동체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우시고, 110개 국가의 830만 유대인들의 육적·영적 알리야를 앞장서서 섬기도록 수많은 위기일탈을 넘기면서 오늘 여기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임을 자각하고 사명에 진실하며(살전 2:5)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계 2:10)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계 2:10).⁴⁵⁾

45)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김진섭, "부록 11. 상실된 진리: 유대인과 한국인", (사) 이스라엘포럼편집위원회, 『시온의 대로: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주 예수님』(서울: 이스라엘포럼 출판사, 2022), 337-370; Jin Sup Kim, "Koreans' Self-perception as 'The

결론적으로, 하늘(해, 달, 별, 권능)의 징조는 어느 순간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라도 다시 오실 수 있음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능한 자동차 사고 때문에 항상 안전벨트를 하고 자동차 보험을 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대망하면서, 아직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 남아있다는 방심(벧후 3:4)이나 초대형 재난들의 물결이 오갈 때마다 기절하지 말고(눅 21:26),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눅 21:28)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 하루살이 가운데(마 6:34; 약 4:14-15) 대망할 것이다.

III.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들

주 예수님의 재림 일자와 방법에 관해서는 5개의 변이들(versions)을 포함하는 후론할 11개 학설로 분류할 수 있다.⁴⁶⁾ 우리

Second Jews: Explaining A Biblical-Theological Perspective”, Jim Melnick, Zhava Glaser, Gregory Hagg, Alan Shore, and Robert Walter, eds., *Upholding God’s Word: Reaching God’s Chosen* (A Festschrift in Honor of Dr. Mitchell L. Glaser; New York: KIFM Publications, 2022), 201-210; 유석근, 『우리는 알아당 민족: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2의 이스라엘』 (고양: 국민북스, 2022).

46) 천천년설(① 역사적/고전적~, 세대주의[② 고전적, ③ 개정, ④ 점진적]-; 후천년설(⑤ 고전적~, 과거주의[⑥ 부분, ⑦ 완전]-, ⑧ 기독교재건주의); 무천년설(⑨ 고전적~ = 언약신학, ⑩ 새언약신학, ⑪ 점진적언약주의); 참조. 6개의 주요 천년왕국 학설(역사적 전~, 세대주의 전~, 점진적 세대주의, 후~, 무~, 새언약신학)을 논하는 Gary D. Long, *Context! Evangelical Views on the Millennium Examined* (Colorado Springs: Sovereign Grace Ministries, 20164);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양대 산맥 아래 6개의 주요 학설(고전적/역사적 전~, 개정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점진적 언약주의, 언약신학, 기독교재건주의)을 분석한 Benjamin L. Merkle, *Discontinuity to Continuit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전통적 언약신학, 전통적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점진적 언약신학을 각 학설 당 3명 학자의 논평과 함께 소개하는 Chad Owen Brand, *Perspectives on Israel and the Church: 4 View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1015), 정규영 역,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점: 네 가지 견해』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는 각 학설들을 대하면서 완전한 해답이 없는 주제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리한가?”(행 17:11)를 은혜(히 10:29)와 진리(요 14:17; 요일 4:6)의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벧전 1:10-11) 종합적인 작업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1. 성경의 명백한 기본진리(히 6:1-2)로 하나 됨을 보존(엡 4:3)

사도신경이 제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구약 성경은 구약 31명, 신약 9명 정도의 인간 기록자가 도구가 되어 궁극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1500년에 걸쳐 기록한 “유기적(organic), 축자적(verbal), 만전적이고(plenary), 정확하고(infallible), 무오한(inerrant)”⁴⁷⁾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전제는 언제나 고수되어야 한다.

2. 성경 예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신약의 5가지 교리적 명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엡 1:23).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행 20:28)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 갈 6:15),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 하나님의 권속(엡 2:19), 한 새사람(엡 2:11-22)”이라 부르며,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며”(엡 2:5-6), 그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엡 3:6),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의 목표

47)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고찰을 위해, 참조. 김진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군선교신학』 19 (2020가을), 152-249; 김진섭, “구약성경과 개혁주의생명신학”, 『백석신학저널』 38 (2020가을): 9-58.

(엡 3:6-11)는 재림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설령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하더라도 교회와 별도로 아브라함 언약의 땅 약속과 다윗 언약의 왕권 약속을 따라 교회와 구별된 별개의 종족적 유대인의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두 가지 목표는 잘못된 해석이다. 동시에 온 인류에게 왕 노릇 하던 사망(롬 5:17)은 주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전히 패하고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도 잘못된 해석이다.

2) 더 나은 천국 본향: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땅은 전천년설의 주장처럼 장래에 임시적인 지상의 나라/땅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더 나은 본향, 곧 천국’(히 11:10, 16)임을 확증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이나 이방인(갈 3:7, 29)도 마땅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천년설의 지상 천년왕국은 성경의 교훈에 상충되는 잘못된 해석이다.

3) 주 예수님의 만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영단 변’(once-for-all, 히 7:27; 9:12, 26, 28; 10:2, 10)이며, 재림 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런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고전 13:12; 요일 3:2) 볼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만찬도 종결될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1:26, ‘그가 오실 때까지만’). 전천년왕국을 가정해 볼지라도, 주 예수님의 만찬도 완전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에 어떻게 그림자와 모형인 옛 언약의 희생제사 제도의 어떤 것이라도 필요하겠는가? 따라서 에스겔의 환상 성전(겔 40-49장)의 덜 분명한 그림은 신약의 분명한 성전의 실제(엡 3장; 히 8, 10장)의 해석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해

석의 원리(신앙 유비, analogia fidei)이다. 전천년왕국 시대에 또다시 옛 언약의 제사제도의 어떤 형태도 허용하는 것(지금의 제3성전 논란을 생각해보라)은 신약이 명시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배교, 적그리스도(불법의 사람)와 대환난: 신약은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환난’의 시기에 일어날 ‘배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살후 2:1-12),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미/이제, 그러나 아직’의 특성을 보여준다(딤후 2:13; 히 2:8; 요일 3:2). 신약 전체의 신학은 교회와 복음은 언제나 환난과 배교 가운데 확장되어 왔음을 강조한다(마 24:4-14). 과거의 ‘옛 세상’(벧전 2:5)과 구별되는 현재의 ‘이 세상’(딤후 4:10)과 장래의 ‘올 세상’(히 2:5; 6:5)의 긴장, 즉 ‘이미/지금 성취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의 긴장이 기간을 학적으로 ‘초림과 재림 중간기’(interadvent age)라 부름을 이해해야만 한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점차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후천년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잘 조화되지 않는다: 마 7:13-14; 24:4-14; 막 13:5-8; 눅 18:8; 21:8-11; 벧후 3장. ‘왕들의 왕, 주들의 주’(계 19:16)로서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때까지는 교회가 온전한 승리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계 19:11-16).

5)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신약의 ‘이스라엘’이란 용어는 종족적 유대인을 가리키며, 로마서 11장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롬 11:25b)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종말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즉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 새사람, 하나님의 권속”에 다시 ‘접붙임’ 받을 것(롬 11:12, 15, 23, 26-27)을 예견한다. 무천

년설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족적 유대인/이스라엘의 대량 회심이 아닌 다른 해석(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며, 유대인의 대량 회심은 미래에 없다)을 하는 것은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본 논고 부록(롬 11장 의의 참조). 또한 전천년설 주장자들이 로마서 9-11장과 신약의 어떤 본문(계 20:1-10을 유일한 예외로 놓고)이라도 주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로 읽는 것도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더 집중해야 할 두 가지 비전과 사명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전 8:1)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싸움과 불필요한 변론은 피해야 하며(딤후 6:4, 20),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엡 4:15) 성숙한 자세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학설의 논쟁보다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두 가지 비전과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1) 교리적 논쟁보다 영적 하루살이의 경건 추구: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정확한 사건 일정표에 대한 관심과 논란보다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벧후 3:11-12a) 이 종말론 교리가 나의 영적 하루살이에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⁴⁸⁾

2) 영혼을 건지는 열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재촉하는’(스푸도, speed; 벧후 3:12) 지름길로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이방인)에게’(롬 1:16b) 복음을 전하며(롬 10:8-15), 주 예수님

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하소서”(구 새찬송가 451장)라는 전도의 열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별히 유대인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사 11:11) 육적 알리아와 함께, 주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영적 알리아, 즉 193개 국가의 740만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특별한 비전과 사명을 받은 대로, 110개 국가의 830만 유대인 알리아의 영혼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여(롬 10:12)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a)는 영적 알리아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IV.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학적 제언

고전적 전천년설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론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앞서 간략히 살핀 대로(참조. 본 논고 각주 6-8), 19세기 영국의 다비로부터 시작된 비교적 근대의 이론이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복음주의 대표 해석=이스라엘/유대인을 사랑하는 그리스천 시온주의”로 등식화되어,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신봉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지난 100여 년의 주도적 역사를 계속해 왔다.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하루 만에’ 국가로서 출범하고(1948.5.14), 6일전쟁의 3일째(1967.6.7)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한 왕성한 논의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본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신봉자였으나, 신약성경 신학자가 된 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질문들을 갖고 학자로서 원문 성경해석에 평생을 보내면서 ‘천천히,

48) 참조. John Fram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2013), 김진운 역,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1103-1105(“종말론과 그리스도인의 삶”).

꾸준히' 확신된 천년왕국에 대한 진리들을 밝혀 온 두 학자, 즉 조지 래드(George Eldon Ladd, 1911-1982),⁴⁹⁾ 샘 스톰스(Sam Storms, 1951-),⁵⁰⁾ 그리고 점진적 언약주의 옹호자인 벤자민 머클(Benjamin L. Merkle, 1971-)⁵¹⁾의 논고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는 애독자들에게 11개의 중심 학설과 15개의 변이를 가진 천년왕국 학설들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해석학적 입장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구·신약 예언들의 올바른 해석 방법

1) 예언 해석 방법론: '문자적'과 '상징적'을 병용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의미하는 인간 저자에게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더 깊고 영적인 의미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반대하여, 그 인간 저자의 원래 의

49) 원서 출판 연도순으로, George E. Lad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1952), 신성중 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서울: 성광문화사, 1982); *The Blessed Hope: A Biblical Study of the Second Advent and the Ra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56); *The Gospel of the Kingdom: Scriptural Studies in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1959), 박미가 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서울: 서로사랑, 2001);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2), 원광연 역, 『하나님 나라』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6); *The Last Things: An Eschatology For Laymen* (Grand Rapids, MI: Eerdmans, 1978), 이승구 역, 『조지 래드의 종말론 강의』 (서울: 이레서원, 20172);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2), 신성중·이한수 공역, 『신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0) 지난 39년 복음 사역에 22권의 책을 저술했지만,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750쪽 분량(한글번역서)의 필독서로서(본 논고 각주 13 참조), Sam Storms, *Kingdom Come: The Amillennial Alternative* (Fearn,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13), 윤석인 역,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를 보라.

51)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양대 산맥 아래 6개의 주요 학설(고전적/역사적 전-, 개정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점진적 언약주의, 언약신학, 기독교재건주의)을 4가지 큰 주제(① 기본 해석 원리: ②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③ 모형론의 올바른 역할; ④ 구약 회복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⑤ 각 언약들 간의 관계; ⑥ 언약들은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⑦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⑧ 구약 율법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⑨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⑩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가, 성취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구별된 실체인가; ⑪ 롬 11:26과 갈 6:16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⑫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⑬ 예수님은 왕국을 가져왔는가; ⑭ 그 왕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따라 분석 평가한 점진적 언약주의자 Benjamin L. Merkle, *Discontinuity to Continuit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을 보라.

도(*sensus literalis*) 따라 '문자적' 해석을 지지한다. 이 문자적 해석은 신적 계시의 일부 특징인 '상징, 모형, 매타포, 비유'를 내포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통전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닌 계시로 읽어야 한다. 신중하게 말한다면, 인간 저자가 자신이 쓴 내용의 의미나 시사점(*sensus plenior*)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성경의 점진적 계시의 측면에서 후기의 말씀이 그 이전의 말씀 이해를 더 풍성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므로, 신약이 구약 해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웰럼(Wellum)은 올바른 성경해석을 위해 3가지 지평을 요구한다.⁵²⁾

① 본문적(textual): 역사적 무대, 원어의 규칙과 문법, 문장론, 본문의 사본학상 변이들, 문예적 양식/장르와 구조를 포함한 문예 특성.

② 세대적(epochal):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미전개된 계획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의 조명 아래 본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당연히 후기 인간 저자들이 그 이전의 저자들을 통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여, 그 계시의 원 뜻을 명료하게 하거나 더 확장한다.

③ 정경적(canonical):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계시의 점진적 특성의 조명 아래 그 본문 이해를 전체 정경과 관련하여 살피며,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Scriptura Scripturae interpres), 구약은 신약으로, 덜 분명한 본문은 더 분명한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2) 구약의 파노라마: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삭-야곱-유다·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국가, 백성, 영토의 보

52) Peter J Gentry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IL: Crossway, 20182), 118-129.

존이 “한 율법, 한 왕, 한 성전, 한 제사제도”를 지닌 ‘열방의 빛’(사 42:6; 49:6; 60:3; 벧전 2:9b)으로서, 하나님(창조주) 여호와(언약주)와의 언약관계(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시내산-모압 평지-세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의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징계와 하나님의 주권적 이스라엘 회복의 대하이야기이다. 따라서 구약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과 회복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적, 종족적, 영토적 용어로 묘사된다. 이방인의 지위와 역할은 “네 안에서(수단의 특성성; “아브라함-다윗-예수 그리스도”(마 1:1; 갈 3:14)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목표의 보편성; “천국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받은 144,000(계 7:4-8)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는 이중 구조에서 이해된다.⁵³⁾ 때로는 이방인들이 무력으로 정복되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며,⁵⁴⁾ 때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게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으로 나타난다.⁵⁵⁾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영입된다. 따라서 구약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묘사된다.

3) 신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풍광은 구약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로 성육신 하신”(요 1:11) 예수님은 완전히 배척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당하고 만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

53) 창 12:3; 15:5; 17:4-8; 18:18-19; 22:17-18; 26:2-4; 28:13-15; 35:11-12; 46:3; 행 3:25; 갈 3:8.

54) 사 45:14-16; 49:23; 60:12, 14; 압 9:12; 미 5:9-13; 7:16-17.

55) 사 2:2-4; 42:6-7; 60:1-14; 습 3:9, 20; 숙 8:20-23; 14:16-19.

었다.”(마 21:43).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롬 9:27; 11:5, 7)인 예수님의 11제자들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요 20:28)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시작한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니라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개방된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따라서 종말론도 주로 교회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유대인 중의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방인을 향했고(행 13:46; 18:6), 주후 2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거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다.

4) 구약의 3가지 메시아 상(像)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① 다윗 왕가의 후손인 메시아(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 11:1-10)이다. 이 예언적 묘사에는 나사렛의 온유하신 선지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겸손한 종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마카비 형제(주전 173-164),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과 약탈(주전 63년) 앞에 드린 기도문(솔로몬의 시편 17:23-55), 세례 요한(마 11:2-3)의 이미지와는 잘 맞는 것 같았지만, 주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의 영적 구원이셨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다.

②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단 7:13-14)의 초자연적 이미지다.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마 2:10, 27-28)라 칭하며, 사죄를 공표하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칠 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마 13:55)임을 너무나 잘 아는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당혹스런 장면이었다.

③ ‘고난 받는 여호와와 종’(사 53장)이다. 놀라운 것은 다윗 왕가의 후손인 ‘메시아나’ ‘인자 같은 이’의 인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하나님) 종’(사 52:13)으로 불리며, 때로는 집합적 개념인 ‘이스라엘’(사 45:4; 48:20; 49:3, 5-6)과 이 호칭을 공유하며, 수동적으로 수난을 당하고도 잠잠한 모습이다.

구약의 이 공존하기 어려운 세 가지 상을 모두 포괄하고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사명이었다.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고난 받는 여호와와 종’이 되고, 3일 만에 다시 사시며 40일 후 승천하시므로 ‘인자 같은 이’(계 1:13; 14:14; 참조. 순교 직전의 스테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본대행 7:56)고 말한 것은 인간의 입에서 ‘인자’를 언급한 유일한 경우)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들 중의 왕, 주들 중의 주’(계 17:14; 19:16)로 통치하시는 것이다.⁵⁶⁾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왕적 통치가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이든 종말론이든, 모든 신학적 논의의 최후 언급은 신약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명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5) 구약과 신약을 묶는 ‘한 새사람’의 성경신학적 이해:⁵⁷⁾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신약성경은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제한된 표현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한

다.⁵⁸⁾ 이 이분법적 구분은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창세기 12장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족장시대의 이방인으로 이해되는 욥과 그의 연장자인 세 친구(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2:11; 15:10)와 그보다 젊은 엘리후(욥 32:2, 4, 6-7, 9) 등이나,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출 14장)은 모두 이방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 역시 비록 셈의 3대손인 에벨의 5대손이지만(창 11:10-26), 그의 부친 데라(테라흐, ‘방랑자’)를 포함한 조상들은 열렬한 달신 난나(Nanna, 보름달)/주엔(Suen, 초승달)을 섬기는 우상숭배 가문이었다(창 31:30; 신 26:5; 수 24:2; 사 51:1-2; 히 11:8).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창 11:27-32) 속에 월신 숭배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데라(테라흐)는 어원적으로 ‘달’(야레아흐; 참조. 예리고예리호, ‘그분의 달’)과 관련될 수 있고, 사래(사라이, ‘여왕’)의 수메르 상당어는 닌갈(nin-gal, ‘큰 여왕’)인 바, 바로 난나/주엔의 아내 이름이요, 밀가(밀카, *milka*, ‘여왕’)는 난나/주엔의 딸 말카투(*malkatu*)와 동등어이며, 라반(*lābān*, ‘흰’)은 보름달의 시어(詩語)인 레바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데라가 살던 수메르 남쪽 갈대아 우르(Ur; 창 11:28)와 데라가 이주한 북쪽 하란(Harran; 창 11:31)은 모두 수메르의 일곱 주요 신의 하나인 달신 난나/주엔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 신전 이름(수메르어 é-hûl-hûl=아카드어 *šubat hidāti*, ‘환희의 집’)은 교회가 ‘천국 잔치집’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⁵⁹⁾

56) 시 16:8-11; 110:1-2의 재해석인 히 1:13; 10:12-13; 132:11의 재해석인 행 2:30-36; 고전 15:25; 계 3:21.

57)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참조. 김진섭, “유대인과 무슬림 선교의 비전과 사명(4): ‘원 뉴맨’(One New Man, 한 새사람) 개관”, 『백석신학저널』 27 (2014가을): 97-131.

58) 행 10:28; 14:2, 5.; 21:11; 롬 3:29; 9:24; 고전 1:23; 갈 2:14. 초대교회 관점에서는 이방인의 대표치가 ‘헬라인’이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요 7:35; 행 18:4; 19:10,17; 20:21; 롬 1:16; 2:9-10; 3:9; 10:12; 고전 1:22, 24; 10:32; 12:13; 갈 3:28; 골 3:11). 흥미롭게도 고전 1:22-24는 “이방인 = 헬라인”으로 사용된다.

59)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창 11:28, 31, 15:17; 느 9:7)를 울리(Leonard Woolley,

아브라함은 달신 숭배자 데라의 아들로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솔라 그 라타아)로 선택되고 부름 받아 혈통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의 조상(롬 4:11-12, 16; 갈 3:29)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혜를 강조한다. 따라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프로이두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프로우앵겔리사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히: 베카; 헬: 엔 소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창 12:3의 인용) 하였느니라”(갈 3:8)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을 수단으로(‘네 안에서; 특정성) 온 열방/이방인/‘천하 만민’(콜 고예 하아레쯔; 창 18:18; 22:28; 26:4)이 복/구원(목표의 보편성)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먼저 복음’의 실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마 1:1)로 오신 ‘오직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갈 3:16)를

1880-1960) 경이 발굴했던(1922-34) 남쪽 Ur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서, 우가릿(Ugarit) 문서에 나타났던 히타이트(Hittite) 도시 우르(Ura)와 관련하여 하란의 (북)동쪽에 이 ‘갈대아’ 우르(사실 남쪽 우르가 갈대아 우르로 불려진 어떤 문헌도 없다)가 있다고 고든(Cyrus Gordon, 1918-2001)이 1958년 처음 제안한 이래, 에블라(Ebla) 토판에서 “하란에 있는 우르”를 언급하고 있다. 난나/주엔은 남신(男神)으로서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을 지닌다: ① 천상으로는, 밤하늘의 유일한 빛 공급원으로서 월력 시간표의 중심이요, 태음 월말에 달이 하늘에서 사라진 후 지하계에서 운명(수메르어 남타르 [nam-tar]) 결정신이며, ② 목축으로는 송아지로 구현되어 가축의 번식과 그 식품(우유, 치즈 등)을 공급하는 신에서 더 나아가 곡식, 채소, 야생(강, 공중, 시골), 인간 번식의 신이다. 이 ‘번식’의 표상을 갖게 된 이유는 달이 주기적으로 초승달, 보름달, 그믐달을 반복하는 모습이 대(代)가 끊어지지 않고 성장(生長)하는 번식의 능력으로 이해되었고, 이 능력을 모든 생물에게 공급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메르 최고 부부신인 엔릴(Enlil; ‘바람 군주’란 뜻)과 닌릴(Ninlil; ‘바람 여왕’)의 아들로써 ‘소를 치는 자로 묘사 되는 것도 가축을 키우며 그 생산품으로 부모를 섬기는 효자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새 해마다 니푸르(Nippur; 수메르의 예루살렘 격으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한 텔아비브) 아비브, 겔 3:15이 그 근교이다)에 거주하는 엔릴에게 초실제(初實祭)를 드리기 위해 행했다. ‘신들의 여행’(divine journey)에 대하여 알려진 7개의 주요 수메르 문헌들이 있다. 그는 하란과 우르의 주신으로서 그 도시의 “아버지(a-a), 군주(lugal, en), 영웅적 수호자(ur-sag), 왕자(nun)로 불렸고, 매일 조반(kin-nim)과 저녁식사(kin-sig) 외에 달의 모양이 바뀌는 주요 시기마다 매일 에쉬에쉬(eš₃-eš₃) 절기 때에 특별한 헌물을 드렸다. 특별히 아카드제국의 시조인 사르곤(Sargon, 주전 2371-2316) 왕의 딸 엔헤두안나(Enheduanna, 주전 2334-2279; 비교: 아브라함[주전 2166-1991])가 그때까지 알려진 신전 찬양시(temple hymns) 42개를 집대성하여 현세에 남겼고, 우르의 난나 월신의 대어제사장(en)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이난나(Inanna) 여신에게 남겼다.

가리킨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구속사의 큰 흐름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구별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롬 11:12, 15),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속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롬 11:25-26).

앞서 살핀 대로(참조. 각주 38-39, 44, 46),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육적 알리아를 통한 물리적 회복(고토 귀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67년 예루살렘 회복)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영적 알리아를 통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슈퍼 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사이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인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맞지만,⁶⁰⁾ 이스라엘(유대인)과 열방(이방인)의 구분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행의 큰 그림을 수준 높게 이해하는 구분이다.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60) 고전 2:14, 15; 3:1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 (1) ‘육에 속한 사람’(프쉬키코스, ‘혼적 인간[isoulish man]; 고전 2:14):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유 1:19; 요 3:3, 5),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산송장 같은 자(엡 2:1-3; 4:17-19)로서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2) ‘육신에 속한 자’(사르키노스, ‘육적 인간[carnal man]; 고전 3:1): 주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주 범죄하고 실수하는 자(갈 5:16-21; 6:8a; 엡 4:25-6:20)로서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님을 ‘뉘고 배우는’ 영적 성장(help[만 0-3세]-tell[만 4-12세]-show[만 13-19세]-follow me[만 20세 이상] 중에 있는 사람; (3) ‘신령한 자’(프누마티코스, ‘성령님적 인간[Holy Spiritual man]; 고전 2:15): “성령님을 모독, 거역, 소멸, 근심하게”(마 12:32; 눅 12:10; 살전 5:19; 엡 4:30)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며,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b)는 명령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체험적으로 절감하는 자로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서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행 1:8; 빌 3:3) 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고 하심으로(마 15:24) 사역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다(마 10:5-6).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선교 전략의 순서에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궁극적 개념 하에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방인)에게”(롬 1:16b) 라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항상 먼저 회당을 찾은⁶¹⁾ 선교 여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양대 구분이 창세기 이후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며 특히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주요한 구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 2,065회(구약 1,990, 신약 75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논의를 더 필요로 하는 로마서 9:6b(“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6:16(“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을 제외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덧붙여 구약·신약성경 총 31,102 구절 중 ‘이스라엘’(국가·영토; 2,065회), ‘유대인’(혈통적 민족; 275회), ‘히브리’(언어; 43회)란 단어가 총 2,383회 언급되므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딤후 3:16; 벧후 1:21) 하나님의 말씀의 매 13 구절마다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란 단어가 사용되어, 우리의 성경 읽기에 얼마나 사활적인 것인가를 명심하게 한다.

1948년 독립한 현대의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이 바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대인

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면서, 근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나라를 잃고 200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진다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증인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예외였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사 66:8b)는 예언대로, 역사에 사라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다시 세워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임을 오늘날 이스라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긴 디아스포라 기간 중에 저스틴(Justin Martyr, 100-165)을 포함한 이방 교회의 교부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여, 그들은 저주받아 유리 방랑하게 되었다고 가르쳤고, 그러한 가르침은 또한 전통과 교리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나오면 별다른 생각이나 의심 없이 내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인 걸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함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는 어찌면 이방인이 이스라엘(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요,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한 이스라엘)이 되고픈 영적 욕심과 이스라엘이 흠어진지 너무 오래된 기간으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스라엘, 교회’라는 두 표현의 올바른 의미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세대주의 전천 년설이 하나님께는 두 개의 구별된 백성(이스라엘과 교회)과 두 개의

61) 참조. 행 13:4-5(구브로의 살라미), 14(비시디아 안디옥), 14:1(이고니온), 17:1(데살로니가), 10(베뢰아), 17(아텐), 18:4(고린도), 19(에베소), 19:8(에베소).

구별된 목적(땅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 약속된 땅, 거기에 수반되는 유대교와 관련된 현세적 목표들; 하늘에 속한 백성인 교회, 그 약속된 하늘, 거기에 수반되는 천상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두 개의 구별된 언약(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아브라함-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현세적/지리적, 사회적/정치적 나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상적 시민권, 새 예루살렘, 영원한 죄의 용서, 성도의 만인 제사장 직분)의 시행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의를 위해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증거로서 새 언약을 말하는 예레미야 31:31-34를 살펴보자. 언약을 맺는 대상을 눈여겨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31절)는 말씀에는 이방인이 들어있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일단 새 언약을 맺는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이미 “네(아브라함-이삭-야곱)이스라엘-다윗-예수 그리스도; 마 1:1; 갈 3:6-8, 28-29)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창 12:3b)는 언약의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브라함 이후의 구원 역사에 곧바로 적용되었다.⁶²⁾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강림 사건 이후 이

62)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이룬다”(엢 2:14-15)는 주제의 구약적 이해는 매우 철저한 분석을 요한다. 선별적인 창세기 실례들을 살펴보자: (1) 이스라엘 조상의 기원: 아브라함-사라(창 21:12; 갈 4:23, 28, 31; 히 11:18)와 이삭-리브가와 야곱/이스라엘(창 32:28; 35:10; 왕하 17:34)의 선택적 직계(롬 9:7, 10(이삭); 13(야곱)); (2)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창 12:3; 15:5; 17:4-8; 18:18-19; 22:17-18; 26:2-4; 28:13-15; 35:11-12; 46:3; 행 3:25; 갈 3:8)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은 “집에서 난 노예나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의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창 17:12-13) 이방인이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허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실례: 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창 14:14); ②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창 15:2; 24:1(늘은 종?)); (3) 아브라함의 조카 롯(창 14:16; 19:29)과 그의 두 딸과의 근친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압, 암몬이 출생(창 19:37, 38); (4)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성에 나타난 이방인의 허입: ① 요셉이 온(현,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창 41:45)을 통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② 다말(유다가 가나안 사람이방인) 수아의 딸에게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지만, 엘과 오난을 각각 대신하는 “세라, 베레스”를 엘의 아내(이방인) 다말에게서 낳아 셀라는 여전히 셋째 아들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창 38장), 그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룯 같은 이방여인이 유다 지파 족보에 허입(마 1:3, 5); ③ 이방인 히위 족속(창 34:1)의 추장 세겔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겔과 그 아내 하몰에게 속여 “할레하면 ‘한 백성’(암 에하드)이 될 것”(창 34:16, 22)을

방인이 이 약속에 ‘함께’(유대인을 ‘대신’해서가 아님을 기억하라) 참여한 자가 되었다(엢 2:11-22). 새 언약을 예언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시고 선포하신다(렘 31:35-37).

위 본문에서 해, 달, 별, 바다의 파도를 들어 이 자연의 운행 질서가 깨진다면, 이스라엘이 끊어지며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 나담께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하늘을 측량하며,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모를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증인 삼으신 해, 달, 별, 바다의 파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증거하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해, 달, 별,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된다.

약속한 바,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여 평화조약을 맺어 성막의 봉사자(수 9:16-17, 23; 참조, 신 29:10-13)가 되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기도 중에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왕상 8:41-43; 대하 6:32-33)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응답하지기를 기원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브온 거민의 후손들로서 레위 지파와 함께 통혼하여 “잇도의 형제들”(스 8:17)이 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느디님’(네티님, ‘주어진 자들; 대상 9:1-2; 스 7:7; 8:20; 느 10:28; 11:3; ‘성전봉사에 주어진 자’)에 의해 성취됨. 참조,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 초기부터 “수많은 잡족”(에레브 라브(출 12:38))이 섞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마 3:9 = 눅 3:8; 19:9; 요 8:33, 37, 39; 특별히 갈 3:7, 29; 히 2:16)인 유대인이다. 실례, 그 잡족 중 하나인 이방인 그니스 족속의 후예(창 15:19; 출 12:38; 수 14:14)로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갈렙(민 13:6; 34:19)과, 요셉이 애굽 여인 아스낫을 통해 낳은 차남 에브라임의 후손으로서 그 지파의 대표 여호수아, “돌이 한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온”(민 13:23) 포도송이와 가나안 정복과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의 시작인 유다 지파 갈렙(수 14:6-15)과 단단의 마무리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수 19:49-50); 다윗의 조상이 된 룯(모압 여인; 룯 1:4; 4:21-22);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인 암몬 사람 셀렉(삼하 23:37); 솔로몬은 암몬 사람의 왕녀 나아바를 후궁으로 삼아 르호보암을 얻음(왕상 11:1; 14:21, 31).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롬 11:1).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개인적인 증거를 들어 변증한다. 자신이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이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의 증거이며, 뒤이어 구약성경의 증거를 들어 사도 바울 당대의 증거를 제시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2-5). 엘리야 당시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위에 믿는 유대인 형제들을 남겨 두신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미 이사야 65:2를 인용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롬 10:21)에서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버린 바 되어 역사의 주역에서 사라진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다(롬 11:25b). 결국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거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롬 11:26a).

사도 바울이 로마서 9-11장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은 민족적·국가적 이스라엘이다. 바로 그 이스라엘,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버린 바 된(롬 11:12, 15) 민족적·국가적 이스라엘이지만 버린 바 되지 않고(롬 11:1), 다시 충만케 되고 받아들여지며 구원받게 될 것(롬 11:12, 15,

26)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예고하는 것이다. 20세기 청교도로 칭송받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 박사 역시 자신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적·혈통적 이스라엘로 보며, 이스라엘의 배제는 영원한 배제가 아닌 일시적 배제이며 전체적 배제가 아닌 부분적 배제임을 강조하고 있다.⁶³⁾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보게 되는 경우, 2020년 덴마크성서학회가 벌인 것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2020년에 발매된 ‘덴마크 현대어 성경 2020’에선 신약성경은 물론이고 구약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대체하였다. 예컨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요 1:49)라고 나다니엘이 했던 고백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이로소이다”로 고친 것이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렘 33:7)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계된 예언을 “내 모든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로 바꾸어 놓았다. 덴마크성서학회는 이러한 번역의 이유에 대해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도 신학교에서 ‘알리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동의 하나이며, 현재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하는 뿌리 깊은 잘못된 전통에 기반

63) D. Martyn Lloyd-Jones,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11, To God's Glory*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8), 서문 강 역, 『로마서 강해 1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로마서 11장)』(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3-24, 91-102.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다.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온 것은 당연히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성서대학(Israel College of the Bible)의 데이비드 미쉬킨(David Mishkin) 교수의 주장대로, 신약의 경우도 총 75회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란 헬라어에 논란이 있는 갈라디아서 6:16을 제외하면, 74회가 실제적 민족으로서 육적인 이스라엘(physical Israel)로 사용되었다.⁶⁴⁾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새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롬 9:6),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8).

이스라엘에 관한 이중적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민족과 국가의 가시적 형태로서의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있다. 한 단어 속에 내포된 두 의미를 동시에 보며, 또한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성경이 유대인을 언급할 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구분하여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롬 2:28-29)이라고 주장한다(‘이면적 유대인’을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체 맥락에서 이 두 단어는 바로 위에서 이스

라엘을 둘로 구분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했듯이,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받아들여 ‘마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는 해석이라 생각된다. 데릭 프린스(Derek Prince, 1915-2003)는 이 구절을 “표면적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표면적 유대인에 머무르지 않고 이면적 유대인(참조.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계 2:9; 3:9)까지 가야 진정한 유대인이다”⁶⁵⁾라고 해석한다.

지금까지 대체신학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이란 단어 속에는 민족적·국가적 이스라엘과 그 속에서도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유대인)이라는 이중 의미가 들어있음을 지적했다. 한 걸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속에 교회가 보인다.” 팔머 로버트슨(O. Palmer Robertson)이 말한 대로,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⁶⁶⁾는 선언에 있다. 이 말씀은 성의 첫 책(창 17:7-8)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책(계 21:3, 7)에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된다. 또한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로와 소망의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미리 복음을 전하실 때’

64) 신성운, “역사적 위기 속의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기와 극복』 (제7회 이스라엘신학포럼 자료집, 2020), 16 각주 29.

65) Derek Prince, *The Destiny of Israel and the Church: Now incorporating "Our Debt to Israel"* (Christchurch, New Zealand: Derek Prince Ministries, 2007), 전은영 역,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 (서울: 엘리아, 2016) 29-30.

66) O. Palmer Robertson, *Covenants: God's Way with His People* (Great Commission Publications, 1987), 오광만 역,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서울: 그리스심, 2003), 7.

(프로유앵겔리사토, 갈 3:8),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 12:1-3; 참조 22:17-18)는 의도를 드러내셨다.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을 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할례를 받았다(창 17:12).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에 동참하는 자들 중에는 출애굽 시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더해진 수많은 잡족도 열방의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포함되었다(출 12:37). 비록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신약에선 바울에 의해 ‘교회’라는 단어로 표현되는)이 보이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기 그 고유한 실재성을 잃지 않고…구별하면서도(distinguished), 본질적으로는 상관적인 관계 속에 하나로 통일된(perichoretically united)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이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그 속에 교회가 전체로 보이고, 교회를 보면 그 속에 이스라엘이 전체로 보인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섞이거나(not mixed), 혼동되거나(not confused), 나누어지거나(not divided), 분리되지(not separated) 않으면서 서로 상관적으로 통일을 이룬다.”⁶⁷⁾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그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들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민족적·국가적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유대인/이스라엘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다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속에 교회가 보이며, 교회 속에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이란 개념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교회’(총 9회; 고전 1:2; 10:32; 11:22; 15:9; 고후 1:1; 갈 1:13; 살전 2:14; 딤후 3:5; 3:15)란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톰 라이트(Thomas Wright)는 “로마인보다 수백 년 앞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인은 세계를 헬라인과 나머지로(=‘아만인’으로 부름, 논고자 주) 양분했다. …그러나 편지의 상당 부분에서 바울은 세계를 다른 식으로 분할하느라 여념이 없다. 유대인은 세계를 유대인과 나머지로 양분했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때로는 ‘민족들’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때로는 ‘헬라인’으로 불렀다.”⁶⁸⁾ 사도 바울에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분명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믿는 자’라는 개념에 기초하면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롬 1:16b)라는 구별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고전 10:32)라는 3개의 구분은 겉으로 보이는 혈통적(물리적)인 유대인, 혈통적인 이방인, 그리고 그들 중에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버나드 램(Bernard L. Ramm)도 이 해석을 지지한다.

구약 경륜 근처에 깔린 모형적 특성들(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은 모형론적 주해를 요구한다)은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말이 상호교환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주목할 때 더욱 분명 해진다. 갈라디아서 6:16에서

67) 김윤태, 「언약신학과 세대주의신학은 이스라엘 이해에 관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제4회 이스라엘신학 콜로키움 자료집; 2019년 1월), 52.

68) Thomas Wright, *Paul for Everyone: Romans (Part 1)*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신현기 역,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1부 (1-8장)』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7), 31.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이 점을 잘 드러낸다. 바울은 말하길, 그리스도 안에서 소용이 있는 것은 십자가요 새 창조이지 할례가 아니라고 한다. 바울은 지금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규례(rule)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만일 이 표현이 유대인들을 지칭하거나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면, 바울은 스스로 명백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참백성은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라 불리우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 16절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은 그 앞에 나오는 두 부류, 즉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즉,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와 새 창조를 따르는 자들)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두에 해당되는데, 이 두 부류는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른 부류를 지칭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젯거리였던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창조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⁶⁹⁾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갈 1:13)라고 자신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갈 6:16)란 표현을 사용한다. 여

기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로 앞 절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15절)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이 구절에 사용된 접속사 카이는 ‘즉(that is)’, ‘그리고(and)’, ‘심지어(even)’로도 해석된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광야 교회’(행 7:38)라는 말도 상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속에 교회가 보이고 교회 속에 이스라엘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 언약신학자 팔머 로버트슨(O. Palmer Robertson, 1937-) 역시 버나드 램과 동일한 견해를 보여준다.⁷⁰⁾ 그림자인 옛 언약의 ‘이스라엘’이라 지칭하는 땅은 새 언약의 실체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출 19:4; 레 25:23; 시 24:1-2; 82:8)이란 관점에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제1장, 9-41쪽).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 앞의 ‘이 규례를 행하는 모든 사람’과 동격으로(접속사 카이and, or, that is)가 이를 보강한다) 이해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 갈 6:15),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철폐하는 ‘한 새사람’(엡 2:14), ‘하나님의 권속’(엡 2:19), 지금 우리가 논해온 ‘하나님의 교회’와 동일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제2장, 43-65쪽). 또한 ‘평강과 긍휼’이란 다소 의외의 어순은 유대교의 소위 ‘18 기도문’(쉐모네 에스레; “평강과 구원과 복을 주시며, 저희에게와 주님의 백성인 모든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내리시옵소서”)의 ‘저희’와(카이) ‘주님의 백성인 모든 이스라엘’을 새 언약의 구원역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교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새 이스라엘’

69) Bernard L. 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70), 정득실 역, 『성경 해석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4, 1996), 346-347.

70) O. Palmer Robertson, *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0), 오광만 역,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로 여기고 있는 것과 같은(58-59쪽) 놀라운 표현임을 지적한다.

2.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각 학설들의 이해

1) 역사적/고전적 전천년설:⁷¹⁾ 세상 거의 끝 날에 대환난의 고통이 온 후(참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난 전에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지상에 재림하시며, 죽은 신자는 부활하여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며, 산 신자도 죽지 않는 영광스런 몸의 부활을 받아 하늘에 들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본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는 두 단계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재림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천년(또는 상징적으로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입장이다.

땅에 남아있던 많은(전부가 아닌) 불신자들도 구원받아 완전한 공의와 평화로 지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때(혹자는 마지막 흰 보좌 심판에) 지구는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져 지상 천년왕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계 20:1-3). 천년의 끝에 사탄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많은 불신자들(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척하나 속으로는 반역을 꾀하는)을 선동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께 반역할 것이나(3, 7-8절), 주 예수님이 이 반역을 진압하고, 최후심판을 위해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다.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각각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71) 개혁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자인 정성욱 박사(미국 덴버신학교 조직신학교수)가 8명의 논고들을 편집한 Craig L. Blomberg and Sung Wook Chung, *A Case for Historic Premillennialism: An alternative to "Left Behind" Eschatolog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조형욱 역, 『역사적 전천년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을 보라.

역사적 전천년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는 자는 대환난을 통과하여 함께 천년왕국을 누린다고 믿는다. 천년의 기간은 지상에서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가현적으로 통치하시며(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동일),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도 그와 함께 왕 노릇한다. 여기서 함께 왕 노릇 하게 될 사람들은 그때까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신자들과, 예수님 재림 때에도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세대주적 전천년설은 유대인만)를 포함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여, 7년 대환난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 교회는 휴거 되나, 유대인은 휴거 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7년 대환난 가운데 대거 회심하며,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다른 점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자들 사이에도 몇몇 자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천년기가 끝난 후에 죽었던 불신자는 부활하고, 모든 신자들과 불신자 전부가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생으로,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후에 비로소 최종 상태로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모든 악이 제거된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는 초기 선교사들 중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이 섞여 있었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소수였던 관계로, 한국교회 태동기와 성장기 동안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지배적 흐름이었고, 당대 대표적 신학자인 박형룡, 박윤선 박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오순절 운동이 주도하면서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세대주의가 큰 세력을 떨치게 되었지만, 세대주의 전천

년설의 휴거 교리에 집착한 이장림의 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 폐해(참조. 본 논문 각주 9-10) 속에서 1990년대 서구에서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무천년설이 주장되면서, 오늘날 신학교의 주된 종말론적 흐름이 되었다.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세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대교회 및 교부시대 폴리갑(Polycarp, 69-155)을 비롯한 파피아스(Papias, c. 60-130), 순교자 저스틴(Justin the Martyr, 100-165), 이레니우스(Irenaeus, c. 130-200),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5-200) 등이 이를 지지해 온 매우 오래된(역사적/고전적) 견해이다. 4세기 후반 무천년설에게 자리를 내주고 영향력이 상실되었으나, 무천년주의자로 남았던 루터(1483-1546), 칼빈(1509-1564)과 비슷한 시기, 독일계 칼빈주의 백과사전적 신학자 알스테드(Johann Heinrich Alsted of Herborn, 1588-1642)⁷²⁾와 영국의 토머스 브라이트맨(Thomas Brightman, 1562-1507), 조셉 미드(Joseph Mede, 1586-1639)⁷³⁾가 재림 이후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토머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 티모시 드와이트(Timothy Dwight, 1752-1817) 등의 일부 청교도들, 18-19세기 들어 조셉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1733-1804), J.C. 라일(J.C. Ryle, 1816-1900),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 1834-1892),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미국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동안, 찰스 어드만(Charles R. Erdman, 1866-1960), 조지 래드(G.E. Ladd, 1911-1982), D.A. 카슨(D.A. Carson, 1948-),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1948-) 등 전문적 신학훈련을 받은 복음주의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력을 확대하여, 오늘날 전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매우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서구권에서 연구 중인 탁월한 성경신학자·성경조직신학자들 상당수가 이를 옹호하고 있다.

2) 고전적 세대주의:⁷⁴⁾ 앞서 살핀 대로(각주 17),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19세기 영국의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 시작되었고, 다비의 신학을 전수받은 미국의 스코필드(Cyrus Ingerson Scofield, 1843-1921)에게 전수되어 아래의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1) 세대(Dispensation, 경륜) 구분: 역사의 시대를 7세대로 구분하여(스코필드: 무죄시대-양심시대-인간통치시대-약속시대-율법시대-은혜시대-왕국시대; 참고. 점진적 세대주의자인 블레이징의 4세대 구분: 족장시대[시내산까지]-모세시대[메시아 승천까지]-교회시대[메시아 재림까지]-시온시대[천년왕국과 영원시대]),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오직 7개의 점진적 방법(창조-아담-노아-아브라함-모세-내산-모압-세겔-다윗-새언약)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의 언

72) 루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실현된다는 개념을 거부했고, 칼빈은 이 주제에 관해 그 당대 누구보다도 적게 관심을 가진 반면에, 알스테드는 천년설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참조. Ulinka Rublack ed., *The Oxford Handbook of Protestant Reform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78, 307-318, 468, 654.

73) 장래에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유대인 왕국의 회복에 의해 수반될 것으로 믿은 이들에 대해, 참조. Ulinka Rublack ed., *The Oxford Handbook of Protestant Reform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283-284.

74) 개혁주의 언약신학에 기초한 성경해석학 교수로서 직접 댈러스신학교에 머물며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사이의 대화의 문을 열게 한 고전적 필독서로서, 참조. Vern S. Poythress, *Understanding Dispensationalist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권성수 역, 『세대주의 이해』(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0); Chad Owen Brand, *Perspectives on Israel and the Church: 4 View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15), 정규영 역,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점: 네 가지 견해』(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133-224("2장 전통적 세대주의 견해"); Michael J. Vlach, *Dispensationalism: Essential Beliefs and Common Myths* (Los Angeles, CA: Theological Studies Press, 2017).

약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상치된다.

(2) 성경의 문자적 해석: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Scriptura Scripturae interpres)는 원칙 아래, 주어진 문맥에서 역사적 배경, 문법적 분석, 신학적 의미를 파악해야 바른 해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문자로 볼 것은 문자로 보아야 하고, 상징으로 볼 것은 분명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겠지만, 세대주의의 ‘일관된 문자적 해석’의 강조는 해석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자적 해석을 곧바로 세대주의자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았다고 하여 문자주의,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다.

(3)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 이는 세대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전통적 세대신학자들 가운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과 교회를 위한 새 언약, 이렇게 두 개의 새 언약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새 언약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축복(죄 사함을 비롯해 주로 영적인 축복)을 영적으로 미리 맛보는 것(그러나 정치적-물질적 축복을 포함한 새 언약의 온전한 축복/성취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현재적 목적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미래적 목적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구별을 둔다고 주장함이 큰 특징이다.

(4) 2단계 재림과 3중 부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과 지상의 2단계 재림으로 이루어지며, 교회는 대환난 직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난 기간을 통과하게 된다. 이 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고,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세워 ‘유대교의 성전(제3성전)’과 제사제도를 회복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이 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설과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3번의 부활을 주장한다: 첫째 부활은 7년 대환난 전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에 휴거를 위한 성도의 부활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참 신자들의 부활이다(생존해 있던 신자들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변화되어 영화롭게 된다고 본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시에 7년 대환난에 죽은 순교자들의 부활이다(구약 성도들도 이때 부활하게 되지만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천상에 있는 들림 받은 교회를 구성하는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합류한다고 말한다.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기 동안 하늘의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견해이다). 예수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동안 그 축복을 누린다고 본다; 셋째 부활은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에 죽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자들의 부활로 해석한다. 이 부분 역시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두 번의 부활 즉, 7년 대환난 후 예수님의 재림 시에 첫째 부활, 천년왕국 마지막 때 전체 부활인 둘째 부활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후 최후의 심판과 최종상태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천상의 예루살렘이 이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희락 가운데 함께 거하나,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영원한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독특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상실함이 없이 교회 시대의 부활한 성도와 변화 받은 성도들과 합류하여 예수님의 통치의

영광을 영원히 공유할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사에 잘 알려지지 않는 매우 의미심장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말 존 녹스(John Knox, c. 1514-1572), 루터(Martin Luther), 칼빈(John Calvin), 틴데일(William Tyndale, c. 1494-1536) 등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적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는 것을 막고자 로마 카톨릭이 마련한 ‘간교한 해석’에 고전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기원을 두며, 따라서 가장 복잡한 환난 전 휴거 이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요셉 태너(Joseph Tanner)에 의하면,⁷⁵⁾ 당시 로마 카톨릭 예수회 신부인 스페인 신학자 알카자르(Luis del Alcazar, 1554-1613)가 제안한 과거주의 해석법, 즉 교황이 로마에서 통치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예언은 성취되었으므로 교황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리베라(Francisco Ribera, 1537-1591), 벨라르미노(Robert Bellarmine, 1542-1621)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교황권(Papacy)에 적용하는 것을 막고자 새로운 미래주의 해석법을 만들어 냈다. 즉,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교황권의 행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어떤 개인이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3년 반 동안 그 권세를 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해석법에 따르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지적은 빛나가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론이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환난 전 휴거 이론이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Edward Irving, 1792-1834)과 존 다비(John Darby, 1800-1882)로 이어지고,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온 다비는 군 출신 변호사로 한 번도 정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스코필드(Cyrus I. Scofield, 1843-1921)와 체이퍼(Lewis Sperry Chafer, 1871-1952)에게 전수된 것이다.

세대주의자가 되는 근간(essence), 시금석(touchstone), 필수조건(sine qua non)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된 존재로 유지하는 것이다. 구약 예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두 개의 백성을 위한 두 개의 완전히 구별된 계획(기원, 책임, 운명, 약속)을 따라 육체적 출생으로 되는 지상적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적 출생으로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천상적 교회의 축복으로 나뉜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팔레스타인)을 상속받기로 선택된 신정(神政) 민족이며,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문자적’ 성취로서 다윗 왕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롬 11:26)은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이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문자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은 종족적 이스라엘로 이해한다.

3) 개정세대주의:⁷⁶⁾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세대주의는 다음과

75) Joseph Tanner, *Daniel and Revelation: The Chart of Prophecy and Our Place in It—A Study of the Historical and Futurist Interpretation* (London: Butler&Tanner, 1898), 16-17. 다비 이전의 17-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에 이미 세대주의 환난 전 휴거 주장자들이 왕성하게 있었음을 350개 이상의 원전 연구를 통해 밝힌 William C. Watson, *Dispensationalism before Darby: Seventeenth-Century and Eighteenth-Century English Apocalypticism* (Silverton, OR: Lampion Press, 2015)은 놀랍게도 “13장. 역사적 교황 적그리스도로부터 장래 개인적 적그리스도까지”(299-316쪽)에서 이 논증을 더욱 강화시킨다.

76) ‘개정’이란 용어는 1967년에 나온 『개정판 스코필드 성경』에서 따온 것으로, 1950년대 후반~1970년대 후반 사이에 나타난 2세대 개정세대주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조. Craig A. Blasing & Darrell L. Bock, 『하나님 나라와 언약: 점진적 세대주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47-67; Benjamin L. Merkle, *Discontinuity to Continuit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52-77. 대표적인 개정세대주의자는 Grace대학교 신학대학원 설립자인 앨바 맥클레인(Alva J. McClain, 1888-1968), 델러스신학교 총장(1952-1986)으로 봉직한 존 월부어드(John Walvoord, 1910-2002), 델러스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찰스 라이리(Charles Ryrie, 1925-2016), 델러스신학교 성경해석학 교수였던 드와이트 펜테코스트(J. Dwight Pentecost, 1915-2014), 델러스신학교 성경해석학 교

같은 유사성을 보존한다. (1) 성경의 권위; (2) 세대들(옛구약, 현신약, 미래구약과 신약); (3) 교회의 독특성(새 세대; 옛 세대와 미래 세대에 약속한 정치적·물질적 복은 없음); (4) 우주적 교회의 실제적 중요성(교파 초월); (5) 성경 예언의 중요성(문자적, 영적·정치적·국가적 구속); (6) 장래 7년 대환난 전 휴거; (7)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8) 이스라엘의 국가적·민족적 미래(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 크리스천 시온주의 운동); (9) 장래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상 천년왕국.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세대주의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⁷⁷⁾ (1) 점진적 계시 내에서의 통전적 구속;⁷⁸⁾ (2) 본래의 문자적 의미를 다소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보완적 해석학(complementary hermeneutic);⁷⁹⁾ (3) 구신약 성경에 통일된 하나님 왕국 플랜이 있다.⁸⁰⁾

수었던 스탠리 투세인(Stanley Toussaint, 1928-2017) 등이 있다.

77) Benjamin L. Merkle, *Discontinuity to Continuit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26-51(고전적 세대주의), 52-77(개정세대주의), 78-107(점진적 세대주의)를 저자의 기본 질문들(4개 주제 아래)을 따라 비교 평가한다.

78) '천상적/지상적'이란 고전적 세대주의의 영원한 이원주의를 거부하고, 구약의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천년왕국의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시킴; 성경의 언약들을 좀 더 통일된 관점으로 이해하여, 아브라함언약이 다른 언약들의 기초로서, 다윗언약은 아브라함언약의 '그 방법'이며, 새 언약은 '그 형태'로서 부분적 성취이며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전한 성취를 볼 것이다.

79) 영적, 알레고리 해석을 거부하며, 역사적(원래의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면서 처음 청중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민감하게 찾음)·문법적(그 메시지의 용어가 고립적이 아니라 상호간의 연결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고찰)·문예·신학적 해석(다양한 장르에서 문예적으로 배열된 본문의 향존하는 메시지와 통일성 강조); 모형론은 역사적·문예적 해석의 한 측면(예. 시 37:11의 마 5:5에 인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 현 세대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팔호'가 아니라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국가적·민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누리는 영적 축복을 나타내는 하나의 계시이다.

80) 세대들 간의 협정은 연속적인 것으로, 최후의 통합된 약속된 종말론적 왕국을 향한 구속의 다른 측면들을 드러내며 점진적으로 전진한다; 고전·개정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제공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왕국은 취소되고 결코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점진적 세대주의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다고 믿는다; 그 왕국의 완성은 계 20-22장에 있다. 6회 사용된 '천년'이란 용어와 종말론적 왕국의 영원한 완성이 소개되기 때문이다. 계 20:4-5는 예수님의 문자적 천년 통치에 의해 나뉘지는 두 번의 부활을 확인한다. 이 천년 동안 여전히 많은 인간은 죽을 운명의 조건 아래 살고 있지만, 언약의 약속들의 완성된 성취를 받은 부활한

(4)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한 백성의 두 차원임.⁸¹⁾

교회가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란 점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독특한 것이다. 이 신비한 관계는 구약의 (혹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다. 교회는 유독 신약 시대에 계시된 신비요,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작동되어 질 수 있었다. 교회시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만 가능해진 하나님 계획의 구별된 팔호 시간이다. 교회에 주신 은사들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주어졌고, 성령세례도 오순절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 모든 증거는 교회가 오순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교회에 의해 성취될 수 없다. 교회시대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는 보이지 않는다. 개정세대주의자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로마서 9-11장은 이스라엘이 교회와 여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예증한다. 여기 '이스라엘'이란 용어는 자연적 (영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신약에 75회 나오는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해 사용된 적이 없다. 로마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지'로서 예루살렘에서 땅의 열방들을 통치할 것이다. 천년이 차면 둘째 부활과 사탄이 풀려나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패할 것이며,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종말론적 왕국이 도래하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 두 국면의 실현이 구약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사야 65:17-25에 묘사되어 있다.

81) 교회는 '은혜의 새로운 현현'으로서 구약의 약속들, 특별히 사, 램, 겔에 나타난 '새 언약'에 대한 약속과 조화를 이룬다; 교회는 "이스라엘, 열방, 유대인, 이방인" 같은 인류학적 영역 중의 하나가 아니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대'에 존재하는 구속받은 '한 새사람'(연합된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서 9:3-4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복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로마서 11:26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이스라엘은 축복의 자리로 회복될 것을 보여준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무조건적 약속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 시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룹이나 국가적 구원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 59:20의 롬 11:26b 인용).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은 그 축복기도에 크리스천 유대인을 지목하는 특별한 인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4) 점진적 세대주의:⁸²⁾ 고전적 세대주의(1세대 세대주의)에서 개정세대주의(2세대)를 거쳐, 3세대에 해당되는 이 용어는 1980년대 중반 비세대주의와 전통적 세대주의 중간 입장을 취하여 성경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도모하려는 미국 복음주의신학회 연례모임에서 시작되었고, 1991년 연례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1990년대 초기에 이 견해를 지지하는 3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점진적’이란 용어를 붙이게 된 것은 “‘점진적’ 계시 내에서의 통전적 구속”⁸³⁾의 개념에서 발견된다. 이 학설은 전통적 세대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프로그램 내의 더 큰 연속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 세대주의 주장처럼 구약 메시아 왕국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괄호’

82) Craig A. Blasing & Darrell L. Bock, ed., *Dispensationalism, Israel and the Church: The Search for Defini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2); Robert L. Saucy, *The Case for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The Interface Between Dispensational & Non-Dispensational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3); 특별히 Craig A. Blasing & Darrell L. Bock,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Grand Rapids: Baker, 1993, 20132), 광철호 역, 『하나님 나라와 언약: 점진적 세대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이 책이 최근 『점진적 세대주의: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란 이름으로 재판되었는데, 아쉽게도 영문 원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의 논의를 위하여, 참조. Benjamin L. Merkle, *Discontinuity to Continuit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78-107.

83) Blasing & Bock, 『하나님 나라와 언약: 점진적 세대주의』, 67.

(parenthesis)로 간주하지 않고, 이 예언들의 첫 단계 부분 성취(7단계 세대가 아니라 4단계 세대축장세대, 모세세대, 교회세대, 시온세대로 나눈다)를 묘사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비세대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구별점을 없애지는 않으면서도, 전통적 세대주의자들보다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보다 더 큰 통일성을 받아들여, 연속성과 비연속성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을 추구한다.

이 학설의 대표적 주장자들은 모두 델러스신학교 출신인 소시 (Robert Saucy, 1930-2015), 크레이그 블레이징(Craig Blasing, 1949-), 대럴 박(Darrell Bock, 1953-)이다.

교회는 구속 역사에 새로운 세대의 일부로서 교회를 이해한다. 교회는 오순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전 세대주의자들처럼 교회를 은혜의 새로운 표명으로 본다. 그러나 전통적 세대주의자들과는 달리 교회를 구속의 완전히 새롭거나 구별된 형태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은혜는 구약의 약속들, 특별히 이시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언급한 새 언약의 약속과 정확히 보조를 맞춘(in keeping with, 저자의 강조) 것이다.”⁸⁴⁾ 다른 모든 세대주의자들과 같이 구약 예언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국가는 로마서 11:26이 밝히는 대로 약속의 땅에 회복될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종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언급되며(예. 행 3:20-21), 가장 분명한 예언이 로마서 9-11장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은 바로 그 단어 앞에 있는 접속사 ‘카이’(그리고, ‘심지

84) Blasing and Bock,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49; 『하나님 나라와 언약』, 71

어, '역시', '말하자면'으로 번역됨)를 '그리고'라는 병치로 주장하여, 그 앞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별개의 존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을 따로 떼어 가리킨다(참조. NIV 2011, "Peace and mercy to all who follow this rule-to the Israel of God.")고 주장한다.⁸⁵⁾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지난 100년 동안 압도적인 인기를 누려왔고, 각종 성경 비평학설들로 인해 영혼이 심히 피폐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향한 경고와 각성, 특별히 유대인들의 육적 알리아를 통한 이스라엘 국가 재건과 그들을 예수님계로 인도하는 영적 알리아에 큰 공헌을 해 온 세대주의 입장에서의 이스라엘 회복 이해, 즉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두 개의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두 개의 백성, 지상 신정국가인 이스라엘과 영적 천상 교회)을 가지셨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팔레스타인)을 상속 받기로 선택된 신정(神政) 민족이며,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문자적' 성취로서 다윗 왕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성경해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의 휴거와 문자적 7년 대환난과 예루살렘의 지상적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왕국이라는 세대주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⁸⁶⁾

85) Robert L. Saucy, *The Case for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The Interface Between Dispensational and Non-Dispensational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3), 198-200. 그 이유는 (1) 바울 서신에서 카이의 '해설적'('말하자면', that is) 용법은 흔하지 않으며, (2)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교회'란 의미로 사용하는 유일한 경우이며, (3) 그러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86) Sam Storms, *Kingdom Come: The Amillennial Alternative* (Fearn,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13), 윤석인 역,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의 필독을 추천한다. 델러스신학교 출신으로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신봉자였으나, 1977년 신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36년 동안 '오직 성경'이란 자세로 연구하여

5) 후천년설

(1) 고전적(Classic) 후천년설: 무천년설과 유사한 학설로서(천년기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왕위를 가지고 통치하시진 않는다는 점; 천년기가 전적으로 천년 동안만 계속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 천년기 이후에 재림하신다고 믿는 점), 최근의 지지자들은 '천년'의 기간을 무천년설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지지자들은 '천년'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천년으로 본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주권에 의해 사탄은 결박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령'(마 28:18-20)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마 16:18) 등에 근거하여, 교회의 공격적 복음 전파 및 교회의 영향력 증대, 이로 인한 복음의 확산으로 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적 번영으로 인해 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시기로 본다.

지구상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서 11:25-26을 유대인의 정치적 왕국이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규모로 회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죄가 완전히 제거될 것은 아니지만, 최저의 상태로 감소될 것이고,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삶의 상황은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며, 서로 적대적이던 나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영적 번영의 황금시대가 긴 기간 동안 올 것인데,

왜 전천년설(역사적과 세대주의적 모두)은 인위적인 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인지를 너무나 철저하고 명료하게 지적하기 때문이다. 세대주의 해석학에 가장 기본 성경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일흔 이레'(단 9:24-27)에 7년 대환난 교리의 부재, 단 2장과 7장의 넷째 왕국은 헬라제국으로 해석, 단 11:36-45의 '그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규명하면서, 특별히 "5장 전천년설과 관련된 문제점"(175-231쪽)의 6대 난관(176-178쪽), 잘못된 성경주해의 8개 실례(186-224쪽; 고전 15:22-28, 50-57; 롬 8:18-23; 뱀후 3:8-13; 마 25:31-46; 살후 1:5-10; 요 5:28-29; 사 65:17-20)를 통해 왜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탁월하게 논증한 종말론의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 주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문자적인 천년 그 이상의 긴 기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무천년설과는 달리 종말의 미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며, 그리스도인의 복음증거를 위한 실제적인 부와 영향력을 얻어 우세하게 되고, 따라서 7년 대환난과 이와 관련된 휴거는 없으며, 순종과 헌신으로 천년 ‘후에’(post)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론이지만, 1·2차 세계 대전의 참상으로 이 낙관적 이론은 그 힘을 크게 잃게 되었고, 그 지지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 후천년설을 발전시켰다. 크로밍가(D. H. Kromminga, 1904-1942)에 의하면,⁸⁷⁾ 중세시대의 최고 목시록 사상가로 알려진 12세기 카톨릭의 요아킴(Joachim of Floris(c. 1135-1202))이 최초로 이 학설을 주장했으며, 체계화된 학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학자는 18세기 영국의 다니엘 휘트비(Daniel Whitby, 1638-1762)로 본다.⁸⁸⁾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도 후천년설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18세기 계몽사상과 자유주의 시대에 부흥을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때 꽃을 피웠다. 구신약 성경주석으로 지금도 애용되는 주석(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1871)의 공동저자인 스코틀랜드 신학자 데이빗 브라운(David Brown, 1803-1897), 3대 하지(Charles, 1797-1878 / A.A. 1823-1886 / C.W. Hodge, Sr., 1830-1891), 스트롱(A. H. Strong, 1836-1921), 로레인 뢰트너(Loraine Boettner, 1901-1990), 마르셀러스 키크(J. Marcellus Kik, 1903-

87) D. H. Kromminga, *The Millennium in the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1948), 20.

88) Daniel Whitby, *Paraphrase and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London: W. Bowyer, 1703, repr. Arkose Press, 2015).

1965), 칼케돈 학파의 라쉬두니(R.T. Rushdoony, 1916-2001)-그레그 반선(Greg Bahnsen, 1948-1995)-게리 노스(Gary North, 1942-2022), 노르만 셰퍼드(Norman Shepherd, 1933-), 존 프레임(John Frame, 1939-) 등이 이 학설의 지지자이다.

(2) 부분 과거주의(Partial Preterism) 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예언, 또는 모든 예언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 때 예수님의 불가시적인 재림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마 24:32-35=막 13:28-31=눅 21:29-33)는 말씀은 분명히 천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상 끝’(마 24:3), ‘이 세대’(마 24:34)란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이 살던 세상의 종말, 즉 성전, 성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종말을 가리키므로 장래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인자가 구름을 타고…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는 표현은 예수님의 문자적, 육체적 재림이 아니라 구약에서 빌려온⁸⁹⁾ ‘일상적 메타포’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에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최후의 세상 심판이 망원경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옳지

89) 삼하 22:10-12; 사 19:1; 렘 4:13; 겔 30:3, 18; 나 1:3; 욥 2:1-2; 습 1:14-15; 시 18:9-12; 68:4; 104:3-4. 참조, John Noë, 앞의 책, 43. 그러나 여기서 사 19:1(“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다.”)의 ‘구름을 타고 임하심’은 출애굽 흥해 앞에서(출 13:21-22; 14:19), 시내산에서(출 19:9), 회막 앞의 모세에게(출 33:9),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에(왕상 8:10-11), 그리고 변화산의 예수님 앞에서(마 17:5)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Noë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그가 인용한 “렘 4:13; 겔 30:3, 18; 38:9, 16; 나 1:3; 욥 2:1-2, 습 1:14-15”에는 ‘구름을 타고’라는 언급이 없으며, “삼하 22:10-12; 시 18:9-12; 68:4”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가리킨다.

만, 동시에 잘못 해석도 있다. 이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최후 심판,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거하심, 이 세상의 죄, 사망, 질병, 고통 등이 제거됨은 장래의 일이기 때문이다(마 24:26-27)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29-31의 미래 동사의 연장선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볼 것이다(눅 21:27; 요 14:3; 행 1:11; 살전 4:16-17; 딤후 2:17-18; 벧후 3:10; 요일 3:2; 계 1:17). 사도 시대 이후에 초대 교부들 중 누구도 주후 70년의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그들의 잘못을 반영한다.

교회사적으로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 150-220), 키프리안(Cyprian, 200-258),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263-339),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 제롬(Jerome, 340-420), 17-18세기 라이트푸트(John Lightfoot, 1601-1675), 매튜 헨리(Matthew Henry, 1662-1714), 웨트스 타인(J. J. Wetstein, 1693-1754), 예언과 모형론의 대가 페어베른(Patrick Fairbairn, 1805-1874) 등이 있는 바, 스펄전(Charles H. Spurgeon, 1834-1892)이 “성경의 애매한 부분에 새 빛을 많이 비춰주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할 만큼 너무나 많은 비평적 조사와 밀접한 설득력을 지닌”⁹⁰⁾ 책으로 칭찬한 스튜어트 러셀(J. Stuart Russell, 1816-1895)의 저서⁹¹⁾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 당시의 교회와 국가가 연합된 영국-스코틀랜드의 체제 하에서 ‘이단성’으로 몰릴

90) 새언약신학의 정기간행물인 ‘검과 삽(The Sword and Trowel, 1878 10월호), 553.

91) James Stuart Russell, *The Parousia: A Critical Inquiry into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Our Lord's Second Coming* (London: Daldy, Isbister & Co., 1878, 1887 개정판). 1983에 Baker 출판사 재판, 가장 최근(2013) 아마존 Kindle판이 Randall S. Newton의 서문과 편집, Todd D. Dennis의 서론적 에세이로 출간되었다: *The Parousia for Kindle: The Classic Study of New Testament Doctrine Regarding Christ's Second Coming*.

수 있는 위협으로 초판(1878)은 익명으로 내었지만 개정판(1887)에 본명을 밝힘으로써,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세대주의/전천년설 해석이 가져온 폐해를 불식하는데 큰 공로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마 23:38)는 종말론적 예언은 그 당시 독자들의 이해로서는 주후 70년을 가리키는, 지금 현대인의 눈에는 이미 ‘부분적’ 과거사(preterite)란 것이다. ‘부분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사건이 아직 미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일반적 최후심판.

(3) 완전 과거주의(Full Preterism) 후천년설:⁹²⁾ 극단적인 과거주의 주장으로서,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장래에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예언개혁연구소’(Prophecy Reformation Institute)를 운영하는 노에(John Reid Noë, 1945-)는 “예수님은 그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반드시 재림하셨다. 그는 더 이상 떠나시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⁹³⁾라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성경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과거 시제)”⁹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당신이 만일 다시 오신다고

92) John Reid Noë, *Beyond the End Times: The Rest of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Bradford, PA: International Preterist Association, 2000); *Dead in Their Tracks: Stopping the Liberal/Skeptical Attack on the Bible* (Bradford, PA: International Preterist Association, 2001); *Unraveling the End: A balanced scholarly synthesis of four competing and conflicting end time views* (Indianapolis, IN: East2West Press, 2014).

93) Noë, *Dead in Their Tracks*, 60. 그의 불가시적 재림이 어떻게 ‘육체적’ 귀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94) 앞의 책, 25.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재림하셨고,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셨으며, 여기 지금 땅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기를 그분이 기대하신다고 믿는다면(계 5:9-10), 당신의 [세계관적 유예의 동기가 아주 달라지게 될 것이다]⁹⁵⁾라고 결론짓는다. 이런 주장은 성경(계 22:20)과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재림의 복스런 소망(딤후 2:13)을 앗아가는 이단성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후천년설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장래 구원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마틴 로이드-존스 박사의 평가에 따르면, 교회 역사에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되는 학문과 영성의 최고봉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주장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의 국가적 개종보다 더 확실하게 예언된 것은 없다...이 개종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해 우리가 이 본문만큼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돌아옴이 이방인에게 죽은 자로부터 더욱 충만한 생명이 될 것이라(롬 11:12-15)고 말하기 때문이다.”⁹⁶⁾ 프리스턴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하지(A. A. Hodge)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천년 왕국] 기간의 시작이나 중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되어 있다(속 12:10; 13:1; 롬 9:26-29; 고후 3:15-16)”⁹⁷⁾고 기술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로서 2권의 압권적인 로마서 주석을 집필한 존 머리(John Murray, 1898-1975)는 로마서 11장 주석에서, “만일 당신이 이 장(롬 11장)의 주제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한결같은 강

95) 앞의 책, 73.

96)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9), 1:607.

97) A. A. Hodge, *Outlines of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2), 569.

조를 염두에 둔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명제...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확정하는 이스라엘 대중의 구원이란 결론보다 다른 대안은 없다.”⁹⁸⁾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스노우던과 뵈트너는 이스라엘의 장래 대량 개종을 부인한다. 스노우던(James H. Snowden, 1852-1936)은 “유대교가 유대인과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지만 그 과업을 이제 다 수행했고 사라졌다. 유대교는 단지 깡마른 껍데기일 뿐이다.”⁹⁹⁾라고 담대히 주장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고 말했을 때, 그의 뜻의 한 획으로 구약 전체 경륜을 ‘영적 해석화’ 해버렸다.”¹⁰⁰⁾는 말을 인용하면서, 뵈트너는 “천년년설의 오류들 중의 하나는 교회가 신약의 이스라엘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저자 강조)”¹⁰¹⁾라고 추가한다. 후천년 과거주의자 키크와 젠트리 역시¹⁰²⁾ 재림 전 이스라엘의 미래 개종을 지지한다.

6) 점진적 언약주의:¹⁰³⁾ ‘새언약신학’이 1980년대 목회자 중심으

98) John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65), 2:98.

99) James H. Snowden, *The Coming of the Lord: Will It Be Premillennial?*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9), 241.

100) 앞의 책, 218-219.

101) Loraine Boettner, *The Millenniu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57), 91-92.

102) J. Marcellus Kik, *An Eschatology of Victory* (Philadelphia: P&R Publishing, 1974) 76-81; Gentry, “A Postmillennial Response,” *Three Views on the Millennium and Beyond* Ed Darrell L. Bock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9), 237.

103) ‘점진적 언약주의’란 신조어는 2006년 남아공신학교의 성경신학 연구교수인 덴 리오이(Dan Lioy, 1956-) 박사가 처음 사용(“Progressive Covenantalism as an Integrating Motif of Scripture,” *Conspectus* 1 [2006]: 81-107)한 것임을 이 학설의 중심주자인 Peter J. Gentry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IL: Crossway, 20182), 35가 밝히고 있다. 1,160쪽의 방대한 한글 번역서,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서울: 새물결플러스,

로 시작되었다면, ‘점진적 언약주의’는 ‘점진적 세대주의’와 비슷한 현상으로서 2012년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점진적(progressive)이란 수식어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한꺼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면서 구원 역사에 점차적(gradually)으로 드러내었다는 개념을 강조한다.”¹⁰⁴⁾ 그리고 언약주의(covenantalism)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 언약들을 통해 전개되며, 모든 언약은 그 성취(텔로스)를 단일한

2017)는 애석하게도 초판에(2012년) 기초한 것이다. 참조. 초판의 축약본인 Peter J Gentry and Stephen J. Wellum, *God's Kingdom through God's Covenants: A Concise Biblical Theology* (Wheaton, IL: Crossway, 2015); 세대주의와 언약신학,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6가지 주제(①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마 22:1-14; 행 10-11장; 롬 9-11장; 엡 2:11-22; 3:1-13]; ②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언약신학[갈 2-4장]; ③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의 필요[행 15장]; ④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한 논쟁[롬 14-15장]; ⑤그리스도인과 모세율법과의 관계[마 5-7장; 15:1-20' 행 7장; 롬 4장; 히 7-10장])를 놓고 10명의 논고를 편집한 Stephen J. Wellum and Brent E. Parker, *Progressive Covenantalism: Charting a Course between Dispensational and Covenant Theologies* (Nashville, TN: B&H, 2016). 점진적 언약주의(Chad O. Brand & Tom Pratt Jr.; 327-423)와 그 지류들에 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참조. Chad Owen Brand, *Perspectives on Israel and the Church: 4 View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15), 정규영 역,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점: 네 가지 견해』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롬 9-11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3가지 각 견해와 다른 두 논고자의 응답, 즉 (1) 비 예표적 유대인의 장래 대량 개종 견해(Vlach; 21-96), (2) 예표적 유대인의 장래 대량 개종 견해(Zaspel and Hamilton, 97-160), (3) 예표적 유대인의 비 장래 대량 개종 견해(Merkle, 161-234)를 논하는 Jared Compton and Andrew David Naselli eds., *Three Views on Israel and Church: Perspectives on Romans 9-11* (Grand Rapids, MI: Kregel Academic, 2018); 각 학설의 기고자의 해설과 다른 두 기고자들의 논평으로 구성된 후천년왕국론(Kenneth L. Gentry Jr.; 13-112), 무천년 왕국론(Robert Strimple; 113-222), 전천년 왕국론(Craig Blaising; 223-392), 요약 에세이(Darrell L. Bock; 393-437)를 담은 Kenneth L. Gentry Jr., et al., *Three Views on the Millennium and Beyond*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9), 박승민 역,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을 보라. ‘점진적 언약주의’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참조. Benjamin L. Merkle, *Discontinuity to Continuit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108-138; Chad Owen Brand, *Perspectives on Israel and the Church: 4 View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15), 정규영 역,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점: 네 가지 견해』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327-423. 중심인물로서는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외에 Ariel B. Caneday, Christopher W. Cowan, Jason S. DeRouche, James M. Hamilton Jr., Richard J. Lucas, Andy Naselli, Oren R. Martin, John D. Meade, Jacon C. Meyer, Brent E. Parker, Thomas R. Schreiner 등이 있다.

104) Gentry and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116n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 언약에 있음을 강조한다. 2012년 『언약을 통한 왕국』(Kingdom through Covenant)의 출간과 함께 공적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 개정판을 통해 더욱 보완되었다. 처음에는 새언약신학(New Covenant Theology; 약어로 NCT)의 우산 아래 놓았으나,¹⁰⁵⁾ 그 깃발 아래 제시되는 다양한 견해들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 언약주의’란 용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어떤 새언약신학자들은 (1) 창조언약을 부인하며, (2)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분의 의를 전가함을 부인하며, (3) 교회 생활에 모세 율법의 교훈적 가치를 거부하며, (4) 조건적 언약들과 무조건적 언약들의 구별을 유지하며, (5)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언약의 점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중생자와 비중생자가 섞여 있는 국가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중생자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비중생자와 섞여있지 않은 ‘새 피조물’(카이네 크티시스; 고후 5:17; 갈 6:15)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본체론적으로서(가 아니라(세대주의에 반대하여) 구속적-역사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교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확대가 아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약속의 언약들에 관련되지만 새 피조물의 일부로서 새 인류이다.(저자의 강조)”¹⁰⁶⁾ 그럼에도 이스라

105) 앞의 책, 초판, 24; Stephen J. Wellum and Brent E. Parker, *Progressive Covenantalism: Charting a Course between Dispensational and Covenant Theologies*, 73.

106) Peter J Gentry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IL: Crossway, 2018), 757, 760. 웰럼은 “교회란 새 언약의 공동체요, 그 구조와 성격에 있어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에 구속적-역사적 의미에서 정확히 새로운 것이다(저자의 강조).”라고 덧붙인다(앞

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한 백성을 대표한다.¹⁰⁷⁾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은 구속 역사와 수반되는 언약들의 각자 위치와 관계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운 것이다. 통일성은 메시아/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 다 대표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점진적 언약주의자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도, 이스라엘과 동등하지도 않음을 믿는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예표적 성취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의 수혜자이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예표적 성취이다. 즉 이스라엘 국가는 메시아 예수아의 인격과 사역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모형/예표(마지막 아담[고전 15:45, 옛 인류의 종지부], 둘째 사람[고전 15:47, 새 인류의 머리], 참 이스라엘[복음서 전반에 이스라엘이 부름 받아 행해야 할 사명에 항상 실패한 것을 성취하신 참 이스라엘로 묘사된다, 다윗 왕, 아브라함의 씨 [갈 3:16])이다. 파커는 이 사실을 잘 요약한다.¹⁰⁸⁾

신약은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모든 구약 예언의 중재자들의 성취로 묘사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들(바벨론 유수에서 귀환과 회복, 땅 등)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들의 실체를 구현하시고, 이스라엘의 역할, 부르심과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 그분

의 책, 801).

107) 웰럼은 “시간을 가로질러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선택된)이 있다(저자의 강조).”고 진술한다(앞의 책, 748). 룡도 비슷하게 “새언약신학은 좋은 감람나무에 묘사된 대로(롬 11장), 하나님의 한 백성을 위해서 오직 하나의 구속적 목적을 본다.”(Gary D. Long, *New Covenant Theology: Time for a More Accurate Way* [n.p.: Gary D. Long, 2013], 8.)

108) Brent E. Parker, “The Israel-Christ-Church Relationship,” *Progressive Covenantalism: Charting a Course between Dispensational and Covenant Theologies* Edited by Stephen J. Wellum and Brent E. Parker (Nashville, TN: B&H, 2016), 44-45.

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제사 제도, 성막, 성전, 안식일, 절기들, 율법), 신분 표지(예. 할례), 직분(선지자, 제사장, 왕), 핵심 사건들(예. 출애굽)이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에서 그것들의 종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기대했고 바랬던 모든 것을 예표적으로 성취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은 언약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개시하시고, 자신의 피로써 예언된 새 언약을 세우신 바로 그 분이시다.

둘째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직접 성취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대체’[비세대주의적 견해에 대한 이 경멸적 용어는 우리의 건전한 논의에 먹구름을 일으키므로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Gentry and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56, n. 18)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의 직접적인 성취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약속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 대체도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참 이스라엘, 다윗 왕,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셋째로,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준 구약의 약속들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다(렘 31:31의 인용인 히 8:8).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씨인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셨고, 자신의 피로써 새 언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아브라

함에게 주신 약속들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서 11장의 유비에 따르면, 믿는 이방인은 믿는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 11:26)은 ① 교회, ② 역사를 통해 종족적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자들, ③ 종족적 이스라엘의 장래 대량 개종 등의 여러 해석이 공존한다. 그러나 땅과 성전 같은 물리적 특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개념은 거부한다.¹⁰⁹⁾ 세대주의자들이 새 언약의 영적 복은 지금 시작되었지만, 물질적 복(땅과 성전)은 미래(천년왕국)에 완성될 것이라는 두 단계 교리는 로마서 11장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은 갈라디아 성도들(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동등어로서, 교회의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가까운 신학적 연결을 보여준다.

7) 무천년설 언약신학:¹¹⁰⁾ 언약신학(혹은 연방신학[Federal

109) 레이싱어에 따르면, “우리는 로마서 11장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함하여 신약 어느 구절에도 땅의 약속에 관한 언급이나 반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John G. Reisinger, *Abraham's Four Seeds*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1998], 92); 첼트리는 “교회 밖에 물리적 이스라엘을 위한 별개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한다 (Gentry and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546).

110) 대표적인 학자와 저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언약’의 성경신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의 대표작들을 참조하라. (1) Meredith G. Kline: 신명기와 십계명의 구조는 고대근동의 종주(suzerain)-봉신(vassal) 간의 계약과 유사함을 밝힌 *Treaty of the Great King* (Eugene, OR: Wipf & Stock, 1963, reprint 2012); 할례와 세례를 ‘저주 재가(course sanctions)의 언약 상징으로 읽는 *By Oath Consign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68); 모든 성경의 특성이 언약적이고 정경적임을 밝힌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Eugene, OR: Wipf & Stock, 19972), 이용중 역, 『언약과 성경』(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인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능에 관련되는지를 예측하는 *Images of Spirit* (Eugene, OR: Wipf & Stock, 1980, reprint 1999); 창세기는 시나산 언약의 갱신을 통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OR: Wipf & Stock, 2006), 김구원 역, 『하나님 나라의 서막: 언약적 세계관을 위한 창세기 토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그의 마지막 저서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언약신학’ 전체를 아라랏산-시나산/시온산-아마겟돈산까지의 맥락으로, 특별히 종말론적 ‘아마겟돈’ 주제에 집중한 *God, Heaven, and Har Magedon: A Covenantal Tale of Cosmos and Telos* (Eugene, OR: Wipf & Stock, 2006), 이수영 역, 『하나님 나

Theology], 혹은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은 성경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성 논의에 세대주의와 대조된다.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의 한 하나님 백성,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입장이며, 모든 언약의 연속성에는 은혜 언약이란 중심성의 큰 우산이 있다. 간혹 언약신학 주창자들은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 ‘교체 신학’(supersessionism)을 신봉한다고 일괄 비난받지만, 많은 언약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구약 백성에 약속된 언약 안으로(참감람나무 뿌리) 교회(참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는 접붙임을 받는다는 유기적 연속성을 믿는다. 언약신학이란 용어가 암시하듯 성경과 구속역사 이해를 위해 통제하는 원리가 언약 개념임을 이해한다. 이 신학체계는 역사적 언약(창조~,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새~)은 물론 세 개의 아우르는 신학적 언약(구속~, 행위/창조~, 은혜~)도 확증한다.

무천년설이란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라의 도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형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연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2) Robert L. Reymond: *A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나용화 외 3인 공역, 『최신 조직신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3)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 1980), 김의원 역, 『계약신학과 그리스도』(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Covenants: God's Way with His People* (Suwanee, GA: Great Commission Publications, 1987), 오광만 역,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서울: 그리심, 2002); (4) Michael Horton: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6), 백금산 역, 『개혁신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언약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1), 이용중 역, 『언약의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26명의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교수들의 언약신학에 관한 30개의 논고(부제가 밝히는 대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부수적’)를 700쪽 분량으로 집대성한 최신판, Guy Prentiss Watera et al. ed., *Covenant Theology: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Crossway, 2020), 김구탁 역, 『성경적·신학적·역사적 관점에서 본 언약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22).

에서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으로 본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그래서 실현된 천년설(realized millennialism)란 용어로 대체를 제안하기도 한다.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의해 지금 사탄은 '결박되어'(2절) 무저갱에 '인봉되어'(3절) 있고, 마귀의 세력(죄와 죽음)은 크게 감소되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며'(3절),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며 권능을 주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 기간은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심해진다. 이 세상 문화와 경제적 부요는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본다.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은 잠시 놓여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한 명의 '적그리스도'(살전 2:3-4)의 출현과 함께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여 배도하겠지만(3, 7-8절), 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흰 보좌, 계 20:11) 심판으로 지옥 유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10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는 자”(6절)란 이미 세상을 떠나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첫째 부활’은 개인적 종말론의 중간 상태(Intermediate State)에 있는 순교자들과 앞서간 성도들(4-6절)이 현 시대(천년왕국)에 주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살아서 통치함을 의미한다.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인 최후심판에 선행되는 모든 죽은 자(신자와 불신자 함께)의 육체적 부활이다.¹¹¹⁾ 마찬가지로 ‘첫째 사망’은 인

111) 성도의 부활: 마 22:30=막 12:25=눅 20:35-36; 요 5:29a; 6:39-40, 44, 54; 11:25-26; 행

간의 육체적 죽음이요(계 14:13; 20:6), ‘둘째 사망’은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죄이며, 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¹¹²⁾

따라서 천년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긴 기간’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며, 지상에 육체적인 통치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눅 10:18)을 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마 28:18)는 말씀처럼, 천상 통치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는 부활하여 몸과 영이 결합되고,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어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 올려(살전 4:17a),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살전 4:17b) 환희의 천국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각각 가게 되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자에 따른 칭찬과 상급을 받고(고후 5:10), 그 직후 새 하늘과 새

4:2; 17:32; 23:6; 24:15; 고전 6:14; 15:12-13, 15-16, 21-23, 32, 42-44, 51-54; 고후 4:14; 엡 1:20; 빌 3:11; 살전 4:14, 16-17; 히 6:2; 11:35.

112) 고전 2:14, 15; 3:1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인생은 3 종류로 구분된다: (1) ‘육에 속한 사람’(프쉬키코스, ‘혼적 인간’(soulish man); 고전 2:14):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유 1:19; 요 3:3, 5),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산송장 같은 자(엡 2:1-3; 4:17-19)로서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2) ‘육신에 속한 자’(사르키노스, ‘육적 인간’(carnal man); 고전 3:1): 주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주 범죄하고 실수 하는 자(갈 5:16-21; 6:8a; 엡 4:25-6:20)로서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님을 ‘닦고 배우는’ 영적 성장(help[만 0-3세]-tell[만 4-12세]-show[만 13-19세]-follow me[만 20세 이상] 중에 있는 사람; (3) ‘신령한 자’(프뉴마티코스, ‘성령님적 인간’(Holy Spiritual man); 고전 2:15): “성령님을 모독, 거역, 소멸, 근심하게”(마 12:32; 눅 12:10; 살전 5:19; 엡 4:30)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며,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b)는 명령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임을 체험적으로 절감하는 자로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서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행 1:8; 빌 3:3) 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불신자의 부활과 둘째 사망과 관련하여 성경은 3종류의 죽음을 밝힌다: ① 영적 죽음(혼적 인간 상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유 1:19; 요 3:3, 5),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산송장 같은 자(엡 2:1-3; 4:17-19)로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감(눅 16:23, 28[나사로의 이웃인 부자]; 23:39[회개 않은 사형수]; 행 2:25[가룟유다]; 딤후 4:14[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요 3:18); ② 육신적 죽음(롬 5:12; 히 9:27); ③ 영원한 죽음: 혼적 자연인 상태로 죽는 것으로서, 이런 악한 자의 부활(요 5:29b; 행 24:15)은 영원한 유흥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계 2:11; 20:14; 21:8)이라고도 부른다.

땅이 영원히 시작되어 계속된다. 종말의 모든 사건들이 단번에 일어난다는 가장 단순한 이론이다. 따라서 주 예수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사건들의 정확한 일정표 작성을 주저하는 입장이다. 전천년설과의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점은 재림 이후 천년왕국의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시점에 시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것이다.

구약 언약신학자로서 미국의 동부·서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평생 교수 사역을 감당한 우리 시대의 학문적 영적 거장인 메레디스 클라인(Meredith G. Kline) 박사의 마지막 저서들인 『하나님 나라의 서막: 언약적 세계관을 위한 창세기 토대』와 특별히 종말론적 ‘아마겟돈’ 주제에 집중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형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연구』(원저는 “하나님, 하늘, 그리고 하르 마게돈”이다; 제일 먼저 마지막 11장, “메시아 시대 마지막에 나타날 하르 마게돈”의 읽기를 추천한다)는 정독 숙독을 요구한다. 세대주의 전 천년설의 영향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비성경적인 문자적 해석과 이미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성경 주석과 그 적용이 얼마나 사활적인가를 깊이 각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및 교부시대에 뿌리를 내린 전천년설이 4세기 후반 이후 영향력을 상실하면서¹¹³⁾ 무천년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 150-220)와 오리겐(Origen, c. 185-c. 253) 등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알레고리 학파가 탄생하면서,

113)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 몇몇 교부들이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너무 물질적이고 사치스럽게 묘사한 것;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와 국가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가 당할 환난과 핍박을 강조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갖게 된 것; 일부 극단적 집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천년왕국 시작의 날을 미리 확정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성경의 문자적·역사적 해석 대신 영적·알레고리적 해석을 추구했는데,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무천년설이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무천년설의 종말론이 확립되었고, 중세 1,000년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어 루터, 칼빈, 다수의 청교도, 대다수의 언약신학/개혁신학자들인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 후크마(Anthony A. Hoekema, 1913-1988), 메리디스 클라인(Meredith G. Kline, 1922-2007), 로버트 레이몬드(Robert Reymond, 1932-2013), 베른 포이스레스(Vern S. Poythress, 1946-),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 1964-), 팔머 라벳슨(O. Palmer Robertson, 1937-) 등이 이 학설을 주장한다.

불연속성보다 연속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약신학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유기적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로부터 자라는 것이다.¹¹⁴⁾ 교회에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의 직접적 성취이다.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한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한다. 따라서 신약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묘사된다. 벰전 2:9-10에 근거하여, 호튼은 “우리가 두 백성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이며(참조. 예 2:11-22),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확대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민족적 언약(즉 신정 체제)은 막을 내렸지만,

114) 레이싱어는 “하나님은 물리적 국가를 내던지시고, 물리적 교회로 대체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약속을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 거듭난 국가를 창조하심으로 성취하셨다.(저자의 강조)”(John G. Reisinger, *Abraham's Four Seeds*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1998], 97 n 32).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은 그 정해진 목표에 도달했다.”¹¹⁵⁾라고 지적한다.

언약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체신학’이란 레벨로 붙이지 않아야 함을 재빨리 천명한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라 그와 그의 씨 안에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모형으로 기능한다. 롬 11:26의 해석은 (1) 교회, (2) 역사를 통해 종족적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자들, (3) 종족적 이스라엘의 장래 대량 개종 등의 점진적 언약주의자들과 유사하게 확정된 해석이 없다. 로벗슨은 종족적 이스라엘의 장래 대량 개종의 견해를 반대한다.¹¹⁶⁾ 그는 로마서 11장의 문맥에서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의 현재적 중요성(롬 11:1, 5, 13-14, 30-31)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롬 11:11a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종족적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관련하여 그들을 거절하셨는가?”라는 뜻으로 종종 잘못 읽는다. 종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독특한 미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적 독법을 취하게 된다. 그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목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서 종족적 이스라엘을 모두 함께 거절하셨는가?”라고 물어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로 인해 그들을 완전히 거절하셨는가라는 위험성 높은 질문에 물론 사도 바울은 ‘결코 아니다’라고 답한다. 게다가 감람나무 유비를 종종 오해한다. 사도 바울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묘사하는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개별 유대인이 다시 접붙여질 것을 확증한다. 이 유형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접붙여지는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 로벗슨은 “이 접붙임의 묘사에서 어떤 장래에 유대인의 구별되고 집단적인 접붙임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개념도 없다”¹¹⁷⁾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26절)는 말씀은 역사를 통해 믿는 유대인들의 선택된 남은 자들을 가리키거나(로벗슨의 초기 견해), 동일한 감람나무에 접붙혀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며(로벗슨의 후기 견해), 어떤 견해를 취하든 로마서 11장에는 지상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나 성경의 약속의 땅에 귀환이나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격리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회복 같은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¹¹⁸⁾

115) Michael J. Horton,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age on the Wa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1), 739, 이용중 역,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721.

116) O. Palmer Robertson, *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0), 167-192, 오광만 역,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193-222. 참조. Hans K. LaRondelle, *The Israel of in Prophecy: Principles of Prophetic Interpretation*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1983), 124-134.

117) O. Palmer Robertson, *The Israel of God*, 176, 오광만 역,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205.

118) 참조. 초기 견해에 관하여, O. Palmer Robertson, “Is There a Distinctive Future Israel in Romans 11,” in *Perspectives on Evangelical Theology: Papers from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ed. Kenneth Kantzer and Stanley Gundry (Grand Rapids, MI: Baker, 1979), 209-27. 또한 Robert L. Reymond, *A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1024-30을 보라. 후기 견해에 관하여, *The Israel of God*, 186, 『하나님의 이스라엘』, 218. 종합적인 결론에 대하여, 앞의 책 191, 『하나님의 이스라엘』, 222.

8) 새언약신학:¹¹⁹⁾ 새언약신학은 1900년대 중후반기에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함께 들어맞는가?”라는 ‘큰 그림’(big picture)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현대 새언약신학의 발전(1977-1983년)¹²⁰⁾은 남서침례신학교 동역자 중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3명(개혁주의 침례교)의 지도자들과 그렇지 않다는 4명(주권은혜침례교)의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수학하면서 언약신학의 최고 거장 메레디스 클라인 박사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존 젠스(Jon Zens, 1945-)에 의해 결과적으로 새언약신학 운동이 개척되었다. 그가 가정교회 운동에 관여하게 되면서 존 레이싱어(John Reisinger, 1924-2018)가 그 주역을 대신 맡았다. 1974-2004년 동안 연중 주권은혜 교리 컨퍼런스를 주도하며 ‘종말론, 율법과 복음’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9)와 제1(1646), 제2(1689) 런던신앙고백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안식일 문제에 주권은혜침례교 편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십계명 위에 있음을 강조한 게리 롱(Gary D. Long), 정기간행물 ‘검과 삽’(The Sword and Trowel) 발행인인 맥키니(Ronald McKinney), 2천 년대에 스티브 레러(Steve Lehrer), 톰

119) 역사적 고찰로서, Heather A. Kendall, *One Greater Than Moses: A History of New Covenant Theology* (Orange, CA: Quoir, 2016); ‘새언약신학’ 논의를 위해, 참조. Tom Wells and Fred Zaspel, *New Covenant Theology*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2002); John G. Reisinger, *Abraham’s Four Seeds*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1998); 동일 저자, *New Covenant Theology & Prophecy*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2012); A. Blake White, *The Newness of the New Covenant*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2007), 동일 저자, *What Is New Covenant Theology? An Introduction* (Frederick, MD: New Covenant Media, 2012); Steve Lehrer, *New Covenant Theology: Questions Answered* (n.p.: Steve Lehrer, 2006); Gary D. Long, *New Covenant Theology: Time for a More Accurate Way* (n.p.: Gary D. Long, 2013); 동일 저자, *Context! Evangelical Views on the Millennium Examined* (Colorado Springs: Sovereign Grace Ministries, 2016), 293-304.

120) Kendall, *One Greater Than Moses*, 5장.

웰스(Tom Wells), 프레드 자스펠(Fred Zaspel), 블레이크 화이트(A. Blake White) 등이 있다. 새언약신학 노선을 따르는 목회자 후보생 양성을 위해 2007년 ‘섭리신학교’(Providence Theological Seminary)가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 ‘새 언약’이란 용어는 현대 은사주의 신학이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며, 특별히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롬 10:4)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확증된 새 언약의 ‘새’가 강조되는 것이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성취하고, 계속 효력이 있는 언약적 법 으로서는 폐지시켰다(히 8:13)는 것이다. 또한 ‘새 언약’이란 용어는 개혁주의신학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전적 책임, ‘칼빈주의 5대 요점(TULIP)’으로 알려진 ‘은혜 교리들’에 관해 동의하면서도, 교회론에 관한 ‘하나의 은혜언약’과 구별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은혜 언약’과 ‘십계명’에 대한 질문으로,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란 질문을 받게 되었다.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유일한 율법 규칙이라고 주장하므로 모세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대 주제에 대하여 기존 언약신학이나 세대주의의 양자택일이 아닌 제3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구약의 성경적 언약들의 명령과 약속에 점진적으로 계시되었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새언약신학’의 3대 기둥(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오직 신자로서만의 교회 혹은 성경의 점진적-역사적 구속사 이야기, 은혜교리)과 7가지 변경할 수 없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¹²¹⁾ ① 예수 그리스

121) A. Blake White, *God’s Chosen People: Promise to Israel, Fulfilled in the Church*

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이며, 한 복음이다; ②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 해석되어야 한다(요 5:46[모세 증언]; 눅 24:25[선지자의 증언]; 눅 24:44[구약 전체의 증언]); ③ 옛 언약은 하나님의 디자인에서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④ 옛 언약 율법은 단일체이다; ⑤ 새 언약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⑥ 새 언약 공동체의 모든 회원은 성령님에 의해 온전한 사죄와 내주(內住)를 받는다; ⑦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신자들만의 교회’(believers-only church)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다.

새언약신학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 절정에 이르며 종식될 것을 지지한다.¹²²⁾ 무천년주의자에게는 소수의 견해이며, 후천년설주의자에게는 더욱 보편적인 존 머리와 게할더스 보스의 로마서 11장 해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을 포함한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의 은혜 언약’ 신학이 어디에 고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이것이 특별히 교회론과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유아세례에 관해서 그러하다.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든지 물세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교훈적이든, 모형론적이든, 기타 어떤 ‘새 언약신학’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약이 구약보다 우위에 있고 명료하다는 원칙을 범할 수 있는가?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구약에서 도출되는 어떤 신학적 연역(deduction)이 가능한가? 그리스도는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증보자이시다; 구약은 그분 안에서 성취 되었으며,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기적적으

(Colorado Spirings, CO: Cross to Crown Ministries, 2017), 5.

122) 복과 저주, 만물의 회복이란 복잡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하여 일어나지만, 정확한 순서는 성경이 명시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

로 찢어짐을 통해 확증된 대로(히 10:20) 영구히 폐지되었다. 새언약 신학에 따르면, ‘한 은혜 언약’의 성경신학은 그러한 신학적 연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성경 예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신약의 5가지 교리적 명제”와 관련하여 살핀다면, 따라서 (1) 새 언약 시대를 종식할 때 지상에 일어날 중간단계의 천년왕국은 없다; (2)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 지금 하늘에서 이미 죽어 중간상태로 천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영혼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기간을 가리킨다; (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적, 영적 연합을 가져오는 성령세례(침례)에 의해 형성된다; (4) 감람산 강화와 계시록은 해석의 ‘이제, 그러나 아직’ 사이의 긴장과 예언의 말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원리의 빛으로 올바르게 해석된다; (5) 이 세대의 완성(consummation)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마지막 때 놀랍게도 교회에 ‘온 이스라엘’의 대량 개종이(‘이방인의 충만’에 함께) 더해질 것이다.

9) 기독교재건주의:¹²³⁾ 기독교재건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장 극단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취하는 입장으로, “개혁주

123) 이 학설의 주창자들은 미국의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산실인 동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반틸 교수의 영향이나 그 학교 출신들로서 미국 정통장로교 소속 목사요 교수들이다. 그 설립자 겸 대부로서 아르메니안 미국 이민자인 러쉬두니(Rousas J. Rushdoony, 1916-2001)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모델로 삼아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3 vols.* (Phillipsburg, NJ: P&R, 1973, 1982, 1999); *Systematic Theology 2 vols.* (Vallecito, CA: Ross House, 1994)을 비롯한 다작과 칼케돈 파운데이션 설립(1965), 월간지 *Chalcedon Report* 발행함; 그의 사위 게리 노스(Gary North, 1942-)는 우리 주제와 관련된 *Millennium and Social Theory*, 1990)와 함께 신학 경제학, 역사에 관한 50권 이상의 다작 출간; 그레그 반센(Greg Bahansen, 1948-1995)은 철학자, 신학자, 변증학자, 윤리학자로서 짧은 생애(47세)에 마지막 저서인 *Van Til's Apologetic: Readings and Analysis* (1998)과 함께 다작 출간.

의 노선의 신율(theonomy)과 통치권(dominion)의 개념을 강조하는 후천년설 신학¹²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건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 양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양자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지배 받아야 함을 믿는다. 기록과 세속의 개념은 비성경적 사도에 의해 소개된 잘못된 이분법임을 지적한다. 그 대신 사회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기독교 원리들에 기초하여 ‘재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가버트(Michael Gabbert)는 아래와 같은 요약を提供한다.¹²⁵⁾

기독교재건주의는 신 퓨리탄 학자들과 복음적 칼빈주의자 신학의 복합 운동이다. 역사와 성경을 함께 끌어들이 통치 중심, 반국가권력 지상주의(anti-Erastian) 교회-국가 구조들의 다양한 역사적 실례들과 함께 후천년설적 신율 이해를 결합시키려고 시도한다. 이 운동의 목표는 미국 생활의 모든 국면을 구약 율법의 세부사항을 총망라하여 영속적인 타당성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세계관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기독교재건주의의 주요 신조는 『칼케돈 보고서』(Chalcedon Report)가 밝히는 바, 다음 5가지 포인트로 요약될 수 있다.¹²⁶⁾

1. 칼빈주의: 주요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이 확증한 역사적 정통 신앙을 고수한다. 또한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므로 기독교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교육, 예술, 기술, 정치 등을 포함한)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들만이 사회에 참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생(민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

124) Alan Cairns, ed.,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Greenville, SC: Ambassador-Emerald International, 1998), 296.

125) Michael D. Gabbert, "A Historical Overview of Christian Reconstructionism," *Criswell Theological Review* 6.2 (1993), 281.

126) Gary North and Gary DeMar, *Christian Reconstruction: What It Is, What It Isn't* (Tyler, TX: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81-82; Cairns, ed.,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296-297.

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다.

2. 신율주의: 사회는 구약 시민법을 포함한 성경 율법으로 통치되어야만 한다. 성경은 모든 윤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따라서 교회, 가정, 그리고 공공 영역을 포함한 모든 통치기관을 위한 지속적인 표준이 되어야만 한다. 이 견해는 반드시 성경의 권위, 충숙성, 통일성에 기초한다.

3. 전제적 변증학: 성경의 진실성은 스스로 확증하며 성경은 최고의 권위이므로 인간 증명에 종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증명의 바로 그 토대가 된다. 인간성에 대한 죄의 지적 영향 때문에 불신자들이 가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함이 부족한 것이다. 이리하여 재건주의는 코넬리우스 밴틸의 전제적 변증학(presuppositional apologetics)에 기초한다.

4. 후천년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이것이 주후 1세기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인간 저자 요한의 이미지이다).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부분의 사회가 기독교화 될 때까지 교회는 그리스도 왕국의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 과정은 역사의 많은 기복과 함께 증가되고 어렵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다. 중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다.

5. 통치 신학: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적] 사명을 주셨다(창 1:28). 이리하여 복음의 목표와 대위임령[마 28:18-20]은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도록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적 규범과 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 곧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통치기관의 기독교화를 포함한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속성이 있으므로, 오직 단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며,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교회이며, 곧 그것은 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지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

은 국가인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로 옮겨졌다.¹²⁷⁾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때 주셨던 약속들을 받게 되었다(벧전 2:9-10). 반센(Bahnsen)은 “한 때 이스라엘 국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 왕국은 유대인들로부터 옮겨져 버렸고…국제적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졌다.”¹²⁸⁾고 설명한다. 러쉬두니(Rushdoony)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 족장들을 12 사도로, 170명의 장로회출 24:1, 9; 민 11:16, 24-25; 필자 주를 자신의 70 제자들로 대체하여 예수님의 명령 아래 세상을 데려오므로 예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과제로 주셨다고 주장한다.¹²⁹⁾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임했다. 기독교재건주의자 대부분은 특별히 주후 1세기에 이스라엘을 심판했으므로 감람산 강화의 첫 부분(마 24:3-34)은 과거사로 해석하며, 대부분의 계시록도 이미 성취된 것(20:70-15만 예외로 하고)으로 본다.¹³⁰⁾ 그러나 여기서 지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

127) David Chilton, *Paradise Restored: A Biblical Theology of Dominion* (Tyler, TX: Dominion Press, 1985), 78-79.

128) Greg L. Bahnsen, “The Theonomic Reformed Approach to Law and Gospel,” *Five Views on Law and Gospel* Ed. Stanley N. Gund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9), 104-105; Greg L. Bahnsen and Kenneth L. Gentry Jr., *House Divided: The Break-Up of Dispensational Theology* (Tyler, TX: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9), 173.

129) John Rousas Rushdoony, *Systematic Theology* 2 vols. (Vallecito, CA: Ross House, 1994), 1:382.

130) David Chilton, *Paradise Restored*, 85-113; 동일 저자,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Fort Worth: Dominion Press, 1987), 15-17. Kenneth L. Gentry, Jr., “A Preterist View of Revelation,” *Four View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 C. Marvin Pat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8), 37-92; 동일 저자, *The Olivet Discourse Made Easy* (Draper, VA: Apologetics Group Media, 2010), 제8장; Greg L. Bahnsen, *Victory in Jesus: The Bright Hope of Postmillennialism* (Texarkana, AR: Covenant Media Press, 1999), 제1장.

사이의 강한 분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한 언약 백성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교회로 구성된 것이다. 만일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면,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한 때는 사랑받는 위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유로 하나님은 전 세상으로 그의 선택된 백성을 넓히셨고, 종족적 유대인은 그 일부분인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a)는 말씀을 물리적/종족적 유대인의 집단적 회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며(Bahnsen, Gentry, North), 이것은 이 학설의 후천년설과 통치신학의 보다 큰 틀 안에 잘 맞는다. 그러나 러쉬두니는 칼빈을 지지하여 갈 6:16과 함께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총만’으로 해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¹³¹⁾ 칠튼(Chilton)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³²⁾ ① 전 이방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종될 것이다; ② 종족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종될 것이다; ③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개종되지는 않을 것이다; ④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종은 우리 시대의 정상적인 전도 수단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⑤ 이스라엘 개종의 동기는 이방인을 향한 ‘시기/질투’(롬 11:11, 14)이다; ⑥ 각 시대마다 개종된 유대인은 구별된 그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 ⑦ 이스라엘은 나라/왕국으로서 회복되지 않는다; ⑧ 이스라엘의 개종은 전 세계에 큰 복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갈 6:16,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바,

131) John Rousas Rushdoony, *Romans and Galatians* (Vallecito, CA: Ross House, 1997), 222.

132) Chilton, *Paradise Restored*, 129-131.

종족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재정의하는 것이다.¹³³⁾

V. 결론

본 주제에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인 로마서 9-11장을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이스라엘’이란 용어에 대해,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이스라엘과 동일하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자연적 후손)이 다 이스라엘(영적 후손)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제외됨)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롬 9:6-8).¹³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홍의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를 가리킨다(롬 9:23-24). 놀라운 것은, 구약의 문맥에

서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구절들을 인용하여 신약은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호 1:6의 롬 9:25 재해석; 호 1:9-10; 2:19, 23의 롬 9:24-26 재해석). 따라서 신약성경은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며, 영적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다(롬 2:28-29; 4:11-12, 16; 갈 3:7).

둘째,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문자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롬 11:1)라는 질문을 길게 상론하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롬 11:15)라고 답변한다. 계속해서 성경은 ‘감람나무’ 은유로 예증한다(롬 11:13-24). ‘하나님의 백성’인 감람나무의 원가지(유대인)가 찍힘을 받은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이방인)가 ‘본성을 거스려’(자연의 접붙임 원리의 역순) ‘접붙이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원가지를 더욱 접붙이실 것을 강조한다(롬 11:23-24). 바로 이 말씀 직후에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계획과 순서에 대한 ‘신비’(뫼스태리온)를 환기시킨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사 59:20의 인용)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예수님의 재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이스라엘도 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즉 예수님을 각 개인 자신이 메시아로 믿음으로 돌아와야(롬 11:23) 구원받을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 갈 6:15),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133) Rushdoony, *Romans and Galatians*, 409; 동일 저자,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3 vols. (Phillipsburg, NJ: P&R, 1973, 1982, 1999), 2:429, 431; 3:154, 176; Gary North, *God's Covenants* (Dallas, GA: Point Five Press, 2014), 34; Chilton, *Paradise Restored*, 129-131; Greg L. Bahnsen, *Theonomy in Christian Ethics* (Nacogdoches, TX: Covenant Media Press, 20023), 188; 동일 저자, “The Theonomic Reformed Approach to Law and Gospel,” 105.

134) 참조. 롬 2:28-29,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4:4,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 2:9,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3: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32; 11:22; 15:9; 고후 1:1; 갈 1:13; 살전 2:14; 딤편 3:5; 3:15),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 한 새 사람(엡 2:15), 하나님의 권속(엡 2:19)”의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신비가 놀라운 속력으로 펼쳐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목도하는 오늘 여기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셋째, 구약이 제공하는 종말론적 회복의 예언, 즉 성전, 희생 제사 제도, 언약들에 관한 예언의 약속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풍성한 해답은 히브리서에 있다. 신약 학자들이 인정하는 대로,¹³⁵⁾ 옛 언약의 대표적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따른 제사제도가 공존한 상태임에도,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독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견뎌야 하는가?”(히 10:32-39)라는 심각한 질문과 함께, 유대교로 되돌아 갈 유혹과 복음을 유대교화 할 위험이 있는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참조. 행 6:7, 복음에 돌아온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사해 근처의 콤파 종파의 유혹)에게 전달된 서신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무엇이랴 답하는가? 구약의 모든 율법, 성전, 제사제도 등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히 10:1)이며,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히 8:6-7)라는 표현으로 구약의 모세언약(히 8:13, ‘낱아지고 쇠하는 것’)과 신약의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다. 구약 중에서 가장 길게 신약에 인용(히 8:8-12; 10:16-18)된 본문인 새 언약 예언(렘 31:31-34) 역시, 로마서 9-11장

의 원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으신 새 언약에 적용하고 있다(참조. 히 10:11-18의 재천명). 성전과 희생 제사 제도의 항구성을 말하는 구약 예언에 관한 히브리서의 해답은 그것은 영적 실재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다. 실재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물리적 이스라엘/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 사역을 위해 구별되고 그 사명(롬 3:1-2; 9:4-5)을 수행할 ‘거룩한’ 백성(롬 11:16)으로 존재한다. 둘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종말론적 예언은 다양한 방식(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탈환, 육적 알리아 운동과 연계된 이스라엘에서의 영적 알리아 운동,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된 복음 사역 등)으로 놀랍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값 주고 사신(눅 22:20; 행 20:28; 고전 11:25; 히 13:12, 20; 벧전 1:19; 계 5:9)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135) (1) 만일 성전이 주후 70년 파괴된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성전 파괴와 유대인 희생 제사의 종식을 언급했을 것이다; (2) 성전과 성전 제사장들의 활동을 묘사할 때, 현재시제(현재분사형 포함)를 계속 사용한다(5:1-3; 7:23, 27; 8:3-5; 9:6-9, 13, 25; 10:1, 3-4, 8, 11; 13:10-11).

Abstracts

An Overview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Eschatolog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Church

Jin Sup Kim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eruse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Church” in the light of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eschatology. Conclusion summarizes under the topic, “Evaluation and Proposal for the rightful interpretation of each 11 theories of the millennialism views” as follows: (1) The term “Israel” may refer to either the regenerate Jewish people or the unregenerate one as the physical descendants of Abraham; (2) Although the church as the people of God, true spiritual Israel, composed of regenerate Jews and Gentiles, is represented as “New Creation (2 Cor 5:17; Gal 6:15), Household of God (Eph 2:19), Church of God (1 Cor 1:2; 10:32; 11:22; 15:9; 2 Cor 1:1; Gal 1:13; 1 Thes 2:14; 1 Tim 3:5, 15), One New Man (Eph 2:15), and Israel of God (Gal 6:16), yet God has never cut away but save His own people, physical/outward Israel; (3) The prophecies on the eschatological restoration in the Old Testament, such as temple, sacrificial system, and/or covenant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New Testament, as wonderfully proved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completely and perfectly fulfilled by our Lord Jesus Christ.

The implications of this Conclusion are (1) Physical Israel/Jews are still consecrated for the ministry of the Gospel as the chosen people of God, and the holy people who should carry their mission (Rom 3:1-2; 9:4-5; 11:16); (2) The eschatological prophecy of “And so all Israel shall

be saved” (Rom 11:26a) has been wonderfully fulfilling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Independence of Israel (May 14, 1948), restoration of Jerusalem (June 7, 1967), Spiritual Aliyah awakenings in conjunction with physical Aliyah operations, and the coalition of Gospel ministries of the Messianic Jews and Gentile churches, etc.; (3) The salvation of all Israel shall be carried out by the New Covenant which has been within the church of God, which our Lord Jesus Christ has purchased with His own precious blood.

Finally, Appendix 1 demonstrates the expository attempt of Zechariah 14:1-11 (especially vv. 4-5), about which Martin Luther confessed to give up interpreting due to the extreme difficulties. Appendix 2 practices a close reading of Romans 11 with respect to the distinction among the unregenerate Jew, Christian Jew and Gentiles.

Key Words

Israel and Church, Jews and Gentiles, Millennial Kingdom, Salvation of all Israel, Vision and Mission of Korean Christians

논문 기고자 Email

jsupkim@gmail.com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¹⁾

Role Identification of ROK Military Chaplains through US Military
Chaplains' Activities in Wartime

» 전요섭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미군 군종목사의 전시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를 다루었다. 첫째, 특수목회자로서 군종목사는 미군 군종교범에 따라 산 자, 부상자,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군종목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장병에게 목회적 지원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루었다. 셋째, 하나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종목사는 전투현장에서 하나님이 장병들과 함께 하여 그들의 두려움, 불안 및 공포를 해소하는 이른바 '존재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다루었다. 넷째, '정의로운 전쟁'의 지지자로서 군종목사는 전쟁인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설교/설득하고, 잘못된 전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참모 조언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신학자로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이 죽음, 부활, 내세, 구원, 천국, 보상, 소망 등의 기독교 신앙 개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

중심단어

미군, 군종목사, 군종장교, 전투, 한국군

1) 이 논문은 2022년 8월 31일 한국실천신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9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19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교육학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예)군종목사

1. 여는 글

미군은 20세기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치른 후에도 한국전(1950-1953) 그리고 베트남전(1955-1975), 걸프전(1991), 보스니아전(1992-1995)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쟁을 주도했거나, 연합군, 지원군 등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다. 21세기 들어서도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전(2001-2021), 이라크전(2003) 등에서 전쟁을 치른 바 있고, 최근에 들어서도 우크라이나전(2022)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영토 확장 의도로 발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자국의 영토확장 개념의 전쟁이라기보다 미국 안보위협을 제거하거나 초강대국으로서 패권과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찰국으로서 세계질서를 확립 또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전쟁은 전투 병력이 참전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전투조직으로서 각 병과의 활약이 주요한데, 미군은 한국전쟁에서 우방국으로 참전하여 우리로서 생소했던 군종제도의 활약을 직접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군종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군 군종제도는 창설 당시부터 미군의 그것을 복제하여 시작한 만큼 미군의 군종제도는 우리 군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전쟁경험이 많은 미군은 전시 군종활동이나 군종목사의 활동도 매우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참고

2) 미군 군종규정에 따라 군종목사에 대하여 “스미스 대위”(Captain Smith)라고 하지 않고 존중하여 “Chaplain Smith”(스미스 목사님)라고 호칭한다. Kim P. Hansen, *Military Chaplains and Religious Divers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7.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군 규정에도 군종목사에 대한 호칭은 계급을 부르지 않고, 성직을 부르게 되어있는 것은 미군 규정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군 전시 군종활동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일해야 할 이유도 없다. 전투/전쟁은 국가마다, 종교/문화상황마다 다르고, 자국의 전쟁과 우방국의 지원에 따른 전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군종활동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군 군종목사가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대한 선행경험들은 한국군 군종목사가 전시에 담당해야 할 임무와 그 역할 정체성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이미 전쟁을 치른 바 있고, 현재 휴전상태로 대치된 상황으로서 잠재적 전쟁발생 예상국으로 항상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방국으로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군의 개입이 있을 것이므로 전시 군종업무의 공조체계는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근래, 한국 군종병과는 미군 군종병과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전투 의무 군종훈련’(CMM: Combat Medical Ministry)과 ‘응급의무 군종훈련’(EMM: Emergency Medical Ministry) 모델 등을 공동개발하고, 공동훈련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미 전시 군종활동의 공조체계에 대한 연구가 아닌, 미군 군종목사의 전시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1. 특수목회자로서 군종목사, 2.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군종목사, 3. 하나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종목사, 4. ‘정의로운 전쟁’의 지지자로서 군종목사, 5. 죽음신학자로서 군종목사)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2. 군종장교의 임무

우리나라의 경우, 군종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교단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개인이 국방부의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선발된 인원이거나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소속교단의 목사양성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후, 장교양성과정을 거쳐 복무하게 된다. 군종목사는 장교로서 복무하는 목사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 즉, 군종목사는 목사로서 군종장교가 된 것이며, 그 장교의 역할은 군에서 특수목회를 하는 것으로서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표현이 이중적 지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군 종교정책 및 관련훈령 그리고 군종교범(FM: Field Manual)에 따라 고유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종목사를 포함한 군종장교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평시(平時), 전시(戰時)를 막론하고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군종목사의 주요임무 가운데 전시에는 특정임무가 더욱 부각될 수 있고, 다른 임무는 다소 제한되거나, 덜 우선시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시 군종목사의 역할은 재편성될 수 있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군종장교의 주요임무들 가운데 신분과 직책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이나 선도활동, 대민업무는 군종장교가 아니어도 다른 병과(branch)장교들이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종교활동은 오직 성직자인 군종장교만 담당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이다.

미군 군종장교는 현역이 3,000명 정도(육군 1,580명, 해군 800명, 공군 549명, 이중 여성 군종장교는 10% 정도) 복무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2,000명 정도 존재한다. 미군 군종장교는 최하위 대대급 부대에 1명씩

배치되어 있다.³⁾ 우리나라 군종장교는 육군, 해군, 공군을 합쳐 약 260~280명 정도로서 국방예산으로 미군과 달리 최하위 연대급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 군종장교 인원으로 볼 때 미군은 우리보다 현역만 약 10배 이상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 세계 최강의 군대라 할 수 있다.

미육군 군종목사의 활동 모토는 ‘Pro Deo et Patria’(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군의 경우, 군종목사에게 교회지향적인 일을 제한하려는 추진력들이 있어왔다. 즉 군대에서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 제한점을 두는 것이다. 목회는 전도를 통해 신자를 확장해 나가지만, 군대는 일반교회처럼 기독교 고유의 목회활동을 보장한다기보다 무형의 정신전력 증강에 있어서 종교와 신앙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음주의 군종목사들은 군대를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군은 군대가 군종목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군종목사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전도를 위해 초빙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⁴⁾ 이를테면, 신앙향상을 위해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등이 강조될지라도 장병에게 있어 금식이나 철야 및 규정된 취침시간을 확보해야 함으로 새벽 조기기상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군

3) Patterson,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19. Karen Besterman-Dahan, Susanne W. Gibbons, Scott D. Barnett, & Edward J. Hickling,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s in Mental Health Care of the Deployed Service Member,” *Military Medicine* 177/9 (2012), 1028-33.

4) Ronit Y. Stahl, *Enlisting Fa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236. 홍창식,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군선교, 청년』 19 (2020), 75-119.

이 군종목사를 선발하여 군에 복무토록 하고 요구하는 임무는, 목사직의 본질을 잃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이다.⁵⁾

미군의 경우,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유대교 랍비, 이슬람 이맘 등 다양한 종파의 군종장교가 존재한다. 국가는 군의 종교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군종장교로 하여금 ‘종파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종교에 대한 포용성(religious inclusion)을 갖기 원한다. 군은 군종장교의 다양성(종파/교파)을 통일성(군 종교정책) 아래 두기 위해 관리감독기관(군종감실)에 의한 다소의 통제가 있으며, ‘편협한 종파적 정신’(narrow sectarian spirit)을 주장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종목사는 새로운 역할 정체성을 수립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요구받는다.⁶⁾

3.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1) 특수목회자로서 군종목사

미군 『군종교범』 16-1 “종교적 지원”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산 자를 양육하고, 부상자를 돌보며, 죽은 자를 명예롭게 하는 역할”(nurture the living, care for the wounded, and honor the dead)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⁷⁾ 미군은 장병을 산 자, 부상자, 죽은 자로 구분하고

이들을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다루는데, 군종목사는 산 자, 부상자, 죽은 자를 위해 목회 돌봄을 제공하는 자(care giver)로 특징짓는다. 장병은 평시 근무나 훈련 중에도 군 특성상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상자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화기(firearms)를 다루며, 사격을 하거나 사격을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사상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장병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에 노출되어 이를 위한 군종목사의 활동 성격이나 범위는 달라진다.

전투 환경에서 군종목사의 역할 가운데 부각되는 것은 부상당한 장병을 대상으로 위로, 지지를 통한 목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상 장병은 야전병원(MASH) 또는 군 지구병원에서 치료 받게 되는데, 지구병원의 경우는 편제에 따라 군종목사가 배치되어 근무하지만, 대부분의 야전병원은 군종목사 편제가 없으므로 지역 군종목사가 부상 장병을 위로, 지지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 등 환자목회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상 장병에 대하여 각별한 목회 돌봄이 제공되고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른 장병들의 전투동기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군종목사는 평시에 비해 훨씬 많은 전사 장병의 장례식을 집전해야 하며, 동료장병 및 희생 장병의 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 전장에서 전사한 장병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형식적인 추모나 죽은 장병이 동료의 애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해를 소중히 다루고 전사 장병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장엄한 예식을 통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그것을 목격하는 장병의 사기와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쳤

5) Edward Waggoner, “Change and Conflict in the U.S. Army Chaplain Corps since 1945: Legacies of War,” *Journal of Religion* 95/4 (October 1, 2015), 569-71.

6) Ronit Y. Stahl, *Enlisting Faith: How the Military Chaplaincy Shaped Religion and State in Modern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148.

7) U. S. Department of the Army, “FM 16-1: Religious Support” (May 26, 1995).

다는 의미를 인정받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국적인 장례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집행 하는 군종목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강력히 요구된다.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공식적인 슬픔 중재자’(official mediator of grief)로 인식되고 있다.⁸⁾ 이 표현은 군의 상징인 ‘용기’ ‘용맹’ ‘강인함’ 등의 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장례식 이외에 슬픔의 인식, 표현에 대하여 극도로 자제할 것을 요청받는 개념과 관련 있다. 장례식에서는 군종목사의 집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동료장병과 가족의 슬픔을 일정선에서 드러내어 애도하게 된다. 또한 그가 생명을 바친 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이므로 장례식에서 군종목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장례식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의식이지만, 군종장교는 이를 소망과 안도 그리고 충분한 위로와 아울러 『군종교범』에 명시된 대로 장병의 전사가 충분히 명예로운 일임을 해야 한다. 전사 장병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식은 신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군대가 참전 장병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죽어가는 장병을 위로하며, 죽은 장병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중요한 일이다. 단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미군은 여러 종교/종파 장병들 가운데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양한 성직자가 필요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⁹⁾

미군 군종목사는 특수목회자로서 그 임무는 모든 군사 환경에

서 미군에 복무하는 인원에 대하여 영적 지원(support)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군종목사는 모든 군사 환경에서 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시는 모든 군사 환경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위기상황이므로 장병들을 위해 더욱 충분한 그리고 독특한 영적 자원(spiritual resource)을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이 담대하게 전투/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¹⁾ 군종목사가 ‘장병들을 위해 영적 지원을 지원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군종목사가 활용할 ‘영적 자원’이란 이른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라 하는 예배, 설교, 세례와 성찬, 기도(안수기도, 회개기도), 방문, 상담 등으로서 전시에는 이런 요구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를테면, 전의를 다지고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하는 설교, 출동 전 기도나 응급세례 및 성찬, 전투현장 방문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투/전쟁 상황에서 장병들은 신정론 질문 등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구심들을 제기하게 되므로 군종목사는 평시와 다른 독특한 목회상담사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투피해를 입은 장병 가운데는 신앙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하여 신정론적 질문/의문으로 인해 신앙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부상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출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이런 피해를 왜 막아주지 않으

8) Rachel L. Seddon, Edgar Jones & Neil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Military Medicine* 176/12 (2011), 1357-61.

9) Stahl, *Enlisting Faith*, 258.

10) Patterson,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19.

11) Jacqueline E. Whitt, *Bringing God to Men: American Military Chaplains and the Vietnam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4), 2.

셨습니까?”, “이 전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전쟁을 막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런 의문은 신앙의 혼란과 낙담, 좌절에 이어 신앙의 훼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전쟁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의문/질문은 윤리도덕적인 것, 생명, 사후세계 등에 관한 것이므로 군종목사는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질문이 없더라도 대부분 장병들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시 군종활동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통한 영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무형전력, 정신전력, 신앙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군종목사에게 필수적인 역할로서 권리이며 의무로 인정되어 왔다.¹²⁾ 군종목사는 단순히 목회의 장(field)이 군(military)이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목회와 동일한 영적 자원을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군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독특한 존재이며, 전시에는 더욱 그렇다.

로버트 서그(Robert A. Sugg)는 군종목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강단 밖의 시간(outside the pulpit ti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¹³⁾ 이는 군종목사가 민간목회처럼 교회에서 강단(설교)을 중심으로 목회하기보다는 강단 밖(훈련장, 격오지, 참호, 전장터 방문 등)에서 다양한 임무수행을 하는 것을 부각하고, 그 정체성을 강조한 표현

으로 이해된다. 군종목사는 교회 내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신자장병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영적 지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더 나아가 교회 밖의 비신자장병 등 모든 소속부대원들에게도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종목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전쟁 중 장병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포함한 범죄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수감장병대상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영적 스트레스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부 군종목사는 선도활동이 군종장교의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적 환경에서,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일, 비인도적인 사건을 범한 대상과 상담 또는 교화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군의 경우, 범죄장병들은 육군교도소에 수감되고, 교화교육을 전담하는 군종장교가 있으나 미군의 경우는 전시에 소속부대에서 일정시간 수감하고 교화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포로에 대한 교화교육에 있어서도 공보정훈병과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종목사의 역할도 있다. 이는 군종목사에게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되며, 거의 외상적 스트레스로 꼽고 있으며, 영적 소진과 아울러 정서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로 보고 있다.¹⁴⁾ 이는 평상시에는 대면하기 어려운 수감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심리상태, 범죄 심리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전장에서 심리·영적으로 건강한 자기관리

12) Ronit Y. Stahl, “God, War, and Politics: The American Military Chaplaincy and the Making of a Multireligious Na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14), 2.

13) Robert A. Sugg, “Profession of Ministry Chaplaincy,” *The Military Chaplain* 90 (2017), 4.

14) Karen Besterman-Dahan, Scott Barnett, Edward Hickling, Christine Elnitsky, Jason Lind, John Skvoretz, and Nicole Antinori, “Bearing the Burden: Deployment Stress among Army National Guard Chaplains,”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18/3-4 (2012), 151-68.

및 스트레스 감소방법을 터득해야 하며, 이런 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평시, 군종장교의 재교육과정인 고등군사반(OAC) 교육 과정 또는 보수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군종목사

참전 장병은 신체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전투현장에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심리·영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 전투 환경의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 그리고 분노, 우울 등은 충분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생성할 수 있다.¹⁵⁾

게리 로버츠(Gary Roberts)와 다이안 허난데스(Diane Hess-Hernandez)는 전시 군종목사의 활동과 영향력에 대한 실태를 진술하면서 교범(FM)과는 종종 엇갈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¹⁶⁾ 전투/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기존의 신학이나 묵회 그리고 윤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하여 로버트 필립(Robert Phillip)은 다음과 같은 실례를 소개하고 있다.¹⁷⁾ 한 군인이 군종목사에게 찾아와서 흐느끼면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다. 자신의 분대는 이라크 병커를 조사하라는 수색명령을

받고 접근하자 두 명의 이라크 군인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 손에 AK-47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이라크 어린이를 앞세우고 있었다. 이 군인의 소속분대는 적을 향해 사격을 하려다가 어린이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어린이를 인간방패로 삼은 이라크 군인의 선제공격에 의해 자신의 분대원이 전사한 사건을 경험했거나, 이라크 군인을 제압하기 위해 공격을 하다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모두 죄책감과 슬픔,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의 태도에 따라 증오와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심리현상이다. 이런 경우, 전자는 PTSD의 경험이고, 후자는 도덕적 손상으로서 목격자를 오랜 시간 심리 정서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힐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戰), 이라크 전 참전 군종목사의 경험적 진술에 따르면, 전투 후에 PTSD를 경험하는 장병들이 많았는데 그 원인 가운데 주요한 것은 전투와 관련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및 공포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⁸⁾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경우, 심리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대부분의 전투생존자들은 동료가 죽은 것에 대한 강한 죄책감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살 및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노출된다.¹⁹⁾ 특히, 피격, 피폭 당한 동료의 시신을 본 경우, 외상 경험(trumatic experience)이 분

15) Marty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Healing the Spiritual Wounds of War,"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March 1, 2009), 8-13.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피로증으로 나타나는 PTSD를 일컬어 '전투치매증'(battle dementia)이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 이는 뇌가 심리적 충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다. 김청송, 『사례 중심의 이상심리학』 (서울: 사이북스, 2016), 332.

16) Gary Roberts & Diane Hess-Hernandez, "Occupational Stress Coping Skills of Military Chaplains: The Role of Spiritual Intelligence," Eric Patterson, (ed.)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4), cp. 10.

17) Robert Phillip,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Contours and Content of Ministry," *Quarterly Review* 24/1 (2004), 47-58.

18) Dann J. Ettner, "PTSD: When The Troops Come Home from Iraq: An Early Look at An Unfolding Story Reported Experientially," *Illness, Crisis & Loss* 14/2 (2006), 179-88. Rachel L. Seddon, Edgar Jones & Neil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Military Medicine* 176/12 (2011), 1357-61.

19) Ettner, "PTSD," *Illness, Crisis & Loss* 14/2 (2006), 179-88.

명한테 이런 일이 있을 후에 전투피로증 및 PTSD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장병의 신체, 정신, 영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²⁰⁾ 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살상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방어(또는 공격)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손상(트라우마)을 입게 될 수 있고, 영적 손상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미 군종목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래리 말론(Larry Malone)의 분석이다.²¹⁾ 물론, 전투를 경험하는 모든 장병들이 전투피로증 및 PTSD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반드시 경험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투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이라크전에 참전한 장병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우울증, 불안 및 공포증, PTSD로 심각한 심리적 증상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혼란, 분노, 적의, 불안 및 공포 등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심상으로 떠오르거나 악몽으로 나타나는 플래시백(flashback)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자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 및 증상은 플래시백인데, 일상생활/일상의식 중에 두렵고 끔찍한 장면들이 나타나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외상경험 또는 외상장면을 망각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여 절대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PTSD 생존자의 75% 정도는 수면 중에 악몽으로 재현되는 플래시백을 경험하게 된다. 그로스맨(Grossman)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 ‘전사의 보편적 악몽’(universal warrior nightmare)이라고 표현했다.²²⁾ 장병들이 겪는 심

20) Herman Keizer, Jr. "A Call to the Community of Faith," *The Military Chaplain* 89/1 (2016), 12-15.

21) Larry Malone, "Healing Soul Wounds," *The Military Chaplain* 89/1 (2016), 18-19.

22) Dave Grossman, *On Combat*, 박수민 역, 『전투의 심리학』 (서울: 열린책들, 2022), 270.

리정서적 고통은 너무 강렬하여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슬픔, 죄책감, 우울은 기본이며,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인구(장병) 10만 명당 17.3명으로 나타났다.²³⁾ PTSD는 필연적으로 적응능력을 떨어뜨려 적응장애로 이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투/전쟁에서 발생된 PTSD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치료되지 않으면 다시 전투/전쟁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하지만 전투/전쟁을 경험한 모든 장병이 PTSD를 겪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심리신체적, 심리·영적 상태 등)에 따라서 발병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신앙은 PTSD를 극복할 주요변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TSD를 예방 또는 치료하여 건강한 장병으로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장차 건강한 사회 시민을 배출하는 차원에서도 신앙전력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²⁴⁾

군종목사가 장병의 영적인 활동에 주력한다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전투/전쟁이 영적인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전투 중에 피격되면 죽음에 직면하고 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는 심리정서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영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투에서 장병들이 입은 PTSD에 대하여 군종

23)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8-13.

24)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 참전장병들 가운데 PTSD에 노출된 후, 본국으로 복귀한 현역장병의 87%가 12개월 이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요청한 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두려웠고, 이런 증상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미군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1,048명의 현역군인 가운데 74%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14%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Josh B. Kazman, "Who Sees the Chaplain?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of Behavioral Health Care-seeking in the Military,"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8 (2022), 1-12.

목사가 관심을 갖고 사역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핵심사역이다.²⁵⁾ 미군의 경우, 장병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군중목사는 ‘비임상 제공자(non-clinical provider)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목사는 전투장병의 가장 근거리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존재이다. 군중목사가 심리상담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 문제의 전문가로서 우울증, 불안-공포증, PTSD 등을 비롯한 장병의 임상적인 증상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²⁶⁾ 정신건강의학자들의 74%가 심리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²⁷⁾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전문가의 67%는 내담자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⁸⁾ 군중목사의 상담적 역할은 군중장교 고유의 업무에 녹아 있지만, 미군 군중목사의 경우에 상담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임무로 강조되고 있고, 군중목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군중목사들은 자신을 ‘고도로 훈련받은 상담자’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²⁹⁾

25) Steven G. Rindahl, "The United States Army chaplain's role during times of traumatic injury and death in a combat environment" (Ph. D. Rindahl, 2012), 3.

26) Seddon, Jones &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1357-61.

27) Edward P. Shafranske & H. Newton Malony, "Clinical psychologists' religious and spiritual operations and their practice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7 (1990), 72-78.

28) M. O. Harrison, H. G. Koenig, J. C. Hays, A. G. Emeakwari & K. I. Pargament, "The epidemiology of religious coping: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3 (2001), 86-93.

29) Daniel L. Roberts & Joann Kovacich, "Male Chaplains and Female Soldiers: Are There Gender and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Military Pastoral Care?" 전요섭 역, "남성 군중장교와 여성군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청년」 19 (2000), 321-43. 스웨덴은 군중목사가 군 목회 돌봄을 함에 있어서 상담을 주요임무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Jan Grimell, "Military Chaplaincy in Sweden: A Contemporary Perspective," *Journal of*

전투피로증(battle fatigue)으로 인해 장병들이 겪는 문제는 심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것이므로 군중목사는 장병들의 심리영적 지원에 있어서 좀더 전문적이고, 숙련된 목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은 지난 10년 동안 전투에 배치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가족 기능, 가족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병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탄력성(회복력), 강인성, 건강성 등에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미군의 경우, 해외파병에서 귀국한 남편/아버지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심리정서적 진단은 우울, 수면장애,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및 조절장애, PTSD 등이었다.³⁰⁾ 군인 가족은 남편/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부정적 정서의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 남편/아버지가 해외파병에서 전투로 인해 PTSD를 겪었을 때 이는 단순히 남편/아버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애정관계, 그리고 자녀의 양육관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가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³¹⁾ 기혼 장병 가운데 PTSD에 노출되었다가 귀국한 경우, 이혼율이 16.5%라는 것을 볼 때, 장병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를 위해서 군중목사는 PTSD를 신앙으로 다루어 주어야

Health care Chaplaincy 28/1 (2022), 81-94.

30) Alyssa J. Mansfield et al, "Deployment and mental health diagnoses among children of US army personnel,"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5 (2011), 999-1005.

31) N. A. Card et al, "A meta-analytic review of internalizing, externalizing,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deployed military service memb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 (2011), 508-20.

한다.

3) 하나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종목사

군종목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chaplain은 푸르의 마틴(Martin of Tours, 316-397)이라는 프랑스 군인이 집으로 복귀하는 중, 추위에 굶주린 거지를 만났을 때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자 자신의 외투를 둘로 잘라서 하나를 덮어주어 추위를 면하게 했는데 바로 그 거지가 ‘예수’였다는 전설에 기인한다. 중세시대에 외투는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서 왕의 외투를 지키는 병사가 있을 정도였으며, 이들을 일컬어 ‘카펠라누’(cappellanu)라 불렀는데, 프랑스어 cappellanu는 영어 chaplain의 어원이 되었다.³²⁾ 후에 카펠라누는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제(현대적 개념의 군종장교)의 호칭이 되었다. 또한 카펠라누가 항상 왕의 곁에서 외투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왕의 군대에 카펠라누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개념을 부각했던 것처럼 군종목사는 군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지휘관과 장병을 두려움, 불안 및 공포라는 심리·영적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덮어 줄 카펠라누가 되는 것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출전을 앞두고, 군종목사에게 상담 또는 기도를 받고자 할 때, 응급성례를 받고자 하는 등 심리·영적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쉽게 만날 수 없다면 이는 역할 감당이 안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항상 장병 곁에서 그들을 덮는 외투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군 군종목사는 연대급에 배치되어 있으나, 미군 군종목사

는 그 하위제대인 대대급 부대에 근무하므로 군종목사를 수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평시 군종목사를 빈번하게 보았다는 경우는 67.6%로 나타났다.³³⁾ 군종목사가 장병들의 시야에 항상 존재하는 것에 대해 켈미트 존슨(Kermit D. Johnson)은 이를 군종목사의 정체성으로 인식하여 ‘one so often encounters in the military’(부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군종목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³⁴⁾

전투현장에서 군종목사는 비전투요원(noncombatant)이지만 장병들은 군종목사도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존재하고, 그의 얼굴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³⁵⁾ 장병의 인식 속에 군종목사는 ‘하나님의 임재’(presence of God)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³⁶⁾ 그러므로 군종목사는 말(설교)과 행동(방문활동 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야 한다.³⁷⁾ 이에 대하여 에릭 패터슨(Eric Patterson)은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전달하는 자”라고 설명했다.³⁸⁾ 즉 군종목

32) Seddon, Jones &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1357-61.

33) Kazman, “Who Sees the Chaplain?,”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8 (2022), 1-12.

34) Kermit D. Johnson, “Compelled by Conscience-Ethics and Role Conflict in the Life of a Chaplain,” *The Military Chaplain* 90 (2017), 26-31.

35) Phillip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Contours and Content of Ministry,” 47-58.

36) Andrew Todd, *Military Chaplaincy in Contention: Chaplains, Churches and the Morality of Conflict* (New York: Routledge, 2013), 12. cf. Robert Stroud, “On the Distinctives of Ministry in the Military,” *Missio Apostolica* (January 1) (2011), 56-65.

37) Robert A. Sugg, “The Profession of Military Chaplaincy,” *The Military Chaplain* 90/1 (2017), 4-5.

38) Patterson,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7.

사가 부대 또는 전투 현장에 존재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커다란 위안이 되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전투현장에서 군종목사의 존재는 더욱 그것이 부각되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며, 이는 장병의 사기(morale)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패터슨은 군종목사의 '존재의 사역'(The ministry of presence)이라 했다.

고대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는 전투 현장에서 인간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와 성직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나라에 군종제도가 처음 창설된 배경도 그렇다. 한국전쟁 중 미군 제33사단 10공병대대 무명의 카투스사(KATUSA) 병사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군종병과 창설의 배경이 된 것이다.³⁹⁾ 이것이 발단이 되어 카톨릭 사제 조지 캐롤(Jorge N. Carol)이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군종제도를 건의하여 1951년 2월 7일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목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전투출동 전 군종목사가 집전하는 예배, 설교와 기도, 축도는 사기진작과 전투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전투현장에서 장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를 극복하고, 지탱할 수 있었다는 고백은 미군이나 한국군을 막론하고 매우 빈번하다. 징기스칸의 군대에도 사제들이 동행했고,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에도 카톨릭 사제

39) 육군본부 MCF, “진중교회 양육을 위한 군선교 참고자료” (육군본부 군종실, 2014), 68-69.

세스페데스(Cespedes)가 종군하였으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종목사가 전투현장에 존재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었다.⁴⁰⁾ 미군은 지금까지 전쟁 중에 군종목사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 일부 지휘관은 전투현장에 군종목사가 없이는 전투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군종목사의 동행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⁴¹⁾ 과연 군종목사가 전투현장에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전투에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신학적인 고민을 안겨준다. 스티븐 맨스필드(Stephen Mansfield)는 자신의 저서 『미군의 믿음』(Faith of the American Soldier)에서 군종목사가 장병들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진술했다.⁴²⁾ 군종목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병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공간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야전부대 또는 전투현장에 교회건물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전교회의 천막에 십자가 표식을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종목사의 신앙 활동, 즉 예배는 장병의 심리적 평안에 크게 기여하며, 설교, 기도, 성례 등의 행위가 장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군종목사는 제네바 협약 제24조(1977 제정)에 따라 비전투요원로서 전쟁포로(POW)가 되지 않고 억류인원이 되며, 무기착용이 금지

40) 최성훈, “군종제도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도전,” 『ACTS 신학저널』 제50집 (2021), 391-419.

41) 편집부, “전시하 사업중점주의로 생사기로의 군인전도부터,”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7일자 1면.

42) Stephen Mansfield, *The Faith of the American Soldier* (New York: Jeremy P. Tarcher/Penguin, 2005), 16.

되어 있다. 군종목사는 군인이면서 비군사적 행동을 통해 장병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자이다.⁴³⁾

4) '정의로운 전쟁'의 지지자로서 군종목사

국가가 강력한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적국의 침략의지를 포기 또는 단념하게 하거나 전쟁을 억제(deterrence)하게 하는 것은 국력이라 할 수 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데, 전쟁은 표면적으로 무력충돌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은 정치집단 간의 조직적 무력투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⁴⁵⁾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성전' 등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도덕적 정당성도 확립되어야 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장를 중시하는 민주국가인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존재라 할 수 있으므로 적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당한 경우,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자위권 유지를 위한 '정의로운 전쟁'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받고, 자국민의 재산침해와 인명피

43) 미군 군종목사는 1756-63년 동안 발생했던 국경전쟁에서 총기와 성경을 휴대하고 출전하여 전투에 임했던 '무장화된 군종목사(militarization of chaplains)로서 군인들에게 종교의식과 상담을 제공하였다. Adam Tietje, "Seductive Confusion of Authority: Military Chaplains and the Wearing of Rank," *Journal of Church & State* (July, 1) (2020), 506-25. 오늘날과 같은 체계의 군종제도도 1775년 7월 대륙회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명령에 의해 창설되었다. 현대 군종목사는 자신의 소속교단으로부터 목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성직자로서 입대하고, 동시에 장교의 자격을 갖춘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지만, 이 당시는 연대장이 자신의 부대에 근무할 군종목사를 찾아야 했으며, 그렇게 하여 모집된 총 219명의 군종목사들이 임명을 받았으나, 교육, 훈련제도는 없었고, 급여는 월20달러 수준이었다. Patterson,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22.

44) Avery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35.

45) 설인효,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군사』 92 (2014), 299-330.

해 등이 발생하여 반인륜적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당방위에 해당되며, 전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⁴⁶⁾

북한의 도발에 의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 될 수 있을까? 군종목사는 정치적 입장에서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전쟁개념을 갖고 장병들에게 이를 설교 또는 설득해야 하며, 군종목사 간에 구음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쟁 논리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존 한나(John Hannah)는 "군종목사는 전쟁에서 '평화의 도구'인가, '전쟁 응원단'인가?"(The Chaplain: Instrument of Peace or Cheerleader for War?)라는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⁴⁷⁾ 군대는 정부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겠지만, 내려서도 안 된다.⁴⁸⁾

에릭 그레고리(Eric Gregory)는 전쟁에서 살인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표현한 바 있는데,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⁴⁹⁾ 성경에는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적을 죽게 하여 그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십계명에 명시된 '살인하지 말라'(6계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화주의자'라 하여 발발된 전쟁

46) Robert Stroud, "On the Distinctives of Ministry in the Military," *Missio Apostolica* (January 1)(2011), 56-65. Ambrosius도 침탈로부터 시작된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았다.

47) John Hannah, "The Chaplain: Instrument of Peace or Cheerleader for War?" *Journal of the Lutheran Historical Conference* (Jan. 1, 2019), 205-13.

48) Ronit Y. Stahl, *Enlisting Fa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250.

49) Eric Gregory, "Beyond Critique: Just War as Theological Political Theology," *Modern Theology* 36/3 (2020), 524-37.

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쟁 입장을 취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일 적의 침공을 받은 상태라면 여타 판단의 여지없이 적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의로운 전쟁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장병들에게 정의로운 전쟁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공보정훈장교의 업무만이 아니라 군종목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장병들이 전쟁 수행의 적극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장병을 하나로 묶어 전투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의로운 전쟁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정당사격(righteous shoot)이 나타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적국의 인명피해는 악을 제압하기 위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정당한 전쟁의 합법성을 논하는 것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정당한 전쟁(Just war) 및 성전(Holy war)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 무력충돌은 전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전쟁은 정치적 배경에서 발생되더라도 전투에서 성경적, 신학적, 신앙적,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종목사의 참모 역할이 필요하다. 미 국방부의 군종장교에 대한 지침(1304.19)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휘관의 주요 고문역할을 한다”⁵⁰⁾고 규정한다. 군종목

50)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1304.19” (June 11, 2004).

사가 겪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는 군사적 판단과 종교적 신념 간의 갈등인데, 참모장교로서 지휘관에게 충성하는 것과 신앙 및 도덕성에 어긋난 전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⁵¹⁾ 전쟁이 끝까지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확보된 정당성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시작은 정의로운 전쟁이었으나 과정과 아울러 전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윤리 및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악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무력의 정도와 방향성이 정의로운 전쟁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국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동료, 전우, 가족, 친지 등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야만화(brutalization)가 나타나기도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점령군으로서 민간인 학살, 강간, 폭행, 절취 등을 비롯하여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AD. 742년 콘스탄틴 시대 십자군전쟁에서 현대개념으로 군종목사가 군사 활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군종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직제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제들이 십자군을 위한 예배와 설교, 위로, 격려 및 다양한 봉사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군종은 기독교가 십자군전쟁의 비성경적, 비신학적, 비신앙적, 비도덕적 폭력을 제지하지 못하고, 정당화했으며, 오히려 이념적 동기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⁵²⁾

51) Marty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Healing the Spiritual Wounds of War,”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March 1, 2009), 8-13.

52) Joris van Eijnatten, “Moral Theology and the Concept of Holy War in the Dutch Republic,”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006), 609-35.

5) 죽음신학자로서 군종목사

국군의무사령부는 전시 전문적인 진료 및 군 의료지원서비스를 위해 군진의학(military medicine, 軍陣醫學: 군인에 대한 의학)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군진의학이 존재하는 만큼 ‘군진신학’(military theology, 軍陣神學: 군대와 군인, 군 관련 신학)도 존재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국군에도 있었지만 아직 정립된 바는 없다. 이를 수립한다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주도해야 하며, 전쟁신학(theology of war)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전쟁신학은 죽음의 신학과 구원이 핵심내용이 되어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할 수 있는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장병들에게 삶과 죽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인식체계이기 때문이다.

전투/전쟁은 무력으로 무력을 제압하는 과정이므로 상대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죽음의 위협은 장병을 두렵게 하고 가장 괴롭히는 것이다. 전쟁의 희생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과 장병 사이에는 불안이 상존한다. 전투요원들은 살기를 원하지만 도리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투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것을 파괴하는 피로 얼룩진 치명적인 다툼의 현장이다. 전투현장은 피아 간 살인이 가능한 현장으로서 죽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죽임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현장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팽배한 곳이다. 전투에서 죽지 않더라도 신체적으로 중경상을 입을 수 있고, 생존 장병 가운데 동료를 잃는 슬픔은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

켜 줄 절대자가 있거나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정된 일이다.

종교활동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보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률이다. 또한 종교활동은 군대가 규정을 통해 보장하며, 모든 군인에게 예외 없이 인정되는 법규이다. 종교 및 종교활동이 국가와 군대의 보장을 받고 인정되는 법률/법규이기는 하지만, 근래, 미군에 입대하는 장병의 34% 이상은 종교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종교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³⁾ 그러나 평시와 달리, 전시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이 없고, 생존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전장에서 장병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 등으로 인해 심신이 약화된 상태에 노출된다. 종교 및 신앙을 갖지 않은 장병이라 할지라도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there are no atheists in foxholes)는 말처럼 전장이라는 두려움의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신(神,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⁵⁴⁾ 전투/전쟁은 신앙이 없던 장병으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장병들의 신앙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의 불안 및 공포를 극복하고자 무종교 지휘관들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다수의 기록들이 있다.⁵⁵⁾ 이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53) Phillip,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Contours and Content of Ministry,” 47-58.

54) Nathan A. Heflick & Jamie L. Goldenberg, “No atheists in foxhol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2012), 385-92.

55) 윤은석,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군사』 107 (2018), 1-52.

따라서 장병들로 하여금 사후세계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신앙전력으로 무장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출전 장병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심리 정서적으로 매우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를 해소, 감소, 완충하기 때문에 정신전력 형성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사후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가 감소된다는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소망은 죽음과 죽음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이는 성경말씀을 통해 죽음, 부활, 내세, 구원, 천국, 보상, 소망을 다루는 기독교신앙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및 공포에 취약한 대부분의 장병들에게 이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으며, 이를 확실하게 다루어 줄 존재는 군종목사 밖에 없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 우울은 신체기관의 마비, 무력화 등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내세에 대한 확신 자체가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에게서는 오히려 내세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악행 등에 대하여 벌하실 것이라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더욱 우울감, 죄책감, 불안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회개와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내세에 대한 확신과 구원이 장병의 불안 완화 및 전투력향상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기독교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를 ‘기

술전력’, ‘전술전력’과 비견하여 ‘무형전력’, ‘정신전력’, ‘신앙전력’이라 한다. 전투의 승리가 중화기 및 첨단 타격장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군사작전 이외의 매우 다양한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군사학의 기본 지식이다. 이에 군종목사는 기독교신앙을 통해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종목사는 비전투요원로서 군의 전투력 자체는 아니지만, 군종목사의 활동에 따라 잠재전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⁵⁶⁾

4. 닫는 글

이 연구는 미군 전시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문헌연구이다. 연구자는 미군 군종목사의 전시 군종활동을 통해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많고 다양한 전쟁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미군의 전시 군종활동의 일부를 분석하여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수립의 자료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군 『군종교범』 16-1 “종교적 지원”에 기술된 내용 “군종장교는 산 자를 양육하고, 부상자를 돌보며, 죽은 자를 명예롭게 하는 역할”을 기초로 하여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를 다루었다. 첫째, 특수목회자로서 군종목사를 다루었다. 전시에 군종목사는 부상당한 장병을 대상으로 위로, 지지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 등 환자목회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상 장병

56) Ed Waggoner, *Taking Religion Seriously in the U.S. Military: The Chaplaincy as a National Strategic Asse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715.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군종목사의 신앙전력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분석이 있다. 윤은석,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1-52.

에 대하여 각별한 목회 돌봄이 제공되고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른 장병들의 전투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군종목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장병에게 목회적 지원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루었다. 셋째, 하나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종목사는 전투현장에서 하나님이 장병들과 함께 하여 그들의 두려움, 불안 및 공포를 해소하는 이른바 '존재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다루었다. 넷째, '정의로운 전쟁'의 지지자로서 군종목사는 전쟁인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설교/설득하고, 잘못된 전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참모 조언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신학자로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이 죽음, 부활, 내세, 구원, 천국, 보상, 소망 등의 기독교 신앙 개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 특히, 유해를 소중히 다루고 전사 장병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장엄한 예식을 통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그것을 목격하는 장병의 사기와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는 의미를 인정받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국적인 장례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집행하는 군종목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강력히 요구된다.

Abstract

Role Identification of ROK Military Chaplains through US Military Chaplains' Activities in Wartime

Joseph Jeon

This research as a literature study is to clarify that the role identification of ROK(Republic of Korea) military chaplains through US(United States) military chaplains' work in wartime. War is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combatants, but also, the activities of military branches as a combat organization. The US militar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a friendly country and directly demonstrated the military system (military chaplain system as a military branch) that was unfamiliar to ROK military. In addition, US Military helped establish the military chaplain system in ROK military. The ROK military chaplain system began by replicating that of the US military from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Until recently, the US military directly led many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or had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war as an allied force or support force. It is thought that the military service activities and the activities of military chaplains in wartime were systematized by the US military, which had a lot of experience in war. In this research, by analyzing this,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guideline for the wartime military activities of the ROK military and to be referenced in establishing the role identity of the military chaplain. Previous experiences on the role played by the US military chaplain on the battlefield may be important data for considering the mission and role identity of the ROK military clergy in war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 identity of ROK military pastors through wartime military service activities of US military chaplains. In this research, five themes were dealt with regarding the role identity of the military chaplain. First, military chaplain as a special minister do ministry for the living, the wounded, and the dead in accordance with the US Military Chaplain Manual. Second, military chaplain as a psycho-spiritual specialist deals with various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imension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ird, military chaplain as a representative of God's presence dealt with the role of the so-called 'minister of existence' in which God was with the soldiers and relieved their fears, anxieties and fears in the battlefield. Fourth, military chaplain as a supporter of 'just war' is in the role of preaching/persuading the soldiers about the concepts of 'just war,' 'holy war.' Military chaplain as a staff officer constantly advise to the commander for prevention a wrong war. Finally, military chaplain as a death theologian do ministry the role of enabling soldiers to engage in battle/war without fear of death by solidifying Christian beliefs such as death, resurrection, afterlife, salvation, heaven, reward, and hope.

Key Words

US military, military chaplain, military minister, battle field, ROK military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¹⁾

President Park Chung-Hee's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of the Korean Military

» 이규철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대한 통전적 평가를 도모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사고 예방과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이루며 전군(全軍)을 필승의 전력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애국애족의 시대사적 비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정책은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왔다. 군내적(軍內的)으로 군종병과에서는 장병들의 신앙심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순교적 신앙심을 순국의 정신력으로 고양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신앙전력화를 군종병과의 존재이유와 사명으로 삼아 장병정신전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군외적(軍外的)으로는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신앙의 인격으로 무장된 애국시민이 되어 총력안보태세 구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국군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 증대와 함께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현실적인 자주국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중심단어

박정희 대통령, 군종병과, 신앙전력화, 애국애족의 장병, 한국기독교군선교 연합회

1) 이 논문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학술 논문 공모에 선정된 논문으로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의 허락을 받아 『군선교, 청년』 21 (2022)에 게재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규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박정희 시대 연구·5·16 혁명 60주년 기념 특집 1』 (창간호) (2022): 312-357.

• 논문 투고일: 2022년 8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8월 9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5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1. 들어가는 말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사고 예방과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이루며 전군(全軍)을 필승의 전력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애국애족의 시대사적 비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1976년 6월 26일 당시 육군 군종감 대령 ‘문은식’ 목사에게 ‘信仰戰力化’ 휘호(揮毫)를 하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정책은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왔다. 군내적(軍內的)으로 군종병과에서는 장병들의 신앙심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순교적 신앙심을 순국의 정신력으로 고양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전력화를 군종병과의 존재이유와 사명으로 삼아 장병정신전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군외적(軍外的)으로는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신앙의 인격으로 무장된 애국시민이 되어 총력안보태세 구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국군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 증대와 함께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현실적인 자주국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무형전력’²⁾의 핵심인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2) 김한옥에 의하면, 군사전략은 크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대별된다. 유형전력은 병력의 수, 무기, 장비 등과 같은 물질전력이다. 무형전력은 전기숙달(戰技熟達)과 같은 기술전력, 조직과 제도 등을 포함한 관리수준과 통솔력과 전략전술과 같은 운용전력, 그리고 장병들의 의지력을 본질로 하는 정신전력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이다. 김한옥, 『정신전력의 개발』 (서울: 배영사, 1989), 7.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의 ‘군선교신학’ 차원에서 약간의 검토³⁾만 있었을 뿐 신앙전력화에 대한 통전적 연구는 전무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를 언급한 대부분의 논문들 또한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信仰戰力化’라는 휘호(揮毫)를 직접 써서 육군 군종감 대령 문은식 목사에게 전달하여 기독교계의 ‘전군 신자화’ 운동과 ‘군복음화’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는 정도의 평가를 기술한 것이 대부분이다.⁴⁾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대한 연

3) 기독교의 군선교의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군 신앙전력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형복, “교회와 신앙전력화,” 『새가정』 5 (1976): 76. ‘김형복은 현역 군종목사의 시각에서 “신앙전력화는 정책이나 일시적 붐 조성이나 교회사적 차원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논지 아래 성경과 세계 전쟁사에서의 신앙전력화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한다; 유경상, “군의 전력과 신앙에 관한 연구: 신앙전력화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38. ‘유경상’은 “신앙과 전력의 관계는 세계평화를 위한 시도”라는 전제하에 정신전력의 차원에서 신앙전력의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논한다. 유경상은 신앙전력화를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장병을 신자화 하여 각개 장병이 신앙심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이념무장을 삼고 유사시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순교자적 자세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홍태, “軍 信者化 運動이 軍戰力에 미치는 影響-Case Study 中心으로,”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6. ‘김홍태’는 1969년 야전군에서 시작된 전군신자화 운동을 “장병 신앙심 함양뿐 아니라 전기전술 향상과 명량한 병영생활에 도움이 되며 정신전력의 원천이 된다”고 평가한다; 장성수, “군종활동이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장성수’는 “진·평시 군종활동이 군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분석”하면서 효율적인 군종활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유태웅, “軍 信仰의 戰力化 方案에 관한 研究,”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유태웅’은 “군인이 올바른 사상과 성실한 인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며 보이는 물질전력이 보이지 않는 정신전력(신앙)의 튼튼한 기초위에 서게 됐을 때 싸움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 하에 신앙이 군 전투력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 방법을 탐색한다; 박응규, “한국의 군종제도과 기독교,” 『성경과 신학』 66 (2013): 227. ‘박응규’는 한국군이 처한 다변화한 상황에서도 “군종제도나 군종장교들의 활동은 한국군의 신앙전력화와 병사들의 군생활에 긍정적 공헌을 해왔다”는 논지 하에 한국 군종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군이라는 국가기구에서 군종활동의 순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윤은석,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Journal of Military History』 107 (2018): 46. ‘윤은석’은 6·25전쟁 속에서 국군 용사의 전승을 위해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활약한 기독교(개신교)계의 역사적 신앙전력화에 대한 실증(實證)을 통해 6·25전쟁에서 당시 군목과 신앙군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개신교와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지지해 준다”고 논증한다.

4)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휘호를 소개하면서 전군 신자화 운동이나 군복음화 운동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개 신앙전력화를 모티프로 삼아 정신전력 강화를 제안하거나 군선교의 역사적 맥락에서 신앙전력화를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군 신앙전력화에 대해 보다 통전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논자가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군 신앙전력화의 실면(實面)을 파악하려면 다음 질문에 대한 해소와 해명이 필요하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 신앙전력화를 추진한 배경은 무엇일까?

둘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 신앙전력화를 추진한 과정은 어떠했을까?

셋째,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신앙전력화의 추진 성과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과 관련한 이상의 질문을 해소하고 해명하는 통전적 검토를 통해 신앙전력화의 정체성과 그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을 살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료(史料)에 기초한 반추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군 신앙전력화와 관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과 연설문,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군종감에게 신앙전력화 취호를 하사한 것에 관한 군 내외 언론 기사, 관련분야

을 논한 논문과 서적은 다음과 같다: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한국기독교군선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 (2004): 126-155. 민상기,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4 (2006): 369-403. 김기태, 『전쟁과 선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군선교부, 1997), 185-186. 정성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군선교신학』 9 (2011): 303-308.

연구 논문과 도서를 중점적으로 활용 분석 평가하는 문헌이용방법으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을 논함에 있어 현 한국군 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단 소속 군종장교들의 모든 활약상을 다 살피기에는 지면에 제한이 있다. 이에 한국군의 신앙전력화를 구현하고자 앞장서서 임무수행을 감당해온 기독교 군목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임을 밝힌다.

2. 신앙전력화 추진 배경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의 신앙전력화를 추진한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이슈가 자리한다고 사료된다.

가. 북한의 만행

북한의 다변(多煩)한 무력 도발은 국군의 정신무장을 증대시키는 신앙전력화의 주된 요인이 된다. 6·25전쟁을 유발한 북한⁵⁾은 1960대 후반부터 더욱 빈번하게 만행적인 무력도발⁶⁾을 자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

5) 고산고정일, 『장진호-불과 얼음 17일 전쟁』 (서울: 동서문화사, 2020), 15. ‘고산고정일’은 공산주의나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와 같은 전체주의는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녔기에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처음부터 한국을 무력으로 차지하려는 6·25전쟁을 유발(誘發)한 것은 필연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한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김일성은 ‘국토완정(國土完整)’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중국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썼던 용어로 ‘한 나라의 영토를 단일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하는 것’을 뜻한다. 김일성은 1949년 새해 첫 연설에서 국토완정이란 말을 열세 번이나 쓰며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6) 국방부, 『역사의 창으로 본 365일』 (서울: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1996). 1968년부터 1976년 어간의 대표적인 무장공비침투사건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1968. 1. 2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 11. 2),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1969. 12. 11), 해군 방송선 1-2 피랍사건(1970. 6. 5), 박정희 대통령 지적 미수 사건(1974. 8. 15),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굴 사건(1974. 11. 5),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 8. 18.) 등등.

를 모색해 왔다. ‘국방군사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은 1967년 2월 8일 조선의 통일을 무력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1968년을 전쟁준비의 해로 삼았기에 북한은 1967년을 기점으로 무장계렬라에 의한 유격전을 펼쳐 나갔다.⁷⁾ ‘이영훈’은 북한의 무장 침투의 실상을 이렇게 정리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모험주의 군사주의 노선은 점점 과격해졌다. 1966년 80건이었던 북한의 도발은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으로 급증했다. 남파간첩의 수도 1966년 50명, 1967년 543명, 1968년 985건으로 급증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무장 계렬라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였다. 불과 이틀 뒤 1월 23일 북한은 동해에서 미국의 첩보함을 영해 침범의 이유로 억류하였다. 원산 앞바다에는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등, 양국 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외의 또 하나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였다.⁸⁾

‘조갑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틀 뒤인 1월 23일 새벽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Pueblo號)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⁹⁾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0주년 국군의 날 유사에서 “1·21사태 이후 북한괴뢰 집단은 소위 ‘무력에 의한 70년의 적화통일’을 계속 공언하고, 휴전선 전역에 걸친 도발 행위와 무장 공비 침투, 간첩의 밀파

를 끈덕지게 계속하고 있다”¹⁰⁾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김홍준’에 따르면, 1·21사태 직후 예비군 제도가 생겼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그리고 3사관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장병들의 제대가 6개월 미뤄졌고, 684부대(실미도 부대)가 창설되었다.¹¹⁾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예비군 창설식 유사에서 북한의 도발만행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든든한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정신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북괴가 이러한 만행을 환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김일성 일당은 경제 건설에 있어서 실패하고 계획 연도를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남침에 눈이 어두워 전쟁 준비에만 광분한 나머지 경제 건설을 소홀히 한 때문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의 생활은 나날이 궁핍하여져서 더 이상 독재를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고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들은 소련과 중공의 양쪽에 끼여서 고립 무원해진 곤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 중공간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북괴는 국제적으로도 이 이상 더 공산 세계로부터의 지원이나 원조로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동구라파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화 운동이 보여주다시피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한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자유의 욕구 앞에는 무력한 것이 분명합니다. …북괴는 내외 정세상의 이유로 그 앞날에 아무런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6·25보다 더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연하려는 단말마의 발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 일당의 그 발악에 대처해야 합니다. 적이 발

7) 국방연구소, 『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182.

8)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나라 만들기 발자취 1945-1987』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3), 454-455.

9) 조갑제, 『朴正熙의 결정적 순간들-62년 생애의 62개 장면』 (서울: 기파랑, 2019), 455.

10) 대통령 비서실 편, “제20주년 국군의 날 유시(1968. 10. 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5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69), 307.

11) 김홍준, “‘박정희 목 따러 왔다’는 김신조, 진관사 앞에서 맨붕,” 『중앙선데이』 2020. 11. 14.

악적으로 나올 때 무슨 짓이고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 역사는 언제나 정의와 자유의 편에 있습니다. 강건한 기상과 단결된 힘을 가진 민족만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대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이 안일과 태평 속에 연약해지고 방종에 흐를 때에는 조만간 세계사의 무대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¹²⁾

‘서규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직후부터 대외적으로 ‘자주국방’을 외쳤다”고 분석한다.¹³⁾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만행에 맞서 정신무장이 겸비된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을 통한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나. 월남의 공산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월남의 패망¹⁴⁾은 많은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안보태세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신적 각성 기제(機制)였다. 한국은 1964년 9월 11일

월남(남베트남)에 한국군 의무 요원과 태권도 교관을 필두로 1973년 3월 23일 철수하기까지 약 32만 명의 국군 용사들을 파병했다. 서규화의 분석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가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이 베트남에 대규모의 병력을 집중 투입함에 따라 주한 미군 일부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저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미국이 6·25전쟁 때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동맹국가로서 도리이고, 베트남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곧 한국의 안보위협이라는 인식하에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함”¹⁵⁾이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 3년차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힘을 합쳐서 돕기 때문에 월남군이 낙승할 것을 예상했다.¹⁶⁾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파월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에서 한국군의 월남파병이 “전투의 승리 못지않게 월남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우의와 신의를 깊이 심고, 월남 국토에서 다시는 공산주의가 재연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보루를 구축하게 해 줄 것이며, 또한 한국군의 파병이 자유 아시아 건설의 초석이 될 것”¹⁷⁾이라고 전망했다.

12) 대통령 비서실 편, “예비군 창설식 유시(1968. 4. 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5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69), 143-144.

13) 서규화,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수립과정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 서규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노린 1·21청와대기습사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일상적인 사건으로 처리했던 미국 정부가 미 정보합 프에 블로호가 피랍되자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본에 주둔한 미 해·공군을 동원하여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또한 피랍 승무원 송환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추진한 것에 대해 주권국가 대통령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다.”

14) 조갑제에 의하면, 1975년 4월 30일 월맹군 탱크가 사이공의 대통령관저 철문을 밀어버리고 진입함으로써 월남전이 종결되고 인도지나 반도의 적화가 현실화되었고, 다음 차례는 한반도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깊이 드리웠다. 조갑제, *op. cit.*, 640.

15) 서규화, *op. cit.*, 58. 한국군은 베트남전 참전 기간 약 32만 명이 참전하여 5,000여 명이 전사했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희생을 치렀지만, 파병으로 얻은 성과는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Ibid.*, 63.

16) 대통령 비서실 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회견(1966. 12. 1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3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69), 504.

17) 대통령 비서실 편, “파월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1969. 1. 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6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0), 18. 김윤권 등에 따르면, 한국군이 주둔했던 베트남의 중부 다낭, 퀴논, 닌호야, 냐짱(나트랑), 깎란만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베트남 국토의 노른자위로서 베트남에서 제일 안전한 지대였다. 한국군이 주둔했던 곳에는 예외 없이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마다 한국에서 보낸 종들이 종탑위

그렇지만 정신력이 헤이해지고 부패한 월남은 패망했다. 한국군은 1973년 1월 28일 08시에 ‘닉슨’ 대통령과 ‘티우’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휴전을 실시함에 따라 1973년 3월 23일까지 완전철수를 해야만 했다. 이로부터 약 2년 뒤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패망 직전인 1975년 4월 29일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통해 인도차이나 사태에 대한 소회와 지도자로서의 각오를 밝히고 총력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온 국민이 강건한 정신적 자세를 가져 줄 것을 호소한다.

신문 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는 인도차이나 사태를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한 심경에 빠져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월남은 과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피흘려 가며 지켜준 땅이기 때문에 공산 수중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크메르 공화국은 드디어 지난 4월 17일 고군분투하던 정부군이 끝내 공산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세계 지도에서 크메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월남도 지난 3월 초순 공산군의 대공세가 시작된 이후 공산군보다 몇 배나 더 우세한 정부군이 있었지만…지금은 수도 사이공이 완전 포위되어서 사태는 매우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지극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의 교훈은 공산주의자들과 맺은 평화 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남 사태도 73년 1월 소위 『월남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2년 동안 공산측은 무력을 가지고 월남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남측은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확실히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교훈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메르와 월남의 예를 보더라도 이 두 나라의 정부군이 공산군보다 반드시 힘이 약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력이나 장비 면에 있어서는 공산군보다도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패배했느냐 하면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국민의 총화 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는 등 집안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결의와 각오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확실히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데 뭉쳐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결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¹⁸⁾

월남의 공산화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필연코 물리치는 필승의 신념 무장과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평가된다.

다. 정신전력의 중요성 인식

정신전력을 중시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론(持論)이었다. ‘차인석’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간의 정신력이

에 걸려있었다. 그 종들은 남부 베트남의 공산화와 동시에 땅 속에 감춰졌다가 개방이 되면서 다시 지상으로 나와 햇빛을 보게 되었고 옛 종탑에 다시 걸려 ‘수난(受難)의 종(鐘)’이라고 부른다. 김을권 등, 『베트남선교10년사』 (서울: 보이스사, 2000), 67-68.

18) 대통령 비서실 편,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1975. 4. 29),”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2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5), 114-120.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지배 한다”며 “국가발전의 근본은 국민의 정신적 자세에 있다”¹⁹⁾고 강조하였다. 실제 무형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은 그의 연설문 곳곳에 투사되어 있다.

군인의 길은 대의 앞에 감히 생명을 바치는 희생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젊은 사관들이 이미 삶과 죽음을 초극하여 무인의 길을 택했음은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기를 작정한 까닭입니다. 뜻 깊은 이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건 국가 방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돌이켜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지난날 식잔의 역사는 요컨대 국방의 충실을 기하지 못한 피해의 연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정신이 해이하고, 자체 역량이 미흡할 때는 언제나 침략의 기회를 허여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²⁰⁾

250만 인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1억이 넘는 아랍국가와 대결해서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곳곳이 건디는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천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가 결의와 각오만 단단하다면 북한 괴뢰 정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남은 해내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 자세와 결심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²¹⁾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수나 함정의 다과로써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승의 요체는 어디까지나 군의 정신 전력에 있습니다. 즉, 군이 얼마만큼 군기가 확립되어 있고 사기가 왕성하며, 또한 필승의 신념으로 뭉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지휘관은 바로 이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지휘관은 우선 조국을 위해 언제라도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결연한 사생

관(死生觀)을 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관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곧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순국 정신을 신앙화하고 숭선수범 이를 실천해 나갈 때에 군의 정신 전력은 일층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충무공께서는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 살신보국(殺身報國)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우리 겨레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충무공 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세대, 특히 해군의 지휘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바르게 계승하고 길이 가꾸어 나가야 할 ‘민족의 얼’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²²⁾

조국과 민족의 대의 앞에 신명을 다 바치겠다는 희생정신, 죽기를 한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생관과 필승의 신념, 이것이 참다운 군인 정신이요, 이러한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전우애와 엄정한 군기, 그리고 왕성한 사기는 바로 군의 단결과 정신 병력(兵力)의 원천인 것입니다.²³⁾

또한, 장비 현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의 정신 전력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는 그 강화책의 일환으로 국군 정신 전력 학교를 개교한 바 있습니다.²⁴⁾

이상의 연설문에 피력되어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아랍의 맹주들에 굴하지 않는 이스라엘²⁵⁾과 이순신 장군의 살신보국 정신

22) 대통령 비서실 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74. 4. 9),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1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4), 136-137.

23) 대통령 비서실 편, “제14기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77. 9. 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4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8), 136-137.

24) 대통령 비서실 편, “197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문(1977. 10. 4),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4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8), 166.

25) 육군대학, 「중동전쟁, 교육참고자료 육대 1302-1」 (육군대학, 1980), 77-78.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에 대항하여 1948년의 ‘독립전쟁’(제1차 중동전쟁), 1956년의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 1967년의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1973년의 ‘10월 전쟁’(제4차 중동전쟁)을 모두 승리했다. 아랍연합군에 비해 절대적 전력 열세를 면치 못한 이스라엘이 승리한 요인에 대해 이스라엘의 군인이자 국방장관 총리를 역임한 ‘리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 1995)은 이렇게 밝힌다. “이 땅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죽을 바에는 조국과 부모와 처자를 위하여 전장에서 죽자. 최후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인간이다. 정신력이 결정적 무기이다.”

19) 차인석, “새 韓國人像 定立,” 『民族과 함께 歷史와 함께 朴正熙 大統領-그 人間과 思想』, 김중규 편 (서울: 서울신문사, 1978), 295.

20) 대통령 비서실 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68. 2. 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5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69), 97-98.

21) 대통령 비서실 편, “3·1절 기념사(1968. 3. 1), 『Ibid., 5집』, 118.

을 모티프로 삼아 정신무장과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의 유형전력 못지않게 무형전력 특히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익히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바로 이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의지는 한국군의 정신전력 강화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군종목사들의 헌신

한국군의 신앙전력화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창설된 조선경비대 지휘관의 조치사항이었다. 오덕교는 “1948년 전북 군산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이 장병들의 정신 지도를 위해서 종교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 목사를 매주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최초의 군인 교회가 서게 되었다”고 밝힌다.²⁶⁾ 보병 12연대장의 조치사항은 장병들의 정신 지도에 신앙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군의 신앙전력화의 기본 성격이 장병중심의 정신전력 강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군의 신앙전력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목 제도는 6·25전쟁 중 미군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카투스사(KATUSA)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상신한 탄원서가 신호탄이었다.

대통령 각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

26) 오덕교, *op. cit.*, 127. 오덕교에 의하면, 12연대 교회가 설립된 같은 무렵에 용산 군인교회가 설립되었다. 1948년 늦가을부터 해군의 정달빈 목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등이 남산감리교회를 빌려 집회를 가져오다가 1949년 2월 5일 해군 및 육군 장교들과 3군에 속한 가족 1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용산 군인교회가 생겨났다. 용산 군인교회는 설립한 지 불과 6개월 후 100여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여 3군 군목 업무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Ibid.*, 128.

게 하여 주옵소서²⁷⁾

각계 인사들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 군종제도를 건의²⁸⁾하였고, 이를 수락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2월 21일 군종 제도를 설치하라는 대통령 비서실 지시 제 29호를 국방부에 하달하였다. 이 지시를 바탕으로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 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科)가 설치됨으로써 육군 군종제도가 창설되었다.²⁹⁾

6·25 참전 군목들은 한국군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윤은석에 따르면, 6·25 참전 군목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하나는 진중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거행하면서 성례(聖禮)를 베풀었다. 다른 하나는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였고, 위문 및 위문품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켜 장병 사기진작을 도왔으며, 직업교도소를 세워 상이군인들의 사회재활을 도왔다.³⁰⁾ 특히 윤은석의 분석에 의

27) 백창현 편,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 (서울: 한국군목회, 2015), 107

28) *Ibid.*, 107-108.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의 기록에 따르면,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소장 ‘베넷’(Ivan L. Bennet) 군목은 1950년 한국군 내부에서 군목 제도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자 예하 미군 제 1·2·24·25사단 군종참모 회의를 열고, 감리교선교사 ‘쇼우’(William E. Shaw) 박사와 천주교 ‘조지 캐럴’(George Carroll) 신부, ‘한경직’, ‘유형기’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군의 군종제도 확립에 관한 논의를 했다. 쇼우 박사와 베넷 군목은 1950년 9월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군종제도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국무총리로부터 “한국군 군종제도의 창설을 적극 협력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9월 18일 장로교·감리교·천주교·구세군·성결교가 군종제도 창설을 위해 연합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서 군종제도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 천주교의 조지 앤 캐럴 신부를 대표로 선출하였고,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여 군종제도를 둘 것을 정식으로 청원했다.

29) *Ibid.*, 109-112. 1951년 4월 14일 군승과는 군목과로 개칭되었고, 초대 군목과장으로 김형도 목사가 봉직했다. 군종제도는 무보수축탁시대(1951. 2. 29-1952. 6. 13)로 시작하여 문관시대(1952. 6. 13-1954. 12. 12)를 거쳐 오늘날의 군목제도(1954. 12. 13)를 갖추었다. 해군은 1950년 12월 6일, 공군은 1952년 2월 10일, 해병대는 1951년 5월 27일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

30) 윤은석에 따르면, 6·25전쟁 중 1년 7개월 만에 군인 신자율은 군목 초기 3%에서 10%로

하면, 당시 군목들의 설교의 절반이상이 기독교의 사생관에 기초한 정신전력 향상에 있었다. 군목 제도 초기의 지휘관들은 군목의 효과를 의심하였지만 점차 군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참모로 전선에 동행시키기도 했다. 전쟁기간 동안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의 비율이 높았다.³¹⁾ 윤은석이 지적한 바처럼, 6·25전쟁 중 군목들의 직무수행은 그 초창기부터 한국군의 정신전력을 증진시키는 신앙전력화의 기본 성격을 함유한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1969년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의 만행적인 도발이 다발(多發)하여 국가안보와 군 정신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군 신앙전력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군사령관 한신 장군은 장병들의 정신력 극대화과 멸공의 유일한 길은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한신 장군은 군종참모 대령 한준섭 목사의 조언을 받아 ‘연말 사단급 군종참모회의’에서 장병 정신전력 증대를 위한 소위 ‘전군 신자화 운동’을 지시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온 것은 장병에게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온 줄 안다. 그런데 요즘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방문과 보호 사병 선도에 얽매이는 실정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강화하여 전 야전군의 장병이 모두 신자화가 된다면 그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보호사병의 문제와 각종 사고방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인 공산당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엽적인 일에 얽매어 소극적으로 일하지 말고 전원 신자화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으며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이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이 두드러졌다. 윤은석, *op. cit.*, 45.

31) *Ibid.*, 46.

이것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획득해서라도 주겠소. 그러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활동을 바랍니다.³²⁾

『대한민국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에 따르면, 1969년 육군 1군사령관 한신장군에 의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 실시되면서 전군 신자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육군 1군은 대대급까지 군종목사가 보직되었으며, 전군신자화 운동을 위해 군종목사에게 기동장비로 오토바이를 보급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파병지에도 교회가 세워졌다.³³⁾ 전군신자화 운동은 한신 장군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의 지휘 협조와 일선 군목들의 헌신적 노력, 전군신자화 운동에 대한 후방교회의 이해와 협력 속에 ‘전군신자화 후원회’³⁴⁾가 발족하여 더욱 왕성해졌다.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이상강 군목)에서 한국군

32) 백창현 편, *op. cit.*, 118.

33) *Ibid.*, 66. 오덕교에 따르면, 한신 장군은 신앙이 없었으나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고, 후방에서 답지한 방위성금으로 오토바이 53대를 구입하여 1군 산하 군종 장교들의 기동용으로 공급하여 군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군 신자화 운동을 지원하였다. 오덕교, *op. cit.*, 135.

34) 이규철에 따르면, 전군신자화후원회는 1971년 한신 장군의 초청을 받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 1군사령부를 방문한 ‘한경직’ 목사의 헌신으로 태동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당시 군종감이던 ‘한준섭’ 목사로부터 전군 신자화 운동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2년 4월 11일 4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전군신자화후원회 발기위원회를 조직하여 동년 5월 29일 전군신자화후원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백낙준 박사를 추대했다. 이후 전군신자화후원회 2대 회장으로 섬긴 한경직 목사는 적극적인 군복음화 후원방안을 추진하던 중, 전군 신자화 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군신자화후원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군복음화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했다(1976. 7. 21). 국방부는 1981년 3월 7일 국방부인준(918.1-145) 지시문을 통해 중단별 공식 후원 창구를 일원화 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민간 차원의 군선교 운동과 후원사업은 일원화되어야 했는데, 기독교는 4년간의 논의 끝에 군선교 후원을 위한 창구로써 ‘군복음화 후원회’로 일원화했다(국군중 24250-150 / 85. 7. 11 / 국방부훈령 제 572호 제정). 1986년 12월 11일 창립된 한국군종목사단은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1987년 1월 22일 ‘군복음화보’를 월간으로 창간하였고, 1988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단체로 인가를 받음으로 군복음화를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군선교 전담기관이 되었다.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환 궤적 평가,” 『군선교신학』 11 (2013): 143.

최초의 진중합동세례식을 가진 이래 전후방 각급 부대 진중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했다.³⁵⁾

전군신자화 운동은 사회 일각의 비판³⁶⁾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1974년 ‘육군 정책 사업’으로 제정되었다. 오덕교에 따르면, 전군 신자화 운동은 아래의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종 사고를 줄이고 범죄율을 낮추며 보호사병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양상했다.³⁷⁾ 이에 1975년 육군 14대 군종감으로 취임한 대령 ‘문은식’ 목사

35) 백창현 편, *op. cit.*, 66.

36)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의하면, 전군신자화 운동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 요지는 대략 4가지이다: 첫째, 교계 내 일부에서 ‘학습과 세례, 주초문제, 십일조, 강요된 세례, 관리상태’를 이유로 신자화 운동의 부당성을 제기. 둘째, 신자화 운동의 과열과 경쟁으로 종파 간 불화 유발. 셋째, 군종장교를 파송하지 못한 군소종교단체에서의 신자화 운동 폐지론. 넷째, 1973년 5월 천도교 중앙총본부 교령 ‘최덕신’, 대종교 총 본사 총전교 ‘맹천주’가 군종제도의 재검토 건의문을 대통령께 올림.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국방부 군종실장 대령 양영배 군목의 다음 조치로 원만히 해결됨; 첫째, 3군 군종장교에게 물의가 없도록 지시(1972. 1. 7). 둘째, 군 첩보기관 분석 보고 받고 국군종 P39(72.5)로 시정지시 공문 하달. 셋째, 문공부→종무(1973. 7. 11)공문→국방부장관(하달) 회의석상(문공부 문화국장, 중앙정보2국 3과장, 보안사 종교 담당관, 문공부 종무과장-참석)에서 신자화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명하고 설득. 넷째, 1974년 육군 정책 사업으로 제정(신자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 백창현 편, *op. cit.*, 122.

37) 오덕교, *op. cit.*, 135-136.

〈표1 연도별 신자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현황(육군)〉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사고자수
1970년도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년도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년도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년도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1974년도	208,553	40,038	41,392	848	290,831	

〈표2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유형 구분	발생자수	군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는 신앙전력화를 군종병과의 사명으로 천명했다.³⁸⁾

이처럼 군목들과 야전지휘관 및 교계의 적극적인 후원이 어우러진 전군 신자화 운동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군내사고를 줄이며 민군 연합 총력안보의식을 증대시켜 한국군의 무형전력 증대라는 신앙전력화의 구현으로 이어진다.

정리하면,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군종감 대령 ‘문은식’ 목사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하사한 이면에는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리한다. 먼저 외적 요인은 1·21 청와대기습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적 만행을 능히 제압하는 한국군이 되고 월남의 공산화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든든한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장병정신무장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내적 요인은 아랍의 위협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경우와 임진왜란으로 인한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살신보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하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방력뿐 아니라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한 정신전력이 필수적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리더십이 자리

38) 문은식, “신앙전력화 구현에 박차,” 『韓國基督公報』 1977. 2. 14. 육군 군종감 문은식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하사받게 된 한 동기에 대한 에피소드 두 가지가 전해진다. 먼저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따르면, 1976년 문은식 목사가 육군 군종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복음화를 더 구체화하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독교 표어를 공모하여 ‘信仰戰力化’를 선정하였다. 문은식 군종감은 기독교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받기 위해 공문을 올렸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 즈음 문은식 군종감은 여군 훈련소를 방문한 영애(俞愛) ‘박근혜’ 님을 여군 훈련소 군목 ‘지기오’와 부대표 중령 ‘박영옥’과 함께 만나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휘호에 대해 부탁을 드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信仰戰力化’를 친필 휘호하여 하사했다. 백창현 편, *op. cit.*, 127. 다음으로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에 따르면, 평소 군내 좌익 침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가 군내 반공운동과 정신력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제안”한 김준곤 목사의 건의에 흔쾌히 동의하여 전군신자화 운동이 시작되어 신앙전력화로 연결되었다. 김준곤 목사 제자들 엮음,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 (서울: 순출판사, 2005), 581-582.

한다. 여기에 6·25전쟁을 비롯한 전·평시 군목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³⁹⁾은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군내 사고를 줄이며 민군 연합 총력안보의식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여왔다.

이런 점에서 신앙전력화는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信仰戰力化' 휘호를 육군 군종감에게 내리기 이전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국가안위 기제(機制)로서의 정신전력강화 방책이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3. 신앙전력화 추진 과정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 신앙전력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 부분이 해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전력화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신앙전력화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어록을 살펴보고, 신앙전력화가 표명된 어록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국군 신앙전력화를 위해 취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과정의 면면을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가. 신앙전력화 개념

육군본부가 발간한 『인격지도』는 신앙전력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앙전력이란 각개 장병이 갖고 있는 신앙심을 전력화하는 것으

39) '흥치모'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도덕적이고 애국적인 견해가 일치할 때 군목은 장병들에게 하나님과 국가에 충성하라고 권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적 성품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서도 개개인의 인격을 함양시키도록 주력하는 것이야말로 군목의 이상적 실천의 과제요 목적이요. 군목제도가 성립된 이후 도덕적, 영적 가치 기준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인식과 신념이 장병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군목의 최고 과제로 삼아왔다. 흥치모,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3 (2005): 255-256.

로 휘하 장병의 신앙심을 배양해서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부대원이 순교자적 각오로 적극 참여함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신앙전력화는 멸공구호를 실천하려는 정신적 기초요, 마음의 자세이다. 신앙전력은 무형의 전투의지이다.⁴⁰⁾

육군 제3사령부에서 발간한 『선봉신앙』은 신앙전력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신앙전력화란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장병을 신자화 하여 각개 장병이 신앙심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이념무장을 삼고, 유사시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For God, For Country) "죽으면 죽으리라"(에스터 4: 16)는 일사각오와 순교자적 자세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⁴¹⁾

문은식은 신앙전력화에서의 '신앙'의 개념과 특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신앙은 백전백승의 확신과 투지력의 원동력이다. 신앙은 이겨놓고 싸우는 강한 확신이다. 그리고 신앙은 믿는 자들의 영적 생활에서의 무장이며, 오늘날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 60만 국군이 서있는 곳마다 이와 같은 신앙무장이 요청되고 있다.⁴²⁾

신앙전력에 대한 이상의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신앙전력은 정신전력과 불가분리의 관계있음이 드러난다. 육군본부의 『정신전력강화법』에 의하면,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핵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드높은 사기와 확고한 신념으로 부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40) 육군본부, 『인격지도』(서울: 육군본부, 1977), 170. 유경상, *op. cit.*, 168에서 재인용.

41) 육군 제3군사령부, 『선봉신앙』(1975), 발간사. 유경상, *Ibid.*, 8에서 재인용.

42) 문은식, 『신앙전력: 제14대 육군 군종감 진중설교』, 양서각 설교 시리즈 제1권 (서울: 양서각, 1982), 10-11.

조직화한 무형의 전력이다.⁴³⁾ 유경상은 신앙전력을 “넓은 의미에서 정신전력의 한 분야이며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촉매제”⁴⁴⁾라고 정의한다. 특히 유경상은 정신전력이 강화되기 위해 반드시 인간의 잠재력인 신앙심을 발동시켜야 하는 논거(論據)를 이렇게 해명한다.

정신전력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잠재력인 신앙심을 발동시켜야 한다.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정신력이야말로 어떠한 사상과 물질적인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자적 자세로 끝까지 지조를 지키게 할 것이다.⁴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신앙전력화는 ‘각 장병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앙심을 기반으로 하여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장병이 필승의 신념과 순교적 각오로 국가방위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도록 조직화된 상태’라고 집약된다.

나. 신앙전력화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어록 분석

(1) 주요 어록

이제 신앙전력화의 개념에 견주어 신앙전력화를 지향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어록의 면면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종교인의 신앙심과 사명을 존중하면서, 종교가 국가의 국난극복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

종교는 각기 그 자체가 지닌바 본래의 사명이 있지만 국가로서는 각자 신앙을 통하여 인격도야에 정진하고 국민도의를 향상시키고 민족 단결에 기여하여 가장 애국애족의 지성을 발휘할 것이

43) 육군본부, 『정신전력강화법』(서울: 대한공문사, 1974), 14.

44) 유경상, *op. cit.*, 26. 유경상은 정신전력을 구성하는 8개 요소들로 “정의감, 충성심, 이념에 대한 의식, 멸공정신, 용맹성, 적극성, 책임감, 공익성”을 꼽는다. *Ibid.*, 29.

45) *Ibid.*, 27.

요, 현하시국에 있어서는 반공의 선봉을 자임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종교의 진정한 용성은 곧 국가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민족문화의 창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국난에 제하여는 법의도 전선에 나섰고 불의의 일제탄압에 대하여는 항거와 혼연취사(欣然就死)의 거룩한 정신을 보여 주었음은 국민의 감명하는 바이다.⁴⁶⁾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이기는 승공(勝共)의 직접적인 첩경은 적극적인 정신무장에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근대화하고 통일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힘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 기초를 닦고 군사적 방패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투철한 반공이념의 양양과 자주적 정신자세의 확립 없이는 이 거창한 과업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그 방위에만 급급했던 지난날의 소극적 반공을 지양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몰아내는 적극적인 승공의 자세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⁴⁷⁾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성숙이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

명량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은 조국근대화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밝음이 없고,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조국근대화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실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회의 건설은 믿음의 인간관계와 문화의 순화와 발전, 미풍양속의 민족전통의 계승, 사회봉사와 협동의 시민성, 교육된 시민의 고도의 상식과 교양, 그리고 강건한 시민의 체력 등

46) 대통령 비서실 편, “종교계 정화에 대한 담화(1961. 11. 8),” 『박정희장군담화문집』(서울: 대통령비서실, 1962), 98.

47) 대통령 비서실 편, “제10회 반공학생의 날 치사(1966. 11. 2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2집』(서울: 대통령비서실, 1967), 446.

이 모든 사회역량의 결합과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⁴⁸⁾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을 모티프로 삼아 조국근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질 것을 역설한다.

그리하여 먼 훗날 소가 밭을 가는 오늘의 현실을 아득한 전설이 되게 합시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⁴⁹⁾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희생정신이 와해되고 국민의 정신력이 해이해지는 것은 나라가 쇠잔해지는 요인이 되기에 신임 장교들을 향해 '생명을 건 국가방위'에의 사명감을 호소한다.

군인의 길은 대의 앞에 감히 생명을 바치는 희생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젊은 사관들이 이미 삶과 죽음을 초극하여 무인의 길을 택했음은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기를 작정한 까닭입니다. 뜻 깊은 이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건 국가 방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돌이켜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지난날 쇠잔의 역사는 요컨대 국방의 충실을 기하지 못한 피해의 연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당하여 이를 막아내지 못한 결과가 우리가 물려받은 치욕의 유산 그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정신이 해이하고, 자체 역량이 미흡할 때는 언제나 침략의 기회를 허여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⁵⁰⁾

48) 대통령 비서실 편, "1967년도 대통령 연두교서(1967. 1. 1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4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68), 53.

49) *Ibid.*, 57.

50) 대통령 비서실 편, "1968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68. 2. 2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5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69), 97-98.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방의 주체성'을 의식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정신적 책무임을 환기시킨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방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안녕을 위한 국방 과제는 오직 자신들의 책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모름지기 남에게 의존해온 타성으로부터 탈피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북괴의 지역적 도발 행위는 우리의 힘으로 철저히 분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괴의 침략 기도를 놓고 추호도 당황하는 일 없이 끝끝내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침착 냉정히 직무 완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⁵¹⁾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고난의 십자가'라는 모티프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동시에 자유를 지키려는 신념과 자유우방국의 단결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물리치는 길임을 호소하며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1968년 12월 25일
친애하는 유엔군 장병 여러분! 멀리 고국을 떠나 자유의 전초지인 이 땅의 병사에서 성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유엔군 장병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병 여러분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성탄절이 더욱 거룩하고 뜻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감사와 축복은 가장 진실하며 고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어느 때보다도 포악한 방법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진영 국민들의 보다 공고한 단결력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

51) *Ibid.*, 99.

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노력하는 여러분의 사도적 노고는 훗날 반드시 영광스런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모든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땅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운 날이 되기 바라며, 더 많은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⁵²⁾

박정희 대통령은 제3사관학교 개교식에서 신앙전력화의 요인인 조국애와 부단한 연속적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고 사명감을 배양하여 유능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기원한다.

먼저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을 보위하는 애국 애족의 정신에 투철한 전통을 이 학교에 뿌리박아야 하겠습니다. 불타는 조국애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정화이며 이러한 드높은 희생정신 위에 군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택한 군인의 길은, 한 인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의 의지력의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과 긴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힘겨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때로는 생에 대한 애착과 가정의 행복을 뒤로 하고 오직 국가의 요구와 민족의 부름에 따라 생명을 초개같이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부단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야 하며 그러한 정신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승의 신념과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이 투철한 '사명감'의 발로이며, 군인 정신의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습니다.⁵³⁾

박정희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스스로를 연마하며 나라와 겨레를 사

52) 대통령 비서실 편,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메시지(1968. 12. 25)," *Ibid.*, 416.

53) 대통령 비서실 편, "제3사관학교 개교식 유시(1969. 3. 1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6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0), 85-86.

랑하고 생명을 바쳐 군인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정신이 박약한 군대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하나의 미완성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학도로 자처하여 배우고 익히고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장래에 대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격전에 피로한 몸으로서도 한 줄기 등잔불 앞에서 병서를 탐독하여 국난 극복의 힘을 축적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교육자로서, 훌륭한 해군사관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 청년 장교보다도 앞서 나가고, 우리 해군을 어느 나라 해군보다도 우수한 해군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여러분의 심혈을 경주해야 하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줄 아는 군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겸전했다고 해도, 조국을 위한 일편단심과 애국 애족의 거룩한 희생정신이 없는 군인은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러한 정신이 박약한 군대는 전승의 영광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군인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몸과 행실로서 실천하였고, 죽음을 초월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⁵⁴⁾

박정희 대통령은 자립과 번영을 이루고 생존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속함에 있어 감당해야 할 시련이 크지만, 그 시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됨을 확신한다는 그의 신앙전력화적 내적 사유(思惟)를 전한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국군의 정예화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며, 250만 향토 예비군 여러분은 내 고장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조국 근대화 작업을 위해서 경제 개발과

54) 대통령 비서실 편, "제23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69. 4. 8)," *Ibid.*, 99-100.

국토 건설에 혼연 일체가 되어서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일면 국방·일면 건설, 자주 국방과 자립 경제 달성, 이것이 오늘에 우리가 해야 할 지상 과제요, 지상 목표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승공의 길이요, 나아가서는 조국 통일의 길입니다. 하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그 민족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 시련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족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⁵⁵⁾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기독교 리더십의 책무가 공산주의로부터 신앙과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데도 있음을 환기시키며, 자유와 박애 그리고 인간 이성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아시아’ 우방 국가들이 승공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반공 기독교인들의 단결과 노력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가 항상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서서 사랑과 봉사, 그리고 희생과 투쟁의 눈부신 업적을 쌓아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독교의 공헌은 계속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약 이백년 전 우리의 개화기에 전도된 이래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 국민 선도와 계몽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일제하에서는 숭한 희생을 치르며 독립 항쟁 운동에 앞서는 한편, 육영 봉사 활동을 통하여 유능한 국가 사회의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또한, 6·25 동란기에는 대공 전선에서, 또는 전후의 복구 구호 활동에서 크나큰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공헌과 기여는 바로 기독교의 박애 정신, 그리고 인간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기독교 교리의 구체적 실현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내의 기독교 반공 지도자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자유를 부인하는 것을 기본 교조로

55) 대통령 비서실 편, “제21회 국군의 날 유시(1969. 10. 1),” *Ibid.*, 234.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종교를 말살하고 교회와 교인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며, 전통적인 정신과 문화를 파괴하고, 진리와 건전한 사상을 배격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무수한 범죄들을 자행해 왔으며, 그들의 침략 근성은 항상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적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만행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는 일은, 우리 전 세계 자유민들의 공통된 사명이요 책무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공산 적침의 위협이 가장 절박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고 한다면 자유와 박애, 그리고 인간 이성의 승리를 위한 기독교의 사명 수행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곳도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⁵⁶⁾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와 마음의 행동을 연결시키면서, 평화를 원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평화나 긴장 완화란 것은, 결코 선전이나 구호만 나열한다고 해서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성의 있게 취하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⁵⁷⁾

박정희 대통령은 국력의 밑바탕에도 정신력이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국력은 결코 일조일석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되겠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도전이 있더라도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불굴의 용기가 있어야 하며, 어려움을 참을 줄 아는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력이 밑받침되어야만 참다운 경제력, 국방력, 나아가서는 우리의

56) 대통령 비서실 편, “제6차 아시아기독교반공대회 치사(1970. 4. 8),”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7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1), 265.

57) 대통령 비서실 편, “제22회 국군의 날 치사(1970. 10. 1),” *Ibid.*, 273.

국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력은 투철한 우리 민족의 자주 정신과 민족의 주체 의식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⁵⁸⁾

박정희 대통령은 ‘스파르타의 한 용사의 어머니’를 예로 들며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장병의 정신력을 강조하고 독려한다.

옛날 ‘스파르타’의 한 용사가 출전하기에 앞서 자기의 창이 적의 창보다 짧다고 불평을 하자 그 어머니는 “짧으면 그만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을 찌르면 된다”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처럼 군사의 수나 무기의 열세를 강인한 정신력과 창발적인 전기 전술로 보완하여 대적을 무찔렀던 위대한 전승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더라도, 장병의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장비와 시설이 부족하니 적을 막을 수 없다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가장 배격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⁵⁹⁾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과 겨레를 위한 군의 한결같은 충성심과 투철한 희생정신은 올바른 국가관과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초석이 되며, 올바른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도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의 국력을 조직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진중하게 촉구한다.⁶⁰⁾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항상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정신자세’를 견지하되 지휘관

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을 가다듬어 “순국정신을 신앙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의 하나가 완벽한 해상 방위 체제의 구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오직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 애족의 충성심으로 철통같이 단결하여 ‘항재 전장’의 정신 자세를 견지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막강한 전투력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수나 함정의 다과로써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승의 요체는 어디까지나 군의 정신 전력에 있습니다. 즉 군이 얼마만큼 군기가 확립되어 있고 사기가 왕성하며, 또한 필승의 신념으로 뭉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지휘관은 바로 이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지휘관은 우선 조국을 위해 언제라도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결연한 사생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휘관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곧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순국 정신을 신앙화하고 숭선수범 이를 실천해 나갈 때에 군의 정신 전력은 일층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나는 이 충무공 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세대, 특히 해군의 지휘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바르게 계승하고 길이 가꾸어 나가야 할 ‘민족의 얼’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⁶¹⁾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용감하고 유능한 지휘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조국애, 그리고 명예와 책임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기를”⁶²⁾ 촉구한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은 정신 병력(兵力)의 원천으로서의 정신전력의 개념을 이렇게 압축하여 선언한다.

58) 대통령 비서실 편, “4·27 대통령 선거 대전 유세 연설(1971. 4. 10),”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8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2), 208-209.

59) 대통령 비서실 편, “1972년도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중앙회의 유시(1972. 1. 2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9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3), 74.

60) 대통령 비서실 편, “국군의 날 유시(1972. 10. 1),” *Ibid.*, 307-308.

61) 대통령 비서실 편, “1974년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74. 4. 9),”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1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5), 136-137.

62) 대통령 비서실 편, “제32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76. 3. 2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3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7), 84-85.

일찍이 임진왜란 때에 의병 대장으로 순국하신 조헌 선생은 적군과의 대결전에 임하여 “오늘은 한 가지 죽음이 있을 뿐 사생과 진퇴에 있어 추호도 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고 장병들을 독려 한 바 있습니다. 나는 간단명료한 이 한마디야말로 제군들이 명심해야 할 군인 정신의 귀감이자 지표라고 믿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대의 앞에 신명을 다 받치겠다는 희생정신, 죽기를 한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생관과 필승의 신념, 이것이 참다운 군인 정신이요,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나라는 뜨거운 전우애와 엄정한 군기, 그리고 왕성한 사기는 바로 군의 단결과 정신 병력의 원천인 것입니다.⁶³⁾

(2)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 신앙전력화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어록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전력화를 지향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숙고와 내면의 통찰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방위 측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가 담긴 주요 어록들은 ‘종교계 정화에 대한 담화, 반공학생의 날 치사, 대통령 연두교서, 각 군 사관학교 졸업식 유시, 유엔군장병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메시지, 국군의 날 유시, 아시아기독교반공대회 치사, 대통령선거유세, 예비군 관계관 유시’ 등 국정을 돌보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진되었다. 다양한 국정 상황에서 피력된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에 대한 어록은 신앙심을 통한 정신전력강화를 이루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신념이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된다.

둘째, 인간의 내적 정서적 차원에서 신앙전력화와 관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어록들은 그의 내면에 충일한 애국충정을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통시적 측면에서 신앙전력화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는 끝없는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비태세가 정신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지혜의 통찰이다. 이는 아랍의 위협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월남의 패망이 시사해주는 바와 같이 아무리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결코 진정한 승리를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교훈을 외면할 길이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확신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실적 측면에서 신앙전력화와 관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숙고는 6·25전쟁을 기점으로 계속되는 북한 공산주의의 무력 도발의 만행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극복하며 자주국방을 이루는 길은 강력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정신무장에 있음을 확신하는 지도자의 신념의 발로(發露)이다. 이는 무형전력의 실제적 측면에서도 신앙전력화를 통한 조국애와 정신력을 함양하는 것이 군인에게 부여된 국가안위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 직면하는 시련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결정적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신전력강화 측면에서 신앙전력화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강조는 정신전력을 구성하는 8개 요소들(정의감, 충성심, 이념에 대한 의식, 멸공정신, 용맹성, 적극성, 책임감, 공익성)을 두루 포괄한다. 이는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정신력의 수준 여하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관조하고 꿰뚫는 이성적 통찰이라고 사려 된다.

63) 대통령 비서실 편, “제14기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77. 9. 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4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8), 155-156.

종합적 견지에서 볼 때, 신앙전력화와 관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어록들은 국가안보와 나라발전의 밑바탕에 신앙인의 사명과 역할이 존재한다는 그의 기본인식에 기인한다. 신앙전력화를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적 정신적 성숙이 국가안위와 조국 근대화의 관건이며 순기능을 다한다고 깊이 인식한 지도자이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그의 내면 깊이 자리한 신념과 통찰과 리더십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시대사적 과제요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국정방침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판단된다.

다. 신앙전력화 추진과정

(1) 신앙전력화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취한 조치

『전우신문』은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군종감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하사한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신앙심을 통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육군본부 군종감실에 내렸다. 육군은 이 휘호를 군종활동의 지표로 삼고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사생관을 정립하여 초전필승을 향한 정신전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즉각 이 휘호를 원본의 크기와 같이 복사하여 전후방 각급부대 군종실무자들에게 배포, 신앙심을 통한 정신전력의 강화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 육군은 많은 장병들이 각기 자기의 의사에 따라 예수교·불교·천주교 등의 신앙을 하나씩 믿고 있다. 이 종교활동을 통해 국가관의 확립과 인격지도를 통한 장병들의 필승의식 고취 및 선도활동으로 인간관계가 개선되어 나갈 때 초전필승을 향한 전력은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⁶⁴⁾

64) 전우신문, “박대통령각하, 정신전력 강화위해 信仰戰力化 휘호하사,” 『전우신문』 1976. 7. 10.

‘표성중’은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신앙전력화를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치들을 이렇게 집약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중 군종목사제도를 창설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 구축을 전군신자화 운동(1970년대)의 일환으로 1인 1종교 갖기를 적극 권장하고, 육군1군지역 대대급 부대까지 현역군종목사를 부임시키고, 진중세례운동을 전개, 진중교회 건축을 활성화시켰다.⁶⁵⁾

『전우신문』과 『기독교연합신문』의 보도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信仰戰力化’ 휘호는 각급부대 지휘관과 군종실무자들에게 신앙전력화를 추진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휘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각급 부대는 기존의 전군신자화 운동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더욱 힘차게 추진했다.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따르면, 육군의 각급 부대마다 ‘진중 합동 세례식, 무의탁 사병위로회, 1인 1종교 갖기, 종교 강연회, 기드온협회를 통한 성경보급, 내무반 교회화 운동, 군종장교 수양회, 한미합동 군목 보수교육,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⁶⁶⁾, 진중 종교 시설물(교회, 성당, 법당) 건축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1982년 진중 전(全) 종교시설에 태극기와 병과기를 비치했다. 또한 ‘군인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정’(1979. 4. 16. 국방부 313호)에 의거하여 군종장교들에게 1981년 1월부터 군종수당을

65) 표성중, “역대 대통령, 군종제도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나?” 『기독교연합신문』 2009. 3. 2.

66) 문체 사병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0일간 정신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귀대하는 것을 군 지휘관들이 보고, 군목들을 통해 가나안 농군 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었다. 1971년 육군본부에서 정식으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비 55만 원을 책정했다. 육군본부는 이를 각 부대에 할당하여 1회 150명 입소토록 하였고(연인원 8,800명 수료), 1974년 11월 20일 ‘군종감 참모서신 4호’로 전 부대에 실시토록 현장 지시하였음. 수도사단의 경우 1974년 7월부터 사단 자체 가나안 농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단장 김중구 소장은 군종참모 김순권 소령을 교육대장으로 하여 구대장(김석영 군목, 양희선 군목)을 세우고 ‘부사관, 내무반장, 전입장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일반참모’등 전 부대원들로 하여금 가나안 농군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백창현 편, *op. cit.*, 126.

지급하여 군종장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켰다.⁶⁷⁾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휘호 하시는 열화와 같은 전군신자화 운동을 신앙전력화 운동으로 승화시켜 전·평시 군종활동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무형전력을 향상시키고 조국근대화와 나라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촉진시켰다고 판단된다.

(2)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과정

이미 앞서 언급한 바, 당시 군종장교(목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휘호를 신앙심을 통한 장병정신전력강화를 추진하라는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로 받아들였다. 『陸軍軍宗史 第二輯』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다.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大統領 각하께서는 信仰心을 통한 將兵들의 精神 戰力 強化를 위해 “信仰戰力化”라는 揮毫를 當監室에 하사하셨다. 軍宗兵科는 이 휘호를 指標로 삼고 將兵들에게 國家觀과 死生觀을 定立하여 초전필승을 향한 精神戰力 強化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이 휘호가 하사되자 全 軍宗將校들은 물론 信者將兵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켜 信仰戰力の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⁶⁸⁾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제14대 군종감 문은식 목사(1975. 10. 5~1977. 10. 5)의 복무방침에 명시되어 있다.

제14대 군종감 복무방침

1. 목표: 신앙전력화(멸공투사로 책임을 완수하는 장병 육성)
2. 방침:
 - 가. 신앙으로 국가관 확립

67) 백창현 편, *Ibid.*, 115-132.

68) 육군본부, 『陸軍軍宗史 第二輯-팜플렛 165-24』(서울: 육군본부, 1984), 83.

- (1) 야전중심의 종교활동
 - (2) 신앙의 생활화
 - (3) 군종교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 (4) 적극적인 신앙운동으로 소명의식 고취
- 나. 군종교육으로 필승의 신념 고취
- (1) 인격지도 교육으로 가치관 확립
 - (2)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내실화
 - (3) 간부교육으로 솔선수범 자세 확립⁶⁹⁾

이상에서처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신앙전력화 휘호를 전수받기 전년(前年)에 14대 군종감으로 취임한 문은식 목사가 발표한 ‘군종감 복무방침’의 목표는 ‘신앙전력화(멸공투사로 책임을 완수하는 장병 육성)’이었다. 이는 한국군 내에 신앙전력화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제15대 군종감 오석용 목사(77. 10. 5-79. 10. 4)의 복무방침 또한 강력한 신앙전력화를 추진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⁷⁰⁾

문은식 군종감은 『韓國基督公報』에 투고한 칼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信仰戰力化’ 휘호가 군종감의 복무 목표로서 전후방 각급 부대 군종활동의 근무 지표가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역설한다.

본인이 병과의 지표로 설정한 신앙전력화가 지난해 6월 26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 격려의 휘호를 내려 주신 데 힘입어 전력 위주의 행동 군종상을 대내외에 새롭게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신앙전력화라는 명제를 이제 우리 군종병과의 새로운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신앙전력화란 바로 장병들의 신앙심을 전투력으로 또는 순교적 신앙심을 순국의 정신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슬라

69)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군종50년사』(대전: 육군본부, 2003), 154.

70) 육군본부, 『陸軍軍宗史 第二輯-팜플렛 165-24』, 84. 제15대 군종감 복무방침 / 目標: 強力한 信仰戰力化 추진 / 방침 (1) 宗教活動으로 生死觀 및 國家觀 確立 (2) 教育活動으로 必勝의 信念 및 忠誠心 함양 (3) 善導活動으로 健全한 병營생활 및 戰力極大化 指向 (4) 對民 유대강화로 총력안보에 기여

엘이 6일 전쟁으로 승리할 때 전사자 700명 가운데 반수 이상이 장교들이었으며 여단장급 이상만도 6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반하여 월남전에서는 그 오랜 전투 속에서도 월남군 장성은 하나도 희생되지 않았다고 하니, 근본적으로 정신자세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자세의 차이가 한 나라는 수십 갑절로 영토를 확장시켰고 한 나라는 조국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력신장이나 전략무기의 현대화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이념무장과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기독교가 올바른 복음신앙으로 한국 60만 대군을 정신무장 시켜서 기드온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전력화이며 또 우리 군종병과의 창설의 이념이요 목적이며 현재 우리의 지상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성업의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60만 국군장병이 복음화되어 신앙전력화의 군대가 되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 군종병과가 창설된 것이며 존재하는 것이며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⁷¹⁾

신앙전력화의 추진과정은 문은식 군종감이 '1976년도 군종병과의 업무성과'에 대해 『韓國基督公報』에 기고한 글에 잘 드러난다.

지난 한 해 동안 몇 가지 주요한 업무실적을 더듬어 본다면 우선 군인교회 신축으로서 제3사관학교 군종센터건립을 비롯하여 21동의 군인교회를 건립한 바 그 소요 예산이 2억 5천여만 원으로서 전례 없는 건축업적을 이룩한 것입니다. 또한 신앙전력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군종장교와 교계 저명한 종교지도자를 강사로 313회의 멸공종교강연을 실시한 바 병력비 69.5%의 장병들에게 종교적 멸공 이념을 무장시킴으로 신앙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상담 및 선도 활동 등 예방 군종활동의 강화로 전 년도에 비하여 각종 사고가 9%나 감소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활동과 특히 군종 요원들의 내무반 종교활동 강화로 전년도보다 5%의 신자 증가를 보아 현재 61.4%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⁷²⁾

71) 문은식, “信仰戰力化 구현에 拍車” 『韓國基督公報』 1977. 2. 14.

72) *Ibid.*

이상에서 보듯 신앙전력화를 목표로 전개된 '1976년도 군종병과 업무성과'는 군인교회 건축과 장병들의 이념 및 정신무장 강화, 장병상담을 통한 사고예방, 내무반 교회화를 통한 신자 증가 등으로 대별(大別)된다. 이는 신앙전력화 추진과정의 진면을 드러낸다고 사려 된다. 곧 한국군 신앙전력화는 각급부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신앙의 요람인 진중교회를 건축하여 신앙전력화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믿는 자에게 세례(洗禮)를 베풀어 장병 신자화 비율을 높여 나갔다. 동시에 한국군 신앙전력화는 신앙으로써 공산주의를 이기는 필승의 정신무장에 집중했다.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여 비전투 손실을 줄이고 내무반 교회화를 통해 전우애와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부대의 무형전력을 비축하고 전승 의지를 고취하는 군종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For God, For Country) 신앙전력화를 추진해나갔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진중군인교회 건축과 세례 예식 집행, 필승의 정신무장, 사고예방, 전우애 함양과 사기양양' 등이 부대 지휘관의 협조와 적극적인 군종활동과 전군신자화 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군복음화후원회와 한국교회의 사랑의 후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집약된다.

정리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국가 안위와 조국 근대화를 이루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사적 통찰과 애국충정의 발로로서 한국군을 통해 구현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북한 공산주의를 사상적 정신적으로 이기는 첩경이 신앙에 의한 정신무장밖에 없다는 군 지휘관들의 인식적 공감 하에 이루어졌다. 이는 군종목사들의 헌신적 직무수행과 한국

교계의 전폭적인 후원이 어우러진 전군신자화 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휘호 하사를 계기로 신앙전력화 운동으로 특화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4. 신앙전력화 추진 성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보자.

가.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의 당위성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신앙을 통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켜 전군을 조국애와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여 나라를 지키는 무형전력을 구비해야 하는 당위성이 함축되어 있는 정책이다.

신앙이 주는 정신적 힘과 가치를 익히 인지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애와 사명감’을 소중히 여기는 군인의 정신을 이렇게 제시한다.

먼저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을 보위하는 애국 애족의 정신에 투철한 전통을 이 학교에 뿌리박아야 하겠습니까. 불타는 조국애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정화이며 이러한 드높은 희생정신 위에 군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군인의 길은, 한 인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 의지력의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험과 긴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힘겨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때로는 생에 대한 애착과 가정의 행복을 뒤로 하고 오직 국가의 요구와 민족의 부름에 따라 생명을 초개같이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부단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야 하며 그러한 정신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사

명감을 가진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승의 신념과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이 투철한 ‘사명감’의 발로이며, 군인 정신의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젊음의 정열과 패기를 오직 국토 수호에 바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이기에 남다른 각오가 서 있을 줄 믿지만, 다시 한번 뜨거운 조국애와 사명감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⁷³⁾

신앙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김기태에 따르면, 나폴레옹(Napoleon)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 곧 무력과 정신력밖에 없는데, 무력은 정신력 앞에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튼(G. S. Patton)장군은 “전쟁은 무기로써 싸워질지 모르나 인간에 의해서 승리한다. 승리를 얻는 것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위 나폴레옹이나 패튼의 연설은 군대가 갖추어야 할 전력 중 정신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 승리 요인임을 강조한다.⁷⁴⁾ 이런 면에서 신앙은 보다 높고 귀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마음의 의지요 위로요 힘”이다.⁷⁵⁾

‘크리스토퍼 도슨’(Christopher Dawson)에 따르면, 이데올로기가 신앙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신앙은 이데올로기와 다르다.

이데올로기는 의도적인 정치적 의지가 사회적 전통을 그것의 목적에 주조하게끔 시도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신앙은 인간의 세계와 그 너머를 본다. 신앙은 인간을 국가와 경제의 질서가 예측하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세계보다 더 높고 더 우주적인 세계를 소개한다. 신앙은 인간의 사회적인 문화의 역사적인 운명과 함께 내적 경험에 대하여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영향을 가지게

73) 대통령 비서실 편, “제3사관학교 개교식 유시(1969. 3. 17),” 85-86.

74) 김기태, *op. cit.*, 159-160.

75) *Ibid.*, 191.

할 만한 영적 자유의 요소를 인간의 삶에 소개한다. 더불어 신앙은 타(他)세계적이고 인간 사회의 모든 가치들과 기준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라도 문화에 대하여 역동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사회변화의 움직임에 이끄는 힘을 제공한다.⁷⁶⁾

군인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미군의 상징인 웨스트포인트 교회를 소재로 하여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조명한다.

웨스트포인트는 작은 구릉 위에 드높이 솟아 평지를 위압하고 있는 고딕풍의 커다란 회백색 예배당으로 상징 된다. 그것은 군 인정신과 신앙심의 통일에 관하여, 헨리 아담스가 ‘몽세미첼’(Mont St Michel)에서 행한 말이 상기된다. 이 예배당의 통일성은 위대하기조차 하다. 여기서의 사회의 4대 기둥인 육군, 정부, 대학,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신앙은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신에게 종속시킨다.⁷⁷⁾

신앙과 정신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군인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강인한 정신전력을 갖추는 관건이다. 특히 ‘성종현’에 따르면, 크리스천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와 신앙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인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앞장선다.⁷⁸⁾ 바로 이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76) 크리스토퍼 도슨, 『선교와 서구문화의 변혁』,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11. 도슨은 신앙의 변혁적 힘을 이렇게 강조한다. “서방에서 영적인 힘은 중국의 유교적 국가체제와 인도인의 카스트제도처럼 성스러운 사회적 질서 속에서 비기동화(非機動化)로 고정되지 않았다. 영적인 힘은 사회적 자유와 자발성을 획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앙의 활동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리어 신앙은 사회적이고 지적인 삶의 모든 국면에 널리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Ibid.*, 12.

77) 사무엘 헌팅턴, 『군인과 국가-민군 관계의 이론과 정치』, 강창구 역 (서울: 병학사, 1997), 493.

78) 성종현, “기독교 신앙과 군생활에 대한 신약신학적 고찰”, 『軍宣敎神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선교부 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12.

신앙전력화 추진 정책에는 신앙을 통한 한국군의 정신전력 강화의 당위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나. 한국군과 민군연합의 총력안보 공감대 형성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한국군 내에서 두 가지 중대한 변화를 수반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교계에서도 매우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군종목사들의 군종활동은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신앙전력화를 이루는 데 매진하고 한국 교회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명 공유’가 공고한 총력안보태세를 이루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크리스찬신문』은 “군복음화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기사에서 “신앙전력화의 목적이 새사람을 만드는데 있다”는 문은식 군종감의 전언을 이렇게 소개한다.

초창기보다 훨씬 군종활동이 정립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누구나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일선 군목들과 군종사병들의 전군복음화에 대한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신앙의 전력화는 군인의 필수적 요소임을 절감하게 됐다. 신앙의 전력화란 첫째, 새사람을 만드는 인격적 요소를 내포한다. 정신교육과 지식교육은 새사람을 만들 수 없지만 신앙으로 새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 하에서 신앙전력화는 시작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신앙만이 바로잡고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원천은 신앙에 있다. 셋째, 용기가 필수요소인 군인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육군 군종활동의 지표는 신앙전력화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전력화는 단순히 군목에게만 그 임무수행을 맡겨서는 안되며 모든 교회가 물심으로 지원해야 한다.⁷⁹⁾

79) 크리스찬신문 편집실, “軍福音化는 時代的 要請” 『크리스찬신문』, 1977. 3. 26.

『韓國 基督公報』는 “6·25戰亂에 태동한 軍宗制度”라는 기사에서 6·25전란에 자원한 중군목사(從軍牧師)들의 투혼처럼 신앙전력화를 감당하는 군종목사들의 군종활동과 사명완수에 전력을 다한 사명을 이렇게 촉구한다.

육군, 공군, 해군을 막론하고 각 부대에서는 ‘전군신자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신앙을 통한 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후방의 교회에서도 이에 뜻을 같이해 군선교에 크게 호응하고 있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 6·25당시의 생생했던 군목활동을 재2대 육군군종감을 지낸 박 있는 ‘박치순’ 목사는 “군인신분 아닌 무보수촉탁으로 군 업무를 맡으며 선교활동을 하자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러나 죽음을 불사한 사명감으로 임한 그들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고 오직 사명감에 불타 봉사했던 당시 군목들의 희생적 모습을 역설했다...고지 탈환 시 전날 밤 한마음으로 예배보고 찬송을 부른 다음 그 다음날 야군의 큰 피해 없이 무사히 탈환할 수 있었음은 기도의 힘을 통한 용기의 결실이었다... 이제 29년이 지난 오늘의 군종제도는 안정된 가운데 보다 많은 군 신앙전력화에 정진하고 있다...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군목의 사명감을 재다짐하고 차별하게 군 신앙전력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⁸⁰⁾

전군신자화후원회 발기(發起)를 주도한 한경직 목사는 한국군의 ‘이성, 양심, 그리고 영혼’에 정신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이성을 통한 사상무장은 유물론적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멸공이념을 확립하고, 성서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를 절대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사상에 투철할 때 선명한 국가관과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

80) 한국기독교공보 편집실, “6·25戰亂에 태동한 軍宗制度” 『韓國基督公報』 1977. 6. 23.

양심을 통한 도덕무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청렴한 군인상을 정립하고, 전장윤리가 확고하며 정의로운 전쟁목적과 정당한 전쟁수단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전쟁의 결과가 승전국이나 패전국 국민에게 함께 평화와 이익을 주는 그런 전쟁담당자가 되게 한다.

영혼을 통한 신앙무장은 전장의 주역들인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뿐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쟁에 공포감이 없이 임하게 한다.⁸¹⁾

김기태는 정신전력을 제고하는 군종활동의 요체를 이렇게 정리한다.

종교활동으로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사생관을 확립하며, 교육활동으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고, 선도활동으로 건전한 병영생활을 하게하고 전력저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신전력에 기여한다.⁸²⁾

이상에서 보듯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대해 일선 군종목사들과 한국교회가 일심으로 매진한다. 이는 신앙전력화 추진이 군내부의 과업만이 아니라 한국 교계사회의 중요한 ‘어젠다’(agenda)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종목사들의 군종활동이 한국군의 신앙전력화뿐만 아니라 한국교계의 발전에 매우 기여하는 직무수행임을 방증하는 함의를 지닌다고 사려 된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진중 종교시설(교회, 성당, 법당) 건축을 촉진시켰다. 『군종16년약사』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81) 한경직, 『내일을 사는 인생』 (서울: 목양사, 1978), 17. 김기태 *Ibid.*에서 재인용.

82) 김기태, *op. cit.*, 229.

총 18곳 부대에 군인교회가 신축되었다.⁸³⁾ 그런데 『육군군중사』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군 종교시설 현황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표3 1970년대 군 종교시설 현황〉⁸⁴⁾

	1970	1971	1972	1973	1974	1976	1977	1978	1979	1980
교회	172	197	211	226	257	281	273	274	279	298
성당										18
법당		10	14	21	27	34	39	46	50	56

신앙전력화를 이루려는 군종목사들과 진중군인교회 건립을 돕는 한국교회의 열정과 헌신은 감동 그 자체이다. 특히 『教會聯合新報』에 실린 “信仰軍人の 요람 第三士官學校 忠誠堂教會 헌당식 견문기”는 신앙전력화에 대한 그 당시의 정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전 장병을 신앙군인으로 만들어 인류의 적인 공산당을 무찌르고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군중센터를 만들고 충성당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黃時永 육군 소장의 말은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였다. 지난 9월4일 오후 3시 이 나라 국군의 중견 지휘자를 양성하고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넓은 교지 북동권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큰 건물 軍宗센터의 충성당교회의 헌당식,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전세내서 세대에 가득한 내빈과 대구 영천지방에서 헌당식에 초대된 내빈만 300여 명, 학교사관생도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예배가 진행되었다. ...최찬원 중령 목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보고는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76년 1월 10일 황 장군의 종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중센터건립 발상부터 22일 만인 2월 2일에 육군참모총장 이세호 장군의 참석

83) 육군본부, 『군중16년약사』 (서울: 육군본부, 1967), 23.

84) 육군본부, 『육군군중사 팸플릿 165-24』 (육군본부, 1975). 304.

하에 기공식을 가진 뒤, 8월 20일 완공을 보기까지 소요된 공사비는 1억2천만 원에 달했는데, 이 공사비는 모두가 교계 유지교회 주요 신앙인이 경영하는 기업 단체의 헌금에서 이루어졌고 이 헌금에 협조한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며 이를 거두기 위해 담임목사는 48만km 12만여 리를 여행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대중을 이루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신앙을 지키고 배양하기 위한 군중센터는 앞으로 우리 국군의 중견지도자가 될 장교후보생인 사관생도들에게 ‘신앙’을 심어 전력을 크게 하자는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를 상징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로 된 자연석에 다듬어진 비석이 센터중심입구에 세워져 있어 한결 빛나고 있다.⁸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한국군과 한국교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추진되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민군연합의 총력안보를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군종목사들은 신앙전력화를 위한 군중활동에 집중하면서 진중교회건축에 적극 헌신하여 신앙전력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는 군 장병들의 신앙을 통한 정신무장을 이루면서 한국교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군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안보와 나라발전을 이루는 정신적 동력으로서의 신앙전력화로 귀결시켰다는 시대적 함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다. 자주국방정책의 기축 토대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한국군의 ‘국방의 주체성’, 곧 독자적 무형전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85) 教會聯合新報, “신앙군인의 요람 제삼사관학교 충성당교회 헌당식 견문기” 『教會聯合新報』 1976. 9. 19.

안보를 지켜내는 자주국방정책(Self-Reliant Defence Policy)의 기축(基軸)토대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방의 주체성을 의식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방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안녕을 위한 국방 과제는 오직 자신들의 책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모름지기 남에게 의존해온 타성으로부터 탈피되어야만 합니다. 또 이러한 주체성의 확립만이 민족의 산 보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북괴의 지역적 도발 행위는 우리의 힘으로 철저히 분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괴의 침략 기도를 놓고 추호도 당황하는 일 없이 끝끝내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침착 냉정히 직무 완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⁸⁶⁾

‘이경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2월 7일 경남 하동에서 경전선 개통식 때 행한 연설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밝힌다.⁸⁷⁾ ‘김종휘’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정책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1977년 미국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향후 4~5년 내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경우 “우방의 능동적인 안보협력을 안이하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수준이 자주국방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

86) 대통령 비서실 편, “1968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1968. 2. 27),” 99.

87) 이경수,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自主國防’政策 비교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56.

이다.⁸⁸⁾ 김종휘는 자주국방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과 신념을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한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 자주국방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장기적인 평화통일과 연관된 구상이다. …둘째, 한국의 자주국방은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0년대 초까지 북한의 단독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셋째, 자주국방은 필승의 신념과 총력전 결의로 굳게 무장된 정신전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데 있다.⁸⁹⁾

‘서규화’의 분석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자주국방과 관련한 첫 번째 과제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경계하여 미국에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자주(自主)”에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대북 열세(劣勢)를 서둘러 극복하여 만일 한미공조가 순탄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력(自力)으로라도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⁹⁰⁾ ‘한용섭’은 한 나라의 자주국방 요건은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자주적 군사력 사용권’, 그리고 ‘자주적 방위능력 육성’에 있다고 지적한다.⁹¹⁾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자주국방의 주요 지지대인 무형 전력을 구축하는 정책으로서 ‘자주적 방위능력 육성’을 위한 결정적인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인 이스라엘의 경우를 예로 삼아 북한의 공세와 위협을 이겨내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정신적 자세와 결심을 강화하자고 이렇게 호소한다.

88) 김종휘, “自主國防,” 『民族과 함께 歷史와 함께 朴正熙大統領-그人間과 思想』(서울: 서울신문사, 1978), 175-176.

89) *Ibid.*, 176-179.

90) 서규화, *op. cit.*, 23.

91) 한용섭 편, 『자주나 동맹이나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서울: 오름, 2004), 21.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화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화 하여, 적의 도발 행위에는 과감하게 대결하면서, 일방으로는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조금도 당황할 것이 없습니다. 250만 인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1억이 넘는 '아랍' 국가와 대결해서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꾀없이 견디는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천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가 결의와 각오만 단단하다면 북한 괴뢰 정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남은 해내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 자세와 결심에 달렸을 뿐입니다.⁹²⁾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있어 젊은 세대들의 결기와 책무가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킨다.⁹³⁾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각성과 연마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정신적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갖자고 촉구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주국방 즉 우리의 국토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침략이나 도발을 우선 우리 힘으로 막겠다는 결의와 준비가 없이 남이 막아 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커다란 불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 6·25 동란 때, 이 땅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 중 참전 16개 우방들의 지원에 대해서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맹이요 우방인 미국은 우리와의 전통적인 우의와 한·미 방의 조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92) 대통령 비서실 편, "1967년도 대통령 연두교서(1967. 1. 17)," 118.

93) "자주 국방이란 다름 아닌 이 나라 젊은 세대의 힘입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학업에 힘쓰는 한편, 군사 훈련에 힘쓰으로써 현대전에 승리할 수 있는 지식과 군사 양면을 겸비한 유능한 국군 간부가 계속 배출되는 한, 이 나라 국토방위는 나날이 현대화, 강군화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편, "학도 군사 훈련단 임관식 유시(1968. 3. 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5집』, 122.

우리가 또 다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방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인 것이며, 우리의 국토는 우선 우리가 지킨다는 우리의 자주적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방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⁹⁴⁾

이상에서 살핀 바, 국방의 주체성 곧 자주국방을 이루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열렬한 의지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신앙을 가지고 신명을 다해 나라를 방위하는 애국애족의 장병이 되게 하는 신앙전력화 추진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는 강력한 무기로써 군사전력증강을 이룬다고 해도 국가안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군장병들의 사생관이 확립되지 않고 필승의 전투의지가 굳건하지 않다면 승리를 쟁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한 치의 땅도 침략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는 국민총화(國民總和)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통전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앙심 함양을 넘어 신앙을 통해 국군의 정신무장과 자주국방을 이루는 기축(基軸)토대로서 자리매김한다고 사려 된다.

라. 오늘날 한국군 신앙전력화의 실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군 신앙전력화는 오늘날의 한국군 군종병과의 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자리매김한다.

먼저 신앙전력화는 <국방부 훈령 제572호(1997. 10. 27. 제정)>에 의거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아래의 사항과 같이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94) 대통령 비서실 편, "제22회 국군의 날 치사(1970. 10. 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7집』, 274.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2 “신앙전력화”란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통하여 고양된 신앙심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무형적인 전투력 강화를 말한다.

제2장 군종업무

제4조(기본목표) 군종업무는 종교활동·교육활동·선도활동·대민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제5조(군종의 기능)

① 군종장교가 수행하는 군종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교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을 배양한다.
 2. 장병의 국가관과 병영생활에 대한 가치관 및 윤리관을 확립한다.
 3. 건전한 병영생활과 정신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한다.
 4. 장병 사기진작, 부대 사고예방, 작전지역내 주민들과의 유대강화 등 군종활동에 대해 지휘관을 보좌한다.
 5. 원활한 군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6. 민·군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협력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군종활동을 위한 종교별 공식 후원단체 및 그 후원단체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기타 공공 복지단체와의 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민 활동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종교별 공식 후원단체”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천주교 군종교구·불교 군종특별교구·원불교 군종특별교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1. 종교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2. 민간성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모범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장병 신자관리 및 종교단체와의 부대 결연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중단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병의 신앙심 함양과 신앙전력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종교별 군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⁹⁵⁾

위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전력화는 한국군종병과의 목표이다. 장병의 신앙심을 함양하여 신앙전력화를 이루는 것은 단지 군 내 군종장교의 몫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종교별후원단체의 협조사항이기도 하다. 이점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 신앙전력화를 추진할 때와 같이, 오늘날의 현역 군종목사들과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신앙전력화를 성취해 나가는 것은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직무수행 임을 확증해 준다.

『국방일보』는 신앙전력화를 감당하는 군종병과의 현주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반공사상 계몽 및 신앙무장을 통한 전쟁 승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탄생한 육군군종병과는…우리 군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하며 군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명을 다해왔다. 종교 본연의 진리 추구하고 행복한 삶의 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군의 정신적·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신앙을 통한 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이다. 특히 전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참여해 피눈물을 나누는 동지애를 발휘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앙의 힘으로 영적 자원을 공유케 함으로써 궁극적 승리를 견인하는 사명을 완수했다. 평시에도 활기찬 병영생활과 안전한 병영문화의 기수로서 장병들의 호흡을 가장 가까이서 체득하며 상담자로 때로는 교사로, 건강한 정신생활의 영적인 리더로, 그리고 사생관과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민주적 시민 양성의 향도로, 나아가 영원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성직자로 근원적 사명

95) <https://reform.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30&boardId=I_1198555&boardSeq=o_1000000010539&titleId=null&siteId=mnd&id=mnd_050902000000&column=null&search=>

을 구현하고 있다. 군종병과의 가장 큰 임무는 장병들에게 정신적·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신앙을 통한 전력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군종병과는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신앙심 고취·사생관 확립 등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⁹⁶⁾

특히 아래 <표4>~<표7>에서 보듯⁹⁷⁾ 오늘날 한국군 신앙전력화를 이끄는 군종장교성직자들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현대적인 종교시설 등 제반 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신앙전력화를 추진할 당시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있어 국력신장의 현주소를 실감케 하는 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표4 2020년 기준 군종성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목사	신부	법사	교무
인원	480명	255명	100명	130명	3명

<표5 종교시설 현황> 단위: 동

구분	계	육군/육직	해군/해병대	공군
교회당	1004동	884동	35동	85동
성당	251동	212동	16동	23동
법당	367동	317동	20동	30동
교당	4동	3동		1동

(육군/육직 2002년 기준, 해군/해병대 2012기준, 공군 2020기준)

96) 이석중, “병과, 그것이 알고 싶다(16)육군군종병과” 『국방일보』 2013. 1. 5.

97) 여기 제시된 관련 통계는 광선희 편, 「제4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 2020), 80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데이터를 보충한 것임을 밝힘.

<표6 종교별 장병 신자수 비교 현황>(국방부전수조사 통계 기준 / 2017년 11월)

년도	구분	전체 장병	종교 있음								종교 없음
			소계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무응답	
2012	총인원	630,000	325,808	325,808	180,497	58,754	84,215	1,620	722	•	304,192
	전체 장병(%)	100%	51.7%	51.7%	28.7%	9%	13.4%	0.02%	0.01%	•	48.3%
	종교 장병(%)			100%	55.4%	18%	25.8%	0.49%	0.22%	•	93.3%
2017	총인원	631,000	234,299	230,428	120,468	40,677	60,640	1,131	7,512	3,871	211,424
	전체 장병(%)	100%	37.1%	37%	19%	6.4%	9.6%	0.2%	1.2%	0.6%	33.5%
	종교 장병(%)			100%	52.3%	17.6%	26.3%	0.5%	3.3%	1.6%	91.8%

※2017년 전수조사는 전체장병 631,000명중 445,723(70.6%)만 응답함(5년마다 실시) / 단위 명

<표 7 국방부 기준 4개 종단 민간성직자 종합 현황(2020년)> 단위: 명

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계
육군	511	15	179	15	720
해군	11	0	1	2	14
공군	21	0	4	0	25
국직	4	4	4	0	16
계	547	19	188	17	775

이상의 통계가 말해주듯, 오늘날의 한국군에는 신앙전력화를 위한 제반 시스템이 훌륭하게 구축되었다. 군종장교성직자들과 한국 사회의 각 교계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신앙전력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런데 신앙전력화를 전담하는 군종병과 군종장교와 협력하는 민간성직자들의 군종활동은 군 안팎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시대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

의적 영향으로 인해 장병 대다수가 종교에 대한 관심과 진지함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장병들의 내적 마음 상태가 사회 경향에 편승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팽배해 가며, 장병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심과 군인윤리와 책임정신 또한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한국군 신앙전력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군 군종장교성직자들과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필승의 신념과 확고한 사생관을 확립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신앙전력화된 장병을 양성하는 것은 중차대하고 시급한 한국군의 현실적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진지하게 재인식하고 시대적 환경에 맞는 신앙전력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핀 바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신앙을 통해 한국군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서 군종병과의 지표가 되고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정신적 기축 토대로서 유효(有效)했다.

신앙전력화는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信仰戰力化' 휘호를 육군 군종감에게 내리기 이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위 기제로서의 정신전력강화 방책으로 자리매김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배경에는 내외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자리한다. 외적으로는 만행적인 북한의 빈번한 도발과 월남의 공산화와 같은 국가적 비운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국군의 정신무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내적으로는 아랍의 위협을 이겨내는 현대 이스라엘과 누란(累卵)의 임진왜란에서 살신보국한 이순신 장군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공산주의의 마욕(魔慾)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방력뿐 아니라 필승의 신념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정신전력이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하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리더십이 반영되었다. 여기에 6·25전쟁에서부터 군종활동을 펼쳐온 군종목사들의 헌신적인 임무수행이 장병들의 정신무장과 군내 사고 감소와 민군연합 총력안보의식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군내외의 긍정적 평가 또한 자리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북한 공산주의를 사상적 정신적으로 이기는 첩경이 신앙에 의한 정신무장밖에 없다는 군 지휘관들의 인식적 공감하에 군종목사들의 헌신적 직무수행과 한국교계의 전폭적인 후원이 어우러진 전군신자화 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휘호 하사를 계기로 신앙전력화 운동으로 특화되었다. 특히 한국군의 전군신자화 운동이 승화된 신앙전력화 추진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의 역동적 발전과 변환을 이루는 모멘텀(momentum)을 부여하는 정신적 기제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몇 가지 값진 성과를 맺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한국군의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강화의 당위성을 담보한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신앙전력화 된 국군은 한국사회와 교계로부터 신뢰를 받아 민군총력안보형성으로 귀결시킨다.

셋째,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특정 종교의 신앙심 함양을 넘어 신앙을 통해 국군의 정신무장과 자주국방을 이루는 기축토대로서 자리매김한다.

넷째, 오늘날 한국군의 신앙전력화는 현대화된 진중 종교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자질의 군종장교(군종목사, 군종신부, 군종법사)와 민간 성직자들이 여전히 신앙전력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국사회와 교계로부터 유무형의 신뢰와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작금에 이르러 포스트모더니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병 개개인의 내적 종교성 약화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퇴조 징후는 사회전반부에서 정신적 무장해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종장교성직자들과 군 지휘관들이 합심해서 '신앙전력화'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진중한 충성과 헌신을 다해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자리한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월남의 패망과 거듭되는 북한의 만행으로 곤고해진 한국군의 심란한 심신을 신앙으로써 위로하고 무신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는 정신무장의 기제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군내부적으로 한국군의 정신전력강화와 사고예방, 그리고 평화를 지키며 적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국군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무형적 첩경이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의 인

격으로 무장된 애국시민으로서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선순환기제로서 자리매김한다. 그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무형전력을 강화시켜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연동된 자주적 방위능력 육성에 순기능을 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틀이 되는 정신적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방기(邦紀)로서 자리매김 한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사고 예방과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이루고 전군을 필승의 전력으로 승화시키며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애국애족의 시대사적 비전이라고 평가된다.

바라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이 국군의 심리적 안정과 사명감을 고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예군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기제로 작용했음을 군 지휘관들과 위정자들이 공히 재인식하여 병영관리의 지혜와 자주국방의 비전 성취를 모색하고 구현하는 통찰을 얻기를 조심스럽게 희구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신앙전력화된 조국의 젊은이들이 남북대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한 평화통일을 이루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국가적 세계적 비저너리(visionary)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Abstract

President Park Chung-Hee's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of the Korean Military

Kyu Chul Lee

This study focuses on “President Park Chung-Hee's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of the Korean Military.” President Park Chung-Hee's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of the Korean Military presents important implications and tasks for the Korean military and Korean society.

First, President Park Chung-Hee's Faith as Force Multiplier has the implications of the times that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ilitary force trusted by the Korean religious circles and society while achieving mental armament through the faith of military personnel,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faith as a spiritual engine for 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Second, President Park Chung-Hee's passionate will to achieve self-defense is in line with the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which rejects atheist communism and makes him stand as a soldier of patriotic patriots who defend the country with faith and with all his deity. In this regard, President Park Chung-Hee's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of the Korean military goes beyond simply cultivating the faith of a specific religion, and establishes itself as the foundation for mental armament and independent defense of the Armed Forces through faith.

Third,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aspects coexist in the reality of today's pursuit of Faith as Force Multiplier of the Korean Military. Above

all, it is very encouraging that it is equipped with modernized religious facilities with the superior human resources of military chaplains and priests, and has tangible and intangible trust and cooperation from Korean society and relig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reality of concern that the internal religion of each of the soldiers who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postmodernism is weakening and the sense of mission as a soldier is declin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evaluated as a task and responsibility of the times to re-recognize the vision and sense of mission for 'Faith as Force Multiplier' and to fulfill sincere loyalty and devotion by uniting military chaplains and military commanders.

Key Words

President Park Chung-Hee, Chaplaincy, Chaplain Corp, Faith as Force Multiplier, a soldier of patriotic patriots, MEAK: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The understanding of MBTI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 김상만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MBTI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1장은 MBTI와 심리상담과의 상관관계를 상담이론이 갖추어야 할 평가 기준과 상담의 목적과 목표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왜 MBTI가 장병 상담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장은 MBTI의 이해로 MBTI의 역사와 검사의 종류, MBTI의 주요 내용으로 4가지 선호지표, 각 유형의 차이, MBTI의 16가지 유형, MBTI의 반대 유형, 위계질서에 따른 각 기능의 명칭과 역할, 16가지 유형의 심리 위계, 8가지 심리기능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MBTI의 교육과정으로 MBTI의 전문자격과정 5가지와 MBTI의 적용 프로그램 8가지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MBTI의 연구 결과물과 군상담에의 적용으로 MBTI 관련 주요 도서들과 군현장과 관련된 논문을 정리하였다. 군상담에의 적용으로 MBTI의 활용 분야를 제시하였고, 군상담사로서 MBTI를 어떻게 학습하고 교육해야 하는가를 밝혔다. 4장 결론에서는 MBTI를 보다 효과적으로 군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제기로 마무리하였다.

중심단어

군성직자, 군상담, 성격유형검사, MBTI, 외향, 내향

• 논문 투고일: 2022년 10월 2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10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10월 4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Th.B., M.Div., Th.M.),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Th.M., Ph.D.), 현 치유목회연구원 교수, 예)군종목사,

1. 들어가는 말

현재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격유형검사¹⁾는 MBTI이다. MBTI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TI 유형별 연애 스타일’, ‘성적이 잘 나오는 MBTI 유형’, ‘MBTI 유형별 스트레스 반응’ 등 다양한 MBTI 사용 비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권석만은 상담이론이 갖추어야 할 평가 기준을 첫째,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와 그 치료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둘째, 가능한 몇 개의 명료한 개념으로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실제적인 경험적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가능성을 지녀야 하고, 넷째,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어야 하고, 다섯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²⁾ 그의 주장에 따라 평가해 볼 때 MBTI는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의 목적과 목표가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 자기 주장 등 네 가지 차원에서의 자기 인식 능력 향상³⁾이라는 관점에서는 MBTI는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는 MBTI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분석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군성직자들이 MBTI의 효과와 유익을 균형 있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대로 소화해서 장병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격려하고 돕는 데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MBTI는 자기다움을 깨우는

1) 성격유형검사는 MBTI, 에니어그램, JSB, 골든 성격유형검사, DISC, Big Five(5요인 모형), HEXACO(6요인 모형) 등이 있다.

2)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2021), 38-40.

3) 김상만, “상담훈련생의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경험 연구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4-17.

것이고 자신만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의 모든 내용을 담아낼 수 없었다. 다만 MBTI가 군상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장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랐다. 또한 MBTI의 독특성과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격을 가능한 가장 완벽하게 발달시킴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자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따라서 MBTI 이해를 바탕으로 군성직자⁴⁾에 의한 군상담에의 적용⁵⁾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MBTI의 이해

1) MBTI의 역사⁶⁾와 검사의 종류

MBTI는 칼 융(C.G.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캐서린 브리스(Catherin Briggs)와 이사벨 마이어스(Isabal Myers)가 75년(1900-1975년)에 걸쳐 인간은 왜 다르게 행동하며 갈등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독창적인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용화한 성격유형 검사이다.⁷⁾ 그들의 이름을 따서 Myers

4) 본 고에서 군상담이란 군성직자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반 상담활동을 말한다. 물론 군대 내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군간부를 비롯한 전문상담관 등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본 연구는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필자는 현대 심리상담이론에 입각한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에의 적용”을 한국군선교 신학회 논문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2권),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11권),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12권), “노래치료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14권), “PTSD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7권),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8권),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9권),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20권)。

6) MBTI는 국내에 1990년 도입되었고, 필자는 1999년 국방부 MBTI 집체교육 시에 처음 접하였다.

7) Merve Emre, 『성격을 팝니다』, 이주만 역 (서울: 로크미디어, 2020), 9-10.

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하며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MBTI라고 부른다. MBTI는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4가지 선호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고유성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울증, 정신장애, IQ, 스트레스, 도덕성, 역량 등과 같은 평가나 진단의 요소가 전혀 없다.⁸⁾ MBTI는 Form A, B, C, D, E를 거쳐 1962년 처음으로 Form F가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출판되었고, 1975년 Form G를 개발하여 현재는 Form K, M, Q 등이 개발되어 있다.

한국판 MBTI는 김정택, 심혜숙에 의해 1988년부터 CPP(Counseling Psychologist Press)와 정식 계약 아래 한국판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1990년에 한국에 도입되었다. MBTI의 검사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⁹⁾

〈표1〉 MBTI 검사의 종류

검사 종류	검사지	결과 보고서 구성	문항 개수
Step I	Form M	추정 성격유형 제공, 지표별 선호 점수 제공	93개
Step II	Form Q	추정 성격유형 제공, 지표별 선호 점수 제공 지표마다 5개의 다면척도(세부 특징)에 대한 점수 제공	144개
Step III	Step III	추정 성격유형 제공, 그 어떤 점수나 그래프도 제공하지 않음, 100% 문장으로 된 서술형 보고서 제공 '충족도 척도'에 대한 서술 제공	222개
어린이-청소년용	CATI	추정 성격유형 제공, 지표별 선호 점수 제공	51개

8) 고영재, 『MBTI』 (서울: 인스피레이션, 2022), 30.

9) 박철용, 『MBTI의 의미』 (서울: 하우, 2022), 40-43.

2) MBTI의 주요 내용

MBTI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확장된 개념까지 점점 정교하게 내용이 다듬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Form M를 중심으로 MBTI의 주요 내용 중에서 확고하고 논리적이며 대중적인 호응도가 높은 개념 위주로 소개하였다.¹⁰⁾

(1) MBTI의 4가지 선호지표

MBTI는 4가지 선호지표로 구성되었다. 첫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둘째,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셋째,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넷째, 어떤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뉘며 각 개인의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을 알려준다.¹¹⁾

〈표2〉 4가지 선호지표

1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외향형(E) Extroversion	내향형(I) Introversion
2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각형(S) Sensing	직관형(N) iNtuition
3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사고형(T) Thinking	감정형(F) Feeling
4	어떤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가	판단형(J) Judging	인식형(P) Perceiving

각 선호 지표별 주요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다.¹²⁾

10) MBTI의 여러 개념들 중 “군성직자가 군상담에의 적용”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만 요약해서 순서대로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주에 소개된 자료나 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11) *Ibid.*, 61-80.

12) 본 내용은 한국MBTI연구소 MBTI 일반강사에게 제공하는 PPT자료에서 인용하였다.

〈표3〉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

No	외향형(J)	내향형(I)
1	주의 집중-자기 외부	주의 집중-자기 내부
2	외부활동과 적극성	내부활동과 집중력
3	폭넓은 대인관계(다수)	깊이 있는 인간관계(소수)
4	말로 표현	글로 표현
5	활동에 의한 에너지 충전	비축에 의한 에너지 충전
6	사교성, 인사	자기 공간
7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	1:1의 대화
8	정열적, 활동적	조용하고 신중
9	경험한 다음에 이해	이해한 다음에 경험
10	쉽게 알려짐	서서히 알려짐

〈표4〉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

No	감각형(S)	직관형(N)
1	오감(五感)	육감(六感)
2	주의초점-지금, 현재	주의초점-미래, 가능성
3	실제의 경험	아이디어
4	사실적이고 구체적	상상적이고 영감적
5	실태 파악	가능성과 의미추구
6	현실 수용	미래 지향
7	정확 철저(일 처리)	신속 비약(일 처리)
8	일관성과 일상성	변화와 다양성
9	사실적 사건묘사	비유적, 암시적 묘사
10	관례에 따르는 경향	새로운 시도 경향
11	가꾸고 추수함	씨 뿌림
12	나무를 보려는 경향	숲을 보려는 경향

〈표5〉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

No	사고형(T)	감정형(F)
1	관심의 주제-사실, 진실	관심의 주제-사람, 관계
2	객관적 진실	보편적인 선
3	원리와 원칙	의미와 영향
4	논리적	상황적
5	분석적	포괄적
6	간단명료한 설명	정상을 참작한 설명
7	지적 논평을 선호	우호적 협조
8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
9	원인과 결과가 중요	좋다, 나쁘다가 중요
10	규범과 기준을 중시	나에게 주는 의미

〈표6〉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

No	판단형(J)	내향형(P)
1	체계적	자율적
2	정리정돈과 계획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3	의지적 추진	이해로 수용
4	신속한 결론	유유자적한 과정
5	통제와 조정	융통과 적응
6	분명한 목적의식	목적과 방향의 변화
7	분명한 방향감각	환경에 따른 변화
8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김

(2)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성격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을 알 수 있는 4가지 선호지표는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다.¹³⁾

13) 박철용, *op. cit.*, 23.

〈표7〉 MBTI의 16가지 유형

ISTJ 성실노력형	ISFJ 수호자형	INFJ 정신적지주형	INTJ 과학자형
ISTP 효율추구형	ISFP 장인형	INFP 예술가형	INTP 분석가형
ESTP 자극추구형	ESFP 사교가형	ENFP 재기발랄형	ENTP 다능인형
ESTJ 관리자형	ESFJ 화목화합형	ENFJ 인류애형	ENTJ 지도자형

16가지 각 성격유형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특징과 반대 유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반대 유형을 함께 이해할 때에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각 유형의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MBTI를 자기 계발의 원리로 활용할 때에도 반대 유형 역동을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특히 MBTI의 16가지 유형을 이해할 때에 반대 유형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성격유형의 패턴을 확인하라고 권장한다.¹⁴⁾

〈표8〉 MBTI의 반대 유형

1	ESTJ & INFP	5	ESFP & INTJ
2	ENTJ & ISFP	6	ESTP & INFJ
3	ENTP & ISFJ	7	ENFJ & ISTP
4	ENFP & ISTJ	8	ESFJ & INTP

한편, MBTI는 위계질서에 따른 4가지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예로 필자의 성격유형인 ENFJ는 “Fe(주기능), Ni(부기능), S(3차 기능), Ti(열등 기능)” 4가지 기능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심리기능의 위계가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가

14) 고영재, *op. cit.*, 83-116.

존재한다. 즉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위계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MBT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의 위계질서를 알아야 한다. 위계질서의 명칭과 역할은 다음 표과 같다.¹⁵⁾

〈표9〉 위계질서에 따른 각 기능의 명칭과 역할

순위	기능	명칭	역할
1위	주기능	영웅	개인 성격의 핵심, 성격의 전반적인 방향 제시
2위	부기능	부모	주기능을 보조하고 보완하여 균형을 맞추는 심리기능
3위	3차 기능	소년/소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며 덜 발달 되어 덜 의식적인 기능
4위	열등기능	수치스러운 나	가장 덜 발달되어 취약성이 가장 많은 기능

16가지 각 유형의 1위(주기능, 영웅), 2위(부기능, 부모), 3위(3차 기능, 소년/소녀), 4위(열등기능, 수치스러운 나) 위계질서는 아래 표와 같다. MBTI 각 유형의 위계질서에 따른 심리기능 간의 역동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MBT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¹⁶⁾

〈표10〉 16가지 유형의 심리 위계

유형	1위	2위	3위	4위	유형	1위	2위	3위	4위
ISTJ	Si	Te	F	Ne	ISFJ	Si	Fe	T	Ne
ESTP	Se	Ti	F	Ni	ESFP	Se	Fi	T	Ni
INFJ	Ni	Fe	T	Se	INTJ	Ni	Te	F	Se
ENFP	Ne	Fi	T	Si	ENTP	Ne	Ti	F	Si
ISTP	Ti	Se	N	Fe	INTP	Ti	Ne	S	Fe
ESTJ	Te	Si	N	Fi	ENTJ	Te	Ni	S	Fi
ISFP	Fi	Se	N	Te	INFP	Fi	Ne	S	Te
ESFJ	Fe	Si	N	Ti	ENFJ	Fe	Ni	S	Ti

15) *Ibid.*, 132-143.

16) *Ibid.*, 127.

16가지 성격유형의 1위인 주기능의 자리에 있는 8가지(Se, Si, Ne, Ni, Te, Ti, Fe, Fi) 심리기능의 특징은 아래 <표6>과 같다.¹⁷⁾ 주기능은 영웅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며 개인 성격의 핵심을 이루며 성격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영어로 “Dominant Function”이라고 하며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리기능이다. 예로 ENFJ(Fe, Ni, S, Ti)인 필자의 주기능은 Fe로 온정, 배려, 관심 등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현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지지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주기능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치를 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기능은 세상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도 작용한다. 최종 결정이 필요할 때에 그 결정은 대체적으로 주기능과 일치하게 된다.¹⁸⁾

<표11> 8가지 심리기능의 특징

1위	유형	별명	기본 이미지
Se	ESTP, ESFP	정찰자	활동적이고 충동적임. 산만해 보일 수 있음
Si	ISTJ, ISFJ	보존처리사	매우 신중하고 차분한 인상
Ne	ENTP, ENFP	브레인스토머	튼구름을 잡는 듯한 인상. 에너지와 열정이 넘침
Ni	INTJ, INFJ	예언자	자신의 통찰에 확고한 믿음이 있음. 설득하기 어려움
Te	ENTJ, ESTJ	행정가	자기주장이 강함. 행동지향적 결단성. 무능함을 싫어함
Ti	INTP, ISTP	분석가	심사숙고하는 관찰자. 인간관계가 무관심해 보임
Fe	ENFJ, ESFJ	안내자	인정이 많음. 상호작용을 중시. 협력을 통해 목적 성취
Fi	INFP, ISFP	양심인	차분한 이미지. 말수가 적음. 감정적 배려를 잘함

17) Ibid., 147-184.

18) Ibid., 135-6.

(3) MBTI의 교육과정

MBTI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인간 이해의 올바른 도구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전문자격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MBTI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MBT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된다. 군성직자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치료, 사회복지, 교육, 공동체, 병원, 기업, 조직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격유형의 개념과 각 분야에서의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MBTI의 교육과정으로 전문자격과정과 적용프로그램이 있다.¹⁹⁾

① MBTI 전문자격과정²⁰⁾

MBTI 전문자격과정에는 초급과정, 보수과정, 중급과정, 어린이 및 청소년(CATI) 과정, 일반강사과정 등이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표12> MBTI 전문자격과정

No	과정	교육목표	교육내용
1	초급	자기이해, MBTI심리역동 이해, MBTI 사용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오리엔테이션, 검사 실시, Jung의 심리유형론 이론 개관, 47지 선호지표 개념, 채점 및 프로파일 작성, 16가지 성격유형 그룹 작업 및 발표, 유형 위치도, 유형의 발달과 환경의 영향, 심리역동(주기능, 부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 열등기능 그룹개발 작업
2	보수	MBTI를 통한 자기 이해 심화 및 타인 이해, MBTI 도구에 대한 기본 Psychometrics이해	오리엔테이션 실습, 채점 및 프로파일 작성, 반대유형과의 그룹작업 및 발표, 반대선호와의 상호작용, MBTI 매뉴얼(개발과 활용) 개관, 업무처리 및 의사소통 스타일 점검, 가치편중 그룹작업, 해석 실습

19) MBTI 교육과정은 국내 유일한 “한국MBTI연구소(www.mbti.co.kr)”의 MBTI 전문자격 교육과 적용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한국MBTI연구소에 개설된 5가지 전문교육 과정과 8가지 적용프로그램 모두를 수료하였다.

20) 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과정 소개 앞부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3	중급	MBTI Form Q 도구 이해와 다면척도 해석 훈련	Form Q 프로파일 이해, 다면척도 그룹작업 및 발표, 주기별 그룹작업, Form Q 프로파일 해석 및 상담작업, career 4u website 사용 설명
4	CATI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 도구 이해 및 성격유형 이해, 성격에 맞는 학습방법 이해 및 도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지도	검사 전 오리엔테이션, 채점 및 프로파일 작성, 부모-자녀 성격역동, 16가지 유형설명, 기질별 학습방법, SAM 프로그램 지도
5	일반강사	MBTI 성장 프로그램 일반강사 자격 부여와 프로그램 개발지도	영역별 프로그램 짜기, 프로그램 supervision, 일반강사의 자세, 지역별 모임, 일반강사 수료식 및 서약

② MBTI 적용프로그램²¹⁾

MBTI 일반강사 과정이 끝난 이후에 수강 가능한 MBTI 적용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MBTI와 융의 정신 분석학, MBTI와 자녀 양육,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MBTI와 진로, 성격유형과 갈등관리, 심리유형과 그림자, 유형 역동과 자기개발, 성격유형과 기질 등 표에 제시된 적용프로그램 외에 한국MBTI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적용프로그램으로 MBTI와 조직개발, MBTI와 리더십, MBTI와 코칭 등이 있다. 필자는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 차원에서 추가 적용프로그램으로 MBTI와 은사, MBTI와 영성, MBTI와 성경, MBTI와 부부상담, MBTI와 가족치료, MBTI와 예술심리치료, MBTI와 이야기치료, MBTI와 아티스트웨이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13〉 MBTI 적용프로그램

No	과정	교육목표	교육내용
1	분석심리학	칼 융의 분석심리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MBTI를 보다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함	칼 융의 생애와 사상, 콤플렉스 이론, 마음의 구조와 기능, 칼 융의 심리유형론, 유형발달과 열등기능, 자기실현
2	자녀 양육	성격유형 지표별 특징을 통한 자녀 이해와 부모 이해&자녀와 부모의 부딪치는 문제 탐색	내 아이 제대로 알기(지표별 아동의 특성, 지표별 강점과 개발할 점), 부모 자신 알기(양육자의 지표별 양육 태도의 강점과 힘든 점, 조언 알아보기), 자녀와 부모 사이의 역동탐색
3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유형과의 관계를 알도록 하고, 선호유형을 일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때와 열등기능에 속박되었을 때의 행동패턴을 인식하도록 하게 함	스트레스의 원인 및 증상, 스트레스의 종류, 스트레스와 성격유형과의 관계, 일방향성 개념과 그룹작업,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심리기능의 흐름, 열등기능의 개념과 그룹작업, 열등기능의 원리, 열등기능 이해의 중요성
4	진로	진로(Career)에 있어서 MBTI 성격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격유형별로 진로에 대한 접근의 차이점을 경험하며, 진로장면에서 MBTI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돕고자 함	진로에서 성격유형별 중요요인, 진로발달 과정의 4단계 이해와 그에 따른 진로프로그램의 소개, 진로발달과정에 따른 유형별 차이와 그 조언, 진로에 있어서 유형별 차이 그룹작업 및 발표, 진로에서 유형 활용의 유의점
5	갈등관리	갈등의 개념 및 단계를 이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강점(긍정)관점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MBTI 갈등관리 모델을 실습해보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게 함	갈등의 개념, 갈등의 5단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핵심, 갈등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도전, Z 모델 및 갈등해결 협력 5단계 모델의 이해와 적용
6	그림자	융 학파 분석심리학자인 Dr. John Beebe의 Eight function Model을 이해하고 Jung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Eight Function Model을 통해 확장된 심리적 기능 이론에 입각한 심리기능의 역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무의식 영역 내 존재하는 원형적 특징을 파악하게 함.	심리기능 위계 확인 및 주기별 특징 이해, Dr. John Beebe의 8가지 심리기능 모델 구조 이해, C.G Jung의 그림자와 원형, 개별화와 Whole Type
7	자기개발	8가지 심리기능의 세부적인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주기능부터 열등기능까지의 발달정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자기개발(의식적 유형발달) 계획을 세우게 함	심리기능의 위계 활용 시 어려운 점, 그를 보완하기 위한 유형역동 핵심개념(3가지)과 프로세스(7단계), 8가지 심리기능의 세부적 특징(카드분류), 유형발달을 위한 핵심개념(6가지), 심리기능 발달 정도 확인(체크리스트), 자기개발계획 수립

21) 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과정 소개 뒷부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8	기질	4가지 기질 및 하위척도 이해, K-TI 기질검사의 이해, 4가지 기질의 욕구이해 및 기질 체험과 활용	K-TI의 표준화과정, 매뉴얼 개관, 4가지 기질 및 하위척도 이해, 기질별 심리적 욕구 이해 및 활용 등이 포함되며, 본 교육 수료 후 한국인 기질검사(K-TI) 사용자격이 부여
---	----	---	--

3. MBTI의 연구 결과물과 군상담에의 적용

1) MBTI 연구결과물

MBTI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김정택과 심혜숙은 연구소를 통해 MBTI의 출판, 보급, 교육,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집필서와 역서로는 『MBTI와 나의 가족 이해』²²⁾, 『MBTI 적용 상담사례집』²³⁾, 『나의 모습 나의 얼굴』²⁴⁾, 『MBTI 개발과 활용』²⁵⁾, 『성격유형과 영성』²⁶⁾,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²⁷⁾ 등이 있다. 교육과정용으로는 『MBTI Form M 매뉴얼』²⁸⁾, 『MBTI Form Q 매뉴얼』²⁹⁾, 『한국인 기질검사 매뉴얼』³⁰⁾, 『MBTI 성장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³¹⁾ 등이 있다. 추가로 MBTI 관련하여 발간된

22) 김정택, 심혜숙, 『MBTI와 나의 가족 이해』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4).
 23) 김정택, 심혜숙, 『MBTI 적용 상담사례집』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4).
 24) David Keirse, Marilyn Bates, 『나의 모습 나의 얼굴』,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3).
 25) Isabel Briggs Myers, Mary H. Mc 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김정택, 심혜숙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26) K. Hirsh Sandra & A. G. Kise Jane, 심혜숙, 『성격유형과 영성』, 문성호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0).
 27) Katharine D. Myers & Linda K. Kirby,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김정택, 김명준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9)
 28) Isabe Briggs Myers, Mary H. McCaully, Naomi L. Quenk, Allen L. Hammer, 『MBTI Form M 매뉴얼』, 김정택, 심혜숙 역 (서울: 어세스타, 2015).
 29) Naomi, L. Quenk, Allen L. Hammenr, Mark S. Majors, 『MBTI Form Q 매뉴얼』, 김정택, 심혜숙, 심민보, 김명준 역 (서울: 어세스타, 2013)
 30) 한국MBTI연구소, 『한국인 기질검사 매뉴얼』 (서울: HAUM, 2020)
 31) 김정택, 심혜숙, 『MBTI, 성장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 (서울: 어세스타, 2017)

책 중에 비중 있는 몇 권의 책과 MBTI 관련 논문 중에 몇 편을 통해 MBTI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 Hirsh와 J. Kummerows은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을 통해 최대로 자신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MBTI를 소개하고 있다. 두 저자의 MBTI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책으로 MBTI이 생활에 적용될 때 역동이 살아나고 삶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³²⁾

김정진은 『MBTI와 군생활』에서 “군에 대한 애정”으로 집필하였고, “모두가 성숙한 개개인과 부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참고자료를 모아 편집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으로서 MBT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대 관리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³³⁾

조옥진은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과 기도생활』에서 “한 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각자에게 적합한 영성생활과 기도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MBTI를 기초한 영성 탐구와 기도생활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찾아오는 신앙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³⁴⁾

고영재는 『MBTI』라는 책에서 “당신이 알던 MBTI은 진짜 MBTI가 아니다”라는 부제로 MBTI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나 다음”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⁵⁾

32) S.Hirsh & J. Kummerows,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심혜숙 외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7), 3-6.
 33) 김정진, 『MBTI와 군생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저자 서문에서 인용함.
 34) 조옥진,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과 기도생활』 (서울: 성서와함께, 2000), 1-3.
 35) 고영재, *op. cit.*, 6-20.

김재형은 『당신이 몰랐던 MBTI』라는 책에서 SNS에 MBTI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마케팅 전략이 되어버린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SNS가 알려주지 않는 MBTI”라는 주제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MBTI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³⁶⁾

이요철은 『MBTI 철학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안창호, 마키아벨리, 소크라테스 등 철학자 5명의 MBTI 유형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³⁷⁾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ESTJ로, “편법과 반칙이 횡행하는 시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공자를 ESFP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로 도산 안창호를 ENFP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란 제목으로 마키아벨리를 INTJ로, “아레테, 진정한 아름다움과 용기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소크라테스를 INFP로 분석하고 있다.

박성훈은 “신세대 장병 MBTI 활용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지휘관이 부대 관리와 지휘를 할 때는 각 용사들의 개인 유형에 적합한 관리 방법을 고안해야 할 뿐 아니라 용사들의 유형에 맞춰 적합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⁸⁾

강승호는 “MZ세대 군 장병의 성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 기법에 대한 연구”에서 MBTI 유형에 따른 군 생활 적응 수준을 연구 하였다.³⁹⁾

36) 김재형, 『당신이 몰랐던 MBTI』 (서울: 쓰리체어스, 2022), 4-11.
 37) 이요철, 『MBTI 철학자』 (서울: 송복스, 2021), 4-14.
 38) 박성훈, “신세대 장병 MBTI 활용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3-16.
 39) 강승호, “MZ세대 군 장병의 성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 기법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30-39.

2) MBTI의 군상담에의 적용

MBTI은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포춘 500대 기업, 미국의 단과 대학과 종합대학, 지역 주민 센터와 교회, 미 육군과 해군, 미 중앙정보국(CIA),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교실 등⁴⁰⁾에서 사용되고 있다. MBTI의 활용 분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⁴¹⁾

〈표14〉 MBTI의 활용 분야

No	활용 분야	내용
1	일상생활 및 개인 상담에서	자기 이해 & 자기 개발, 대인관계(친구, 가족) 개선, 자녀양육방법, 진로
2	학교 및 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학습방법 개발
3	팀 빌딩과 조직에서	갈등관리, 의사소통기술, 조직 개발, 팀빌딩, 문제해결 기술, 경영 & 리더십 훈련

권석만은 상담자를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의한다. 즉 내담자가 지닌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⁴²⁾ 군성직자이자 상담자로서 MBTI를 군에 적용하고자 할 때, 권석만이 정의한 상담자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MBTI에 대한 열정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정확한 이론적 맥락에서의 개념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강의와 학습을 통해 배운 바를 지

40) Merve Emre, 이주만 역, *op. cit.*, 16.
 41) 한국MBTI연구소 일반강사 교육자료에서 인용함.
 42) 권석만, *op. cit.*, 30.

속적으로 암기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MBTI가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경험을 통해 학습해야 하고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16가지 유형별 이해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과 연계해서 암기하면 보다 빠르게 체득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MBTI에 대한 부정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는 규정짓기이다. MBTI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유형의 특징을 근거로 소위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으로 자기 합리화로 나아간다. 두 번째는 MBTI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만 나눌 수 있는가?”라고 부정한다.⁴³⁾ 군상담 적용 시에 이 두 가지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MBTI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아 존중감의 깊이”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유능감을 느낀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MBTI가 군상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43) 고영재. *op. cit.*, 12-14.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MBTI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Sang Man Kim

This study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Military counseling by Military Chaplai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BTI. Chapter1 describes the correlation between MBTI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in terms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purpose and goal of counseling that the counseling theory should have. It explains why MBTI is necessary for soldier counseling. Chapter2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four preference indicators, each type of MBTI, each type of MBTI, 16 types of MBTI, the name and role of each function according to the hierarchy, 16 types of psychological hierarchies, and 8 psychological functions. In addition, five professional qualification courses of MBTI and eight application programs of MBTI were introduced as the curriculum of MBTI.

Chapter 3 summarizes major books related to MBTI and articles related to military sites by applying them to military counseling. As an application to military counseling, the field of MBTI application was presented, and how to learn and educate MBTI as a military counselor was revealed.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4, several problems were raised to more effectively apply MBTI to group counseling.

Key Words

Military Chaplain, Military Counseling, Personality Type Test, MBTI,

Extroversion, Introversion

논문 기고자 **Email**

spalan77@yonsei.ac.kr

일반논문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애인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 윤상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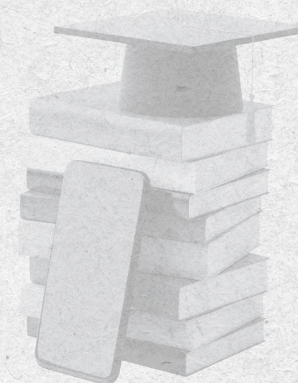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 이용락 |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이은성 |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Group Psychotherapy of Soldiers through
psychodynamics Theory

» 윤상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군선교사로 사역하는 부대 지휘관의 부탁으로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시 목적은 지휘관의 요청을 따라 전우들 간의 화합을 통한 사고예방과 전투력 향상이었지만 연구자는 여기에 개인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집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집단에 참여하는 병사들 자신의 내면에 갇혀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군 생활이 능동적이고 자발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지휘관의 협조를 얻어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근무 시간에 맞추어 온종일 집중적으로 진행했는데 집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첫 시간에는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여기에는 선호하는 별칭 짓기,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감수성훈련을 통하여 인지했던 가슴의 언어와 신체 언어에 대한 훈련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저항이 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어릴 때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상처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격려하기 시간들을 가졌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셀프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다.

중심단어

정신역동, 집단 심리치료

- 논문 투고일: 2022년 8월 24일
- 1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5일
- 2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6일
- 3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8일

* 군선교사(수암교회), 치유목회연구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흔히들 웰빙(well being)을 노래하지만 여전히 정신세계는 불건강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마치 세포의 주변에 각종 오염물질들이 붙어서 건강한 세포를 위협하듯이 건강해야 할 인간의 정신세계에 성장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강한 의사소통,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결혼상황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원인을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사회병리현상이 개인들에게 미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개인이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성장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trauma)에 노출된 결과이다.

군대라는 특수집단은 전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젊은이들이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긍정성도 있지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이 군복이라는 제복과 계급에 갇혀 숨막힐 지경에 이른 부정성도 있다. 이 부정성의 에너지는 때로 안전핀이 뽑혀진 수류탄과 같은 역풍을 몰고 와 수습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지휘관은 연구자에게 “내가 지휘관인지 관리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호소했다.

2. 정신 역동적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와 기법

심리치료(psychotherapy)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가 지닌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심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환자가 가진 정신증상을

제거·개선·지연시키고 그 행동양상 가운데 고통스럽게 느끼는 점을 조정하므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와주어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하는 것”¹⁾이기에 예술이자 기술이다.²⁾ ‘프란츠 알렉산더’(Franz Alexander)의 주장대로, 어떤 형태의 심리치료든 간에 치료의 주된 수단은 치료사의 인격이다.³⁾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이것을 $\Psi=x+y$ 라는 공식으로 치환시켰다. 프랭클은 심리치료 기법이 참가자와 치료자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미지수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강조한다.⁴⁾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심리치료를 통찰지향의 전통치료, 형태/행동/위기치료, 잠재력 개발치료, 관계/구조/급진치료, 영성성장치료로 나눈다.⁵⁾ 클라인벨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 영성성장치료가 모든 치료와 성장의 핵심이자 근원적이다. ‘칼 융’(Carl G. Jung)식의 치료법과 실존주의적 치료법도 여기에 속한다.⁶⁾ 논자가 사용하는 정신역동은 통찰치료에 속한다. 통찰치료는 내담자 자신의 내부에 있는 핵심역동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식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그의 자아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인격의 균형구조가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⁷⁾

1) 이재훈,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2002), 24.

2) Viktor Frankl,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유명미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17), 11.

3) *Ibid.*

4) *Ibid.*, 12.

5) Howard Clinbell, 『현대성장요법』, 이종현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26-28.

6) *Ibid.*

7) 이만홍, 황지연,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16), 73.

‘헨리 엘런버거’(Henri F. Ellenberger)에 의하면, 정신역동이란 용어는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처음 사용되었다.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Gottfried W. Leibniz)는 원래 정적(static)이라는 개념과 반대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⁹⁾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집착했던 ‘구스타프 페히너’(Gustav Fechner)는 정신에너지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⁰⁾ 정신역동 의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이론과 그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¹¹⁾ 정신역동 의학이 정신분석적 정신의학에 비하여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신 역동적’이라는 말이 ‘정신분석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¹²⁾

‘김영진’에 의하면, 정신 역동적 접근은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에 억압된 동기를 의식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통찰하게 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¹³⁾ ‘제럴드 코리’(Gerald. Corey)에 따르면, 정신 역동적 심리 상담은 내담자가 억압된 동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유연상법, 꿈의 해석과 분석, 전이 등을 제안함으로써 자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¹⁴⁾

8) Henri F. Ellenberger, *The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Dynamic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1970), 15-16.

9) *Ibid.*

10) *Ibid.*

11) *Ibid.*

12) *Ibid.*

13) 김영진, 『심리학 역사 속에서의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361.

14) Gerald Corey,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103-106.

정신 역동적 심리치료는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1880년대 오스트리아 빈의 신경전문의로서 자신의 담당 환자 중 몇 명의 증상이 신체적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였다. 프로이트는 마음과 심리증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강한 흥미를 가지고 1886년 직접 명명한 정신분석학과 관련한 사무실을 열어 ‘해몽과 자유연상법, 의식’의 3단계에 관하여 다룬 것이 그 출발점이다.¹⁵⁾ 그 후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이 출현한 후 가장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이 학파에 몸을 담고 있다. 이런 학문적 배경에서 정신분석 접근이라 하면 흔히 프로이트를 연상한다.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 등 내면적인 힘과 그 힘들의 갈등을 중시하는 입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융의 분석심리학, 신 프로이트 학파 및 자아 심리학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학파들을 모두 합쳐서 정신역동 접근이라 한다.

정신역동은 심리결정론에 기초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 욕구인 성욕과 공격욕을 충족하기 위한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본다.¹⁶⁾ 이처럼 정신역동은 무의식적으로 숨겨진 생각과 병의 심리적 원인에 관심을 두고 발전한 정신분석치료 체계이다. 정신분석 치료가 영국에서는 ‘모성결속’을 강조하는 문화와 함께 대상관계이론으로 발전하면서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과 같은 이론가의 업적을 낳게 하였다. 클라인은 모성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중요한 타인의 이

15) *Ibid.*

16) *Ibid.*

미지를 어떻게 내면화하는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⁷⁾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은 모성상실과 모성에 대한 애착문제를 강조하였다.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John Bowlby)는 ‘애착이론’을 강조하였다.¹⁸⁾

미국에서는 자아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기심리학’(self-psychology)으로 불리는 정신분석적 상담형태로 발달했다. 자기심리학에서는 치료의 개념을 ‘자기의 강화’라는 관점으로 보았다.¹⁹⁾ 무엇보다 정신역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발견하고 발달시키는 ‘관계’(relationship)의 개념²⁰⁾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의 이론은 남자 아이가 아버지의 권력과 어머니에 대한 소유권(oedipus complex)에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아버지와 의 관계 발달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나 현대 이론들은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다.²¹⁾ 그러므로 정신역동 심리치료는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 참가자들이 스스로 충족해야 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인식하도록 의식화 작업을 위해 분투한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억제하려는 사회적 환경이나 정신적 역동과정

에 의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을 때 신경장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역동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세계의 역동성을 이해하여 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치료자는 참가자들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화²²⁾하므로 생애 각 발달단계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이며, 현재 경험하는 문제와 초기 생애의 중요 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다양한 위기는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집단 심리치료는 집단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집단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양상과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집단에서의 자신의 역할(집단역동)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런 정신역동과 집단역동에 기초를 제공한 중요한 인물은 프로이트, ‘윌프레드 비온’(Wilfred Bion), ‘지그문트 폴크스’(Sigmund Foulkes)이다. 프로이트는 이른바 정신역동의 기초를 제공했고, 비온은 집단역동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폴크스는 정신분석과 동등한 개념으로 집단분석을 제시했다.²³⁾ 이들을 중심으로 집단 심리치료는 ‘분석적 이론’, ‘전체로서의 집단(group-as-a-whole)’, ‘행위지향적인(action-oriented)이론’, ‘경험적(empirical)이론’ 네 방향으로 발전했다.²⁴⁾

영국에서 집단분석을 창시한 폴크스는 ‘집단’을 ‘거울로 둘러싸인 방’(hall of mirror)에 비유했다.²⁵⁾ 이는 집단 심리치료는 참가자들로

17) Stephen Palmer, ed.,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해』 김춘경, 이수연, 최용용, 홍종관 공역 (서울: 학지사, 2012), 328. 참고 위의 책, 361-366.

18) *Ibid.*

19) *Ibid.*, 328-329.

20) *Ibid.*, 329.

21) *Ibid.*

22) Gerald Corey, *op. cit.*, 97.

23) 이후경, 『핵심집단정신치료강의』 (서울: 좋은 땅, 2013), 30.

24) *Ibid.*, 31.

25) Sigmund H. Foulkes, *Therapeutic group analysis*. (London: Karnac Books, 1984), 57.

하여금 자기(self)에 대한 자료에 보다 많이 접근하는데 유용한 치료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크스가 제시한 집단 심리치료의 기법은 다음과 같다.²⁶⁾

(1) 해석: 치료자의 궁극적인 결정도구로 인정되는데 한마디로 무의식적이던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석은 하나의 감정, 사고, 행동 및 증상을 무의식적 의미나 원인에 결부시켜서 설명한다.

(2) 직면: 내담자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을 제시하거나, 내담자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나 극소화하려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직면은 내담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명확히 하고 이것이 거꾸로 환자에게 거부당하거나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3) 명료화: 직면에 비하여 보다 지지적인 쪽의 개입으로서, 내담자가 말한 것들 모두를 좀 더 일관된 내용으로 통합시키는 일종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명료화는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4) 전이·역전이 분석: 전이란 내담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느꼈던 과거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치료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며, 역전이란 환자가 마치 자기 과거에 그 어떤 중요한 인물로 치료자의 무의식에서 부각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혼슈: 환자가 통찰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전이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치료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 자신

이 치료시간 중에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여 노력하고, 이를 통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꿈의 해석: 꿈의 분석은 무의식적 자료를 드러내고 내담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통찰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는 내담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통찰하도록 하며, 환자의 잠재적이고 감추어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기법들은 무의식의 요구와 현실 사이에 타협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 즉 무의식의 요구인 충동을 현실과 조화시키는 인간을 추구한다. 이런 중요한 기법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의식을 증가시키고, 행동에 대한 지적 통찰을 얻게 하며,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위탁받은 8명의 병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집단 심리치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우미로 연대 군중병에게 진행 전반에 대한 안내와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집단 심리치료에 참여한 자들의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위해 참여 순서별로 이들이 사용한 별칭들임을 밝힌다. 그리고 성격유형은 집단을 운영하기 전 사전 검사로 실시한 결과지표들이다.

26) *Ibid.*, 58-59.

〈표 1〉 참가자들의 분포도

번호	참가자	연령	계급	성격유형	
				MBTI	Enneagram
1	조약돌	23	상병	ESTJ	3유형
2	나팔수	21	이병	INFP	9유형
3	소나무	22	일병	ISFJ	2유형
4	병아리	23	상병	ISFJ	6유형
5	운동장	22	일병	ESTJ	3유형
6	목련화	22	이병	ESTJ	7유형
7	비둘기	21	이병	ISTP	9유형
8	비행기	23	상병	ISTJ	6유형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개관적인 자료 수집과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종류의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나는 연구자가 심상권(한국전문심리치료연구원장)에게 훈련받을 때 사용하던 참가자 평가서이며, 두 번째는 셀프저널이다.²⁷⁾

이 가운데 참가자 평가서는 참가자들과 진행 환경을 고려하여 (1) 집단 치료자에 대한 평가와 (2) 참가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 두 가지만을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심상권의 '심리치료 안내서' 가운데 현장에 필요한 내용만을 선택하여 재작성한 셀프저널로²⁸⁾ (1) 치료받기 전의 마음 상태 (2) 자신의 핵심문제 (3)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의 역동 (4)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한 통찰 (5) 생활관에서 녹음을 들으면서의 마음의 역동 (6) 치료를 받은 소감 순으로 기록하여 제

27) 심상권, 『심리치료를 위한 안내』 (서울: 한국전문심리치료연구원, 1995), 미간행물.

28) *Ibid.*

출하도록 했다. 이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집단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진행자와 집단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참가자들 개인이 다루고자 하는 것과 숨어있는 이슈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참가자들 내면의 깊고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1) 관계 형성 단계 (2) 탐색 단계 (3) 치료/개입 단계 (4) 종결/마무리 단계 (5) 후속관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위에서 고찰한 고전적인 프로이트의 이론²⁹⁾과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대상관계이론³⁰⁾ 그리고 칼 로저스(Carl Rogers)의 무조건 긍정적 수용과 객관적 공감, 그리고 일치성³¹⁾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여기에 심상권의 주장대로 따뜻한 온정과 전문성³²⁾을 가지고 참가자들의 문제 사안에 따라 대응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진행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12:1:30, 점심과 휴식)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1) 관계 형성 단계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집단 심리치료의 첫날 오전에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아래같이 〈표Ⅲ-2〉 참가자의 지침이란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명했다.

29) Stephen Palmer,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해』 김춘경 외 3인 공역 (서울: 학지사, 2012), 328-344, Gerld Corey, *op. cit.*, 77-118.

30) Stephen Palmer, *Ibid.*, 361-378.

31) *Ibid.*, 239-258, Gerld Corey, *Ibid.*, 189-216.

32) 심상권, 『심리치료를 위한 강의록』, (서울: 한국전문심리치료연구원, 2002), 미간행물.

〈표 2〉 참가자 지침³³⁾

참가자 지침
<p>1. 선행 조건 :</p> <p>1) 자신의 마음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3) 상대방의 치료내용을 절대적으로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 4) 처음부터 계급 대신에 별칭을 사용한다.</p>
<p>2. 필수 조건 :</p> <p>1)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각, 결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은 밖으로 나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p>
<p>3. 본 과정의 특징</p> <p>1) 참가자들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시간(순서)을 정하여 자신의 문제를 발표한다. 2) 참가자들은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참가자들은 자기중심적 언행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p>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복 대신 활동복을 입고 참여하도록 사전에 부대와 협력을 구했고, 따라서 계급 대신에 별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위명업을 진행 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본인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별칭을 지어 서로가 잘 볼 수 있도록 명찰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왜 그 별칭을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므로 참가자들의 얼굴과 별칭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했다.

그 다음 관계 형성이나 따뜻한 온정을 표하기 위하여 가슴의 언어와 몸의 언어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1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심리치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했다.

33) Ibid.

(2) 탐색 단계

탐색 단계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에 대한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이나 무모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치료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온 이유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정밀검진을 통한 집중수술이 필요하여 여러 동료의사들과 팀을 이루어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적인 설명을 통해 집중하도록 했다.

치료를 받는 자에게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4회 정도 하게 하고, “지금 현재의 기분 상태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긴장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며 “어떤 문제로 도움을 받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치료에 개입하도록 했다.

(3) 치료/개입 단계

탐색 단계에서 나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NLP 기법을 사용했다. ‘NLP’(Neuro-Linguistic Programing)는 1970년대 중반 미국 산타쿠르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존 그린더’(John Grinder, 언어학 조교수), ‘리차드 밴들러’(Richard Bandler, 당시 심리학 대학원생)에 의해 창시되었다.³⁴⁾ 이들은 당대 심리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던 가족치료의 선구자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 형태치료 개발자인 ‘프리즈 펄스’(Fritz Perls), 그리고 최면치료에 권위자인 ‘밀턴 에릭슨’(Milton Erickson)의 재능에 큰 호기심을 가졌다. 그린더와 밴들러는 사티어와 펄스, 그리고 에릭슨의 언어, 사고, 행동을 연구한 결

34) 강혜정, 박은정, 방성규, 『성공과 치유의 심리학 NLP』 (서울: CEOMAKER, 2015), 14.

과 그들만의 특정한 구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의 탁월성과 잠재력을 증진하고 빠른 심리치료와 행동변화³⁵⁾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학문이 NLP이다.

〈표 3〉 문제핵심별 개입기법

번호	별칭	계급	핵심문제	치료적 개입
1	조약돌	상병	언어가 거칠음	빈의자 기법, VAK
2	나팔수	이병	부대적응에 대한 불안	관조(Dissociation)
3	소나무	일병	얽매임에 대한 짜증	CYF Model
4	병아리	상병	진로에 대한 불안	SCORE, 진로코칭
5	운동장	일병	사수에 대한 분노	빈의자 기법, 분노처리
6	목련화	이병	부대적응에 대한 불안	7번 유형의 정점강화
7	비둘기	이병	주어진 과업에 대한 불안	SORA Model
8	비행기	상병	진로에 대한 불안	GROW, SCORE Model

(4) 종결/마무리 단계

종결/마무리 단계에서는, 연구자인 본인이 직접 주치의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가자들은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치료에 참여한 자에게 로저스(Rogers)의 핵심이론인 무조건 긍정적 수용과 객관적 공감을 하는 피드백을 통해서 지지와 격려를 하는 선물을 주도록 했다. 또한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는 “누구의 피드백이 가장 도움이 됩니까?”와 반대로 “누구의 피드백에 저항을 느끼니까?”라는 질문을 할 때 진실한 반응을 보이므로 서로 간의 도움과 배움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과정을 마

친 다음에는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5) 후속관리 단계

후속관리 단계로, 치료 받은 당사자는 진행자가 녹음한 내용을 반드시 생활관이나 자기만의 편한 장소에서 다시 듣고 다음 시간에 마음에 어떤 역동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소감을 말하도록 하므로 치료에 온전히 몰입함과 동시에 그 효과가 증가되도록 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지난 시간에 치료 받은 사람이 녹음을 들으면서 일어난 마음의 역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므로 집단 참가자들에게 배움과 자각이 일어나도록 했다. 그런 후 치료 받을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참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 받을 대상이 정해지면 그를 향해 집중하여 집단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감을 갖도록 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치료 받은 참가자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충실한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집단 심리치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은 사적인 공간이나 제 3의 장소에서 주고 받는 일이 없도록 비밀유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조치료자(연대 군종 형제)는 집단 심리치료가 시작되기 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에 필요한 물, 휴지, 보조의자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시간 지킴이 역할을 위해 휴식을 마치고 시작 시간을 엄수하도록 3분 전에 예고하는 차원에서 종을 치도록 하였다.

치료 받을 한 명을 위한 시간 계획으로 첫 사람은 진단과 치료 그리고 동료들의 피드백과 치료 받은 당사자의 소감 그리고 참가자들의 질문을 위해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진행했으며,

35) Ibid. 〈참고〉 Steve Bavister & Amanda Vickers, 『성공과 행복의 과학 NLP』 (서울: The 9, 2010), 17-18.

집단 심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후속관리를 위하여 치료 받은 자의 심리역동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소감”이란 셀프저널과 참가자의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도구에서 밝힌 대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종류의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셀프저널’과 ‘참가자의 평가서’이다.

셀프저널에는 참가자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1) 치료 받기 전의 마음 상태 (2) 자신의 핵심문제 (3)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의 역동 (4)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한 통찰 (5) 녹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역동이 일어났는가? (6) 치료를 받은 소감 순으로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참가자 평가서는, (1) 집단 치료자에 대한 평가 (2) 참가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1) 참가자들의 심리적인 특성

참가자들의 특성은 참가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제출한 셀프저널 가운데 (1) 치료 받기 전의 마음 상태와 (2) 자신의 핵심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약돌〉 자신도 모르게 하급자들이나 동료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과 함께 거친 언어가 나오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기에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누구보다 먼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나팔수〉 다소 생소한 집단을 소개 받아서인지 약간은 호기심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훈련소 입소에서부터 낮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으로 고조된 긴장을 해결 받고자 했다.

〈소나무〉 부대에 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군대라는 특수 환경에 얽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짜증을 해소하고 싶어 했다.

〈병아리〉 전역이 가까워지면서 복학과 함께 서서히 느껴지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운동장〉 내가 맡은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일에 실수를 하면 눈치를 주는 사수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의 패턴대로 군 생활을 하고 싶다.

〈목련화〉 나는 꼼꼼한 성격이고 어떤 일에 확신이 있어야 에너지가 발동하는 편이다. 지금은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사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부대원들이 무섭고 다가서기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을지?

〈비둘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생각이나 행동이 약간 느린 편이다. 그래서인지 나와 적성이 맞지 않은 직책을 받고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나를 보는 중대원들에게도 미안함과 함께 걱정이 되어 도움을 받고 싶다.

〈비행기〉 지금까지는 부대에서 주어진 임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전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적성관계로 새로운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온다. 중대장님이 이 집단을 추천해서 참여했다.

2) 참가자들의 치료 경험과 변화

참가자들의 치료 경험은 참가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제출한 셀 프저널 가운데 (3) 치료과정에서의 마음의 역동 (4)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한 통찰과 참가자 평가서 중 자신의 행동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조약돌〉 마음과는 달리 나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동료들이나 후임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면서 말이 거칠어짐을 느끼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을 하는 중 이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석하기 좋았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경험이 부족해서 오늘날 이런 내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계급이 낮은 후임들과 진행된 시간들이었지만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자신들이 가진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이웃을 보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팔수〉 훈련소 입소부터 따라오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과 긴장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한참동안 사실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서도 느끼지 못한 안전감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커다란 동질감을 발견했고,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소나무〉 부대에 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날까를 나누면서,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어 했을 생활관의 선배들을

에게 미안함과 속스러움이 밀려왔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더 부드러움을 보여줘야겠다.

〈병아리〉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전역하게 되는 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느꼈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도 설친 경우도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 내게만 있는 재능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곳곳하게 밀고 나가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앞으로는 고민할 시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준비를 해야겠다.

〈운동장〉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기만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면서 조그마한 일에 실수를 하면 꾸중을 퍼붓는 사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수를 오히려 내가 포용하면 그도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목련화〉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사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부대원들이 무섭고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자 참석자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조금만 참고 가자며 포용과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서인지 감사와 자신감을 얻었다.

〈비둘기〉 나와 적성이 맞지 않은 직책으로 적응이 빨리 되지 않아 다른 부대원들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는 창피했는데 〈목련화〉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비슷해서인지 그가 참가자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나도 같이 힘이 되었고, 나에게도 주는 치료와 피드백이 커다란 지원군으로 느껴져 빨리 적응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비행기〉 전역 후 전공학과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

다 보니 때로 선배 고참들이 보기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중대 장에게 알려 상담을 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소개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석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힘들어 하는 후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표 4-1〉 집단 진행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 집단경험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각 사항을 5점 척도로 나누어 평가해 주십시오.

집단 진행자와 관련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2	중간 이다 3	그렇다 4	아주 그렇다 5
1	오늘 집단 진행자와의 관계가 편하게 느껴졌다.		▪		▪▪ ▪	▪▪▪
2	집단 진행자가 나의 감정에 귀 기울였다.			▪	▪	▪▪▪▪▪
3	집단 진행자가 집단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 같았다	▪▪▪	▪▪	▪	▪▪	
4	집단 진행자가 나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	▪▪▪▪	▪		
5	오늘 집단 진행자의 행동에 대해 신뢰감이 들었다.				▪▪▪	▪▪▪▪▪

▪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표시한 통계이다.

셀프저널과 〈표 4-2〉 집단 치료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치료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난다. 이런 이유는 집단 심리치료를 시작하면서 관계형성을 위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과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 심리치료자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로 생전 처음 집단 안에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치료 받기로 자원한 것이다.

〈표 4-3〉 참가자들의 치료경험과 변화

번호	별칭	핵심문제	치료경험과 변화
1	조약돌	언어가 거칠음	어려서부터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경험이 부족해서 언어가 거칠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울적이며 주고받은 지지와 격려가 이전에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큰 힘이 되었다.
2	니팔수	부대적응에 대한 불안	훈련소에서부터 느끼던 불안감이 이번 집단 경험을 통해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3	소나무	염매임에 대한 짜증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 때문에 힘들어 했을 생활관의 선배들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	병아리	진로에 대한 불안	전역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깨끗하게 밀고 나가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5	운동장	사수에 대한 분노	이 과정을 통해 조그마한 일에 실수를 하면 꾸중을 퍼붓는 사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런 사수를 오히려 내가 포용하면 그도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6	목련화	부대적응에 대한 불안	집단 참가자들의 격려와 포용은 내게 많은 위로와 자신감을 갖게 했다.
7	비둘기	주어진 과업에 대한 불안	적성이 맞지 않은 직책으로 매사에 짜증과 열등감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고참들로부터 받은 경험과 방법들은 큰 힘이 되어 지원군으로 느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8	비행기	진로에 대한 불안	전역 후 전공학과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되고, 힘들어 하는 후임들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들의 셀프저널과 평가서를 종합하면, 집단 심리치료에 처음 참여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긴장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첫 시간에 가진 오리엔테이션과 분위기 조성으로 시간이 갈수록 집단

에 흡입되어가는 흥미도와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실내장식을 통한 분위기 조성과 풍성한 간식 그리고 휴식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준비한 것들이 집단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위해 군중 형제의 숨은 공로가 컸다.

5. 요약 및 결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모든 성장발달과정에서 주어진 과제가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 작용하는데 지금까지의 생활양식과 전혀 다른 군복무라는 집단생활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트라우마이다. 이 트라우마는 개인적으로는 군 생활 부적응이라는 장애물이지만, 부대적으로는 전투력 향상에 심적인 에너지를 앗아가는 싱크홀(sinkhole)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란 제도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치료를 하게 된 배경은 사단 군중장교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사령부에서 실시하는 그린캠프도 있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수시로 대대 지휘관들과 소통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상담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부대차원에서 본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진행은 부대의 협조를 받아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부대 근무 시간에 맞추어 진행했으며, 사전 준비와 진행을 위해 군중형제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통해 보조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대 관계자들로부터 사전에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집단을 진행하면서 이 사실은 비밀 유지를 했고, 참가자들도 집단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비밀을 준수하기로 약속하며 개인들로부터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나누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대로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로 인한 부대생활의 부적응 문제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적성과 다른 직책으로 인한 갈등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지휘관의 통솔방향에 맞추어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표면화하여 해결하므로 낯선 부대 생활과 주어진 직책에 대한 적응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집단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평가서와 치료 이후의 셀프저널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저항이 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어릴 때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상처들을 나누면서 계급을 떠나 순수한 관계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상급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에 막 전입해 와서 힘들어 하는 하급자들을 동생과 친구처럼 여기며 부대 적응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았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부록 1.

참가자 평가서

성명 : _____ (남, 여) 별칭: _____

일시 : 년 월 일

* 오늘의 집단경험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각 사항을 5점 척도로 나누어 평가해 주십시오.

◆ 집단 치료자와 관련된 사항들 ◆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오늘 집단치료자와의 관계가 편하게 느껴졌다.
2. 집단치료자가 나의 감정에 귀 기울였다.
3. 집단치료자가 집단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 같았다.
4. 집단치료자가 나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5. 오늘 집단치료자의 행동에 대해 신뢰감이 들었다.

◆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들 ◆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지난 시간 이후로 집단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다.
2. 오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털어 놓았다.
3. 오늘 집단에서 내적으로 깊이 관여한 느낌이 든다.
4. 오늘 집단에서 나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5. 오늘 집단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
6. 오늘의 집단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7.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
8.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공감되었다.
9. 오늘 다른 참가자들이 가깝게 느껴졌다.
10. 집단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을 대하기가 편해졌다.

ABSTRACT

A Study on the Group Psychotherapy of Soldiers through Psychodynamics Theory

Sang Chul Yo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oldiers of interest at the request of the unit commander who was serving as a military missionary.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was to prevent accidents and improve combat power through harmony between comrades at the request of the commander, but the researcher decided to operate the group, including individual problems.

The reason was that the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were convinced that the wounds trapped inside themselves would be healed and recovered, and that military life would be transformed into active and spontaneity.

For this purpos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mmander, the entire day was focused on working hours from Monday morning to Friday morning, and in order for the group to operate efficiently, there was sufficient orientation on group psychotherapy in the first hour.

This included training on preferred aliasing, rules to be followed by participants, and the language of the chest and body recognized through sensitivity training.

As a result, as expected, the participants had a lot of resistance at first, but as time went by, they opened their minds and shared the wounds they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as a child, and had time to understand, sympathize and encourage each other.

Through this time, participants have self-leadership that leads their lives responsibly and lead their lives through active and active attitudes in the current situation.

Key Words

Group Psychotherapy of Soldiers, Mental Dynamic

논문 기고자 Email

yoombible@hanmail.net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Missio Dei in Reformation

» 이용락 Ph. D.*

국문초록

본 논문은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을 대변한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의미에서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영혼 구원과 사회참여를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따라서 'Missio Dei'는 다음과 같은 선교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첫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인간의 노력과 결실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에 기초한다(요 3: 16; 요일 4: 8). 둘째, 선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구원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선교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행 16: 14).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시도들을 거짓이다. 넷째,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수행된다.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의미는 선교 사역의 목표가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중심단어

대위임령, 선교, 하나님의 선교, 세속화, 인간화, 세계교회협의회, 로잔언약

• 논문 투고일: 2022년 8월 18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5일

* 충신대학교 선교학, 열매맺는교회

1. 들어가는 말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적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복음화를 가속시키는 선교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왔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선교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깝게 만들며,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들은 더 성숙한 사역자로 만드는 일이다.¹⁾ 따라서 선교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역이다. 성경을 신앙과 신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는 선교 사역을 매우 중시한다. 선교의 방향과 실천 형태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날 선교에 대한 정의는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Missio Dei 개념에 근거하여 선교를 사회정의와 구조악 제거로 보는 에큐메니컬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시켜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 인간의 역할과 결심을 중시한다. 또 다른 하나는 Missio Dei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 설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으로 이해하는 개혁주의 관점이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선교 사역에 있어 개인의 회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1) Howard Hendricks, *Standing Together*, Sisters: Multnomah Books, 1995; 박경범 역,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서울: 디모데, 1996), 13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issio Dei에 대한 WCC(World Council of Churches)와 개혁주의의 신학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개혁주의 선교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Missio Dei에 대한 이해

Missio Dei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며, 1934년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칼 바르트의 삼위일체 교리와 선교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독일 신학자 게오르크 비체돔(G. F. Vicedom)은 그의 저서 『The Mission of God』을 통해 이 용어를 확산시켰다. 비체돔이 주장한 Missio Dei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며 실행자라는 논지에서 출발했다. 이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는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²⁾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Missio Dei에 대한 이해는 복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컬 신학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으로 화란의 선교 신학자인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가 주장한 Missio Dei 개념이다. WCC 선교부 총무였던 호켄다이크는 1952년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MC)에서 “Why Mission?”이라는 발제를 통해 Missio Dei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도구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선포(kerygma), 교제(koinonia), 봉사(diakonia)의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2) Wright,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VP, 2006), 63.

주장했다. 그는 선교란 선교지에 서구교회 문화를 이식하는 교회화나 기독교 세계화가 아니고, 교회를 넘어 세상 한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역사의 종말에 그분이 완성하실 살롬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³⁾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아닌 다른 방식이나 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인 하나님→교회→세상의 패러다임은 이제 하나님→세상→교회로 바뀌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선포와 교제 그리고 봉사를 통해 종말론적인 살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Missio Dei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⁴⁾

하지만 호켄다이크의 주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시하여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무시했고,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모두 이 세상의 역사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켰으며, 더 나아가 세속화(secularization)와 인간화(Humanization)를 선교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3. WCC와 Missio Dei

Missio Dei가 행해지는 무대는 세상이며, 교회의 임무는 인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살롬이 성취되도록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

3)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서울: 이레서원, 2008), 120.

4) 호켄다이크의 Missio Dei 개념은 1963년 WCC 세계선교와 전도분과 대회(멕시코)에서 막스 워렌(Max Warren)이 제기한 '그리스도인의 현존(The Christian Presence) 개념과 결합하여 전통적인 개종선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선재적 은총(Prevenient Grace)을 인식하여 복음선포 없이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극단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Rodger C. Bassham, *Mission Theolog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74.

해 노력하는 일이라는 호켄다이크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통적인 선교개념을 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켄다이크의 이러한 선교사상은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선교협의회(WCC)가 통합됨에 따라 점차 WCC 활동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제3차-제5차 WCC 선교대회였다.

1) 제3차 WCC 선교대회(뉴델리, 1961)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세계선교협의회(WCC)와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1958년 가나(Ghana) 총회였다. 그리고 그 결의가 완성된 것은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제3차 WCC 선교대회였다. 제3차 WCC 선교대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었다. 이 선교대회에 대해 몇몇 선교학자들은 IMC와 WCC의 통합이 아니라 IMC가 WCC에 흡수되었다고 비평한다.⁵⁾IMC와 WCC의 통합으로 1910년에 태동하여 1921년 탄생했던 IMC는 출범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IMC와 WCC의 통합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된 제3차 WCC 선교대회는 Missio Dei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한 결과 선교의 정의를 사회 참여라 선포하여 교회의 세속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3차 WCC 선교대회는 1부 증언(Witness), 2부 봉사(Service), 3부 연합(Unity)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Missio Dei는 1부 증언(Witness)과 2부 봉사(Service) 시간에 주로 다루어졌다. 토의 내용을

5) 조동진, 『세계선교 트렌드 1900-2000 상』 (서울: 아시아 선교 연구소, 2007), 447.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

1. 오늘날의 선교는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 사회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복음은 모든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시대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선교방법은 기존의 방법을 극복해야 한다.
3.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교회는 인간의 보다 개선된 삶을 위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기술 혁명과 발전은 인간의 빈곤과 질병, 비참함을 초래했다. 따라서 교회는 이를 직시하고 선교를 통해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4. 교회는 국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맞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
5. 교회는 갈라진 세계 속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평화운동과, 반전운동, 비무장운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디아코니아(diakonia)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뉴델리 선교대회는 선교를 정치, 사회적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 Missio Dei 개념이 인간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2) 제4차 WCC 선교대회(웁살라, 1968)

제3차 WCC 선교대회가 선교가 인간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했다면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렸던 제4차 WCC 선교대회는 세속화를 위한 선교의 갱신(Renewal in Mission)을 강조했다. 제4차 WCC 선교대회 주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 5)였다. 이 대회는 크게 6개 분과로 진행되었는데, Missio Dei는 2분과인 선교의 갱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토의된 핵심은 지

6) 조동진, *Ibid.*, 468-469.

금까지의 선교가 개인의 회개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사회변혁을 위한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선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성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부각시켜 인간화가 곧, 선교의 목표라고 정의한 것이다. 제4차 WCC 선교대회는 세상을 파괴하는 범세계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인간화가 선교의 지상명령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⁷⁾

1. 세계는 참 인간성을 파괴하는 세력의 위협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온전한 인간성으로 인간들을 성장하게 하고 갱신시키기 위한 부름이다.
2. 인간은 하나님에 주신 순종과 책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권을 착취로, 조화를 대결로, 그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공포와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새 인간이시다. 부활로 새로운 인간성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고 역사의 최종 목표가 보장된다.
4. 새로운 인간성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다. 우리는 옛 인간의 잘못된 삶과 험소한 삶을 뜯어내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실제적인 자세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삶은 사회를 위하여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5. 선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함으로써만 열매를 맺게 된다. 새로운 인간성은 인류의 모든 것을 위한 봉사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결시킨다.
6.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비신앙인과의 만남은 대화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겸손한 접촉일뿐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인간문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함께 증언할 수 있다.

7) 조동진, 『세계선교 트렌드 1900-2000 하』, 71-72.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완성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직책의 은사를 주셨다. 각자가 그 자신만의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하여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사역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와 그 공헌을 이해해야 한다.

한 마디로 제4차 WCC 선교대회는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모든 집단과 연합하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갱신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교회가 부패한 권력과 사회와의 투쟁에 비기독교적인 세력과 연합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선교영역을 지나치게 세속화시켰다. 따라서 읍살라의 선교갱신 선언은 선교의 탈선 선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교회의 사회참여 선교개념은 1970년대 남미의 해방 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 태동에 이론적 발판이 되었다.⁸⁾

3) 제5차 WCC 선교대회(나이로비, 1975)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제5차 WCC 선교대회는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열린 선교대회였다. 아프리카는 오랜 기간 서구 세력의 식민통치를 받은 가난한 땅이었고, 노예로 수탈된 땅이며, 흑백 인종차별 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는 대륙이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세계적인 선교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 선교대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Jesus Christ Frees and Unities)였다. 주제가 표현하듯이 제5차 WCC 선교대회의 초점은 인간 해방에 있었다. 이 선교대회는 크게 6개 분과로 구분하여 주제를 논의했는데, 결의된

8) 조동진, *Ibid.*, 75.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즉 개종이 없는 선교는 무의미하다. 회심은 총체적인것으로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선교는 온 교회가 온 세계와 온 인격에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다.
2.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추구하기 위한 교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3. 대위임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혼합주의는 배척되어야 한다. 복음은 공동체를 창설하는데 단순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타종교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타종교인과의 공동체 추구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타종교인들의 영성을 인정하고 서로 영성을 나누어야 한다.
4. 교회는 격심한 고통과 분열의 세상에서 인간성, 정의 개방성, 자유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 받았다. 따라서 선교는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문화에 매이지 않는 목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이다.
5.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난한 사람들, 압박당하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하신다. 구조악과 해방투쟁에 있어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
6. 교회는 청지기로서 인간의 공통, 사회갱신의 요구, 인간관계의 회복, 정의로운 사회건설같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계 파괴와 비인간화를 촉진하는 잘못된 개발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개발이다.

제5차 나이로비 WCC 선교대회는 개종 선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제3차 뉴델리 선교대회와 제4차 읍살라 선교대회와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선교에 있어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공식적인

9) WCC, “Section 1: Confessing christ Today”, in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ed., David Paton (Grand Rapids: Eerdmans, 1976), 57-97.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이다. 하지만 타종교의 영성을 인정하고 그 영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혼합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교의 목표를 사회 구조악 해결과 불평등 해소, 인간의 해방에만 지나치게 집중시켜 선교의 개념을 왜곡시켰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구조악 해결을 통해 인간의 해방이 선교의 목표이자 구원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던 해방신학을 적극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⁰⁾

이러한 에큐메니컬 진영의 Missio Dei 개념은 복음전파와 사회활동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정치적, 경제적 해방운동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¹¹⁾ 제5차 WCC 선교대회 결정은 내부에서 조차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WCC 총무였던 스티븐 니일(Stephen Neil)은 “해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수에 의해 결국 힘을 잃고 말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issio Dei에 대한 WCC의 개념은 인간의 실상을 영적인 관점보다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Missio Dei에 대한 WCC의 접근은 인간의 본질적 측면, 즉 죄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사회 구조악을 제거한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

10) 이 같은 결정은 1973년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WCC 세계선교와 전도분과 대회에서 Missio Dei를 경제 정의구현과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인간소외에 대한 결속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WCC, *Bangkok Assembly 1973* (Geneva: WCC, 1973), 88-89.

11) 김성욱, 『개혁주의 선교신학』 (서울: 이머징북스, 2013), 190-191.

12) Stephen Neil,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Vol. 89 (1975), 230.

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¹³⁾ 실례로 국민소득이 높고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부조리는 더 심화되고 인간의 죄는 계속 확산되어 갈등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성경은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왜곡된 문화와 타락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감을 가르친다. 따라서 선교의 과정과 결과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선교의 본질을 포기하는 일이다.

4. 개혁주의와 Missio Dei

비체독의 Missio Dei는 크리스토퍼 라이트(C. Wright)의 성경적 해석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라이트는 성경적 관점에서 Missio Dei를 정의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근거로 선교를 해석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파송하신다고 말한다. 이것은 복음증거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선교로 설명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고, 온 이방나라들을 끌어들이실 것이라고 언급한다.¹⁴⁾

따라서 라이트의 선교사상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선교의 통일성과 선교의 권위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 성취됨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적 산물로 이해한다. 라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구원행위를

13) 칼빈은 보통은 총 안에 있는 인간의 재능, 예술, 과학 등은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7), 277.

14) Wright, *The Mission of God*, 23, 48, 57.

강조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트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Missio Dei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¹⁵⁾

이러한 라이트의 Missio Dei 사상은 복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을 비롯해 존 스토틀(John Stott)에게 계승되어 제1차 로잔선교대회(Lausanne Covenant, 1974)에서 구체화되었다¹⁶⁾. 특히, 스토틀는 로잔대회에서 복음전파를 교회의 우선적 사명으로 인정하면서도 문화명령을 선교와 연결시켜 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의무이자 말씀과 행위의 관계로 규정했다.¹⁷⁾ 로잔선교대회는 전체 15개의 주제를 논의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1. 하나님의 목적(The Purpose of God)
2. 성경의 권위와 능력(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Bible)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The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Christ)
4. 전도의 본질(The Nature of Evangelism)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6. 교회와 전도(The Church and Evangelism)
7. 전도를 위한 협력(Cooperation in Evangelism)
8. 교회의 선교 협동(Churches Evangelistic Partnership)
9. 복음전도의 긴박성(The Urgency of the Evangelistic Task)
10. 전도와 문화(Evangelism and Culture)

15) 배춘섭, “성경적 상황화를 위한 Missio Dei의 재고,” 『개혁논총』 통권 51권 (2020), 261.

16) 로잔대회의 공식 명칭은 Lausanne Covenant이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로잔선교대회라고 부른다.

17) 김성태, *op. cit.*, 123.

18) 조동진, 『세계선교 트렌드 1900-2000 하』, 195.

11. 교육과 지도력(Education and Leadership)
12. 영적 싸움(Spiritual Conflict)
13. 자유와 핍박(Freedom and Persecution)
14. 성령의 능력(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5. 그리스도의 재림(The return of Christ)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논의는 전도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교회와 전도, 전도와 문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졌고,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전도의 본질(The Nature of Evangelism)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위이다. 복음을 통해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교회와의 협력,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¹⁹⁾ 이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든 행동은 선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선교를 개인구원과 사회참여를 분리시키지 않고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스토틀의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 ‘총체적’이라는 용어는 선교사명에 있어서 전도와 문화명령, 즉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2)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다. 따라서 그

19) 조동진, *Ibid.*, 197.

리스도인이 사회 정의와 인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참여가 전도는 아니다. 아울러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²⁰⁾ 이 항목은 선교를 사회참여만으로 해석하는 WCC의 입장에 대한 반박임과 동시에 선교의 영역을 지나치게 교회설립으로만 이해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기에 차별과 편견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시하는 극단적 분리주의에 대한 개혁주의 선교학의 입장이기도 하다.

3) 교회와 전도(The Church and Evangelism)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에 보내신다. 따라서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전도이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기에 교회가 복음을 배반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의 장애물이 된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책임이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²¹⁾ 이 부분에서 로잔언약은 선교의 목적이 인간화라고 주장하는 WCC의 입장에 대해 선교의 목적은 복음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로잔언약은 선교에 있어 매개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오로지 교회만이 선교

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과 또 하나는 선교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부인하는 두 극단적 선교개념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4) 전도와 문화(Evangelism and Culture).

문화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문화의 어떤 부분은 아름답고 선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었고 어떤 문화는 악마적이다. 복음은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선교가 복음을 가장한 이질적인 문화를 전파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선교는 문화에 메이기보다는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 문화를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²²⁾ 이러한 주장은 선교가 인본주의를 벗어나 문화를 변혁시키는 성경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로잔대회는 성경적 개념의 선교 기초가 무엇이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혁주의 선교신학은 로잔대회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Missio Dei가 총체적 선교를 지향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 방법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Missio Dei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다중적이고 다면적 문화 속에서 인류의 구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²³⁾

20) 조동진, *Ibid.*, 197-198.

21) 조동진, *Ibid.*, 198.

22) Ralph D. Winter & Lesslie Newbig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Publishers, 2009; 정옥배 역, 『퍼스펙티브스1』 (서울: 예수전도단, 2010), 816.

23) 배춘섭, *op. cit.*, 262.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issio Dei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의미에서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영혼 구원과 사회참여를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에 감당하도록 위임하셨다.²⁴⁾

선교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이기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사회구조, 부패한 권력과 마주칠 때가 있다. 하지만 선교의 목표는 이러한 사회구조와 권력을 제거하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함으로써 인간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타락과 부패의 끔찍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교이다.²⁵⁾ 따라서 불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움으로 선교 사역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일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시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다.

선교를 위해 교회를 부르고, 세우고, 세상으로 보내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²⁶⁾ 따라서 Missio Dei는 다음과 같은 선교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첫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선교는 인간의 노력과 결실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에 기초한다(요 3: 16; 요일 4: 8).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우선순위에 두며,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는 일임을 의미한다(행 16: 14).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선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는 일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행 4: 12).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시도들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수행된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특별한 도구이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중심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역의 기능적인 연합을 위해 선교사의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선교적 교회로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마 28: 19; 행 1: 8). 따라서 교회는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해

24) 고광석, 『개혁주의 선교신학과 문화론』 (서울: 도서출판 연크, 2018), 203.

25) Ralph D. *op. cit.*, 342.

26) 최형근, “선교적 교회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한국적 적용에 관한 소고,” 『현대선교』 통권 14권 (2021), 174.

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세속화와 인간화의 장해물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Missio Dei in Reformation

Yong Rak Lee

From a point of view in reformation, the mission of God aims for two goals: salvation of individual souls through evangelism and change of the world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in the sense of carrying out mission of the Trinity God. God consigned this holy work to be handled by the church which Jesus Christ built with the Holy Spirit. It is the Trinity God who calling church, building church, and sending church for the world mission. Therefore, Missio Dei have to keep with the following missionary principles.

First, the subject of mission is the Trinity God. Mission is not a human activity made up of human effort and fruit. Mission is based on God's infinite and complete love. Therefore, mission should prioritize God's will and calling. Also, mission should not be arrogant when bearing the fruit of salvation, not frustrated and not ashamed when suffering. Second, mission is done sovereignly by the Trinity God. This means that the mission which establishes the church for the salvation ministry is not people, but the Trinity God. We don't lead the glorious mission of God, but participate. Third, Jesus Christ is the only salvation. The fact that mission of God to call the scheduled in Jesus Christ means the gospel is the only truth for salvation. No matter how fast and diverse the times change, all attempts to transform the gospel are false. Fourth, mission is carried out through the church. It means that the goal of



mission should be to establish a church and preach the gospel in the world.

Jesus ordered his disciples to go out to the whole world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erefore, the church must play a role as a tool for mission, which fully fills everything. In addition, the glory of God which will emerge through the expansion of kingdom of God is the priority of mission. And mission is aim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So, we must be willing to obey the missionary order of God. In this sense, Missio Dei should focus on the Bible.

Key Words

The Great Commission, Mission, Missio Dei, Secularization, Humanization, WCC, Lausanne Covenant

논문 기고자 Email

lyrak1009@hanmail.net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¹⁾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vercoming the Ju-Che Ideology and Accepting the Gospel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rom Military Officials

» 이은성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군인 집단을 대상으로 복음 수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중요한 미시적 접근 방안과 거시적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의 제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체험의 성질'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체험의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논제에 관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내어 이를 제안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체험의 본질 탐색에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여 향후 통일시대에 북한군의 복음화, 더 나아가 북한 전역의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중심단어

북한이탈주민, 주체사상, 북한선교, 통일선교, 북한군 간부 출신

1) 이 논문은 논자의 다음 줄고를 축약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2년.

- 논문 투고일: 2022년 9월 1일
- 1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1일
- 2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5일
- 3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13일
- 4차 논문 수정일: 2022년 9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9월 14일

* 30기갑여단 필승교회 담임목사,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전문위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복음 수용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무신론과 정반대가 되는 기독교를 수용하는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복음 수용은 기독교인이 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역동성을 띤 과정이자 체험이다. 현상학 연구는 이와 같은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중에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고, 실존적 체험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에 의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는 ‘반 마넨’(Max Van-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²⁾ 반 마넨은 이러한 현상이 갖는 본질 및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험적 공간, 체험적 신체, 체험적 시간, 체험적 관계, 즉 공간성, 신체성(몸성), 시간성, 관계성이 조합되어 구성된 생활세계를 길잡이로 삼아서 현상을 파악해야 함을 역설한다. 한 개인의 생활 속 체험이라는 것은 공간성, 신체성(몸성), 시간성, 관계성의 유기적 연결 속에 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구분해 바라볼 수는 있으나 분리할 수는 없다고 한다.³⁾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군 간부 출신의 경험을 신체성(corporeality), 공간성(spatiality), 시간성(temporality), 관계성(relationality)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

2)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177.

3) *Ibid.*, 157.

면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통일 시대에 북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군인 집단을 대상으로 복음 수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미시적 접근 방안과 거시적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논자는 논문 수행을 위해 다음의 질문을 해명하여 북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군인 집단을 대상으로 복음 수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어떠했는가? 둘째, 무엇이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는가? 셋째,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 극복 과정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이로온 점은 무엇이었는가? 넷째, 북한군에게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특히 북한군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필수적 기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⁴⁾ 따라서 통일시대에 북한 전역의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복음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⁵⁾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가 북한군 간부

4) 박요한·이현주,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 통치이념의 철학적 기초와 집단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4(4) (2017), 5-39.

5) 북한군 간부란 한국군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2022년 한국군은 병사의 계급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로 일반 육군 병사의 경우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병사의 군복무 기간이 10년이며 계급은 한국의 용사라는 계급을 북한에서는 ‘전사’라고 부르고, 한국의 부사관 계급을 북한에서는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하급 병사부터 중사 및 상사로 분대장을 하고 전역을 한다. 즉, 한국의 국군에 빚대어 생각해 보면 부사관 계급까지가 북한에서는 병사의 계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군 간부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병사가 아닌 한국 국군의 경우 용사, 부사관이 아닌 ‘장교’에 해당한다. 북한군에서는 군관이 북한군 간부에 해당한다. 북한군 군관은 오랜 군복무 가운데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고 또한 사상 교육을 타인에게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출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연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북한군 간부 출신이면서도 탈북 후 기독교를 수용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목회자 또는 중직자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제안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 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후 어떻게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한국 교회에서 복음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복음 수용 과정에 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 사례는 매우 드문데, 유사 연구로서 권오성과 하충엽의 연구, 박병애의 연구, 이재관의 연구, 임재환의 연구 등이 있다.

권오성과 하충엽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이후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해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부류의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해 사례연구를 수행했다.⁶⁾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을 받은 목회자의 출신이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복음의 상황화를 통해 회심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교하는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각각의 참여자의 삶을 인터뷰하고 탈북과정과 그 가운데 복음을 수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회심한 이유 등 지금의 삶까지 광범위하게 사례를 탐

6) 권오성·하충엽, “복음의 상황화 신학 관점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회심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53 (2021), 45-79.

구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며 특별히 북한 출신 목회자와 조선족 출신과 남한 목회자를 만나 영향을 받으면서 복음의 상황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복음의 상황화란 나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환경과 상황을 깊이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게 촉구하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황화 신학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 제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 ‘원 코리아 드림’(One Korea Dream)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콘텐츠와 남한을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각종 방송 매체에 올려놓고 이를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통일이 된 후 북한에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미리 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이 회심하고 그 회심의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병애는 북한이탈주민 목회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해 생애사 분석을 통해 복음 수용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⁷⁾ 이들은 ‘멘델바움’(Mendelbaum)의 생애사 분석방법인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 영역에 맞춰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생애

7) 박병애,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사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개별적 생애사에서 공통적 주제를 도출하여 랍보의 7단계 회심이론을 토대로 복음 수용성을 재차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 공통 주제로 ‘체제 모순 속에서 자기 꿈의 유보’ 등 5가지 주제를 도출해 제시하였고, 삶의 전환점에 있어 공통 주제로는 ‘코나투스에 의한 탈출’ 등 5가지 주제를 도출해 제시하였으며, 삶의 적응에 있어 공통 주제는 ‘북한과 중국에서는 약자로서의 은폐전략’ 등 7가지 주제를 도출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애사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복음 수용이 ‘맥락’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기아, 자유의 제한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거쳐 중국에서는 주체사상의 내재적 모순 및 기독교적 관찰을 통한 통찰에서 비롯된 ‘추구’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체험으로 이어지는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중 목회자가 된 연구 참여자 5명의 개별적 삶의 사적 이야기를 사회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을 시도한 생애사 연구 방법론을 국내 연구 중 최초로 적용하여 복음 수용성의 구체적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관은 기독교 북한이탈주민 20명을 결정적 사례 표집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로 삼고 주체사상 극복과정을 사례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하였다.⁸⁾ 분석은 구술 자료를 줄 단위 분석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로 다시 개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개념들을 공통

8) 이재관,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체사상 극복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성과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범주를 구성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범주들을 주체사상의 무비판적 몰입 단계, 회의 단계, 주체사상의 해체 단계, 자유인으로서 자기 재구성의 단계로 나누어 기술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체사상의 모순을 발견하고 바르게 성찰을 통해 주체사상 해체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연구 의의로 볼 수 있다.

임재환은 북한이탈주민 20명과 심층 면담을 통해 회심의 요인과 회심의 과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심의 유형을 나누고 회심의 여정을 총체적으로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였다. 개념과 범주를 나누기 위하여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1,242개의 개념과 11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회심의 여정에서 공통점이 드러났다.⁹⁾ 그들은 고난을 경험했으며, 고난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승화 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겨난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명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회심 과정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고난-극복 회심 과정 모형은 한국교회가 그들의 총체적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불신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심 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한 복음 제시 모델을 제시해서 효과적으로 전

9) 임재환, “고난-극복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의 회심 과정 모형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도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 정착, 제도,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도 역사적으로 주체사상을 살펴봄에 철학적 이념이 북한을 통치하는 통치수단이 되는 연구를 통해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과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다양한 관점과 계층의 분석이 필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선행연구 중 북한이탈주민 연구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연구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중, 기독교인, 목회자 등으로 나누기는 하나 그들의 북한에서 배경은 다양하다. 즉 북한이탈주민들 중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 또는 배경에 의해 세분화된 연구 대상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분화된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일반화의 오류의 피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깊은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북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 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현상학이란 특정한 현상을 변형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의 독특함을 그대로 살려서 그러냄으로써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군 간부 출신의 기독교 복음의 수용하는 현상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중 북

한군 간부 출신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회심과 복음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현상학 연구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군에 기독교 복음을 전도할 때 활용 면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북한의 일반 주민의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간부 출신의 기독교 목회자의 복음의 수용은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신앙과 이념 선상에서 가장 큰 폭의 회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온전히 드러내는 현상학 연구가 앞으로 북한 통일연구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원 현황은 33,815명에 달한다.¹⁰⁾ 이는 분명히 많은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북한군 간부 출신인 탈북민은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군 간부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병사가 아닌 한국 국군의 경우 장교에 해당하는데, 북한군에서는 군관이 북한군 간부에 해당한다.¹¹⁾ 이들 북한군 군관은 오랜 군복무 가운데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고 또한 사상 교육을 타인에게 실시한

10)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33,815명이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2년 2월 3일 검색)

11)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3) (2013), 187-211.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¹²⁾ 이러한 군관만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삼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북한군 간부 출신이면서도 탈북 후 기독교를 수용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참여자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찾기 위해 두 개의 기관에 문의를 했다.

먼저 ‘북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 목사)’이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는 분단 70년의 민족 아픔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모임이다. 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의 회복과 더 나아가 열방의 회복을 위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들과 남북한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 목사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중 군관 출신의 기독교인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또한 ‘북한군기독교인회’를 통해 연구 참여자 소개 협조를 구했다. ‘북한군기독교인회’는 “북한군 100만 명에 복음 전할 것”이라는 모토하에 북한에서 군복무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모임으로서 2018년 6월에 창립되었다. ‘북한군기독교인회’의 초대 회장은 북한군 정치장교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심○○ 목사인데, 심○○ 목사는 조선인민군 김일성정치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고 당 간부로서 30년간 북한 군인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북한군기독교인회’의 심○○ 목사를 통해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 중 기독교인을 소개 받았다.

[표 Ⅲ-1]와 같이 최종 4명의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다소 탈북연도가 오래된 연구 참여자

도 있지만 복음이란 단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수용 기회의 시간이 길다고 모두가 복음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또 알아야 한다.¹³⁾ 또한 연구 참여자가 북한에서 군복무를 할 때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에서 김정일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 수혜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개요

구분	성별	출생지	북한군 최종 계급	군복무 기간	군복무 기간 동안 북한 지도자	탈북 연도	교회 직분
참여자1	남	함경남도 부전군	중좌(중령)	14년	김일성 김정일	2004년	목사
참여자2	남	함경북도 김책시	상좌(대령)	18년	김일성 김정일	2012년	안수집사
참여자3	남	평안남도 평원군	중좌(중령)	25년	김일성 김정일	1998년	목사
참여자4	남	함경남도 부전군	소위(소위)	4년	김일성	1977년	목사

주) 본 연구의 논제와 관련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제시함. 계급 항목의 괄호 안 계급은 한국 국군에 상응하는 계급을 표시한 것임.

2) 자료 분석 방법: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에 기초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므로, 이 방법론의 거장인 반 마넨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 마넨의 질적 연구 방법론인 해석학적 현상학은 여러 유형의

12) 한상용, “북한군 병영문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64.

13) 이수미 등,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수용(Self-Acceptance)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조명,”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015), 229-253.

현상학적 연구의 전통과 다양한 유형의 해석학의 전통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을 갖는다.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 방법론에서는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이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¹⁴⁾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글쓰기를 할 때 ‘사려’ 깊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단순히 ‘체험의 성질’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체험의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시도한다. 이와 같이 설명할 때 ‘기술’(記述)이라는 것은 ‘해석’(解釋)에 대립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석의 개념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자가 논제에 관해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석을 행함으로써 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¹⁵⁾

4. 북한군 간부의 복음 수용 과정 분석과 해석

1) 북한군 간부의 복음 수용 과정 분석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모든 경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밀히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체험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동반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탈북’을 결행하고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이겨 낸 격동의 세월 속에서의 체험 또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온전히 녹아내린다.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한 가닥 한 가닥 해체한

뒤 재조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탐색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주제 도출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먼저 깊이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은 자연법칙에 의해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간다. 인간은 지구상에 태어나 죽음에 이르러 하나의 일생을 끝맺는 순간까지 시간과 더불어 삶을 살아 낸다.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과거가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고, 현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 과거는 거대한 분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반면, 현재는 찰나의 순간에 단편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성을 좀 더 확장해 해석하자면, 현재는 찰나의 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후퇴된 과거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거도 거대한 분량 모두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기억해 내고자 하는 어느 시점까지의 과거만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성을 현재 시점에 대응하는 모든 과거가 아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 내기 시작한 시점, 즉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스스로 해석해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과거로 제한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현재는 한국에 입국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몰두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찰나의 순간으로서 존재하는 지금의 시점까지의 시간적 축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개념화한 시간성에 맞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이를 활용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응답을 할 수밖에 없

14) J.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외 4인 공역 (서울: 학지사, 2015), 102.

15) 이계희, “미술치료사의 그림일기 체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구자가 개념화한 시간성에 한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

그다음 공간은 의지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의 이동성에 기초해 형성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해 한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걷거나 뛰거나 헤엄치거나, 기타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공간을 이탈해 다른 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시간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공간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의지와 함께 형성된다. 특정 공간에 머물러 있던 한 인간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가령 방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면, 목을 축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물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의지를 발동하게 된다. 이렇듯 공간성은 인간의 의지력에 의해 이동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간성의 개념을 북한이탈주민에게 대입해 보면, 북한을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생긴 직후 이것을 결행함으로써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공간의 이동성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앞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중립지)→한국’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중립지’라는 단어가 갖는 개념적 의미는 사상적 체계가 다른 북한과 한국이라는 극단적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중간적 지점으로서의 장소적·심리적 공간을 뜻하는데, 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이탈 과정, 그리고 한국 입국 과정은 제각각인데, 다수의 공간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있지만, 북한

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도 ‘중립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 이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공간성에 있어 ‘중립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중립지’를 거치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 ‘중립지’를 거친 연구 참여자들 이들 모두의 공통된 경험을 탐색해 낼 공간성의 개념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공간성을 ‘북한, 중립지, 한국’으로 세분하였지만, ‘중립지’의 경우에는 심리적 개념을 가미하여 북한과 한국의 체제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 있는 시기, 즉 북한의 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한국의 체제에 아직 동화되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갈등 속에 머무는 모든 공간을 중립지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공간성의 개념을 정립해야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로 온 연구 참여자의 특별한 경험도 본 연구에서 탐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간성을 심리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정립한 공간성의 개념이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는 주제 도출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성과 공간성 외에도 반 마넨이 현상 파악을 위해 제안한 체험적 신체 및 체험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신체성 및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신체성과 관련해 인간의 몸은 일상생활 속 경험을 이뤄내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 이 몸은 단순히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깃든 정신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육체와 정신의 조합으로

인간은 신체성을 발현한다. 생활세계 속에서 특정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고, 이러한 신체활동 중에 인간은 희로애락에 관한 감정을 갖게 되므로, 정신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신체성의 메커니즘(mechanism)을 갖게 된다. 연구 참여자의 시간과 공간을 쫓아가다 보면 신체성은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심리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오래전 과거 시점에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에는 기득권층으로 안정된 지위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막연한 호기심이 의구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북음의 수용을 통해 깨달음의 감정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회복되고 중국에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안정된 심리 상태로 이어진다.

관계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개체로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체험과 관련된다. 인간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타인과의 교류 속에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해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교류는 중요한 맥락적 요소가 된다. 이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시간과 공간을 쫓아가다 보면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이들이 생활세계 속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주 오래전 과거 시점에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에 이들은 기득권층으로서 안정적이고 확고한 신념에 가득 찬 채 오로지 김 씨 일가를 신봉하는 가운데서 일상을 보냈다. 이들의 삶에 있어 아버지 수령은 중요한 관계성을 발현하는 타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북한 체제, 나아가 김 씨 일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북한 체제에

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시기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의지의 대상과 소속의 대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취하게 된다. 그 대상은 하나님에게로 함축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 불과했으나, 북음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하며 진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몰입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시간성·공간성·신체성(심리)·관계성에 대한 개념 정립 후 본 연구는 이 4가지 차원의 순서쌍을 [표 4-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4-1] 본 연구가 정립한 시간성·공간성·신체성·관계성 개념의 순서쌍

구분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심리)	관계성
순서쌍1	아주 오래전 과거 시점	북한	두려움	아버지 수령
순서쌍2	아주 오래전 과거 시점2	북한	호기심, 의심	그(김씨)는 누구인가?
순서쌍3	오래전 과거 시점	중립지	깨달음	의지/소속 대상의 변화
순서쌍4	비교적 최근의 과거 시점	한국	회복	그(하나님)은 누구인가?
순서쌍5	북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현재 시점	한국	평안, 기쁨	하나님 아버지

반 마넨이 언급한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시간·공간·신체·관계는 생각보다 확연히 구분 짓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시간·공간·신체·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 참여자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공통된 경험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공간·신체·관계에 대한 분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더 분석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연구자가 탐색한 시간성·공간성·신체성·관계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그 순서쌍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4-1]의 순서쌍에 기초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들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반복해 검토·분류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 4-2]와 같이 5가지 본질적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각 순서쌍에 대응하는 본질적 주제를 제시하면, 먼저 순서쌍1에 대응하는 본질적 주제는 ‘조국 수호 간성으로서의 확고한 삶’이다. 순서쌍2에 대응하는 본질적 주제는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심리적 균열’이다. 순서쌍3에 대응하는 본질적 주제는 ‘복음의 수용, 단 하나의 기회는 탈주(脫走)’이다. 순서쌍4에 대응하는 본질적 주제는 ‘새로운 환경 속 새로운 일상과 마주하기’이다. 마지막으로, 순서쌍5에 대응하는 본질적 주제는 ‘북한군 복음화 기수로서의 은혜로운 삶’이다.

[표 4-2] 본질적 주제와 하위 주제의 도출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	본질적 주제	하위 주제
과거	북한	두려움	어버이 수령	조국 수호 간성으로서의 확고한 삶	입신양명의 길 위에서
					주체사상은 내 삶의 지향점
					군 간부로서의 사명감의 내재화
↑	북한	호기심, 의심	그 (김씨)는 누구 인가?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심리적 균열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의문
					확고한 삶을 뒤흔드는 심리적 균열
중립지	중립지	깨달음	의지/소속 대상의 변화	복음의수용, 단 하나의 기회는 탈주(脫走)	처음에는 미미했던 복음의 씨앗
					확신 속에 자라난 복음의 생명수
					주체사상의 사상적 해체 단행
					새 삶의 서막, 탈주(脫走) 결심
↓	한국	회복	그(하나님)는 누구인가?	새로운 환경 속 새로운 일상과 마주하기	새롭게 맞이한 환경 속에서 불거진 방향
					그래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나의 소명
현재	한국	평안, 기쁨	하나님 아버지	북한군복음화 기수로서의 은혜로운 삶	4.6: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지혜 나누기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초석 다듬기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최상의 방략

본 연구가 도출한 5가지 본질적 주제별로 하위 주제 또한 2~4개 씩 도출되었다. 각 본질적 주제별 하위 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조국 수호 간성으로서의 확고한 삶’의 하위 주제로는 ‘입신양명의 길 위에서’와 ‘주체사상은 내 삶의 지향점’, ‘군 간부로서의 사명감의 내재화’의 3개 주제이다. 그다음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심리적 균열’의 하위 주제로는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의문’과 ‘확고한 삶을 뒤흔드는 심리적 균열’의 2개 주제이다. 그다음 ‘복음의 수용, 단 하나의 기회는 탈주(脫走)’의 하위 주제로는 ‘처음에는 미미했던 복음의 씨앗’, ‘확신 속에 자라난 복음의 생명수(生命樹)’, ‘주체사상의 사상적 해체 단행’, ‘새 삶의 서막, 탈주 결심’의 4개 주제이다. 그다음 ‘새로운 환경 속 새로운 일상과 마주하기’의 하위 주제로는 ‘새롭게 맞이한 환경 속에서 불거진 방향’과 ‘그래도 이겨 내야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의 2개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군 복음화 기수로서의 은혜로운 삶’의 하위 주제로는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지혜 나누기’,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초석 다듬기’,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최상의 방략’의 3개 주제이다.

2) 북한군 간부의 복음 수용 과정 분석에 대한 해석

본 연구의 참여자로서 북한군 간부로 군 생활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4명이 갖고 있는 주체사상의 극복과 복음의 수용 경험을 심층인터뷰 자료, 인터넷 매체 자료, 저서, 문학작품 등을 통해 경험한 이해를 토대로 해석학적 현상학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여 드러난 5가지 본질적 주제로 이들의 경험을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한 마디로 매우 변화무쌍한 질곡의 삶이었다.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뒤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

화 속에 행복이 깃든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된 고단한 삶의 연속으로 보였다. 탈북으로 인해 가족과 단절된 채 괴로움을 겪는 이도 있었고, 한국의 체제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져 심리적 갈등을 갖고 있는 이도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축복된 소명과 사명으로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루하루의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복음 전파, 통일의 선봉대를 위한 헌신적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군의 복음화가 모든 난제를 해결할 핵심 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전략을 이들은 갖고 있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정을 쏟아 그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본질적 주제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현재 왜 이렇게 열정적 삶을 살아 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 과거 북한에서 조국 수호의 간성으로 확고한 삶을 살던 시절, 누구보다도 북한 체제를 신봉하는 기득권 세력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전력을 다해 일상을 소화해 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열정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내지 특질은 강한 외부 충격에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들은 탈북이라는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열정적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삶에 대한 열정은 때론 강한 도전을 낳기도 한다. 이들의 열정은 내심으로 그토록 신봉하던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때 2차적으로 발현되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누구보다 신뢰

할 만한 인재들이 바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 북한 체제와 신뢰를 기반으로 인연을 맺고 있던 이들이 돌연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들은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이들이 그간 확고하게 유지해 온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반추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반추의 결과는 심리적 균열로 나타났다. 북한 체제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줄 수 없음을 이들은 직감했다. 무엇이 이들을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던 것일까? 연구 참여자들 각자에게 들은 그 이유 및 계기는 다양하지만, 본질적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꼽아 해석을 가할 수 있다. 이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되새김되어 있던 주체사상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철학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이 이들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주체사상은 학문도 아니고 법도 아니며 그들의 삶 자체였다.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주체사상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더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주체사상 교육을 철저히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한국에 온 뒤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둔탁한 것이다. 너무 본질적이었기 때문에 대답할 것이 적었던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한 커리큘럼에 따라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던 이들인데, 그것이 일순간에 잊힐 수 있겠는가? 여전히 이들은 주체사상의 흔적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철학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사상보다 더욱 거룩하게 이들의 생각과 사고, 감정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주체사상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익숙했던 이들이 성경을 접하는 그 순간 지혜의 본질이 성경 안에 있음을 스스로 깨우친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논제를 북한군 간부 출신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의 수용 과정으로 선정했기에 연구 초기 연구 참여자들의 복음 수용 과정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부분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 연구를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심층 인터뷰 과정, 기타 북한 복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광범위하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북한군 간부 출신과 일반 북한이탈주민 간에 복음화 과정에서의 특별한 경험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그 복음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부와 받아들임의 강도 차이는 존재했다. 다시 말해 북한군 간부 출신 연구 참여자들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북한의 주체사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 뒤 주체사상에 속은 경험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 결과 복음을 수용하는 데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더욱 강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 북한군 간부 출신으로 몸에 밴 주체사상과 북한에서 지금까지 믿고 목숨을 바치며 충성했던 것들로

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또 어떠한 대상에 소속되고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컸다. 하지만 수용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 큰 믿음으로 심리적 수용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의 복음 수용 과정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복음 수용 과정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가설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귀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점은 복음을 수용하고 난 이후이다. 북한에서의 여타 직업군과는 다르게 북한군 간부 출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독 다시 북한군을 선교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복무했던 북한군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복음을 수용한 후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자신이 북한군의 간부로 생활하며 치밀하게 군사적 전략을 계획해서 짜고, 항상 선봉에 서서 앞장섰던 기질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남다른 북한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북한군 복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현재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일상이 불러오는 매우 큰 심리적 갈등을 이겨 내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 그 결과 이들은 한국에서의 새 삶에서 불거진 심리적 갈등을 잘 봉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여 받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 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러 소명들 중 이들이 분골쇄신하며 열정을 쏟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복음화였다. 특히, 이들은 북한군 간부 출신답게 북한군의 복음화에 각별한 열정을 쏟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들의 북한군 복음화에 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의 북한군 복음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은 북한군 복음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의 복음화, 나아가 한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도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북한 복음화를 제언한 여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북한군 간부 신분으로서 일반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른 경험을 구분해 내는 미시적 측면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북한군의 복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3가지 제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군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군 간부의 복음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지혜 나누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한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군대 조직 체계의 특성상 북한군 간부의 복음 수용이 북한군 일반 사병의 복음 수용으로 확장되어 북한군 전체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군대라는 특별한 상명하복 조직 체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수령 및 당 유일 체제로 국가

를 운영하기 때문에 계급적 신분 및 사회적 지위의 상·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위계가 뚜렷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위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한 위계 체계가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북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든 군대 조직은 막강한 상명하복의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경향을 띤다. 이 상명하복의 체계가 붕괴되었을 때 군대 조직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군대의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반적 군대 조직의 특성이 북한군에게서도 강력히 나타나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보통의 군인들 상호간에 형성되는 전우애를 뛰어넘는 사적 관계의 친밀성과 내밀함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지혜 나누기’에서 연구 참여자¹은 ‘관병일치’와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 ‘관병일치’란 군대에서 간부와 병사간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북한군은 매우 강조하며 이런 정신 때문에 계급을 뛰어넘어 서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상명하복 조직 체계만으로도 막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적 관계의 친밀성에서 비롯되는 ‘형제애’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북한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상명하복 체계, 군 간부와 사병 간에 형성된 사적 관계의 친밀성 등을 감안할 때 군 간부의 복음화를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 북한군 일반 사병에 대한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에는 북한군 전체의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체계 속에서 리더(leader)로서 주체사상을 강력하게 교육 받았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은 내 삶의 지향점'에서 연구 참여자2는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을 교육받았지만 군대 입대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 받았으며 고급 군관으로 리더가 될수록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이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 보다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더 체계적이며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체계적으로 주체사상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미했던 복음의 씨앗'에서 연구 참여자1이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 묘사하는 장면만 봐도 처음 기독교를 접할 때 주체사상을 교육받은 강도에 정비례해서 강한 반발성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사상적 해체 단행'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북한사회와 군대와 너무 흡사한 게 많아서 믿음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조직에서 리더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끝은 허무와 빠져린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트라우마(trauma)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복음의 씨앗'에서 연구 참여자3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만났을 때 주체사상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성경을 통해 바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을 깊이 교육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상반된 반응을 통해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경우 예상 반

응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복음화에 있어서 선교 전략적으로 북한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지혜 나누기'에서 연구 참여자4는 혁명의 동력, 북한의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핵심 집단을 북한군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군이란 곳의 특성상 젊은 인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고향을 떠나 복무하는 것으로 외롭고 공허하다는 점이 선교에 효과를 크게 한다. 그리고 북한군의 특성으로 본다면, 북한군은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에 기초해 체제 유지의 핵심 세력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절대적 믿음이 무너지고 공허함과 배신감이 그들을 따라왔다.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은 왜곡된 맹목적 믿음에 썼던 열정을 이제 하나님을 전파한다. 또한 그들이 겪었던 북한군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열정이 가득하다. 따라서 통일 선교의 여러 가지 방향과 대상 가운데 지금까지는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북한군의 특수성과 선교의 전략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2는 북한군에 일반 병사들이 10대 후반부터 20대의 호기심이 많은 젊은 층임을 강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군 선교의 장점은 복음의 전파가 가능한 시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군에서 복음화 된 군인들이 제대하면 북한의 각계각층 군중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 선교는 군대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다. 군 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인

원들도 있지만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인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북한군 복음화를 위한 지혜 나누기’에서 연구 참여자3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말하길 모든 문제는 핵심을 건드려야 하는데 북한군이 바로 북한에서 핵심이라는 것이다. 북한 군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분무기처럼 북한 전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받아 들인 성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영향력을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큰 그림으로 통일 선교를 본다면 향후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서도 북한군 선교는 중요하다.

부록

[심층 면담 질문지]

1. 기독교인 되기 전에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 1) 출생 연도와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 2) 군대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나이, 계급, 보직, 복무연수, 복무환경)
 - 3) 군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4) 군관으로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
 - 5) 북한 군인이셨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 6) 주체사상의 핵심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며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살 때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7) 북한 군대에서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육 받았습니까?

8) 북한 군대에서 주체사상을 본인이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 2번, 3번)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separation(분리) 되고 누구와 Binding(연결)이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separation(분리) 되었는지? 무엇이 separation(분리)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는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질문한다.

2. 무엇이 당신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습니까?

- 1) 북한에서 기독교를 접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 2) 중국 등 제3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계기나 사건,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 3)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비슷한 점은 없습니까?
- 4)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가장 믿기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
- 5) 내 운명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3.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극복과정), 또한 이로운 점도 있습니까?

- 1) 북한 체제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생각, 관점, 기준 등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2) 주체사상, 선군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의 모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그것을 깨달게 되었습니까?

- 3) 북한에서 받은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사상교육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 4) 북한 군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데에 있어 어려움 중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부터 해방된 과정과 내용, 여기에 영향을 준 요인(목회자, 교인, 사건 등)은 무엇입니까?
- 5) 한 번에 주체사상이 극복이 되던가요? 아니면 몇 년을 두고 점차적으로 되던가요? 완전히 극복이 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요?
- 6)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셨다면 주체사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북한군에게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 1) 종교와 관련된 북한 군대만의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 2) 북한 군인에 복음 전파(기독교)를 할 때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남과 북이 서류 교류한다면 북한군 복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현재 북한(군)선교를 위해 어떤 노력(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vercoming the Ju-Che Ideology and Accepting the Gospel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rom Military Officials

Eun Sung Lee

This thesis conducted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targeting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former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s. It is aimed at activating the reception of the gospel targeting the military group that makes up the majority of North Koreans in the future age of unification by exploring the meaning of that experience.

To achieve these study objectives, in this study all methodologies of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were applied. The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is done in the form of a proposal by researcher's deriving social value on the topic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of experience' in addition to the description of 'the quality of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was not to conclude with the exploration of the essence of experience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gospel by North Korean refugees from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s, but was intended to draw the implications for accelerating the evangeliz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furthermore the evangelization throughout North Korea in the future age of unification by deriving the social meaning and value of the experience.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Ju-Che ideology, North Korean missions, Unification missions, North Korean defectors from military officials

논문 기고자 Email

dmstjddl27@hanmail.net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 규칙”이다.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30 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30 실천운동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신학연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신학연구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과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신학연구위원회)

1. 구성 : 신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8조 (교육위원회: 군복음화 아카데미)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프로그램 전담(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 기독교준부사관단 수련회)

제9조 (운영방향)

1. 전체회의 : 신학회장이 소집한다.
 -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중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 나. 대주제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Ebook, PDF파일, 책·도서)하도록 한다.
 -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4. 이단 사이버 대책

- 가. 군내 이단 사이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나. 군내 이단 사이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버 기준설정 결의
 -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군선교 정책발전

-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6차개정 : 2021. 3. 17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

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 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와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¹⁾

-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문헌

1) 군선교 논문집 투고자는 반드시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조치 됩니다.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²⁾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 교 출판부, 1998),

2)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 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 」으로, 논문집일 경우 「 」로 표기한다.

97.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 교 출판부, 1998.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N 장종현, 최갑종,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B 장종현, 최갑종,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1)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출자	총면수
제1권	2004.5.30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343면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종 군종목사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예정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김수진 목사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	박기영 군종목사	
		제2권	2004.5.30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김일수 목사	
		다종교 공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이석우 군종목사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이종윤 목사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종목사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김상만 군종목사	
제3권	2005.6.10	귀납적 설교의 비결	곽선희 목사	390면
		기독교 영성과 예배	이종윤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생명윤리와 신앙	채수일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김영철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이규철 군종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유경동 목사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강사문 목사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규철 군종목사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박영관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치모 장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종목사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정두영 목사	
제4권	2006.6.15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곽선희 목사	500면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교회 공동체와 국가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허영식 군종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주연종 군종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박영관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상기 군종목사	
		청중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교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	김광호 목사	
제5권	2007.4.16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이종윤 목사	354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신 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규철 군종목사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영관 목사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언	전호진 목사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제6권	2008.5.8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	227면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정성구 목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이규철 목사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박영관 목사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군종목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제7권	2009.5.20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종윤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진섭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주연중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광순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임낙형 목사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강사문 목사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교백론》의 반향	이규철 목사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박관영 목사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한생현 군종목사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세훈 대위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서민우 상병	
		제8권	2010.10.5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김세광 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권오민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정비호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최희범 목사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강사문 목사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김동연 군종목사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주연중 군종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이규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석우 군종목사		
제9권	2011.10.20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이종윤 목사	309면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강사문 목사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주연중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이규철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김추성 목사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임성빈 목사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김수진 목사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안명준 목사	
		군목과 지도력	안광춘 목사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김동연 군종목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정성구 목사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제10권	2012.10.10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근거와 실제	이종윤 목사	293면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목사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진섭 목사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강사문 목사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목사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안명준 목사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목사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징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오희준 군선교사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현 군종목사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지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군 목사			
제11권	2013.10.30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이종윤, 김대덕 목사	420면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언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정재원 군종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언-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주연종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이규철 목사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강사문 목사	
		ACT(수용전범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김동연 군종목사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안명준 목사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김성봉 목사	
		"여호와와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김진섭 목사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김수진 목사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전호진 목사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언	김상만 목사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집단지중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강찬영 군종목사	
제12권	2014.10.7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393면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I)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I)	최희범 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II)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II)	최석환 군종목사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정성구 교수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폭력에서 사랑으로	안명준 교수	
		군선교를 위한 '뱀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이규철 목사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김상만 목사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훈 전도사	
제13권	2015.10.2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이종윤 목사	390면
		군인권과 선교활동	김일수 장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이규철 목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이승구 목사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강사문 목사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김진섭 목사	
		개혁된 교회	김성봉 목사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최석환 목사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김동연 군종목사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이용락 목사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전요섭 목사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신중훈 전도사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전석원 외 2명	
		제14권	2016.7.28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김진섭 목사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김성봉 목사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이규철 목사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김상만 목사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최석환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제15권	2016.10.6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이종윤 목사	285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안만국 목사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정재원 군종목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역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강사문 목사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오상의 군종목사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김성훈 군종목사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황미선 목사	
		제16권	2017.10.10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김일생 교수	
		구역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강사문 교수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정성구 목사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안명준 교수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이규철 목사	
제17권	2018.10.11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이종윤, 이규철 목사	391면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오덕교 교수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구역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강사문 교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김진섭 교수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이규철 목사	
		PTSD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전요섭 교수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제18권	2019.10.10	병역대제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종윤 목사	432면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김일수 교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정세준 군종목사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강사문 교수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김성봉 교수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전	이규철 목사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전요섭 교수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길원평 교수	
		제19권	2020.11.13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이정숙 교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군종목사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홍창식 변호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수 장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진섭 교수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김선영 교수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전요섭 교수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김진섭 교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탁명진 목사	
		제20권	2021.10.2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전요섭 교수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김아영 교수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강사문 명예교수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이규철 목사			
이아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	김상만 목사			
효과적인 군 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전요섭 교수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제21권	2022.10.25	이 천국 복음	곽요셉	456면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이규철 목사	
		이규철의 논문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이석영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전요섭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담긴 함의	이규철 목사	
		MBTI의 이해와 군상담예의 적용	김상만 목사	
	일반 논문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윤상철 목사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이용락 목사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은성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㉔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2년 10월 25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meak.or.kr>

E-mail _ meak2020@hanmail.net

제작처 _ 쿼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21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목사

위 원: 이규철 목사, 전요섭 교수

담 당: 박종민 팀장

값 15,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